

IN

Y

P

II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책임연구원

김형주

공동연구원

권재기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 책임연구원 :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권재기(중앙대학교·강사)
- ▶ 연구보조원 : 윤경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국가의 아젠다이며 이와 관련한 국책연구기관들의 여러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남북한의 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지속되면서 남북한 혹은 통일에 대한 청소년연구가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추진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4년 들어 정부의 통일대박론이 발표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 그동안의 침체된 관계의 회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여러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분야에서도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절실한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부진했던 남북한 청소년 분야에 대한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 방안을 살펴보고 서로간에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기 위한 연구는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는 청소년들이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를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북한, 북한청소년, 통일에 대한 인식들은 최근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4가지 분야의 정책방안들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청소년 분야에서 어떤 지원과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전국민적인 주요 사안으로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의 변화가 예상되는 크나큰 미래의 변화이기 때문에 청소년 분야에서도 이런 통일에 대비한 정책연구들은 향후 지속되고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앞으로 필요한 여러 통일관련 청소년연구의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미래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는 남북한 청소년들의 향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와 상호이해에 대한 인식, 요구, 전망, 가치, 태도를 파악하고 둘째, 청소년들의 교류 활동 등을 통해 미래 통일 한국의 남북한 상호이해를 촉진할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워크숍, 남북한 청소년 교류, 상호이해, 통일에 대한 인식 관련 실태조사, 정책협의회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실태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2,000명을 층화다단계 표집하여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크게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에 대한 이야기 접근 경로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등 북한에 대한 생각, 둘째, 통일의 필요성과 이해관계, 필요 과제 등 통일에 대한 생각, 셋째, 탈북 청소년을 비롯한 북한 청소년에 대한 괴리감, 이미지, 향후 친교 의사 등 북한 청소년에 대한 생각, 넷째,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교류 필요성, 적절한 교류 영역과 참여의사 등 북한 청소년들과의 교류에 대한 인식, 다섯째, 북한청소년과의 정서적 공감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4개 영역의 정책방안에 대해 정책목표, 정책과제, 추진체계, 소요예산,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총괄적인 시사점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남북한 청소년, 남북한 교류, 남북한 상호이해, 통일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미래 한국 혹은 통일 한국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그 주역이 되는 청소년들의 교류와 통일의식,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상호이해 방안이 마련되어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 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래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는 남북한 청소년들의 향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와 상호이해에 대한 인식, 요구, 전망, 가치, 태도를 파악하고 둘째, 청소년들의 교류 활동 등을 통해 미래 통일 한국의 남북한 상호이해를 촉진할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로서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통일의식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고, 통일교육 및 통일과정과 관련된 정책현황을 고찰하였음
-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세부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로 남북한 교류, 통일의식, 사회통합, 탈북청소년들의 특징과 의식, 둘째로 설문조사지 항목 구성 자문, 셋째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진행하였음. 또한 주요한 문헌고찰과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문가워크숍을 통해 주요 논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토론했음

○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더불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였음. 교육통계 연보를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약 2,000명을 층화다단계확률표집을 통해 조사하였음. 주요 조사내용은 북한 청소년들과의 교류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준비, 기대, 전망에 대한 인식,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 통일 한국에 대한 청소년으로서의 요구, 통일 한국에 대한 청소년으로서의 전망과 역할 등임

○ 정책협의회

본 연구가 통일 한국의 준비와 관련된 정책연구로 추진되기 때문에 남북한 청소년 교류와 관련된 정책적 필요요소 등에 대해 그리고 남북한 청소년들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추진하였음

3. 주요결과

1) 북한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주요 실태

-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에 대해서 ‘있다’는 응답은 81.7%로 ‘없다’는 응답 18.3%보다 높게 나타났음.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매체 경로로는 ‘TV 뉴스’가 57.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수업’(21.8%), ‘인터넷’(9.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로는 부모(36.9%), 학교선생님(29.6%), 친구(28.8%),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15.7%) 순으로 나타났음

-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에 대해서 ‘힘을 합쳐 도와야 할 대상’ 응답이 40.1%로 가장 높고,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위협대상’(21.9%), ‘조심해야하는 대상’(16.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북한 청소년의 이미지로 ‘가난하다’(69.0%), ‘허약하다’(54.1%)는 이미지가 가장 높고,

‘믿을 수 없다’, ‘조용하다’는 이미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는 ‘없는 편이다’라는 의견이 35.3%로 ‘있는 편이다’라는 의견의 27.8%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북한의 생활수준’이 48.4%로 가장 높고, ‘정치’(38.7%), ‘경제수준’(36.5%), ‘북한사회 특성’(33.9%), ‘언어’(26.5%), ‘교육 수준’(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통일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주요 실태

-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73.7%로 ‘필요 없다’는 응답 26.3%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기 위해’(29.3%),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북한 간의 정치 체제와 생각이 달라 사회 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고,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사람들을 도와줘야하기 때문에’(15.6%), ‘현재 상태가 좋아서’(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이익정도로는 ‘북한 이익’이라는 의견이 86.6%로 ‘남한 이익’이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일 이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로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52.0%로 높게 나타났다.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경제적으로 차이나는 문제’가 30.1%로 가장 높고, ‘이념, 사상이 차이나는 문제’(25.6%),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로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26.3%로 가장 높고, ‘전쟁도발이 없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21.0%),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사이의 전쟁 위험정도에 대해 ‘전쟁 위험이 있다’는 응답이 77.2%로 ‘전쟁 위험이 없다’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3) 북한청소년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주요 실태

-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라는 응답이 72.7%로 ‘들어본 적 없다’(27.3%)보다 높게 나타났다. 탈북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측은하고 안타깝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고, ‘가난하고 굶주린 모습이다’(25.0%),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지녀 우리와 별 차이 없을 것이다’(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북한 청소년에 대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33.5%로 ‘친근하게 느껴진다’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로는 ‘언어’ 차이가 7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사고방식’이 75.9%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으로는 ‘담담히 대화하겠다’가 59.9%로 가장 높고, ‘같은 민족으로서 환영하여 대화하겠다’(16.9%),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대화하겠다’(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귀어 의향으로는 ‘친구로 사귀겠다’는 응답이 83.9%로 ‘친구로 사귀지 않겠다’(16.1%)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갖고 있는 호감도 및 친밀도에 대해서는 유럽 청소년이 61.4%로 호감도가 가장 높고, 친밀도는 미국청소년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본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및 친밀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에 대한 주요 실태

-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생각으로는 ‘교류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로 ‘교류에 반대한다’는 응답 12.2%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로는 ‘정부 및 정부기관, 민간차원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가 59.6%로 가장 높고,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가 25.7%로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가 33.2%로 가장 높고, ‘생각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29.9%), ‘안전문제 때문에’(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참여할 의사로는 ‘있다’는 응답은 69.8%로 ‘없다’는 응답 30.2%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관광 및 견학여행’이

3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음악미술 등 예술활동'(21.2%), '스포츠'(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적당한 횟수로는(1년 기준), '연 2회'가 3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수시로'(19.9%), '연 4회'(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적당한 만남의 장소로는 '남한과 북한 번갈아' 해야 한다는 의견이 80.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남한'(10.2%), '판문점(공동경비구역)'(6.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는 '전통문화'가 28.3%로 가장 높고, '연극, 음악 등 예술'(20.0%), '체육'(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5) 북한 청소년과의 정서적 공감에 대한 분석결과

- 정서적 공감 부분에 대한 분석에서 4개 하위요인(5점 평균)을 살펴보면 '불안'이 3.76점으로 가장 높고, '심적부담'(3.66점), '기쁨'(3.52점), '슬픔'(3.43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기쁨」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3.58점)이 '남성'(3.45점)보다 높고,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각각 3.53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종교별로는 '불교' 및 '가톨릭'이 3.59점으로 높고, 학교생활 만족도 및 부모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음. 「슬픔」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3.55점)이 '남성'(3.28점)보다 높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3.51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부모님 교육수준 및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음. 「불안」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3.85점)이 '남성'(3.64점)보다 높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3.81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종교별로는 '가톨릭'이 3.82점으로 높고, 부모님 교육수준 및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음. 「심적부담」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3.75점)이 '남성'(3.56점)보다 높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3.80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종교별로는 '무교'가 3.71점으로 높고, 부모님 교육수준 및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음

4. 정책제언

○ 북한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위한 정책 추진

- 학교교육과정에 북한 관련 정보 및 소식 전달수업 편성·운영
 - 창의적체험활동이나 자율·재량활동시간을 통한 북한 실상 및 관련 정보에 대한 특강 등 편성·운영
- EBS 등 방송매체와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북한에 대한 정보 및 인식 함양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관련 기관 협조 하에 지상파 방송에서 청소년 대상의 북한 정보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지원
- 북한 관련 정보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 가정 내 정확한 북한 정보교류를 위한 초·중등학교와 지역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청소년단체·수련시설을 통한 북한정보에 대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주제 중 하나로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운영 지원

○ 통일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 청소년 통일역량 지표 및 전국 실태조사 연구 추진
 - 미래 통일한국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역량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전국 청소년들의 역량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추진
- 청소년특별회의의 통일 역량교육 및 리더십캠프 지원
 - 중앙단위의 청소년협의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청소년 통일 역량교육 및 리더십캠프 추진
-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지역 통일교육센터와 연계한 통일교육 연계 추진
 - 전국에 지역별로 운영중인 통일교육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대상의 미래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 및 전망에 대한 교육 추진
- 사회, 역사 등 교과교육에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교육 협력 지원
 - 전문강사 파견 등 학교 교과수업의 일부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용한 청소년 통일 교육에 대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 및 지원

○ 남북한 청소년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 탈북 청소년과 국내 청소년과의 함께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탈북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북한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특별 강좌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의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전문강사를 통한 북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실태와 전망에 대한 특강 운영 지원
-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하나원 탈북청소년간의 사회통합 캠프 추진
 - 전국 시도별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하나원 탈북청소년 간 지역별 특색 있는 테마를 주제로 사회통합 청소년캠프 지원 및 추진

○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위한 정책 추진

- 국립국악원 및 지역 국악원과 연계한 탈북 청소년들과 공동 국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국립국악원과 지역 국악원이 연계하여 탈북 청소년들과 국내 청소년들 공동의 국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유네스코와 연계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한반도 지속가능발전교육 대토론회 개최
 - 유네스코의 교육문화지원 기능을 기반으로 남북한 청소년들 간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대토론회 추진
- 남북한 합동 청소년오케스트라 구성 및 공연 추진
 - 통일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중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 동아리와 북한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합동 구성 및 남북한 공연 추진
-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추진
 - 매년 봄에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에 북한 청소년 스포츠팀의 초청과 국내 청소년 스포츠팀과의 합동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및 상호교류 추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II. 문헌 및 정책현황 고찰	7
1. 남북한 청소년 교류 현황	9
2. 탈북청소년 현황과 특징 및 남북청소년 상호이해를 위한 시사점	12
III. 남북한 청소년 교류, 상호이해, 통일에 대한 인식 조사	17
1. 조사개요	19
2. 남북한 청소년 교류, 상호이해, 통일에 대한 인식 실태분석	21
3. 남북한 청소년에 대한 차이인식과 교류우호도 관계에서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158
IV. 정책제언 및 결론	167
1. 주요결과 요약	169
2. 정책제언	171
3. 결론	179
참고문헌	181
부 록	185

표 목 차

<표 II-1> 제3국을 통한 교류	9
<표 II-2> 남북 왕래를 통한 교류	10
<표 II-3> 북한 이탈주민 연도별 입국 현황	12
<표 II-4> 탈북자들의 재북 당시 직업별 통계	13
<표 II-5> 탈북자들의 재북 당시 학력별 통계	13
<표 II-6> 탈북학생 학교 재학 현황	13
<표 III-1> 응답자 특성	20
<표 III-2> 북한에 대한 생각	21
<표 III-3>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	22
<표 III-4> 북한에 대한 생각 요인별 차이분석	23
<표 III-5>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매체 경로	24
<표 III-6>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매체 경로 요인별 차이분석	25
<표 III-7>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부모	26
<표 III-8>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부모 요인별 차이분석	27
<표 III-9>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학교선생님	28
<표 III-10>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학교선생님 요인별 차이분석	29
<표 III-11>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친구	30
<표 III-12>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친구 요인별 차이분석	31
<표 III-13>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32
<표 III-14>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요인별 차이분석	33
<표 III-15>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	34
<표 III-16>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 요인별 차이분석	35
<표 III-17>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조용/시끄럽다	36
<표 III-18>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조용/시끄럽다 요인별 차이분석	37
<표 III-19>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명랑/우울	38
<표 III-20>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명랑/우울 요인별 차이분석	39

<표 III-21>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부유/가난	40
<표 III-22>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부유/가난 요인별 차이분석	41
<표 III-23>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건강/허약	42
<표 III-24>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건강/허약 요인별 차이분석	43
<표 III-25>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평화/공격	44
<표 III-26>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평화/공격 요인별 차이분석	45
<표 III-27>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믿음	46
<표 III-28>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믿음 요인별 차이분석	47
<표 III-29>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	48
<표 III-30>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49
<표 III-31>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언어	50
<표 III-32>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언어 요인별 차이분석	51
<표 III-33>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정치	52
<표 III-34>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정치 요인별 차이분석	53
<표 III-35>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사회 특성	54
<표 III-36>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사회 특성 요인별 차이분석	55
<표 III-37>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주민들의 생각	56
<표 III-38>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주민들의 생각 요인별 차이분석	57
<표 III-39>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생활수준	58
<표 III-40>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생활수준 요인별 차이분석	59
<표 III-41>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문화 수준	60
<표 III-42>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문화 수준 요인별 차이분석	61
<표 III-43>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경제 수준	62
<표 III-44>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경제 수준 요인별 차이분석	63
<표 III-45>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교육 수준	64
<표 III-46>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교육 수준 요인별 차이분석	65

<표 III-47> 통일에 대한 생각	66
<표 III-48>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68
<표 III-49>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요인별 차이분석	69
<표 III-50> 통일이 필요한 이유	70
<표 III-51> 통일이 필요한 이유 요인별 차이분석	71
<표 III-52>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72
<표 III-53>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요인별 차이분석	73
<표 III-54> 통일이 된다면, 남한에 이익정도	74
<표 III-55> 통일이 된다면, 남한에 이익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75
<표 III-56>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이익 정도	76
<표 III-57>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이익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77
<표 III-58> 통일 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	78
<표 III-59> 통일 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 요인별 차이분석	79
<표 III-60>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	80
<표 III-61>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 요인별 차이분석	81
<표 III-62>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	82
<표 III-63>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 요인별 차이분석	83
<표 III-64>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 정도	84
<표 III-65>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85
<표 III-66> 북한 청소년에 대한 생각	86
<표 III-67>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	88
<표 III-68>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 요인별 차이분석	89
<표 III-69> 탈북 청소년하면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	90
<표 III-70> 탈북 청소년하면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 요인별 차이분석	91
<표 III-71> 북한 청소년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 정도	92
<표 III-72> 북한 청소년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93

<표 III-73>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언어	94
<표 III-74>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언어 요인별 차이분석	95
<표 III-75>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사고방식	96
<표 III-76>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사고방식 요인별 차이분석	97
<표 III-77>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미래	98
<표 III-78>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미래 요인별 차이분석	99
<표 III-79>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직업(진로)	100
<표 III-80>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직업(진로) 요인별 차이분석	101
<표 III-81> 남북한 청소년들의 차이_가정환경	102
<표 III-82> 남북한 청소년들의 차이_가정환경 요인별 차이분석	103
<표 III-83>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학교생활	104
<표 III-84>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학교생활 요인별 차이분석	105
<표 III-85>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친구관계	106
<표 III-86>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친구관계 요인별 차이분석	107
<표 III-87>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문화생활	108
<표 III-88>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문화생활 요인별 차이분석	109
<표 III-89>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교육 수준	110
<표 III-90>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교육 수준 요인별 차이분석	111
<표 III-91>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여가생활	112
<표 III-92>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여가생활 요인별 차이분석	113
<표 III-93> 북한 청소년을 만나다면 취할 행동	114
<표 III-94> 북한 청소년을 만나다면 취할 행동 요인별 차이분석	115
<표 III-95>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의향	116
<표 III-96>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의향 요인별 차이분석	117
<표 III-97> 미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18
<표 III-98> 미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요인별 차이분석	119

<표 III-99> 유럽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20
<표 III-100> 유럽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요인별 차이분석	121
<표 III-101> 중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22
<표 III-102> 중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요인별 차이분석	123
<표 III-103> 일본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24
<표 III-104> 일본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요인별 차이분석	125
<표 III-105>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26
<표 III-106>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요인별 차이분석	127
<표 III-107> 미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28
<표 III-108> 미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요인별 차이분석	129
<표 III-109> 유럽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30
<표 III-110> 유럽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요인별 차이분석	131
<표 III-111> 중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32
<표 III-112> 중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요인별 차이분석	133
<표 III-113> 일본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34
<표 III-114> 일본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요인별 차이분석	135
<표 III-115>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36
<표 III-116>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요인별 차이분석	137
<표 III-117>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	138
<표 III-118>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생각	140
<표 III-119>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생각 요인별 차이분석	141
<표 III-120>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	142
<표 III-121>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 요인별 차이분석	143
<표 III-122>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	144
<표 III-123>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 요인별 차이분석	145

<표 III-124>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참여할 의사	146
<표 III-125>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참여할 의사 요인별 차이분석	147
<표 III-126>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	148
<표 III-127>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 요인별 차이분석	149
<표 III-128>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횟수(1년 기준)	150
<표 III-129>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횟수(1년 기준) 요인별 차이분석	151
<표 III-130> 남북한 교류시 적당한 만남의 장소	152
<표 III-131> 남북한 교류시 적당한 만남의 장소 요인별 차이분석	153
<표 III-132>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	154
<표 III-133>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 요인별 차이분석	155
<표 III-134> 정서적 공감	156
<표 III-135> 정서적 공감 요인별 차이분석	157
<표 III-136> 정서적 공감척도의 하위변인과 척도의 신뢰도	160
<표 III-137>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162
<표 III-138> 모형평가	163
<표 III-139> 주요변인의 경로계수 추정치	164
<표 III-140> 전체 연구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166

그림 목 차

【그림 Ⅲ-1】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	22
【그림 Ⅲ-2】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매체 경로	24
【그림 Ⅲ-3】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부모	26
【그림 Ⅲ-4】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학교선생님	28
【그림 Ⅲ-5】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친구	30
【그림 Ⅲ-6】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32
【그림 Ⅲ-7】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	34
【그림 Ⅲ-8】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조용/시끄럽다	36
【그림 Ⅲ-9】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명랑/우울	38
【그림 Ⅲ-10】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부유/가난	40
【그림 Ⅲ-11】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건강/허약	42
【그림 Ⅲ-12】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평화/공격	44
【그림 Ⅲ-13】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믿음	46
【그림 Ⅲ-14】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	48
【그림 Ⅲ-15】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언어	50
【그림 Ⅲ-16】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정치	52
【그림 Ⅲ-17】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사회 특성	54
【그림 Ⅲ-18】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주민들의 생각	56
【그림 Ⅲ-19】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생활 수준	58
【그림 Ⅲ-20】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문화 수준	60
【그림 Ⅲ-21】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경제 수준	62
【그림 Ⅲ-22】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교육 수준	64
【그림 Ⅲ-23】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68
【그림 Ⅲ-24】 통일이 필요한 이유	70
【그림 Ⅲ-25】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72

【그림 Ⅲ-26】 통일이 된다면, 남한에 이익정도	74
【그림 Ⅲ-27】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이익 정도	76
【그림 Ⅲ-28】 통일 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	78
【그림 Ⅲ-29】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	80
【그림 Ⅲ-30】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	82
【그림 Ⅲ-31】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 정도	84
【그림 Ⅲ-32】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	88
【그림 Ⅲ-33】 탈북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	90
【그림 Ⅲ-34】 북한 청소년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 정도	92
【그림 Ⅲ-35】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언어	94
【그림 Ⅲ-36】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사고방식	96
【그림 Ⅲ-37】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미래	98
【그림 Ⅲ-38】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직업(진로)	100
【그림 Ⅲ-39】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가정환경	102
【그림 Ⅲ-40】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학교생활	104
【그림 Ⅲ-41】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친구관계	106
【그림 Ⅲ-42】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문화생활	108
【그림 Ⅲ-43】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교육 수준	110
【그림 Ⅲ-44】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여가생활	112
【그림 Ⅲ-45】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	114
【그림 Ⅲ-46】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의향	116
【그림 Ⅲ-47】 미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18
【그림 Ⅲ-48】 유럽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20
【그림 Ⅲ-49】 중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22
【그림 Ⅲ-50】 일본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24
【그림 Ⅲ-51】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26
【그림 Ⅲ-52】 미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28

【그림 III-53】 유럽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30
【그림 III-54】 중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32
【그림 III-55】 일본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34
【그림 III-56】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36
【그림 III-57】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생각	140
【그림 III-58】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	142
【그림 III-59】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	144
【그림 III-60】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참여할 의사	146
【그림 III-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	148
【그림 III-62】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횟수(1년 기준)	150
【그림 III-63】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만남의 장소	152
【그림 III-64】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	154
【그림 III-65】 정서적 공감	156
【그림 III-66】 부분매개 모형	158
【그림 III-67】 완전매개 모형	159
【그림 III-68】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계수(표준화계수)	165
【그림 IV-1】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방향	172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90년을 기점으로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와 소련연방의 해체, 그리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같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미국의 9·11사태 이후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 등과 같은 국제적인 무력 충돌,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 등의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 특히, 2012년 3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와 최근까지의 남북한 긴장상황의 고조 등 어느 때 보다 한반도의 평화 정책과 통일이 국제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시점이다.

이 같은 국내외적 기류와는 대조적으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평화, 안보, 통일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분단 이후 남북한 청소년간의 직접적인 교류는 단 한 번도 이뤄진 바가 없었으며 탈북청소년의 남한 적응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남과 북의 청소년이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교류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프로토콜도 준비된 바 없었다. 60여 년간의 분단과 대립으로 인해 완전히 상이한 정치, 경제, 문화 체계 속에서 성장한 남북한 청소년들이 적절한 규모나 형태의 사전 교류와 서로의 이해를 위한 준비 과정 등이 없는 상태에서 접촉하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집단 갈등이 부각되고 상호 이해와 친밀감 형성보다는 오해와 갈등, 적대감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현 정부의 국정지표에서도 청소년의 역량 개발과 건강한 성장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대통합이 필요하고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을 대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2014년 들어 정부차원의 통일대박론이 제기되고 이를 위한 각 중앙부처와 여러 정치·사회 분야에서 한반도의 통일준비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제안하였고 특히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를 장려하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가능성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이와 같은 최근의 상황은 미래 우리사회의 인재를 다루는 청소년 분야에서도 향후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미래 한국 혹은 통일 한국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그 주역이 되는 청소년들의 교류와 통일인식,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상호이해 방안이 마련되어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 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래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는 남북한 청소년들의 향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와 상호이해에 대한 인식, 요구, 전망, 가치, 태도를 파악하고 둘째, 청소년들의 교류 활동 등을 통해 미래 통일 한국의 남북한 상호이해를 촉진할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 관련 문헌 및 정책현황 고찰

- 남북한 청소년 교류 사업 고찰
- 유관 정책현황 분석

둘째, 남북한 청소년 교류와 상호이해, 그리고 통일 한국에 대한 인식, 태도, 가치 조사

- 북한에 대한 인식
- 통일에 대한 준비, 기대, 전망에 대한 인식
-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인지·정서적 인식

-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에 대한 생각
- 통일 한국에 대한 청소년으로서의 전망과 역할

셋째,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를 위한 정책 제언 도출

- 남북 청소년 교류의 비전 및 추진방향
- 남북 청소년의 상호이해를 위한 정책방안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로서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통일의식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고, 통일교육 및 사회통합 관련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통일과정과 관련된 정책현황을 고찰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세부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로 남북한 교류, 통일의식, 사회통합, 탈북청소년들의 특징과 의식에 대하여, 둘째로 설문조사지 항목과 내용 구성에 대하여, 셋째로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과 해석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주요한 문헌고찰과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문가워크숍을 통해 주요 논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3)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더불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약 2,000명을 층화다단계확률표집을 통해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북한 청소년들과의 교류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준비, 기대, 전망에 대한 인식,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 통일 한국에 대한 청소년으로서의 요구, 통일 한국에 대한 청소년으로서의 전망과 역할 등이다.

4) 정책협의회

본 연구가 통일 한국의 준비와 관련된 정책 방안 마련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남북한 청소년 교류와 관련된 정책적 필요요소 등에 대해 그리고 남북한 청소년들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책협의를 추진하였다.

제 2 장

문헌 및 정책현황 고찰

1. 남북한 청소년 교류 현황
2. 탈북청소년 현황과 특징 및
남북청소년 상호이해를 위한
시사점

제 2 장 문헌 및 정책현황 고찰

1. 남북한 청소년 교류 현황¹⁾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남북 청소년교류를 알아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 -1 제3국을 통한 교류

분야	주최	행사명	행사일시	참석규모
학술 분야	세계대학원리연구회 (세계평화청년연합회)	제1차 세계청년학생평화세미나 * 주제 : 21세기 새로운 가치관과 기존 가치관의 재평가	'94.2.11~18, 모스크바	남41/북5 (6개국 200명)
	전국대학원리연구회	제2차 세계학생지도자 과학평화회의 * 주제 : 변화하는 세계에 있어서의 청년의 역할	'94.6.21~25, 베이징	남41 /북21 (19개국 170명)
	세계대학원리연구회 세계평화청년연합회	제3차 세계대학생 평화세미나 * 주제 : 21세기, 새로운 문명과 청소년의 역할	'95.2.5~9, 베이징	남141/북61 (31개국 371명)
	美 버클리대 한국학위원회	제5차 코리아 평화통일 심포지엄 * 주제 : 한민족의 동질성을 위하여	'96.4.18~20, 버클리대	여성오,김재성(남)/ 권호웅(북) 남북한 학생대표 동시초청
	세계대학원리연구회 세계평화청년연합회	제4차 세계청년학생평화세미나 * 주제 : 21세기, 평화와 통일을 향한 청년의 역할	'97.9.13~17, 북경	남171/북86 (26개국 326명)
	세계대학원리연구회 세계평화청년연합회	제5차 세계청년학생평화세미나 * 주제 : 통일조국 창건을 위한 청년의 역할	'99.7.25~29, 베이징	남144/북61 (2개국 205명)
장학 사업	한마음남북장학재단	북 IT 소프트웨어 전문가 교육과정 총 6회 62만 불 지원(총 186명)	'06.4~'08.12 중국	북186

1) 이 부분은 길은배(한국체육대학교)가 집필한 원고의 일부임.

분야	주최	행사명	행사일시	참석규모
		북 전문의 2명 프랑스 파리대학병원 6개월 연수비(11,500유로) 지원	'06.5~'07.10 파리	북2
체육	남북체육교류협회 (인천시 후원)	제2회 인천평화컵국제유소년축구대회	'12.1.31~2.3, 중국	남31/북40
자매 결연	성균관대-고려성균관	학술교류협정 체결	'98.5	

* 출처: 함병수, 길은배, 이종원, 최원기(2000); 길은배, 이종원, 최원기(2001); 길은배, 이종원, 최원기(2002); 통일부(2013: 1990~2008); 통일부(1990~2008).

또한 2008년까지의 남북 왕래를 통한 교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2 남북 왕래를 통한 교류

분야	구분	행사일시	참석규모	장소
체육 분야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91.6.14		포르투갈 리스본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경기('07년 1차)	'07.6.1~6.14	34명 방남	전남 강진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경기('07년 2차)	'07.6.23~7.3	30명 방북	평양
	『2007 FIFA 세계청소년월드컵 축구대회』 전지훈련	'07.3.20~4.20	32명 방남	제주, 수원, 광양, 서울
	『2007 FIFA 세계청소년월드컵 축구대회』 사전방한	'07.8.14~9.9	31명 방남	제주, 수원, 광양, 서울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경기('07년도 3차)	'07.10.9~10.25	26명 방남	전남 강진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경기('07년도 4차)	'07.11.3~11.25	26명 방북	평양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경기('08년도 1차)	'08.6.14~26	30명 방북	평양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경기('08년도 2차)	'08.10.8~18	50명 방북	평양

분야	구분	행사일시	참석규모	장소
예술	리틀엔젤스 평양공연	'98.5		평양
	평양학생소년 예술단 공연	'00.5.24~30	북78명	서울
문화 분야	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	'03.8.29	북 응원단 303명	대구
	청년학생유적답사단 방북	'03.9.22~26	남 116명	평양
인도 지원 분야	남북청소년 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	'03.3.21~23	남18명/북27명	금강산
	남북청소년 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	'04.4.4	남28명/북39명	금강산
	제1차 청소년 평화통일 숲 가꾸기	'06.3.26~5.10	400명	개성
	남북청소년 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	'06.4.3~6	남47명/북40명	금강산
	제2차 청소년 평화통일 숲 가꾸기	'06.11.10~12.5	800명	개성
	제3차 청소년 평화통일 숲 가꾸기	'07.3.20~6.29	4,000명	개성
	남북청소년 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	'07.4.5	남75명/북50명	금강산
대학생 교류 (통일 분야)	남북해외 청년학생 통일대회	'02.10.13~14	남249/북200/해외50	금강산
	남북청년학생 대표자회의	'03.9.1~3	남27명/북22명	금강산
	남·북·해외 청년학생 대표자회의	'04.3.21~22	남31명/북24명	중국 심양
	남북대학생상봉모임	'05.5.22~24	남413명/북100명	금강산
	남북대학생상봉행사	'05.7.16~18	남280명/북108명	금강산
	남북청년학생 대표자회의	'05.12.16~17	남27명/북19명	개성
	남북청년학생교류 통일행사	06.2.20~24	남110명/북100명	평양
	남·북·해외 청년학생 대표자회의	'06.3.9~12	남25명/북10명	중국 심양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	'06.5.10~5.11	남370명/북120명	금강산
어린이 교류	남북 어린이 교류사업 (어린이 어깨동무)	'05년(11명), '05년(20명), '07년(6명), '08년(5명)		평양
학교 방문	재일조선인학교방문	2008.1.28	37명	일본
	재일조선인학교방문	2008.2.1	40명	일본

* 출처: 함병수, 길은배, 이종원, 최원기(2000); 길은배, 이종원, 최원기(2001); 길은배, 이종원, 최원기(2002); 통일부 (2013:1990~2008); 통일부(1990~2008).

2. 탈북청소년 현황과 특징 및 남북청소년 상호이해를 위한 시사점²⁾

1) 탈북학생 현황

(1) 탈북학생 규모

1990년대 국내 북한이탈주민은 1,000명을 넘지 않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경제난을 계기로 탈북자가 급증하여 2000년 이후에는 매년 1,000명 이상의 탈북자가 남한에 입국했다. 2014년 3월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26,483명이다.

표 II-3 북한 이탈주민 연도별 입국 현황

입국년도	남	여	합계	여성비율(%)
~1998	831	116	947	12%
~2001	565	479	1,044	46%
~2002	511	632	1,143	55%
~2003	472	810	1,282	63%
~2004	624	1,272	1,896	67%
~2005	423	959	1,382	69%
~2006	512	1,510	2,022	75%
~2007	571	1,977	2,548	78%
~2008	608	2,197	2,805	78%
~2009	671	2,258	2,929	77%
~2010	589	1,813	2,402	75%
~2011	797	1,909	2,706	70%
~2012	405	1,097	1,502	72%
~2013	232	720	952	76%
~2014. 3	69	292	361	81%
합계	8,016	18,467	26,483	70%

*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2014년 3월 입국자까지의 통계.

2000년대 이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출신지역이 함경도, 양강도가 대부분이다. 탈북청소년의 가정 배경 이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이전에 종사하던 북한에서의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무직이나 피부양 가족이었던 경우가 50%를 차지한다.³⁾ 직업군 중에는 노동자가 38%로 가장 많으며, 그 외에 전문직과

2) 이 부분은 김정원(한국교육개발원)이 집필한 원고의 일부임.

3) 이 직업별 통계와 아래 학력별 통계는 모든 연령대를 포괄하는 전체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 학력 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

관리직에 근무했던 이들이 4% 정도로 나타난다. 전체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이들은 17% 정도이다.

표 II-4 탈북자들의 재북 당시 직업별 통계

구분	무직 부양	노동자	관리직	전문직	예술 체육	봉사 분야	군인	계
누계(명)	12,432	9,160	394	487	197	896	635	24,201
비율(%)	50	38	2	2	1	4	3	100

*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2012년 10월 입국자까지의 통계.

표 II-5 탈북자들의 재북 당시 학력별 통계

구분	취학 전	유치원	인민 학교	고등 중학교	전문대	대학 이상	기타 (불상)	계
누계(명)	644	217	1,580	16,993	2,230	1,711	826	24,201
비율(%)	3	1	6	70	9	8	3	100

*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2012년 10월 입국자까지의 통계.

2013년 기준,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학생은 2,022명이다. 대안교육시설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은 232명으로 이를 포함하면 탈북학생은 총 2,254명이다.

표 II-6 탈북학생 학교 재학 현황

(단위: 명)

구분	정규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현황	600	559	231	247	192	193	232	2,254
	1,159		478		385			
	2,022							

* 출처: 교육부(2013).

(2) 탈북청소년 관련 주요 쟁점

가. 정체성 문제: ‘탈북’으로 분류되길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2012년을 기준으로 실시한 탈북청소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탈북자임을 밝히는 청소년이 44.5%,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처음에 자신이 탈북자임을 밝히고 한국생활을 출발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학교에서의 학년 진급 등, 삶의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특별히 드러내며 살고자 하지 않는다. 특히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현재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이 탈북자임을 일상적으로 드러내면서 생활하지 않을 것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매우 빠르게 남한 말씨에 적응하여 굳이 자신이 탈북자임을 매번 강조하지 않는다면 외형적으로 보아 탈북청소년임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북한 사람들 욕할 때나 그럴 때는 제 욕 하는 것 같아요”라는 한 탈북청소년의 표현은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 속에서 메스컴이나 일반인들의 대북 논평을 들을 때, 그리고 학교에서 안보교육을 받을 때, 이들의 심리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김정원, 김지수, 안경식, 강구섭, 이은구, 김성식, 노유경, 박주영, 2014). 학급 회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고 싶어 하지만 북한 말투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엄마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탈북학생 사례도 발견된다(김정원, 김지수, 안경식, 강구섭, 이은구, 김성식, 노유경, 박주영, 2014).

나. 평균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도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에 따르면 탈북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수학생 비율은 전국평균이 31.0%인데 비해 탈북학생은 8.24%이며, 기초미달 학생의 비율은 전국평균 1.41%인데 비해 탈북학생은 11.76%에 달한다(신진아, 김경희, 박상욱, 김영란, 이정우, 서민철, 조운동, 김현경, 이영주, 최숙기, 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중단연구(I)에 따르면, 탈북학생의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북한 성적, 남한 거주기간, 가족관계 등이며 탈북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영어, 수학, 사회 순이다. 국어는 거주기간이 길면 어려움이 해소되나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어려워한다(한만길, 윤종혁, 이향규, 김일혁, 2009). 이후의 연구에서도 영어는 탈북학생들에게 가장 어렵고 성적이 가장 낮은 교과로 확인되고 있다(김정원, 김지수, 안경식, 강구섭, 이은구, 김성식, 노유경, 박주영, 2014; 이향규, 이강주, 김윤영, 한만길, 김성식, 2011).

다. 같은 배경끼리 분리

이제까지 많은 연구들이 탈북청소년 혹은 탈북학생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특징을 추출해내는데 중점을 두었었다.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는 탈북학생들의 분리 문제를 주요 문제로 다루고 있다(김정원, 김지수, 안경식, 강구섭, 이은구, 김성식, 노유경, 박주영, 2014). 입국 초기에 특히 학교 밖에서 남한의 친구를 접하기 어려우며 학교 내에서도 노력해서 남한 친구를 만들어가지만 학교 밖까지 연결되는 가까운 친구는 같은 탈북학생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자녀교육을 위해 한국으로 탈북한 탈북학생 부모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끔 한다.

2) 남북청소년 상호이해에 주는 시사점

남한 사회의 북한에 대한 기본 정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들어와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자리잡게끔 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탈북청소년들의 학교 학업성적이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는, 이들의 배경이 되는 북한의 경제적 수준과 남북한 관계의 역사와 현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에서 세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나 심리적으로 먼 곳이다. 연평도 사건은 최근 남북 관계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사건이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이 주요 안보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남북한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교류는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 역사에 의해 상호 간에 형성되어 있는 일반 주민에 대한 허구적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김정원, 김지수, 안경식, 강구섭, 이은구, 김성식, 노유경, 박주영(2014)의 연구에 의하면, 탈북학생 밀집학교에서 탈북학생들을 가르쳐 온 한 교사는 탈북학생들을 가르침으로써 얻게 된 스스로의 학습 성과를 ‘아 북한 애들도 우리와 똑같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데서 찾고 있었다. “북한 사람은 경직되고 질서정연한 이미지였어요. 걸을 때도 한 줄로 서서 걸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만나보니 저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고 와서 연예인들을 실제 본 적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라는 하나원 탈북학생들을 만나 온 한 남한 학생의 표현은 직접적인 교류의 효과를 강하게 시사해 준다(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14).

남한 내 탈북청소년이라는 존재는 경색되어 있는 남북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상호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 할 수 있다. 자신과 같은 언어로 같은 관심을 표현하는 또래들이 직접 부딪치면서 함께 하는 경험은 다른 어떤 매체의 힘보다도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교류는 남북한 청소년의 상호 이해 범위를 넓히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일상에서 자신이 만나는 타인이 포용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과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남한의 경우에는 경제 규모는 북한에 비할 수 없이 커졌지만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계층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어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배려와 포용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남북한 청소년의 상호 이해 문제가 단순히 남북한 관계의 문제만은 아님을 시사해 준다. 남한사회를 다양한 차이를 보다 포용할 수 있는 사회, 모두가 보다 자유롭고도 인격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들의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김정원, 2014).

제 3 장

남북한 청소년 교류, 상호이해, 통일에 대한 인식 조사

1. 조사개요
2. 남북한 청소년 교류, 상호이해,
통일에 대한 인식 실태분석
3. 남북한 청소년에 대한 차이인식과
교류우호도 관계에서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제 3 장

남북한 청소년 교류, 상호이해, 통일에 대한 인식 조사

1. 조사개요

1) 모집단의 정의 및 분석

이 연구의 모집단은 2014년 기준 교육통계연보의 전국 학생 현황 DB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당시 전국의 초등학교(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비일반고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표본 배분은 17개 시도별로 비교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본 조사에서 지역과 학교급 등이 주요 변수에 해당되어, 이들 변수를 층화변수로 사용하였다. 셋째, 층화과정은 크게 2단계로 하며 1단계로 17개 시도를 구분하여 층화하고, 2단계로 학교급별로 구분해 층화하였다.

2) 조사 설계

- 조사표본 :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총 2,000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2.2\%$ Point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조사내용 : 북한에 대한 생각, 통일에 대한 생각, 북한 청소년에 대한 생각 등
- 조사기간 : 2014년 7월 7일 ~ 8월 11일
- 조사내용 : 청소년의 북한, 통일, 교류, 상호이해에 대한 설문4)

4) 설문은 본 연구의 공동연구원인 권재기(중앙대학교)가 초안 집필 후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됨.

3) 응답자 특성

표 Ⅲ-1 응답자 특성

단위[%]		사례수[명]	%
전체		2,000	100.0%
성별	남성	926	46.3%
	여성	1,074	53.7%
학교급	초등학교	564	28.2%
	중학교	705	35.3%
	고등학교	731	36.6%
종교	기독교	535	26.8%
	불교	200	10.0%
	가톨릭	153	7.7%
	무교	1,098	54.9%
	기타	14	0.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64.3%
	보통	552	27.6%
	불만	162	8.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1%
	중	1,177	58.9%
	하	661	33.1%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9%
	중	1,053	52.7%
	하	870	43.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6.9%
	중	1,709	85.5%
	하	154	7.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5.2%
	없다	1,897	94.9%

2. 남북한 청소년 교류, 상호이해, 통일에 대한 인식 실태분석

1) 북한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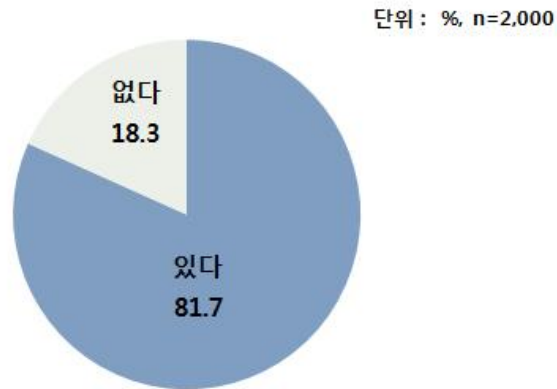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에 대해서, '있다'는 응답은 81.7%로 '없다'는 응답 18.3%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 청취경로로는 'TV 뉴스'가 57.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학교수업에서, 인터넷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생각으로는 '서로 도와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이 40.1%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는 '없는 편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편이다'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 북한에 대한 인지도는 북한의 생활수준(48.4%), 정치(38.6%), 경제수준(3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 북한에 대한 생각

구분	내용[단위 : %]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본 경험	81.7	
북한에 대한 이야기 청취 경로	TV뉴스	57.6
	학교수업에서	21.8
	인터넷	9.2
	부모님에게서	4.2
북한에 대한 생각	서로 도와야 할 대상	40.1
	위험대상	21.9
북한에 대한 관심	없는 편이다	35.3
	그저 그렇다	36.9
	있는 편이다	27.8
항목별 북한에 대한 인지도 [* 알고 있다(다소알고 있다 + 많이 알고 있다) 기준]	언어	26.5
	정치	38.6
	북한사회 특성	33.8
	북한 주민의 생각이나 견해	18.9
	북한생활 수준	48.4
	문화 수준	16.7
	경제 수준	36.5
	교육 수준	20.3

(1)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

있다 81.7% > 없다 18.3%



【그림 III-1】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

표 III-3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

단위[%]		사례수[명]	있다	없다
전체		2,000	81.7	18.3
성별	남성	926	81.3	18.7
	여성	1,074	82.0	18.0
학교급	초등학교	564	83.3	16.7
	중학교	705	81.8	18.2
	고등학교	731	80.3	19.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90.5	9.5
	중	1,709	81.0	19.0
	하	154	81.8	18.2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91.3	8.7
	없다	1,897	81.2	18.8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에 대해서, ‘있다’는 응답은 81.7%로 ‘없다’는 응답 18.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은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생(83.3%)이 높고, 종교별로는 불교(85.5%)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별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88.3%)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 때(90.5%), 이산가족이 있을 때 높게(91.3%)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수준 및 이산가족 유무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5% 수준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98% 수준에서는 이산가족 유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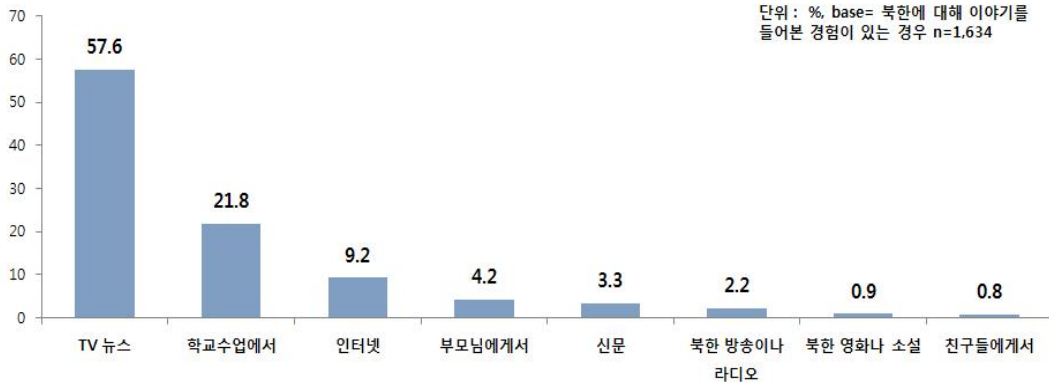
표 Ⅲ-4 북한에 대한 생각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0.169 (.681)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973 (.373)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7.703* (.021)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6.641** (.010)
	없다	1,897	

*p<.05, **p<.01, ***p<.001

(2)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매체 경로

TV 뉴스 57.6% > 학교수업 21.8%



【그림 III-2】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매체 경로

표 III-5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매체 경로

단위[%]		사례수 (명)	TV 뉴스	학교수업 에서	인터넷	부모님 에게서	신문	북한 방송이나 라디오	북한 영화나 소설	친구들 에게서
전체		1,634	57.6	21.8	9.2	4.2	3.3	2.2	0.9	0.8
성별	남성	753	61.6	18.6	7.6	5.3	3.2	2.1	1.1	0.5
	여성	881	54.1	24.5	10.6	3.3	3.4	2.3	0.8	1.0
학교급	초등학교	470	61.1	24.0	4.0	6.6	1.9	1.5	0.6	0.3
	중학교	577	56.3	25.0	5.9	5.5	2.8	3.3	0.3	0.9
	고등학교	587	56.0	16.9	16.5	1.0	4.9	1.7	1.7	1.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50.8	23.4	11.3	4.8	6.5	3.2	0.0	0.0
	중	1,384	58.1	22.0	8.5	4.3	3.3	2.1	0.9	0.8
	하	126	58.7	17.5	14.3	3.2	0.8	2.4	1.6	1.5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47.9	18.1	8.5	10.6	3.2	8.5	2.1	1.1
	없다	1,540	58.2	22.0	9.2	3.8	3.3	1.8	0.8	0.9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매체 경로로는, 'TV 뉴스'가 가장 높고(57.6%) '학교수업'(21.8%), '인터넷'(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1.6%)이 여성(54.1%)보다 'TV 뉴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61.1%)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58.7%) TV 뉴스가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및 이산가족 유무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8%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99% 수준에서는 학교급, 이산가족 유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Ⅲ-6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매체 경로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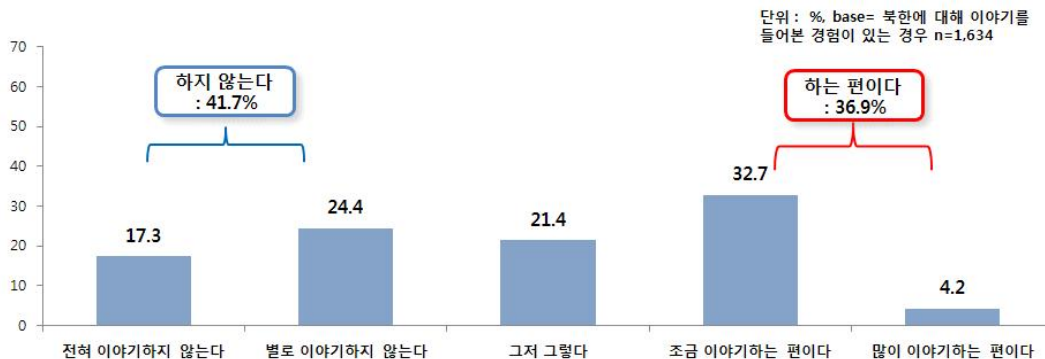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634	
성별	남성	753	19.995** (.006)
	여성	881	
학교급	초등학교	470	111.831*** (.000)
	중학교	577	
	고등학교	58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18.168 (.199)
	중	1,384	
	하	126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31.726*** (.000)
	없다	1,540	

* α .05, ** α .01, *** α .001

(3)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

① 부모

하지 않는다 41.7% > 하는 편이다 36.9%



【그림 III-3】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부모

표 III-7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부모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다	별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이야기 하는 편이다	많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하는 편이다*
전체		1,634	17.3	24.4	21.4	32.7	4.2	41.7	21.4	36.9
성별	남성	753	15.1	24.3	19.5	36.1	5.0	39.4	19.5	41.1
	여성	881	19.2	24.5	23.1	29.7	3.5	43.7	23.1	33.2
학교급	초등학교	470	6.2	17.7	22.3	48.3	5.5	23.9	22.3	53.8
	중학교	577	16.8	26.2	19.4	33.3	4.3	43	19.4	37.6
	고등학교	587	26.7	28.1	22.5	19.6	3.1	54.8	22.5	22.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12.1	19.4	20.1	46.8	1.6	31.5	20.1	48.4
	중	1,384	15.6	25.1	22.5	32.5	4.3	40.7	22.5	36.8
	하	126	41.3	22.2	10.3	20.6	5.6	63.5	10.3	26.2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11.7	14.9	21.2	42.6	9.6	26.6	21.2	52.2
	없다	1,540	17.7	25.0	21.3	32.1	3.9	42.7	21.3	36.0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부모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1.7%(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17.3% +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24.4%)로 가장 높고, ‘하는 편이다’ 36.9%(조금 이야기하는 편이다: 32.7% +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4.2%), ‘그저 그렇다’ 21.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남성(39.4%)이 여성(43.7%)보다 낮았고,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54.8%), 종교별로는 무교(43.8%)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58.5%),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53.7%),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63.5%), 이산가족이 없는 경우(42.7%)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및 이산가족 유무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8% 수준에서는 성별과 이산가족 유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99% 수준에서는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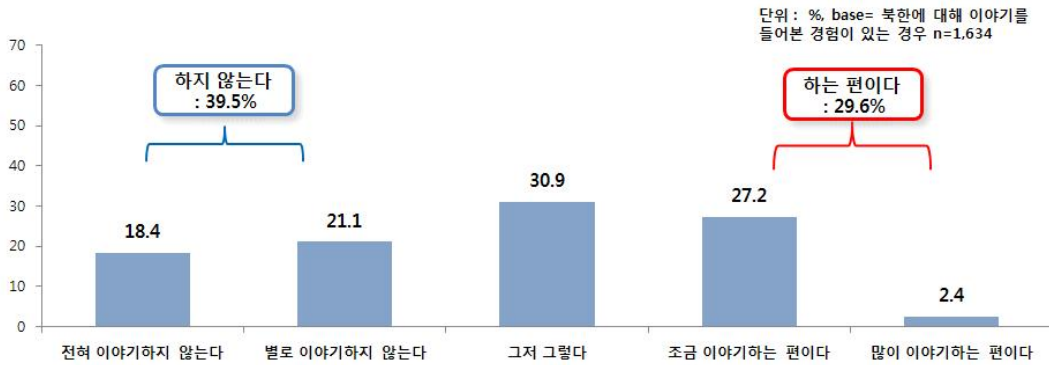
표 Ⅲ-8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부모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634	
성별	남성	753	11.185** (.004)
	여성	881	
학교급	초등학교	470	130.960*** (.000)
	중학교	577	
	고등학교	58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34.229*** (.000)
	중	1,384	
	하	126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11.744** (.003)
	없다	1,540	

*p<.05, **p<.01, ***p<.001

② 학교선생님

하지 않는다 39.5% > 하는 편이다 29.6%



【그림 III-4】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학교선생님

표 III-9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학교선생님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다	별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이야기 하는 편이다	많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하는 편이다*
전체		1,634	18.4	21.1	30.9	27.2	2.4	39.5	30.9	29.6
성별	남성	753	15.8	20.1	32.6	29.1	2.4	35.9	32.6	31.5
	여성	881	20.5	21.9	29.5	25.7	2.4	42.4	29.5	28.1
학교급	초등학교	470	6.2	12.1	36.6	41.5	3.6	18.3	36.6	45.1
	중학교	577	18.4	21.1	30.7	27.2	2.6	39.5	30.7	29.8
	고등학교	587	28.1	28.1	26.8	15.8	1.2	56.2	26.8	17.0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12.1	16.1	37.1	32.3	2.4	28.2	37.1	34.7
	중	1,384	17.8	21.5	30.1	28.1	2.5	39.3	30.1	30.6
	하	126	30.2	21.4	34.1	12.7	1.6	51.6	34.1	14.3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13.8	25.5	31.9	25.6	3.2	39.3	31.9	28.8
	없다	1,540	18.6	20.8	30.9	27.4	2.3	39.4	30.9	29.7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 선생님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5%(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18.4% +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21.1%)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0.9%, '하는 편이다' 29.6%(조금 이야기하는 편이다: 27.2% +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2.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남성(31.5%)이 여성(28.1%)보다 높았고,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45.1%)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33.9%),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38.5%),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34.7%)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및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5%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99%수준에서는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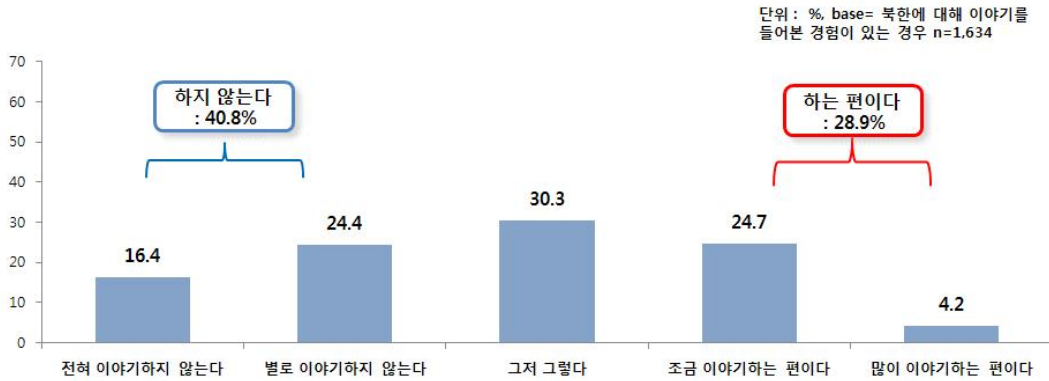
표 Ⅲ-10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학교선생님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634	
성별	남성	753	7.408* (.025)
	여성	881	
학교급	초등학교	470	172.877*** (.000)
	중학교	577	
	고등학교	58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22.393*** (.000)
	중	1,384	
	하	126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0.056 (.972)
	없다	1,540	

*p<.05, **p<.01, ***p<.001

③ 친구

하지 않는다 40.8% > 하는 편이다 28.9%



【그림 III-5】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친구

표 III-11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친구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다	별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이야기 하는 편이다	많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하는 편이다*
전체		1,634	16.4	24.4	30.3	24.7	4.2	40.8	30.3	28.9
성별	남성	753	16.3	24.2	31.3	23.4	4.8	40.5	31.3	28.2
	여성	881	16.5	24.6	29.5	25.8	3.6	41.1	29.5	29.4
학교급	초등학교	470	14.5	26.4	35.9	20.6	2.6	40.9	35.9	23.2
	중학교	577	19.4	22.4	27.0	26.7	4.5	41.8	27.0	31.2
	고등학교	587	15.0	24.9	29.1	25.9	5.1	39.9	29.1	31.0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12.9	29.0	27.5	28.2	2.4	41.9	27.5	30.6
	중	1,384	16.3	24.1	30.8	24.5	4.3	40.4	30.8	28.8
	하	126	20.6	23.8	28.6	23.0	4.0	44.4	28.6	27.0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21.3	29.8	24.4	21.3	3.2	51.1	24.4	24.5
	없다	1,540	16.1	24.1	30.7	24.9	4.2	40.2	30.7	29.1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친구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8%(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16.4 +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24.4%)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0.3%, ‘하는 편이다’ 응답이 28.9%(조금 이야기하는 편이다: 24.7% +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4.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남성(40.5%)이 여성(41.1%)보다 낮았고, 중학교(41.8%)에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 때(45.3%),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44.4%), 이산가족이 있을 때(51.1%)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이 98% 수준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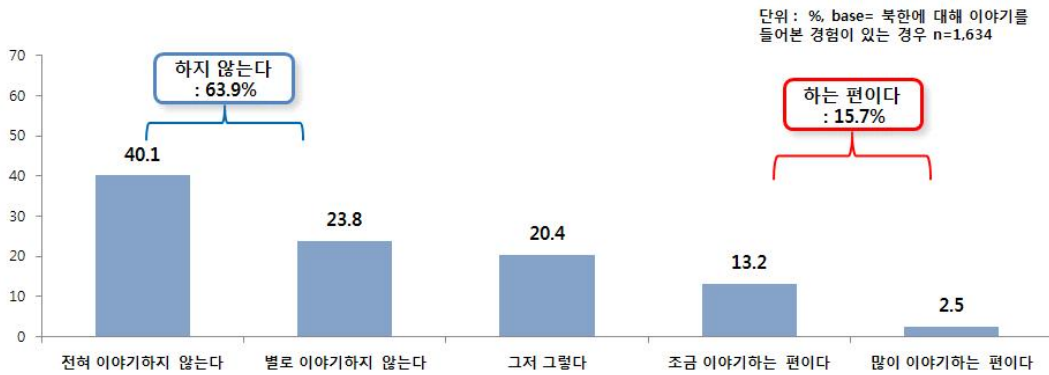
표 Ⅲ-12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친구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634	
성별	남성	753	0.700 (.705)
	여성	881	
학교급	초등학교	470	14.769** (.005)
	중학교	577	
	고등학교	58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1.363 (.851)
	중	1,384	
	하	126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4.359 (.113)
	없다	1,540	

*p<.05, **p<.01, ***p<.001

④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하지 않는다 63.9% > 하는 편이다 15.7%



【그림 III-6】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표 III-13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다	별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이야기 하는 편이다	많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하는 편이다*
전체		1,634	40.1	23.8	20.4	13.2	2.5	63.9	20.4	15.7
성별	남성	753	34.8	23.9	23.7	14.7	2.9	58.7	23.7	17.6
	여성	881	44.6	23.7	17.7	11.8	2.2	68.3	17.7	14.0
학교급	초등학교	470	23.0	25.5	28.1	21.1	2.3	48.5	28.1	23.4
	중학교	577	38.8	23.6	20.4	13.7	3.5	62.4	20.4	17.2
	고등학교	587	55.0	22.7	14.3	6.3	1.7	77.7	14.3	8.0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26.6	20.2	31.4	19.4	2.4	46.8	31.4	21.8
	중	1,384	40.2	24.3	20.2	13.1	2.2	64.5	20.2	15.3
	하	126	52.4	21.4	12.7	7.9	5.6	73.8	12.7	13.5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7.4	16.0	22.3	44.7	9.6	23.4	22.3	54.3
	없다	1,540	42.1	24.3	20.3	11.2	2.1	66.4	20.3	13.3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9%(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40.1% +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23.8%)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0.4%, '하는 편이다' 15.7%(조금 이야기하는 편이다: 13.2% +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남성(58.7%)이 여성(68.3%)보다 낮았고, 학교급이 높을수록(77.7%)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일 경우(69.4%), 학교생활 만족도가 보통일수록(74.8%),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77.1%),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73.8%), 그리고 이산가족이 없을 때(66.4%)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및 이산가족 유무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9% 수준에서 성별,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및 이산가족 유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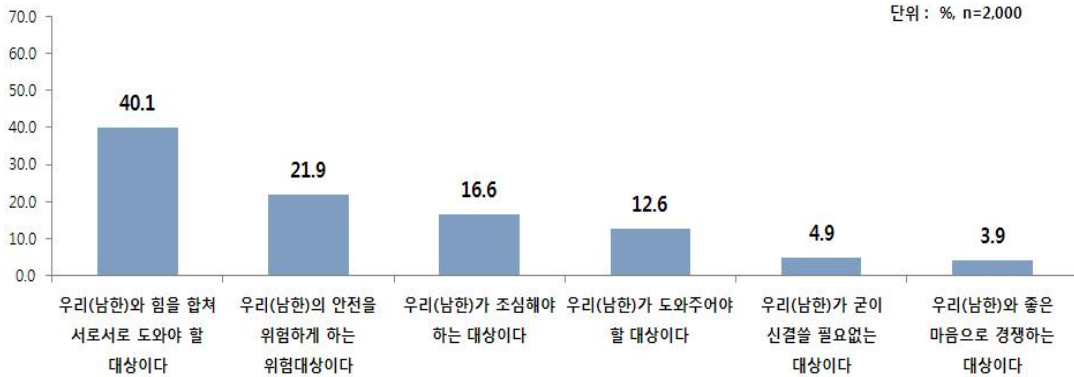
표 Ⅲ-14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634	
성별	남성	753	16.435*** (.000)
	여성	881	
학교급	초등학교	470	100.073*** (.000)
	중학교	577	
	고등학교	58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22.256*** (.000)
	중	1,384	
	하	126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120.560*** (.000)
	없다	1,540	

*p<.05, **p<.01, ***p<.001

(4)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

힘을 합쳐 도와야 할 대상 40.1% >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대상 21.9%



【그림 III-7】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

표 III-15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

단위[%]		사례수 (명)	우리(남한)와 힘을 합쳐 서로서로 도와야 할 대상이다	우리(남한)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위험대상이다	우리(남한)가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다	우리(남한)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남한)가 굳이 신경쓸 필요 없는 대상이다	우리(남한)와 좋은 마음으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전체		2,000	40.1	21.9	16.6	12.6	4.9	3.9
성별	남성	926	39.8	21.7	15.2	13.4	4.4	5.5
	여성	1,074	40.3	22.0	17.8	11.8	5.3	2.8
학교급	초등학교	564	37.6	20.6	16.3	17.6	2.0	5.9
	중학교	705	42.8	22.6	14.9	12.3	4.1	3.3
	고등학교	731	39.4	22.2	18.5	8.9	7.9	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1.4	17.5	19.0	19.7	5.1	7.3
	중	1,709	40.2	22.1	16.1	12.8	4.9	3.9
	하	154	46.8	22.7	19.5	3.9	5.2	1.9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0.8	21.4	15.5	12.6	1.0	8.7
	없다	1,897	40.1	21.9	16.7	12.5	5.1	3.7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에 대해서, ‘힘을 합쳐 도와야 할 대상’ 응답이 40.1%로 가장 높고,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위험대상’(21.9%), ‘조심해야하는 대상’(1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힘을 합쳐 도와야 할 대상’(42.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불만일 경우(41.4%),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간일 경우(40.9%),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42.9%),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46.8%)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 및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8% 수준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 99%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Ⅲ-16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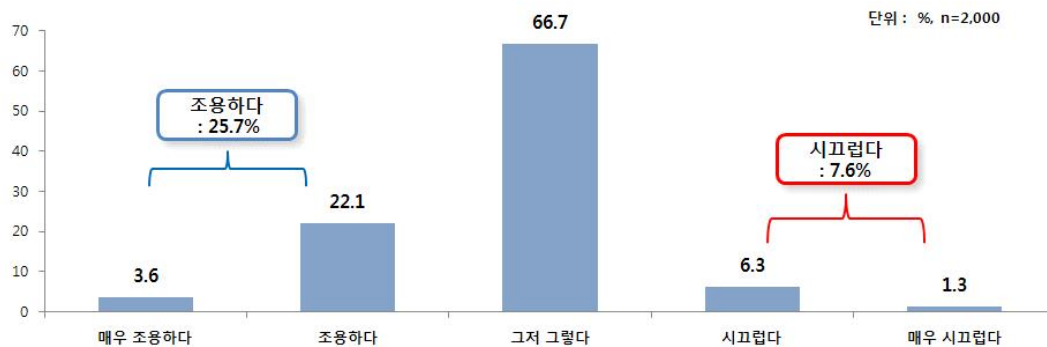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12.203 (.032)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57.512***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7.293** (.002)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9.615 (.087)
	없다	1,897	

*p<.05, **p<.01, ***p<.001

(5)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① 조용/시끄럽다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조용하다' 25.7%



【그림 III-8】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조용/시끄럽다

표 III-17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조용/시끄럽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조용 하다	조용 하다	그저 그렇다	시끄 럽다	매우 시끄 럽다	*조용 하다*	*그저 그렇다*	*시끄 럽다*
전체		2,000	3.6	22.1	66.7	6.3	1.3	25.7	66.7	7.6
성별	남성	926	3.5	23.5	64.4	7.2	1.4	27.0	64.4	8.6
	여성	1,074	3.6	20.8	68.9	5.5	1.2	24.4	68.9	6.7
학교급	초등학교	564	3.9	22.3	63.5	8.9	1.4	26.2	63.5	10.3
	중학교	705	4.0	22.6	66.2	5.8	1.4	26.6	66.2	7.2
	고등학교	731	2.9	21.3	69.9	4.8	1.1	24.2	69.9	5.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8.0	32.1	55.6	3.6	0.7	40.1	55.6	4.3
	중	1,709	3.2	21.4	67.4	6.8	1.2	24.6	67.4	8.0
	하	154	3.9	20.8	68.9	3.2	3.2	24.7	68.9	6.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6.8	31.1	59.2	2.9	0.0	37.9	59.2	2.9
	없다	1,897	3.4	21.6	67.1	6.5	1.4	25.0	67.1	7.9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 청소년의 조용/시끄럽다에 대한 이미지로는 ‘조용하다’ 25.7%(매우 조용하다: 3.6% + 조용하다: 22.1%), ‘시끄럽다’ 7.6%(매우 시끄럽다: 1.3% + 시끄럽다: 6.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27.0%)이 여성(24.4%)보다 ‘조용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중학교(26.6%)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28.0%),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29.0%),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40.1%), 이산가족이 있을 때(37.9%) ‘조용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및 이산가족의 유무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5%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98% 수준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 및 이산가족 유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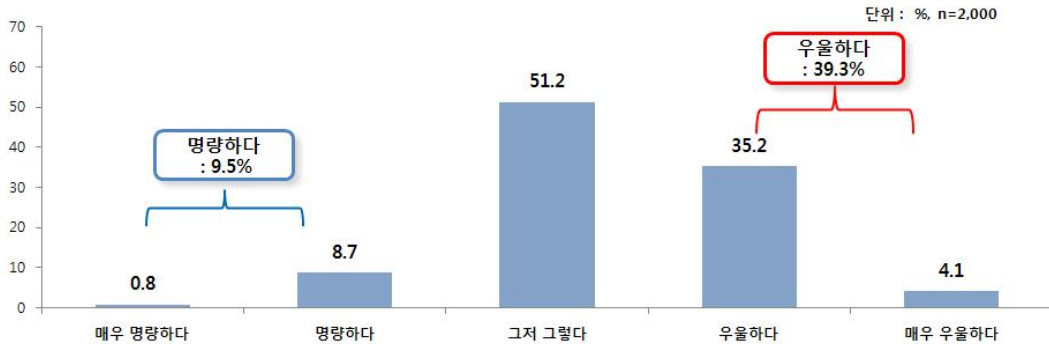
표 Ⅲ-18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조용/시끄럽다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5.300 (.071)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203* (.024)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7.423** (.002)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453** (.005)
	없다	1,897	

*p<.05, **p<.01, ***p<.001

② 명랑/우울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우울하다' 39.3%



【그림 III-9】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명랑/우울

표 III-19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명랑/우울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명랑 하다	명랑 하다	그저 그렇다	우울 하다	매우 우울 하다	*명랑 하다*	*그저 그렇다*	*우울 하다*
전체		2,000	0.8	8.7	51.2	35.2	4.1	9.5	51.2	39.3
성별	남성	926	0.8	8.3	51.3	35.6	4.0	9.1	51.3	39.6
	여성	1,074	0.7	9.0	51.3	34.8	4.2	9.7	51.3	39.0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	5.7	45.7	42.4	5.1	6.8	45.7	47.5
	중학교	705	1.1	10.9	50.3	34.6	3.1	12.0	50.3	37.7
	고등학교	731	0.1	8.9	56.6	30.2	4.2	9.0	56.6	34.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7	14.6	43.1	33.6	8.0	15.3	43.1	41.6
	중	1,709	0.8	8.2	51.3	35.8	3.9	9.0	51.3	39.7
	하	154	0.6	9.1	57.8	29.9	2.6	9.7	57.8	32.5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13.6	44.7	35.9	2.9	16.5	44.7	38.8
	없다	1,897	0.6	8.4	51.6	35.2	4.2	9.0	51.6	39.4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 청소년의 명랑/우울에 대한 이미지로는 ‘우울하다’ 39.3%(매우 우울하다: 4.1% + 우울하다: 35.2%), ‘그저 그렇다’ 51.2%, ‘명랑하다’ 9.5%(매우 명랑하다: 0.8% + 명랑하다: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9.6%)이 여성(39.0%) 보다 ‘우울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초등학교(47.5%)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42.0%),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간일수록(42.2%),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41.6%), 이산가족이 없을 때 (39.4%) ‘우울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9% 수준으로 학교급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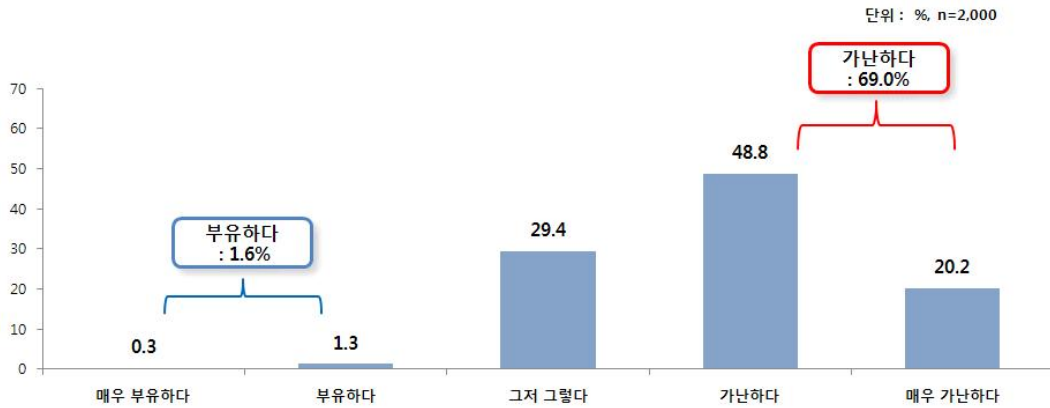
표 Ⅲ-20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명랑/우울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0.311 (.856)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31.476***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0.644 (.071)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6.645 (.076)
	없다	1,897	

*p<.05, **p<.01, ***p<.001

③ 부유/가난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가난하다' 69.0%



【그림 III-10】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부유/가난

표 III-21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부유/가난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부유 하다	부유 하다	그저 그렇다	가난 하다	매우 가난 하다	*부유 하다*	*그저 그렇다*	*가난 하다*
전체		2,000	0.3	1.3	29.4	48.8	20.2	1.6	29.4	69.0
성별	남성	926	0.4	2.3	31.1	47.3	18.9	2.7	31.1	66.2
	여성	1,074	0.1	0.5	28.1	50.1	21.2	0.6	28.1	71.3
학교급	초등학교	564	0.2	1.4	24.7	48.0	25.7	1.6	24.7	73.7
	중학교	705	0.3	1.4	29.7	49.9	18.7	1.7	29.7	68.6
	고등학교	731	0.3	1.1	33.1	48.3	17.2	1.4	33.1	65.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5	1.5	24.7	43.1	29.2	3.0	24.7	72.3
	중	1,709	0.2	1.3	29.7	49.3	19.5	1.5	29.7	68.8
	하	154	0.0	1.3	31.1	48.1	19.5	1.3	31.1	67.6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	9.7	21.3	46.6	21.4	10.7	21.3	68.0
	없다	1,897	0.2	0.8	30.0	48.9	20.1	1.0	30.0	69.0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 청소년의 부유/가난에 대한 이미지로는, ‘가난하다’가 69.0%(매우 가난하다: 20.2% + 가난하다: 48.8%)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9.4%, ‘부유하다’ 1.6%(매우 부유하다: 0.3% + 부유하다: 1.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71.3%)이 남성(66.2%)보다 ‘가난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71.7%),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75.4%),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72.3%)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및 이산가족의 유무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5%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99% 수준에서는 성별, 이산가족 유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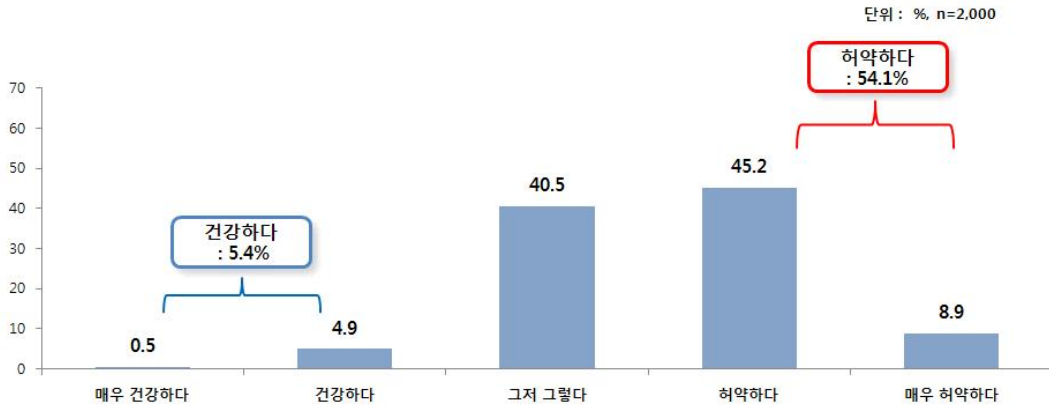
표 Ⅲ-22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부유/가난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18.100*** (.000)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144* (.025)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265 (.514)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60.850*** (.000)
	없다	1,897	

*p<.05, **p<.01, ***p<.001

④ 건강/허약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허약하다' 54.1%



【그림 III-11】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건강/허약

표 III-23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건강/허약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건강 하다	건강 하다	그저 그렇다	허약 하다	매우 허약 하다	*건강 하다*	*그저 그렇다*	*허약 하다*
전체		2,000	0.5	4.9	40.5	45.2	8.9	5.4	40.5	54.1
성별	남성	926	0.8	5.6	43.8	41.4	8.4	6.4	43.8	49.8
	여성	1,074	0.2	4.3	37.8	48.4	9.3	4.5	37.8	57.7
학교급	초등학교	564	0.7	3.7	37.1	48.0	10.5	4.4	37.1	58.5
	중학교	705	0.3	6.5	41.0	43.4	8.8	6.8	41.0	52.2
	고등학교	731	0.4	4.2	43.0	44.6	7.8	4.6	43.0	52.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0	5.1	37.2	41.6	16.1	5.1	37.2	57.7
	중	1,709	0.5	5.2	41.1	44.9	8.3	5.7	41.1	53.2
	하	154	0.6	1.3	37.7	51.3	9.1	1.9	37.7	60.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8.7	31.1	46.6	10.7	11.6	31.1	57.3
	없다	1,897	0.3	4.7	41.1	45.1	8.8	5.0	41.1	53.9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 청소년의 건강/허약에 대한 이미지로는, ‘허약하다’가 54.1%(매우 허약하다: 8.9% + 허약하다: 45.2%)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40.5%, ‘건강하다’ 5.4%(매우 건강하다: 0.5% + 건강하다: 4.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57.7%)이 남성(49.8%)보다 ‘허약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58.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56.6%),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61.7%),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60.4%)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이산가족의 유무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8% 수준에서는 이산가족 유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99%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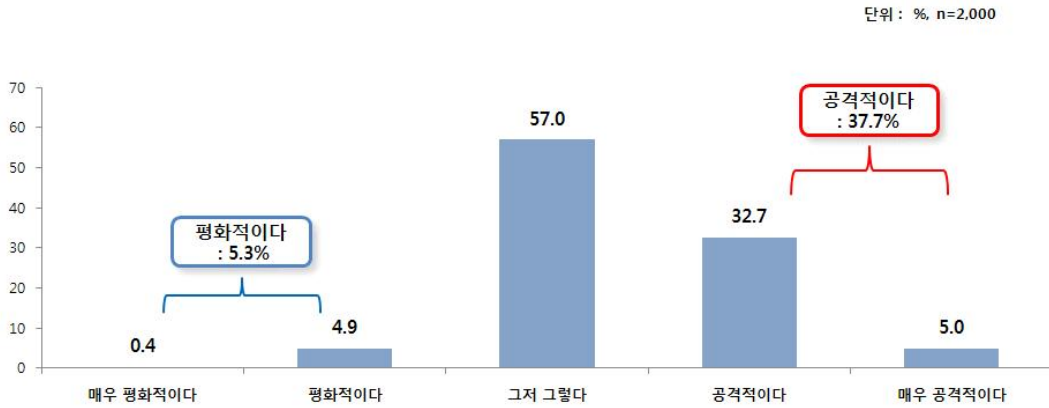
표 Ⅲ-24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건강/허약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13.640*** (.001)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0.021 (.14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6.228 (.183)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697** (.005)
	없다	1,897	

*p<.05, **p<.01, ***p<.001

⑤ 평화/공격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공격적이다' 37.7%



【그림 III-12】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평화/공격

표 III-25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평화/공격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평화적 이다	평화적 이다	그저 그렇다	공격적 이다	매우 공격적 이다	*평화적 이다*	*그저 그렇다*	*공격적 이다*
전체		2,000	0.4	4.9	57.0	32.7	5.0	5.3	57.0	37.7
성별	남성	926	0.5	4.8	54.7	35.0	5.0	5.3	54.7	40.0
	여성	1,074	0.3	5.0	59.0	30.7	5.0	5.3	59.0	35.7
학교급	초등학교	564	0.4	2.3	45.6	45.7	6.0	2.7	45.6	51.7
	중학교	705	0.4	4.5	57.2	32.5	5.4	4.9	57.2	37.9
	고등학교	731	0.4	7.3	65.7	22.8	3.8	7.7	65.7	26.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7	1.5	52.5	38.7	6.6	2.2	52.5	45.3
	중	1,709	0.4	4.9	57.5	32.5	4.7	5.3	57.5	37.2
	하	154	0.0	7.8	56.5	29.2	6.5	7.8	56.5	35.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6.8	50.5	34.0	6.8	8.7	50.5	40.8
	없다	1,897	0.3	4.8	57.4	32.6	4.9	5.1	57.4	37.5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 청소년의 평화/공격에 대한 이미지로는 ‘그저 그렇다’ 57.0%, ‘공격적이다’ 37.7%(매우 공격적이다: 5.0% + 공격적이다: 32.7%), ‘평화적이다’ 5.3%(매우 평화적이다: 0.4% + 평화적이다: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59.0%)이 남성(54.7%)보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이 높을수록(65.7%) 높게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무교일 때 (59.4%) 높았고,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59.8%),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간일 때(57.5%), 이산가족이 없을 때(57.4%)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9% 수준에서 학교급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표 Ⅲ-26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평화/공격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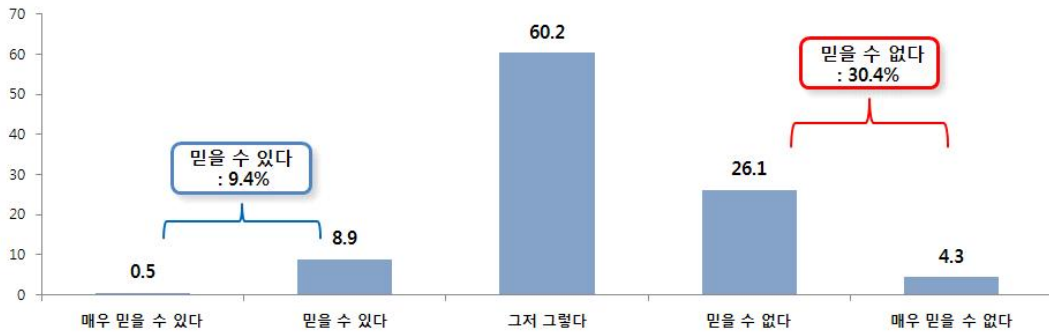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3.859 (.145)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91.017***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7.156 (.128)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3.503 (.174)
	없다	1,897	

*p<.05, **p<.01, ***p<.001

⑥ 믿음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믿을 수 없다' 30.4%

단위 : %, n=2,000



【그림 III-13】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믿음

표 III-27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믿음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저 그렇다	믿을 수 없다	매우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	*그저 그렇다*	*믿을 수 없다*
전체		2,000	0.5	8.9	60.2	26.1	4.3	9.4	60.2	30.4
성별	남성	926	0.8	8.9	60.3	25.8	4.2	9.7	60.3	30.0
	여성	1,074	0.3	8.9	60.1	26.4	4.3	9.2	60.1	30.7
학교급	초등학교	564	0.2	5.9	55.4	33.7	4.8	6.1	55.4	38.5
	중학교	705	0.7	10.2	61.2	24.5	3.4	10.9	61.2	27.9
	고등학교	731	0.5	10.0	63.0	21.8	4.7	10.5	63.0	26.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0	10.9	58.5	27.0	3.6	10.9	58.5	30.6
	중	1,709	0.5	8.8	60.6	26.1	4.0	9.3	60.6	30.1
	하	154	0.6	7.8	59.2	25.3	7.1	8.4	59.2	32.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	12.6	47.5	35.0	3.9	13.6	47.5	38.9
	없다	1,897	0.5	8.7	60.9	25.6	4.3	9.2	60.9	29.9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 청소년의 믿음에 대한 이미지로는, ‘믿을 수 없다’ 30.4%(매우 믿을 수 없다: 4.3% + 믿을 수 없다: 26.1%), ‘믿을 수 있다’ 9.4%(매우 믿을 수 있다: 0.5% + 믿을 수 있다: 8.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이 높을수록(63.0%), 종교는 가톨릭일 때(65.9%) ‘그저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일 때(64.3%),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일 때(60.6%), 이산가족이 없을 때(60.9%)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9% 수준에서 학교급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표 Ⅲ-28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믿음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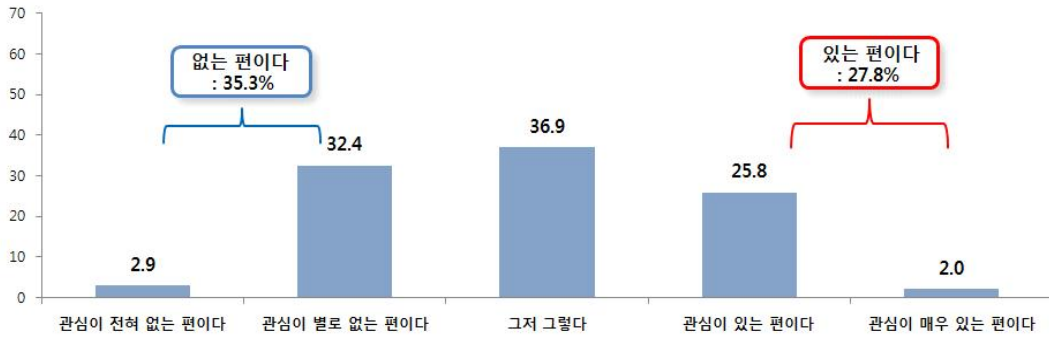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0.147 (.929)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30.093***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891 (.926)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7.503 (.123)
	없다	1,897	

*p<.05, **p<.01, ***p<.001

(6)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

없는 편이다 35.3% > 있는 편이다 27.8%

단위 : %, n=2,000



【그림 III-14】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

표 Ⅲ-29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

단위[%]		사례수 (명)	관심이 전혀 없는 편이다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관심이 있는 편이다	관심이 매우 많은 편이다	*없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있는 편이다*
전체		2,000	2.9	32.4	36.9	25.8	2.0	35.3	36.9	27.8
성별	남성	926	2.9	32.7	37.6	24.1	2.7	35.6	37.6	26.8
	여성	1,074	2.9	32.1	36.3	27.3	1.4	35.0	36.3	28.7
학교급	초등학교	564	2.1	37.1	39.3	19.9	1.6	39.2	39.3	21.5
	중학교	705	3.3	31.2	36.8	27.0	1.7	34.5	36.8	28.7
	고등학교	731	3.1	30.0	35.0	29.3	2.6	33.1	35.0	31.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5	26.3	40.8	26.3	5.1	27.8	40.8	31.4
	중	1,709	2.9	32.4	36.8	26.3	1.6	35.3	36.8	27.9
	하	154	3.9	38.3	33.8	20.1	3.9	42.2	33.8	24.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37.9	29.1	28.2	2.9	39.8	29.1	31.1
	없다	1,897	3.0	32.1	37.2	25.7	2.0	35.1	37.2	27.7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는 ‘없는 편이다’ 35.3%(관심이 전혀 없는 편이다: 2.9% +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다: 32.4%), ‘있는 편이다’ 27.8%(관심이 매우 많은 편이다: 2.0% + 관심이 있는 편이다: 25.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5.6%)이 여성(35.0%) 보다 ‘없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39.2%)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4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42.2%), 이산가족이 있을 때(39.8%)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9% 수준에서 학교급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표 Ⅲ-30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0.915 (.633)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7.892*** (.001)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6.724 (.151)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820 (.244)
	없다	1,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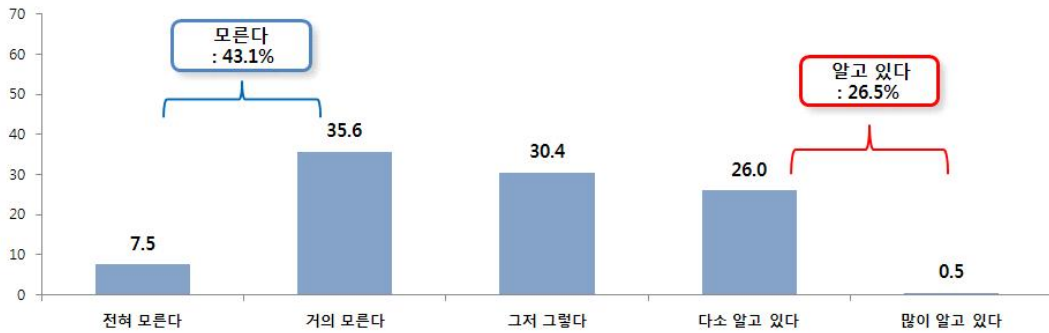
*p<.05, **p<.01, ***p<.001

(7)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

① 언어

모른다 43.1% > 알고 있다 26.5%

단위 : %, n=2,000



【그림 III-15】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언어

표 III-31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언어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7.5	35.6	30.4	26.0	0.5	43.1	30.4	26.5
성별	남성	926	7.6	40.6	31.2	20.1	0.5	48.2	31.2	20.6
	여성	1,074	7.4	31.3	29.8	31.0	0.5	38.7	29.8	31.5
학교급	초등학교	564	9.8	45.9	31.0	12.8	0.5	55.7	31.0	13.3
	중학교	705	6.7	34.9	30.7	27.4	0.3	41.6	30.7	27.7
	고등학교	731	6.4	28.3	29.9	34.7	0.7	34.7	29.9	35.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6.6	30.7	32.8	29.9	0.0	37.3	32.8	29.9
	중	1,709	6.9	36.6	30.7	25.3	0.5	43.5	30.7	25.8
	하	154	14.3	29.2	26.0	29.2	1.3	43.5	26.0	30.5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	40.8	31.9	21.4	1.0	45.7	31.9	22.4
	없다	1,897	7.6	35.3	30.4	26.2	0.5	42.9	30.4	26.7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의 언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는, ‘모른다’가 43.1%(전혀 모른다: 7.5% + 거의 모른다: 35.6%)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0.4%, ‘알고 있다’ 26.5%(많이 알고 있다: 0.5% + 다소 알고 있다: 26.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8.2%)이 여성(38.7%)보다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55.7%), 종교가 가톨릭인 경우 (52.3%)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44.0%),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중간일 때(47.2%),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 중간일 때(43.5%), 이산가족이 있을 때(45.7%)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9% 수준에서 성별과 학교급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Ⅲ-32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언어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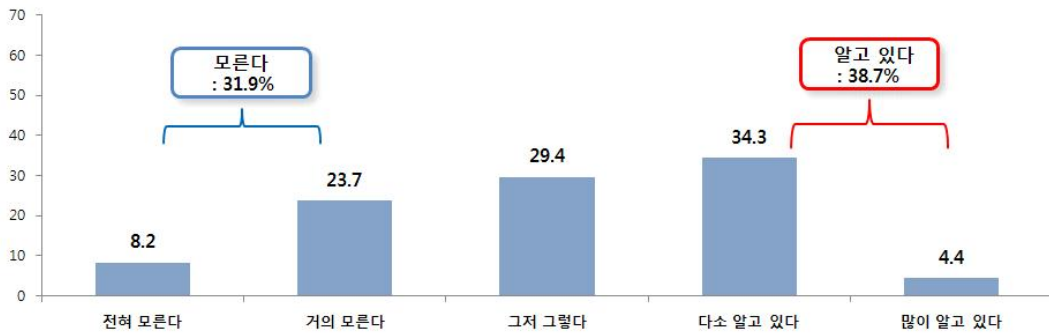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32.872*** (.000)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92.693***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4.327 (.364)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0.949 (.622)
	없다	1,897	

*p<.05, **p<.01, ***p<.001

② 정치

알고 있다 38.7% > 모른다 31.9%

단위 : %, n=2,000



【그림 III-16】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정치

표 III-33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정치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8.2	23.7	29.4	34.3	4.4	31.9	29.4	38.7
성별	남성	926	8.6	25.1	28.4	33.6	4.3	33.7	28.4	37.9
	여성	1,074	7.7	22.4	30.7	34.8	4.4	30.1	30.7	39.2
학교급	초등학교	564	9.4	33.2	30.8	25.4	1.2	42.6	30.8	26.6
	중학교	705	9.2	22.6	26.7	36.5	5.0	31.8	26.7	41.5
	고등학교	731	6.2	17.4	31.2	39.0	6.2	23.6	31.2	45.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7.3	20.4	30.0	34.3	8.0	27.7	30.0	42.3
	중	1,709	7.5	24.5	30.7	33.6	3.7	32.0	30.7	37.3
	하	154	15.6	16.9	18.1	41.6	7.8	32.5	18.1	49.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	20.4	26.2	45.6	2.9	25.3	26.2	48.5
	없다	1,897	8.3	23.8	29.9	33.6	4.4	32.1	29.9	38.0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의 정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는, ‘알고 있다’가 38.7%(많이 알고 있다: 4.4% + 다소 알고 있다: 34.3%)로 가장 높고, ‘모른다’ 31.9%(전혀 모른다: 8.2% + 거의 모른다: 23.7%), ‘그저 그렇다’ 29.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39.2%)로 남성(37.9%)보다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45.2%)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 때(40.3%),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 때(43.6%),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49.4%), 이산가족이 있을 때(48.5%)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 및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8%수준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99%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Ⅲ-34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정치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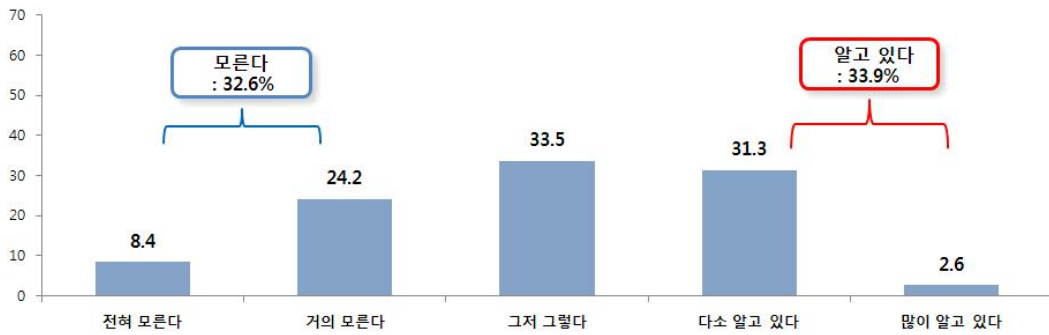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2.996 (.224)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69.738***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3.958** (.007)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671 (.197)
	없다	1,897	

*p<.05, **p<.01, ***p<.001

③ 사회 특성

알고 있다 33.9% > 모른다 32.6%

단위 : %, n=2,000



【그림 III-17】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사회 특성

표 III-35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사회 특성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8.4	24.2	33.5	31.3	2.6	32.6	33.5	33.9
성별	남성	926	9.0	24.5	32.0	31.2	3.3	33.5	32.0	34.5
	여성	1,074	7.8	23.8	35.2	31.3	1.9	31.6	35.2	33.2
학교급	초등학교	564	9.8	32.8	31.2	25.0	1.2	42.6	31.2	26.2
	중학교	705	8.2	23.5	32.8	32.5	3.0	31.7	32.8	35.5
	고등학교	731	7.4	18.1	36.5	34.9	3.1	25.5	36.5	38.0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8.8	24.8	34.3	28.5	3.6	33.6	34.3	32.1
	중	1,709	7.5	24.7	34.1	31.5	2.2	32.2	34.1	33.7
	하	154	17.5	17.5	28.0	31.2	5.8	35.0	28.0	37.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	23.3	30.0	34.0	7.8	28.2	30.0	41.8
	없다	1,897	8.5	24.2	33.9	31.1	2.3	32.7	33.9	33.4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의 사회 특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는, ‘알고 있다’가 33.9%(많이 알고 있다: 2.6% + 다소 알고 있다: 31.3%)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3.5%, ‘모른다’ 32.6%(전혀 모른다: 8.4% + 거의 모른다: 24.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4.5%)이 여성(33.2%)보다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38.0%)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34.9%),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37.0%), 이산가족이 있을 때(41.8%)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9% 수준에서 학교급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표 Ⅲ-36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사회 특성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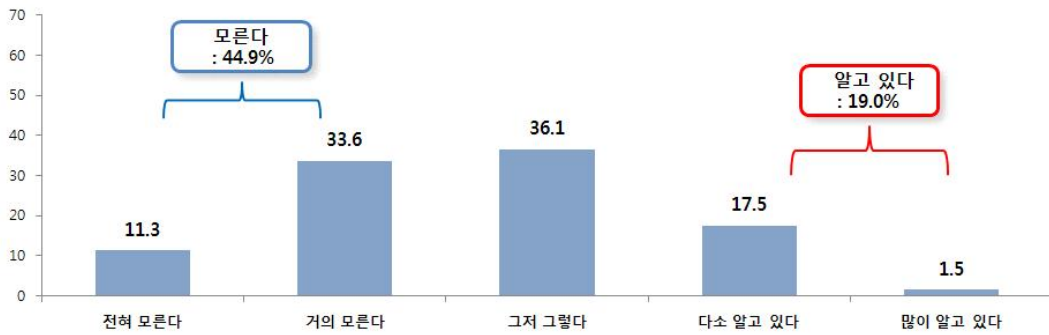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2.339 (.311)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45.785***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664 (.615)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3.078 (.215)
	없다	1,897	

*p<.05, **p<.01, ***p<.001

④ 주민들의 생각

모른다 44.9% > 알고 있다 19.0%

단위 : %, n=2,000



【그림 III-18】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주민들의 생각

표 III-37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주민들의 생각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11.3	33.6	36.1	17.5	1.5	44.9	36.1	19.0
성별	남성	926	10.2	36.4	36.7	15.1	1.6	46.6	36.7	16.7
	여성	1,074	12.2	31.2	35.8	19.5	1.3	43.4	35.8	20.8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3	41.3	34.8	11.7	0.9	52.6	34.8	12.6
	중학교	705	11.6	31.9	37.2	18.3	1.0	43.5	37.2	19.3
	고등학교	731	10.8	29.3	36.5	21.1	2.3	40.1	36.5	23.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8.8	32.8	39.5	15.3	3.6	41.6	39.5	18.9
	중	1,709	10.2	34.4	36.7	17.5	1.2	44.6	36.7	18.7
	하	154	24.7	25.3	28.6	18.8	2.6	50.0	28.6	21.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6.8	26.2	41.7	20.4	4.9	33.0	41.7	25.3
	없다	1,897	11.5	34.0	35.9	17.3	1.3	45.5	35.9	18.6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는, ‘모른다’가 44.9%(전혀 모른다: 11.3% + 거의 모른다: 33.6%)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6.1%, ‘알고 있다’ 19.0%(많이 알고 있다: 1.5% + 다소 알고 있다: 17.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6.6%)이 여성(43.4%)보다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52.6%), 종교가 가톨릭인 경우(49.7%)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46.2%),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49.3%),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50.0%), 이산가족이 없을 때(45.5%)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9% 수준에서 학교급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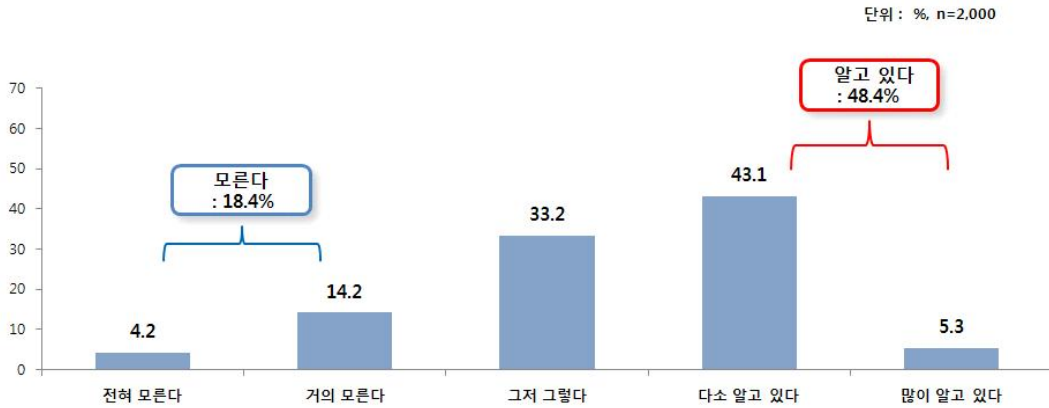
표 Ⅲ-38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주민들의 생각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5.470 (.065)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31.919***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4.793 (.309)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6.611 (.337)
	없다	1,897	

*p<.05, **p<.01, ***p<.001

⑤ 생활수준

알고 있다 48.4% > 모른다 18.4%



【그림 III-19】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생활 수준

표 III-39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생활 수준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4.2	14.2	33.2	43.1	5.3	18.4	33.2	48.4
성별	남성	926	3.2	14.4	36.3	39.8	6.3	17.6	36.3	46.1
	여성	1,074	4.9	14.0	30.8	45.8	4.5	18.9	30.8	50.3
학교급	초등학교	564	3.5	17.2	39.1	37.4	2.8	20.7	39.1	40.2
	중학교	705	4.4	15.0	31.5	42.6	6.5	19.4	31.5	49.1
	고등학교	731	4.4	10.9	30.8	47.9	6.0	15.3	30.8	53.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4.4	15.3	29.2	43.1	8.0	19.7	29.2	51.1
	중	1,709	3.6	14.2	34.5	42.8	4.9	17.8	34.5	47.7
	하	154	10.4	13.0	23.3	45.5	7.8	23.4	23.3	53.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7.8	36.9	48.5	4.9	9.7	36.9	53.4
	없다	1,897	4.3	14.5	33.1	42.8	5.3	18.8	33.1	48.1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의 생활수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는, ‘알고 있다’가 48.4%(많이 알고 있다: 5.3% + 다소 알고 있다: 43.1%)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3.2%, ‘모른다’ 18.4%(전혀 모른다: 4.2% + 거의 모른다: 14.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6.1%)보다 여성(50.3%)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53.9%), 종교가 기독교일 때(50.3%)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48.9%),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53.3%), 이산가족이 있을 때(53.4%)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9% 수준에서 학교급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표 Ⅲ-40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생활 수준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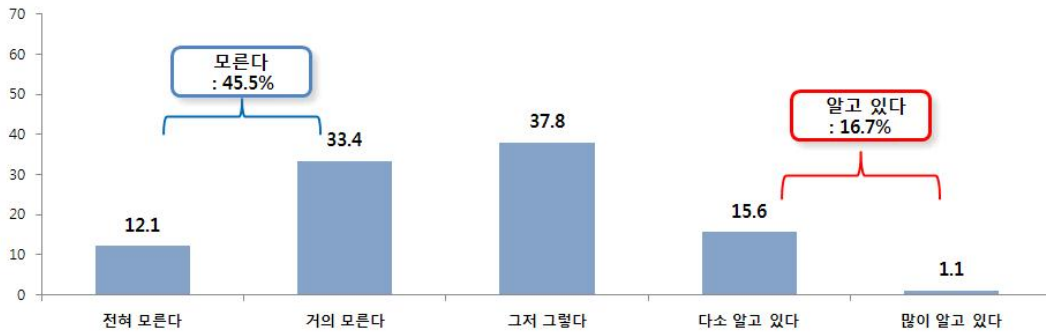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6.699 (.335)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25.861***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9.832 (.343)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5.361 (.069)
	없다	1,897	

*p<.05, **p<.01, ***p<.001

⑥ 문화 수준

모른다 45.5% > 알고 있다 16.7%

단위 : %, n=2,000



【그림 III-20】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문화 수준

표 III-41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문화 수준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12.1	33.4	37.8	15.6	1.1	45.5	37.8	16.7
성별	남성	926	11.0	35.5	37.5	14.8	1.2	46.5	37.5	16.0
	여성	1,074	13.0	31.5	38.3	16.3	0.9	44.5	38.3	17.2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0	41.3	35.9	11.3	0.5	52.3	35.9	11.8
	중학교	705	13.5	28.7	39.2	17.2	1.4	42.2	39.2	18.6
	고등학교	731	11.6	31.7	38.2	17.4	1.1	43.3	38.2	18.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0.9	40.1	33.6	13.9	1.5	51.0	33.6	15.4
	중	1,709	11.3	33.6	38.4	15.7	1.0	44.9	38.4	16.7
	하	154	22.1	24.7	35.7	16.2	1.3	46.8	35.7	17.5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7	31.1	31.9	21.4	4.9	41.8	31.9	26.3
	없다	1,897	12.2	33.5	38.2	15.3	0.8	45.7	38.2	16.1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의 문화 수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는, ‘모른다’가 45.5%(전혀 모른다: 12.1% + 거의 모른다: 33.4%)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7.8%, ‘알고 있다’ 16.7%(많이 알고 있다: 1.1% + 다소 알고 있다: 15.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6.5%)이 여성(44.5%)보다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52.3%), 종교가 가톨릭인 경우(53.0%)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46.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51.0%), 이산가족이 없을 때(45.7%)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과 이산가족 유무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5% 수준에서는 이산가족 유무에서, 99%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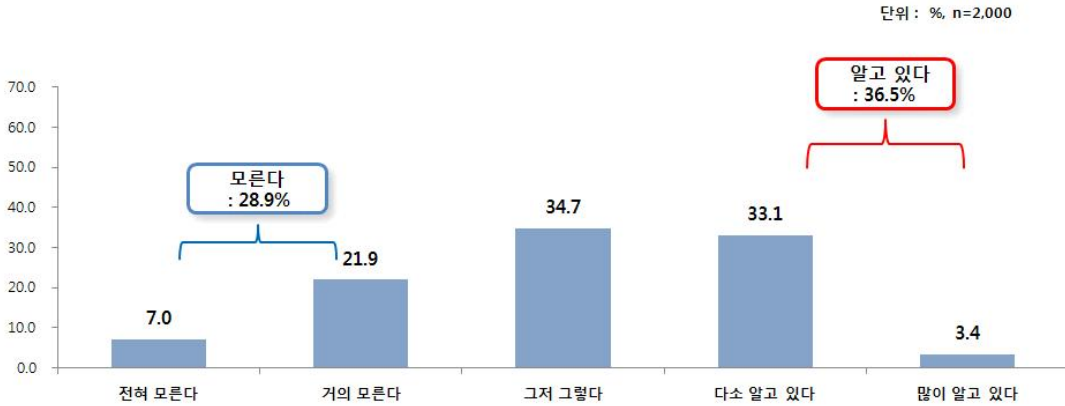
표 Ⅲ-42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문화 수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0.998 (.607)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20.002***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360 (.670)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7.277* (.026)
	없다	1,897	

*p<.05, **p<.01, ***p<.001

⑦ 경제 수준

알고 있다 36.5% > 모른다 28.9%



【그림 III-21】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경제 수준

표 III-43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경제 수준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7.0	21.9	34.7	33.1	3.4	28.9	34.7	36.5
성별	남성	926	5.3	24.2	35.2	31.3	4.0	29.5	35.2	35.3
	여성	1,074	8.5	19.8	34.3	34.5	2.9	28.3	34.3	3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7.3	25.5	36.6	28.5	2.1	32.8	36.6	30.6
	중학교	705	7.5	20.1	34.2	33.8	4.4	27.6	34.2	38.2
	고등학교	731	6.3	20.7	33.8	35.8	3.4	27.0	33.8	39.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5.1	21.9	36.5	31.4	5.1	27.0	36.5	36.5
	중	1,709	6.6	22.2	35.4	32.8	3.0	28.8	35.4	35.8
	하	154	13.0	17.5	26.7	37.0	5.8	30.5	26.7	42.8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8.7	12.6	33.1	41.7	3.9	21.3	33.1	45.6
	없다	1,897	6.9	22.4	34.7	32.6	3.4	29.3	34.7	36.0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의 경제 수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는, ‘알고 있다’가 36.5%(많이 알고 있다: 3.4% + 다소 알고 있다: 33.1%)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4.7%, ‘모른다’ 28.9%(전혀 모른다: 7.0% + 거의 모른다: 21.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37.4%)이 남성(35.3%)보다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39.2%), 종교가 불교일 때(41.0%)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 때(37.8%),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42.8%), 이산가족이 있을 때(45.6%)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8% 수준에서 학교급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표 Ⅲ-44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경제 수준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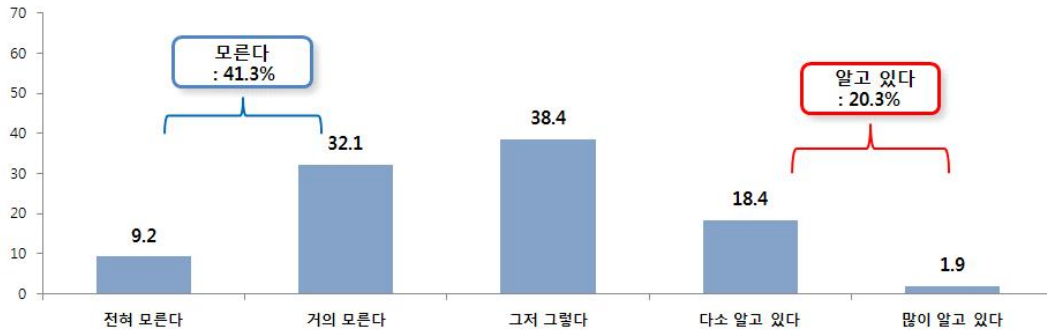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0.977 (.614)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2.395** (.005)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5.393 (.249)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713 (.095)
	없다	1,897	

*p<.05, **p<.01, ***p<.001

⑧ 교육 수준

모른다 41.3% > 알고 있다 20.3%

단위 : %, n=2,000



【그림 III-22】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교육 수준

표 III-45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교육 수준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9.2	32.1	38.4	18.4	1.9	41.3	38.4	20.3
성별	남성	926	9.5	32.3	38.3	17.3	2.6	41.8	38.3	19.9
	여성	1,074	8.8	31.8	38.8	19.4	1.2	40.6	38.8	20.6
학교급	초등학교	564	9.2	40.1	37.8	12.4	0.5	49.3	37.8	12.9
	중학교	705	10.2	28.1	39.9	19.0	2.8	38.3	39.9	21.8
	고등학교	731	8.1	29.7	37.9	22.4	1.9	37.8	37.9	24.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6.6	33.6	34.2	21.2	4.4	40.2	34.2	25.6
	중	1,709	8.4	32.1	40.0	18.0	1.5	40.5	40.0	19.5
	하	154	19.5	30.5	26.7	20.1	3.2	50.0	26.7	23.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5.8	28.2	39.8	23.3	2.9	34.0	39.8	26.2
	없다	1,897	9.3	32.3	38.5	18.1	1.8	41.6	38.5	19.9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의 교육 수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는, ‘모른다’가 41.3%(전혀 모른다: 9.2% + 거의 모른다: 32.1%)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8.4%, ‘알고 있다’ 20.3%(많이 알고 있다: 1.9% + 다소 알고 있다: 18.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1.8%)이 여성(40.6%)보다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49.3%), 종교가 불교인 경우(42.0%)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41.4%), 부모의 교육수준별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44.5%),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50.0%), 이산가족이 없을 때(41.6%)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과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8% 수준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99%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Ⅲ-46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교육 수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0.290 (.865)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34.814***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3.413** (.009)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3.325 (.190)
	없다	1,897	

*p<.05, **p<.01, ***p<.001

2) 통일에 대한 생각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73.7%로 나타났고,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같은 민족이니까'(40.9%), '평화롭게 살기 위해'(29.3%),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회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44.4%로 가장 높고, '북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15.6%), '현재 상태가 좋아서'(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이익정도로는 '북한 이익'이라는 의견이 86.6%로 '남한 이익'이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일 이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로는 '어려워질 것이다' 52.0%로 '좋아질 것이다' 32.0%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일 이후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경제적으로 차이나는 문제'가 30.1%로 가장 높고, '이념 및 사상이 차이나는 문제',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 전반적인 혼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서둘러야 할 과제로는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26.3%, '전쟁도발이 없는 평화협정 체결' 21.0%,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이 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전쟁위험정도로는 '전쟁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77.2%로 '없다'는 의견(8.6%)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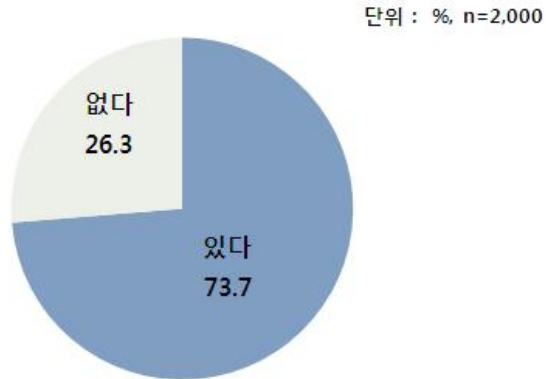
표 Ⅲ-47 통일에 대한 생각

구분	내용[단위 : %]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73.7	
통일이 필요한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40.9
	평화롭게 살기 위해	29.3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	13.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10.1
	북한 사람들의 인권보호와 발전을 위해	6.5

구분	내용[단위 : %]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사회 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	44.4
	북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15.6
	현재 상태가 좋아서	15.4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13.1
	같은 민족이라는 느낌이 없어서	5.9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5.7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이익 정도	남한 이익	41.9
	북한 이익	86.6
통일 이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	어려워질 것이다	52.0
	변화가 없을 것이다	16.1
	좋아질 것이다	32.0
통일 이후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	경제적으로 차이나는 문제	30.1
	이념, 사상이 차이나는 문제	25.6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	20.4
	사회 전반적인 혼란	14.2
	지역간 갈등 문제	5.0
	교육 문제	2.9
	거주할 집의 부족 문제	2.1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서둘러야 할 과제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26.3
	전쟁도발이 없는 평화협정 체결	21.0
	북한의 자유화/개방	20.7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	20.4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4.0
	남한이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	3.3
	준비할 필요는 없다	2.5
	주변 강대국의 협조	2.0
남북한의 전쟁위험	전쟁 위험이 있다	77.2
	없다	8.6

(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 73.7%



【그림 III-23】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표 III-48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명]	있다	없다
전체		2,000	73.7	26.3
성별	남성	926	76.8	23.2
	여성	1,074	70.9	29.1
학교급	초등학교	564	79.8	20.2
	중학교	705	75.0	25.0
	고등학교	731	67.6	32.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78.1	21.9
	중	1,709	73.1	26.9
	하	154	76.0	24.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77.7	22.3
	없다	1,897	73.4	26.6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73.7%로 ‘필요없다’는 응답 2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76.8%)이 여성(70.9%)보다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79.8%)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76.0%), 부모의 교육수준별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82.7%),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78.1%), 이산가족이 있을 때(77.7%)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학교급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8%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99%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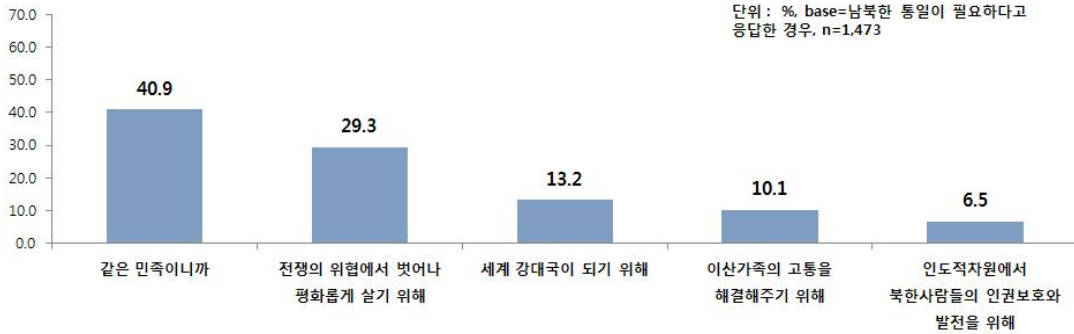
표 Ⅲ-49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8.715** (.003)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25.528***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110 (.348)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0.904 (.342)
	없다	1,897	

*p<.05, **p<.01, ***p<.001

(2) 통일이 필요한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40.9% >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기 위해 29.3%



【그림 III-24】 통일이 필요한 이유

표 III-50 통일이 필요한 이유

단위[%]		사례수(명)	같은 민족이니까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기 위해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사람들의 인권보호와 발전을 위해
전체		1,473	40.9	29.3	13.2	10.1	6.5
성별	남성	711	41.6	27.3	15.0	10.1	6.0
	여성	762	40.2	31.2	11.4	10.1	7.1
학교급	초등학교	450	51.1	25.3	10.2	8.7	4.7
	중학교	529	39.3	30.4	14.0	10.4	5.9
	고등학교	494	33.2	31.8	15.0	11.1	8.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07	43.0	18.7	12.1	15.0	11.2
	중	1,249	41.6	29.7	12.6	10.0	6.1
	하	117	31.6	35.0	20.5	6.8	6.1
이산가족 유무	있다	80	36.3	22.5	10.0	16.3	14.9
	없다	1,393	41.1	29.7	13.4	9.8	6.0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기 위해' 29.3%,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1.6%)이 여성(40.2%)보다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이 높고, 학교급은 낮을수록(초등학교: 51.1%) 높고, 종교가 가톨릭일 때(43.4%)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별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간일 때(43.4%),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43.0%), 이산가족이 없을 때(41.1%)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및 이산가족의 유무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8% 수준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 이산가족 유무에서, 99%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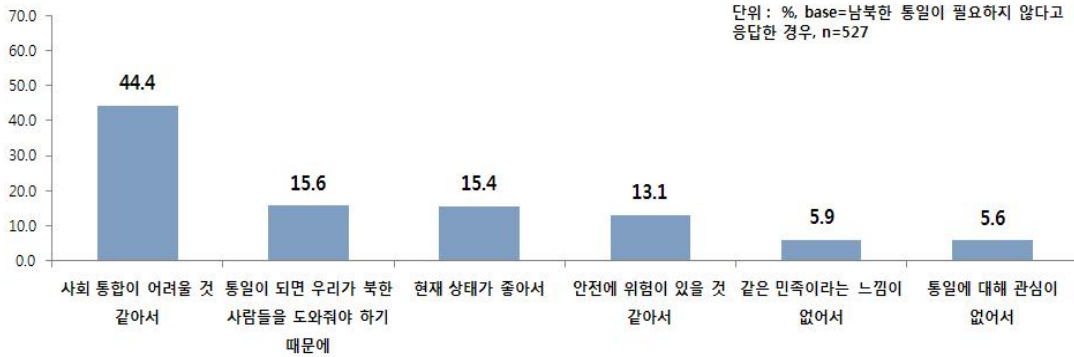
표 Ⅲ-51 통일이 필요한 이유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473	
성별	남성	711	6.619 (.157)
	여성	762	
학교급	초등학교	450	35.648*** (.000)
	중학교	529	
	고등학교	49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07	21.059** (.007)
	중	1,249	
	하	117	
이산가족 유무	있다	80	14.919** (.005)
	없다	1,393	

*p<.05, **p<.01, ***p<.001

(3)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사회 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 44.4% > 북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15.6%



【그림 III-25】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표 III-52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사례수(명)	남북한 간의 정치 체제와 생각이 달라 사회 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좋아서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은 민족이라는 느낌이 없어서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전체		527	44.4	15.6	15.4	13.1	5.9	5.6
성별	남성	215	43.3	12.6	13.5	15.3	9.8	5.5
	여성	312	45.2	17.6	16.7	11.5	3.2	5.8
학교급	초등학교	114	26.3	20.2	21.1	14.9	4.4	13.1
	중학교	176	48.3	14.2	8.5	13.1	9.7	6.2
	고등학교	237	50.2	14.3	17.7	12.2	3.8	1.8
가정의 경제수준	상	30	66.7	13.3	16.7	0.0	0.0	3.3
	중	460	43.3	15.9	15.7	12.6	6.5	6.0
	하	37	40.5	13.5	10.8	29.7	2.7	2.8
이산가족 유무	있다	23	21.7	21.7	4.3	21.7	17.4	13.2
	없다	504	45.4	15.3	15.9	12.7	5.4	5.3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북한 간의 정치 체제와 생각이 달라 사회 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고,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사람들을 도와줘야하기 때문에’ 15.6%, ‘현재 상태가 좋아서’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45.2%)이 남성(43.3%)보다 ‘사회 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50.2%)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66.7%), 이산가족이 없을 경우(45.4%)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및 이산가족의 유무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5% 수준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 이산가족 유무에서, 98%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99%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Ⅲ-53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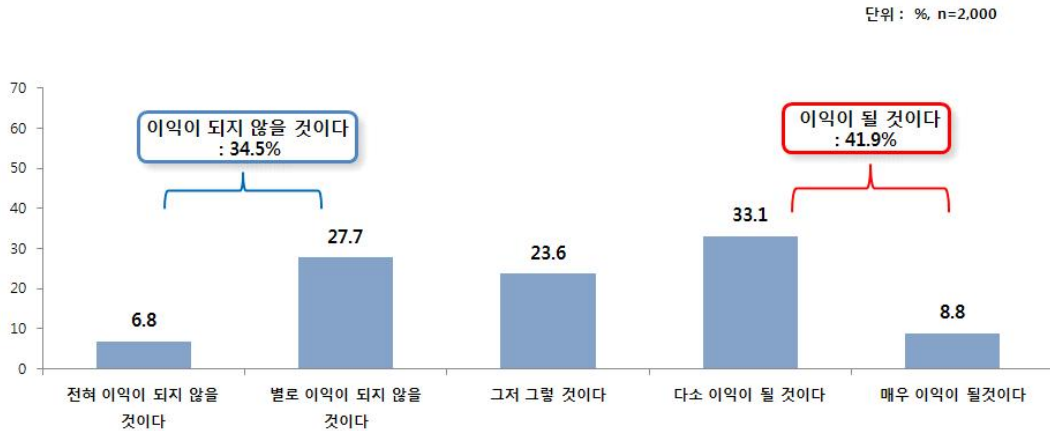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527	
성별	남성	215	13.785** (.007)
	여성	312	
학교급	초등학교	114	46.218*** (.000)
	중학교	176	
	고등학교	237	
가정의 경제수준	상	30	19.941* (.030)
	중	460	
	하	37	
이산가족 유무	있다	23	14.344* (.014)
	없다	504	

*p<.05, **p<.01, ***p<.001

(4) 통일 이후 이익 정도

① 통일이 된다면, 남한에 이익정도

이익이 될 것이다 41.9% >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4.5%



【그림 III-26】 통일이 된다면, 남한에 이익정도

표 III-54 통일이 된다면, 남한에 이익정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이익이 될 것이다*
전체		2,000	6.8	27.7	23.6	33.1	8.8	34.5	23.6	41.9
성별	남성	926	5.6	27.8	23.6	33.7	9.3	33.4	23.6	43.0
	여성	1,074	7.7	27.7	23.7	32.5	8.4	35.4	23.7	40.9
학교급	초등학교	564	4.6	22.5	25.6	39.7	7.6	27.1	25.6	47.3
	중학교	705	5.8	28.5	23.3	31.5	10.9	34.3	23.3	42.4
	고등학교	731	9.3	30.9	22.7	29.4	7.7	40.2	22.7	37.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6	26.3	27.0	34.3	8.8	29.9	27.0	43.1
	중	1,709	6.9	28.0	23.6	33.3	8.2	34.9	23.6	41.5
	하	154	7.8	25.3	22.1	29.2	15.6	33.1	22.1	44.8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5.8	23.3	32.1	29.1	9.7	29.1	32.1	38.8
	없다	1,897	6.8	27.9	23.2	33.3	8.8	34.7	23.2	42.1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통일 후 남한의 이익에 대해서,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41.9%(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8.8% +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3.1%)로 가장 높고,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4.5%(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6.8% +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27.7%), ‘그저 그럴 것이다’ 23.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3.0%)이 여성(40.9%)보다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47.3%),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44.1%),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44.8%), 이산가족이 없을 때(42.1%)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9% 수준에서 학교급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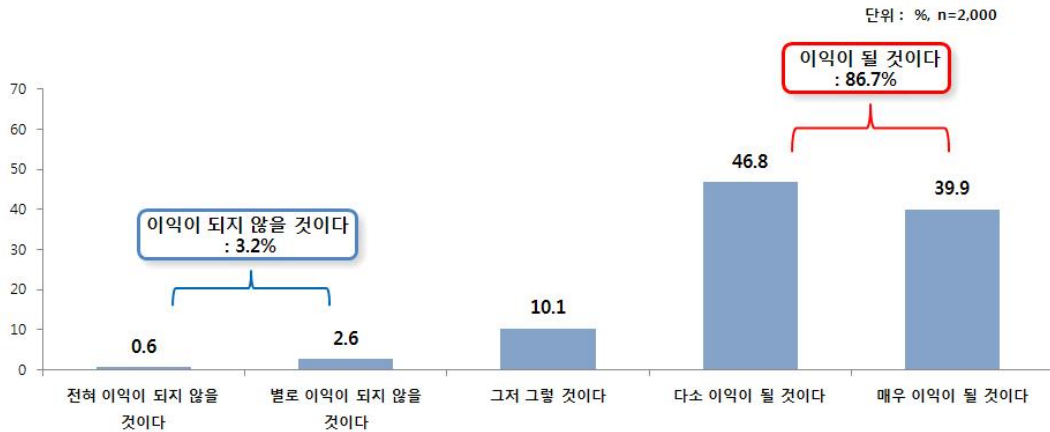
표 Ⅲ-55 통일이 된다면, 남한에 이익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1.113 (.573)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25.104***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246 (.691)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315 (.116)
	없다	1,897	

*p<.05, **p<.01, ***p<.001

②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이익 정도

이익이 될 것이다 86.7% > 그저 그럴 것이다 10.1%



【그림 III-27】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이익 정도

표 III-56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이익 정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이익이 될 것이다*
전체		2,000	0.6	2.6	10.1	46.8	39.9	3.2	10.1	86.7
성별	남성	926	0.9	3.3	10.6	44.7	40.5	4.2	10.6	85.2
	여성	1,074	0.4	1.9	9.9	48.5	39.3	2.3	9.9	87.8
학교급	초등학교	564	0.2	1.6	10.4	46.5	41.3	1.8	10.4	87.8
	중학교	705	0.3	3.0	7.7	46.4	42.6	3.3	7.7	89.0
	고등학교	731	1.2	2.9	12.5	47.3	36.1	4.1	12.5	83.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7	2.2	7.4	49.6	40.1	2.9	7.4	89.7
	중	1,709	0.6	2.6	10.7	46.7	39.4	3.2	10.7	86.1
	하	154	0.0	1.9	9.1	44.8	44.2	1.9	9.1	89.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0.0	7.8	3.9	46.6	41.7	7.8	3.9	88.3
	없다	1,897	0.6	2.3	10.6	46.8	39.7	2.9	10.6	86.5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통일 후 북한의 이익에 대해서,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86.7%(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39.9% +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46.8%)로 가장 높고, ‘그저 그럴 것이다’ 10.1%,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2%(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6% +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2.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85.2%)이 여성(87.8%)보다 낮게 나타났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89.0%)의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88.6%), 부모님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93.2%, 91.0%),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 때(89.7%)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및 이산가족의 유무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5%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98% 수준에서는 학교급, 이산가족 유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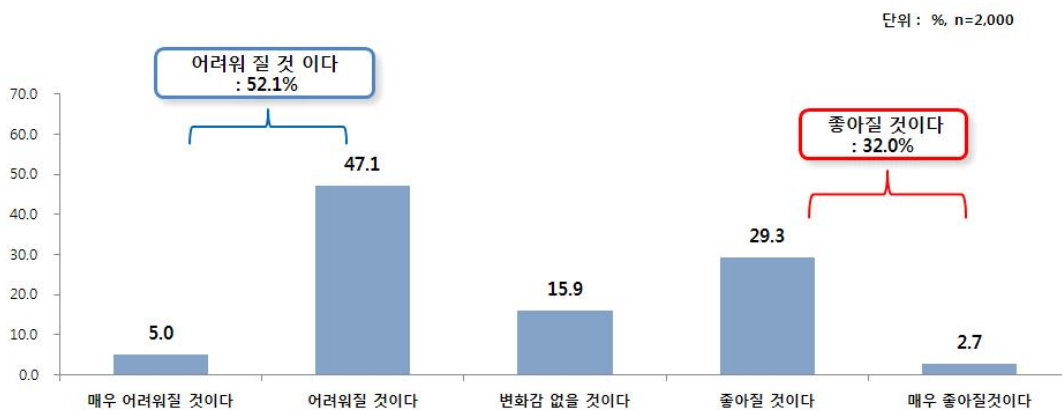
표 Ⅲ-57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이익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6.744* (.034)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4.503** (.006)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678 (.613)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1.681** (.003)
	없다	1,897	

*p<.05, **p<.01, ***p<.001

(5) 통일 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

어려워질 것이다 52.1% > 좋아질 것이다 32.0%



【그림 III-28】 통일 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

표 III-58 통일 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어려 워질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전체		2,000	5.0	47.1	15.9	29.3	2.7	52.1	15.9	32.0
성별	남성	926	4.5	44.0	16.7	32.2	2.6	48.5	16.7	34.8
	여성	1,074	5.3	49.7	15.5	26.8	2.7	55.0	15.5	29.5
학교급	초등학교	564	3.5	42.9	16.4	35.6	1.6	46.4	16.4	37.2
	중학교	705	4.7	44.5	15.6	31.8	3.4	49.2	15.6	35.2
	고등학교	731	6.3	52.7	16.3	22.0	2.7	59.0	16.3	24.7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2.9	45.3	18.2	28.5	5.1	48.2	18.2	33.6
	중	1,709	4.9	46.8	15.8	30.4	2.1	51.7	15.8	32.5
	하	154	7.1	51.9	17.0	17.5	6.5	59.0	17.0	24.0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4.9	41.7	23.3	24.3	5.8	46.6	23.3	30.1
	없다	1,897	5.0	47.3	15.6	29.6	2.5	52.3	15.6	32.1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통일 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로는, '어려워질 것이다'가 52.1%(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5.0% + 어려워질 것이다: 47.1%)로 가장 높고, 좋아질 것이다 32.0%(매우 좋아질 것이다: 2.7% + 좋아질 것이다: 29.3%), 변화가 없을 것이다 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55.0%)이 남성(48.5%)보다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59.0%), 종교가 불교인 경우(60.0%)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57.0%),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59.0%), 이산가족이 없을 때(52.3%)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5%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99%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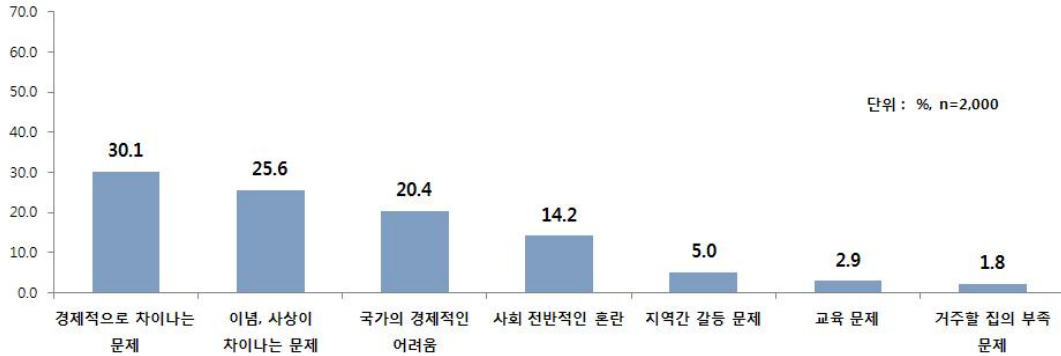
표 Ⅲ-59 통일 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8.901* (.012)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30.383***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5.779 (.216)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282 (.118)
	없다	1,897	

*p<.05, **p<.01, ***p<.001

(6)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

경제적 차이의 문제 30.1% > 이념, 사상 차이의 문제 25.6%



【그림 III-29】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

표 III-60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

단위[%]		사례수 (명)	경제적 으로 차이 나는 문제	이념, 사상이 차이 나는 문제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 전반적인 혼란	지역 간 갈등 문제	교육 문제	거주할 집의 부족 문제
전체		2,000	30.1	25.6	20.4	14.2	5.0	2.9	1.8
성별	남성	926	30.8	26.5	20.8	9.9	5.7	3.8	2.5
	여성	1,074	29.4	24.8	19.9	17.8	4.3	2.1	1.7
학교급	초등학교	564	32.4	26.4	18.1	8.9	8.0	3.5	2.7
	중학교	705	30.9	27.1	19.3	13.3	4.7	3.0	1.7
	고등학교	731	27.4	23.4	23.1	19.0	2.9	2.3	1.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5.0	20.4	19.7	11.7	5.8	3.6	3.8
	중	1,709	30.8	26.0	19.7	13.7	5.0	2.9	1.9
	하	154	17.5	25.3	27.9	21.4	3.2	2.6	2.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2.3	24.3	19.4	16.5	7.8	6.8	2.9
	없다	1,897	30.5	25.6	20.4	14.0	4.8	2.7	2.0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경제적으로 차이나는 문제’가 30.1%로 가장 높고, ‘이념, 사상이 차이나는 문제’ 25.6%,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 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0.8%)이 여성 (29.4%)보다,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32.4%) ‘경제적으로 차이나는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32.7%),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32.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35.0%), 이산가족이 없을 때(30.5%)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및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8% 수준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99% 수준에서는 성별과 학교급에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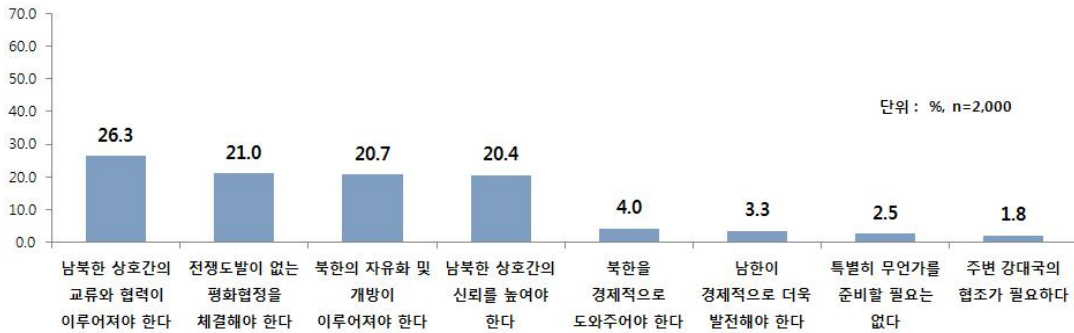
표 Ⅲ-61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30.983*** (.000)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53.517***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5.606** (.002)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514 (.105)
	없다	1,897	

*p<.05, **p<.01, ***p<.001

(7)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

남북한 상호간 교류와 협력 26.3% > 전쟁도발 없는 평화협정 체결 21.0%



【그림 III-30】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

표 III-62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

단위[%]		사례수 (명)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쟁도발이 없는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남한이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주변 강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전체		2,000	26.3	21.0	20.7	20.4	4.0	3.3	2.5	1.8
성별	남성	926	26.8	20.3	22.6	17.3	5.3	4.0	1.6	2.1
	여성	1,074	25.9	21.5	19.0	23.0	2.9	2.7	3.2	1.8
학교급	초등학교	564	28.5	17.9	25.0	16.8	5.3	4.1	1.6	0.8
	중학교	705	26.8	20.3	16.9	22.8	4.8	4.0	2.3	2.1
	고등학교	731	24.1	23.9	20.9	20.7	2.2	2.1	3.3	2.8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9.2	16.1	21.2	19.7	4.4	4.4	2.2	2.8
	중	1,709	26.5	20.8	20.9	20.4	4.1	3.1	2.3	1.9
	하	154	21.4	27.3	17.5	20.1	2.6	4.5	3.9	2.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6.2	19.4	22.3	19.4	6.8	1.0	0.0	4.9
	없다	1,897	26.3	21.0	20.6	20.4	3.8	3.4	2.6	1.9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로,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26.3%로 가장 높고, '전쟁도발이 없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21.0%,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28.5%)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할 때(27.5%)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30.2%),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29.2%)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9% 수준에서 성별과 학교급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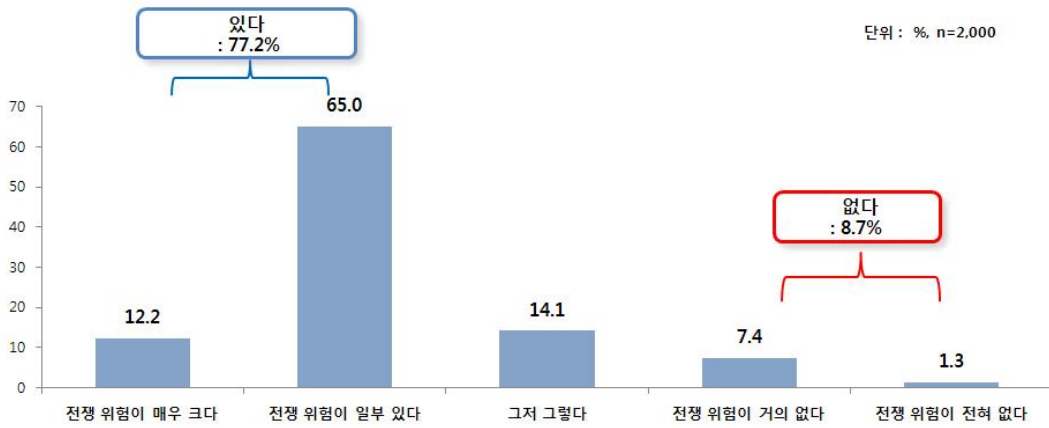
표 Ⅲ-63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26.361*** (.000)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50.393***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1.897 (.615)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1.309 (.126)
	없다	1,897	

*p<.05, **p<.01, ***p<.001

(8)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 정도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정도 '있다' 77.2%



【그림 III-31】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 정도

표 III-64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 정도

단위[%]		사례수 (명)	전쟁 위험이 매우 크다	전쟁 위험이 일부 있다	그저 그렇다	전쟁 위험이 거의 없다	전쟁 위험이 전혀 없다	*있다*	*그저 그렇다*	*없다*
전체		2,000	12.2	65.0	14.1	7.4	1.3	77.2	14.1	8.7
성별	남성	926	10.3	62.1	16.8	8.6	2.2	72.4	16.8	10.8
	여성	1,074	13.9	67.5	11.9	6.2	0.5	81.4	11.9	6.7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0	61.9	18.1	8.3	0.7	72.9	18.1	9.0
	중학교	705	10.9	64.4	15.7	7.9	1.1	75.3	15.7	9.0
	고등학교	731	14.4	68.0	9.8	6.0	1.8	82.4	9.8	7.8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3.1	61.3	12.5	10.9	2.2	74.4	12.5	13.1
	중	1,709	10.8	65.9	15.1	7.1	1.1	76.7	15.1	8.2
	하	154	26.6	58.4	6.6	6.5	1.9	85.0	6.6	8.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3.6	58.3	17.4	6.8	3.9	71.9	17.4	10.7
	없다	1,897	12.1	65.4	14.0	7.4	1.1	77.5	14.0	8.5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정도에 대해, ‘전쟁 위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77.2%(전쟁위험이 매우 크다: 12.2% + 전쟁위험이 일부 있다: 65.0%)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14.1%, ‘전쟁 위험이 없다’ 8.7%(전쟁위험이 전혀 없다: 1.3% + 전쟁위험이 거의 없다: 7.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81.4%)이 남성(72.4%)보다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82.4%)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대해 불만족한 경우(83.3%),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85.0%), 이산가족이 없는 경우(77.5%)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및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5% 수준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99% 수준에서는 성별과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Ⅲ-65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23.448*** (.000)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21.784***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2.545* (.014)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770 (.413)
	없다	1,897	

*p<.05, **p<.01, ***p<.001

3) 북한 청소년에 대한 생각

응답자의 72.8%는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탈북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미지로 '측은하고 안타깝다' 35.9%, '가난하고 굶주린 모습' 25.0%, '우리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들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은 9.9%로 낮게 나타났고,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로는 '언어' 78.1%, '사고방식'이 7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으로는 '담담히 대하겠다'라는 의견이 59.9%로 높게 나타났고, '같은 민족으로서 환영하여 대하겠다'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을 사귄 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9%는 사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갖고 있는 호감도 및 친밀도에 대해서는 유럽 청소년이 61.4%로 호감도가 높고, 친밀도는 미국청소년이 41.1%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들의 호감도는 34.0%, 친밀도는 34.4%로 나타났다.

표 Ⅲ-66 북한 청소년에 대한 생각

구분	내용[단위 : %]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	72.8	
탈북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미지	측은하고 안타깝다	35.9
	가난하고 굶주린 모습	25.0
	우리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12.5
	나이에 비해 조숙	7.1
북한 청소년들의 친근감	친근하게 느껴진다	9.9
	그저 그렇다	56.7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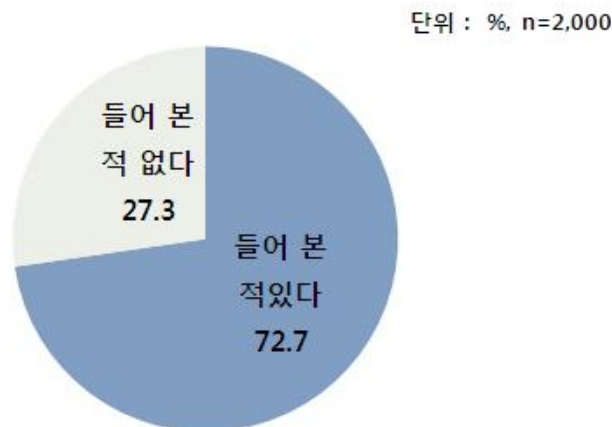
구분	내용[단위 : %]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차이 [차이가 있을 것 같다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언어	78.1
	사고방식	75.9
	바라보는 미래	65.8
	앞으로의 직업(진로)	61.7
	가정환경/가정생활	69.9
	학교생활	60.0
	친구관계	47.9
	문화생활	66.5
	교육 수준	65.4
	여가생활	64.1
북한 청소년을 만나다면 취할 행동	담담히 대화하겠다	59.9
	같은 민족으로서 환영하여 대화하겠다	16.9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대화 하겠다	12.2
	대화를 피하겠다	9.4
	무조건 피하겠다	1.8
북한 청소년을 사귀 의향	친구로 사귀겠다	83.9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갖고 있는 호감도 및 친밀도

구분	호감도 [조금 좋을 것 같다 + 매우 좋을 것 같다]	친밀도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미국 청소년	56.9	41.1
유럽 청소년	61.4	36.7
중국 청소년	25.8	23.1
일본 청소년	22.9	20.0
북한 청소년	34.0	34.4

(1)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

들어본 적 있다 72.7% > 들어본 적 없다 27.3%



【그림 III-32】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

표 III-67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

단위[%]		사례수[명]	있다	들어본 적 없다
전체		2,000	72.7	27.3
성별	남성	926	72.7	27.3
	여성	1,074	72.8	27.2
학교급	초등학교	564	72.0	28.0
	중학교	705	72.9	27.1
	고등학교	731	73.2	26.8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77.4	22.6
	중	1,709	72.7	27.3
	하	154	69.5	30.5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85.4	14.6
	없다	1,897	72.1	27.9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라는 응답이 72.7%로 ‘들어본 적 없다’는 2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72.8%)이 남성(72.7%)보다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73.2%),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75.1%),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79.6%)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77.4%), 이산가족이 있을 경우(85.4%)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8% 수준에서 성별과 이산가족의 유무가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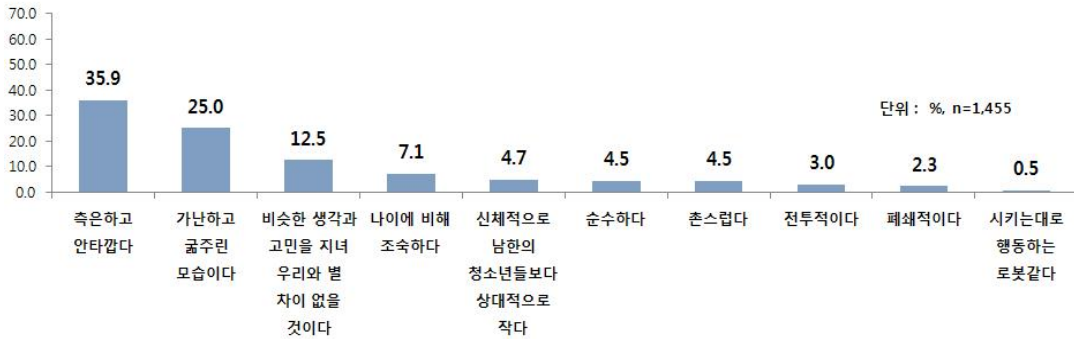
표 Ⅲ-68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0.004** (.947)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0.246 (.884)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312 (.315)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8.817** (.003)
	없다	1,897	

*p<.05, **p<.01, ***p<.001

(2) 탈북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

측은하고 안타깝다 35.9% > 가난하고 굶주린 모습이다 25.0%



【그림 III-33】 탈북 청소년하면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

표 III-69 탈북 청소년하면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

단위[%]	사 례 수 (명)	측은하고 안타깝다	가난하고 굶주린 모습이다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지녀 우리과 별 차이 없을 것이다	나이에 비해 조숙하다	신체적 으로 남한의 청소년들 보다 상대적 으로 작다	순수하다	존스럽다	전투적 이다	폐쇄적 이다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로봇 같다
전체	1,455	35.9	25.0	12.5	7.1	4.7	4.5	4.5	3.0	2.3	0.5
성별	남성	673	33.0	28.1	10.4	6.5	4.6	5.9	4.3	4.2	0.6
	여성	782	38.4	22.4	14.3	7.5	4.7	3.3	4.6	2.0	0.6
학교급	초등학교	406	32.8	33.7	7.1	5.9	7.1	2.7	5.9	2.7	0.1
	중학교	514	34.0	25.9	13.4	7.4	4.5	5.4	3.5	2.9	0.7
	고등학교	535	40.0	17.6	15.7	7.7	3.0	5.0	4.3	3.4	0.9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06	36.8	23.6	7.5	13.2	2.8	6.6	2.8	3.8	0.1
	중	1,242	36.1	25.6	12.6	6.3	5.0	4.3	4.8	2.7	0.5
	하	107	32.7	19.6	15.9	10.3	2.8	5.6	1.9	6.5	1.0
이산 가족 유무	있다	88	25.0	23.9	12.5	14.8	6.8	2.3	3.4	5.7	0.0
	없다	1,367	36.6	25.1	12.5	6.6	4.5	4.7	4.5	2.9	0.6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탈북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측은하고 안타깝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고, '가난하고 굶주린 모습이다' 25.0%,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지녀 우리와 별 차이 없을 것이다'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38.4%)이 남성(33.0%)보다 '측은하고 안타깝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40.0%)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36.8%), 이산가족이 없는 경우(36.6%)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9% 수준에서 성별과 학교급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표 Ⅲ-70 탈북 청소년하면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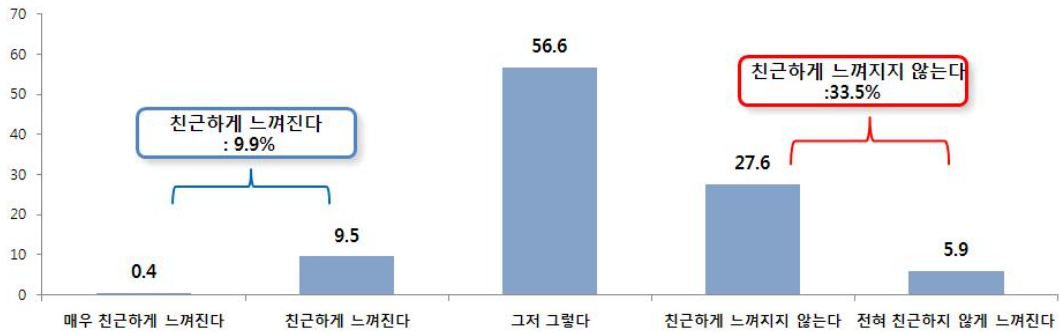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455	
성별	남성	673	23.593*** (.000)
	여성	782	
학교급	초등학교	406	63.736*** (.000)
	중학교	514	
	고등학교	53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06	26.478 (.089)
	중	1,242	
	하	107	
이산가족 유무	있다	88	20.700 (.114)
	없다	1,367	

*p<.05, **p<.01, ***p<.001

(3) 북한 청소년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 정도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33.5% > 친근하게 느껴진다 9.9%

단위 : %, n=2,000



【그림 III-34】 북한 청소년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 정도

표 Ⅲ-71 북한 청소년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 정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친근하게 느껴진다	그저 그렇다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전혀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 친근하게 느껴진다 *	*그저 그렇다*	*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체	2,000	0.4	9.5	56.6	27.6	5.9	9.9	56.6	33.5
성별	남성	926	0.3	9.0	59.0	26.1	5.6	9.3	31.7
	여성	1,074	0.5	10.0	54.5	28.9	6.1	10.5	35.0
학교급	초등학교	564	0.5	6.9	60.3	28.4	3.9	7.4	32.3
	중학교	705	0.4	10.2	56.1	27.5	5.8	10.6	33.3
	고등학교	731	0.3	10.8	54.4	27.1	7.4	11.1	34.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7	7.3	54.0	33.6	4.4	8.0	38.0
	중	1,709	0.3	9.7	57.1	27.5	5.4	10.0	32.9
	하	154	1.3	9.1	53.9	23.4	12.3	10.4	35.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7.8	58.3	25.2	6.8	9.7	32.0
	없다	1,897	0.3	9.6	56.6	27.7	5.8	9.9	33.5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 청소년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 정도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33.5%, '친근하게 느껴진다' 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59.0%)이 여성(54.5%)보다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60.3%)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불교(60.5%),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57.4%),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인 경우(57.1%)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2 북한 청소년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3.774 (.152)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7.302 (.121)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210 (.697)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0.118 (.943)
	없다	1,897	

*p<.05, **p<.01, ***p<.001

(4)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

① 언어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언어 차이가 있을 것 같다 78.1%



【그림 III-35】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언어

표 III-73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언어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6	6.3	14.0	60.0	18.1	7.9	14.0	78.1
성별	남성	926	1.4	7.0	15.5	58.4	17.7	8.4	15.5	76.1
	여성	1,074	1.8	5.6	12.9	61.4	18.3	7.4	12.9	79.7
학교급	초등학교	564	0.9	7.3	15.2	55.5	21.1	8.2	15.2	76.6
	중학교	705	2.4	5.2	13.5	60.9	18.0	7.6	13.5	78.9
	고등학교	731	1.4	6.4	13.8	62.7	15.7	7.8	13.8	78.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2	4.4	19.7	54.0	19.7	6.6	19.7	73.7
	중	1,709	1.5	6.4	14.4	60.0	17.7	7.9	14.4	77.7
	하	154	2.6	5.8	5.9	65.6	20.1	8.4	5.9	85.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10.7	14.5	57.3	14.6	13.6	14.5	71.9
	없다	1,897	1.5	6.0	14.2	60.1	18.2	7.5	14.2	78.3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언어적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78.1%(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18.1%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0.0%)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14.0%, ‘차이가 없을 것 같다’ 7.9%(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6%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6.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79.7%)이 남성(76.1%)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78.9%)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78.6%),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79.7%),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85.7%) 또한 이산가족이 없는 경우(78.3%)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5% 수준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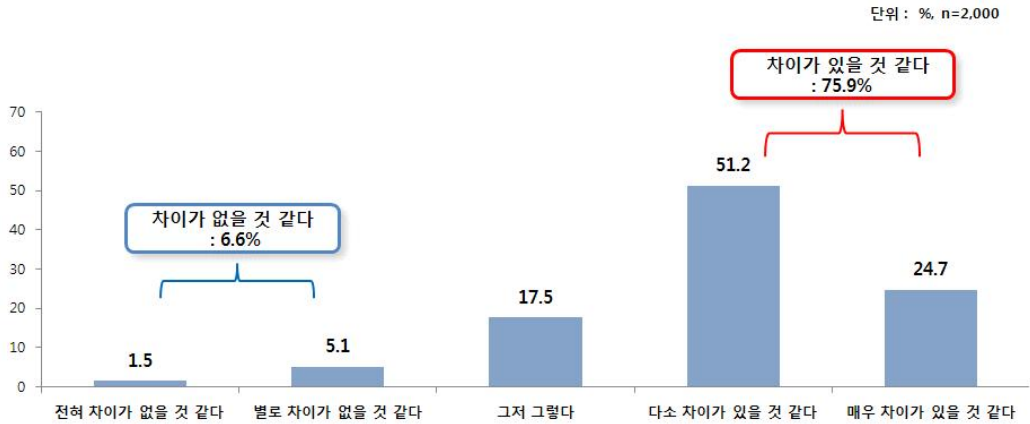
표 Ⅲ-74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언어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3.738 (.154)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090 (.896)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2.479* (.014)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5.114 (.078)
	없다	1,897	

*p<.05, **p<.01, ***p<.001

② 사고방식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사고방식 차이가 있을 것 같다 75.9%



【그림 III-36】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사고방식

표 III-75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사고방식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5	5.1	17.5	51.2	24.7	6.6	17.5	75.9
성별	남성	926	0.8	5.2	17.4	51.5	25.1	6.0	17.4	76.6
	여성	1,074	2.0	5.0	17.7	50.9	24.4	7.0	17.7	75.3
학교급	초등학교	564	0.7	5.0	14.9	49.8	29.6	5.7	14.9	79.4
	중학교	705	2.3	4.5	17.3	50.5	25.4	6.8	17.3	75.9
	고등학교	731	1.2	5.7	20.0	52.9	20.2	6.9	20.0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5	2.9	21.9	47.4	26.3	4.4	21.9	73.7
	중	1,709	1.3	5.3	17.7	51.5	24.2	6.6	17.7	75.7
	하	154	3.2	4.5	12.4	51.3	28.6	7.7	12.4	79.9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6.8	14.6	46.6	30.1	8.7	14.6	76.7
	없다	1,897	1.4	5.0	17.8	51.4	24.4	6.4	17.8	75.8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사고방식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75.9%(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24.7%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51.2%)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17.5%, ‘차이가 없을 것 같다’ 6.6%(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5%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5.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79.4%)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77.3%),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79.9%), 부모의 교육수준별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79.6%)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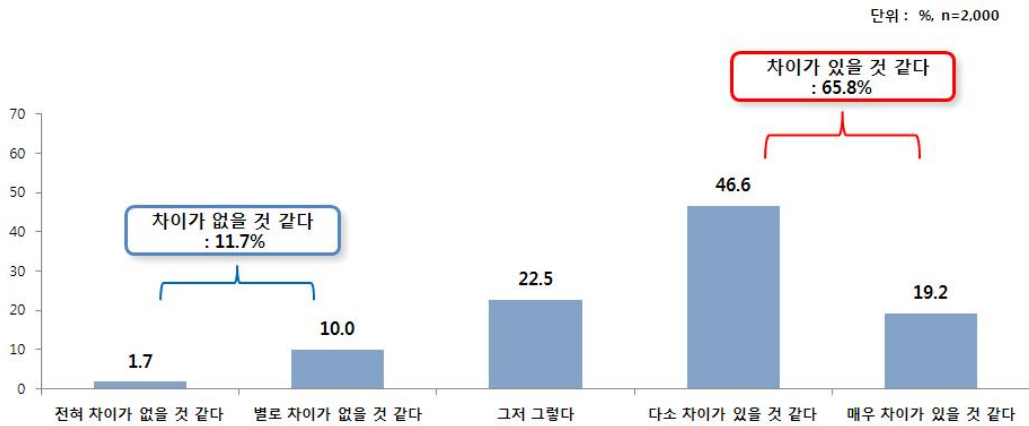
표 Ⅲ-76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사고방식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1.085 (.581)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7.040 (.134)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5.645 (.227)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355 (.508)
	없다	1,897	

*p<.05, **p<.01, ***p<.001

③ 미래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바라보는 미래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5.8%



【그림 III-37】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미래

표 III-77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미래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7	10.0	22.5	46.6	19.2	11.7	22.5	65.8
성별	남성	926	1.2	9.4	21.5	48.2	19.7	10.6	21.5	67.9
	여성	1,074	2.1	10.5	23.4	45.2	18.8	12.6	23.4	64.0
학교급	초등학교	564	0.9	7.3	19.1	50.2	22.5	8.2	19.1	72.7
	중학교	705	2.6	8.8	21.7	48.5	18.4	11.4	21.7	66.9
	고등학교	731	1.5	13.3	25.9	41.9	17.4	14.8	25.9	59.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5	6.6	25.4	45.3	21.2	8.1	25.4	66.5
	중	1,709	1.3	10.4	22.7	46.9	18.7	11.7	22.7	65.6
	하	154	5.8	9.1	17.5	44.2	23.4	14.9	17.5	67.6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	10.7	20.4	42.7	25.2	11.7	20.4	67.9
	없다	1,897	1.7	10.0	22.6	46.8	18.9	11.7	22.6	65.7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바라보는 미래의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5.8%(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19.2%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46.6%)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2.5%,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1.7%(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7%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0.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7.9%)이 여성(64.0%)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72.7%)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68.9%)인 경우,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66.5%),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67.6%)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8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미래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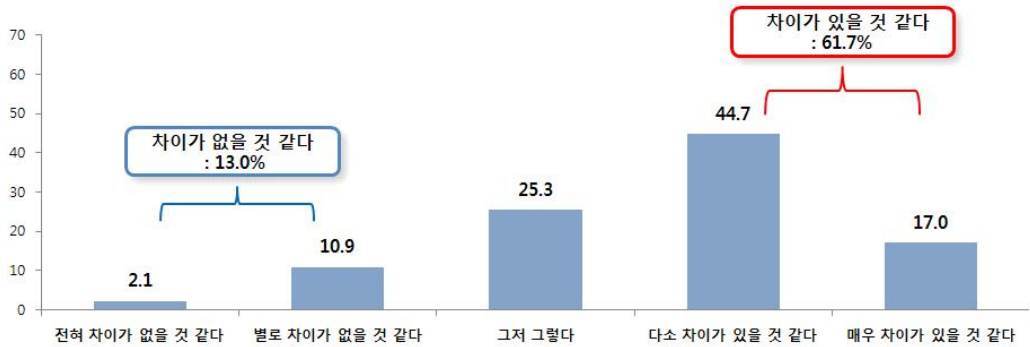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3.653 (.161)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28.005 (.3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5.350 (.253)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0.306 (.858)
	없다	1,897	

*p<.05, **p<.01, ***p<.001

④ 직업(진로)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직업 및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1.7%

단위 : %, n=2,000



【그림 III-38】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직업(진로)

표 III-79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직업(진로)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2.1	10.9	25.3	44.7	17.0	13.0	25.3	61.7
성별	남성	926	1.4	9.6	24.3	47.1	17.6	11.0	24.3	64.7
	여성	1,074	2.7	12.0	26.2	42.6	16.5	14.7	26.2	59.1
학교급	초등학교	564	0.9	8.7	21.8	50.2	18.4	9.6	21.8	68.6
	중학교	705	3.3	10.6	23.2	46.2	16.7	13.9	23.2	62.9
	고등학교	731	1.9	12.9	30.2	38.9	16.1	14.8	30.2	55.0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6	8.0	22.0	41.6	24.8	11.6	22.0	66.4
	중	1,709	1.6	11.5	25.7	45.4	15.8	13.1	25.7	61.2
	하	154	5.8	7.1	24.7	39.0	23.4	12.9	24.7	62.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12.6	23.3	40.8	21.4	14.5	23.3	62.2
	없다	1,897	2.1	10.8	25.4	44.9	16.8	12.9	25.4	61.7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직업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1.7%(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17.0%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44.7%)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5.3%,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3.0%(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2.1%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0.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4.7%)이 여성(59.1%)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68.6%)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종교는 기독교(64.3%)일 경우,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62.7%),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67.9%),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 때(66.4%)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9% 수준에서 학교급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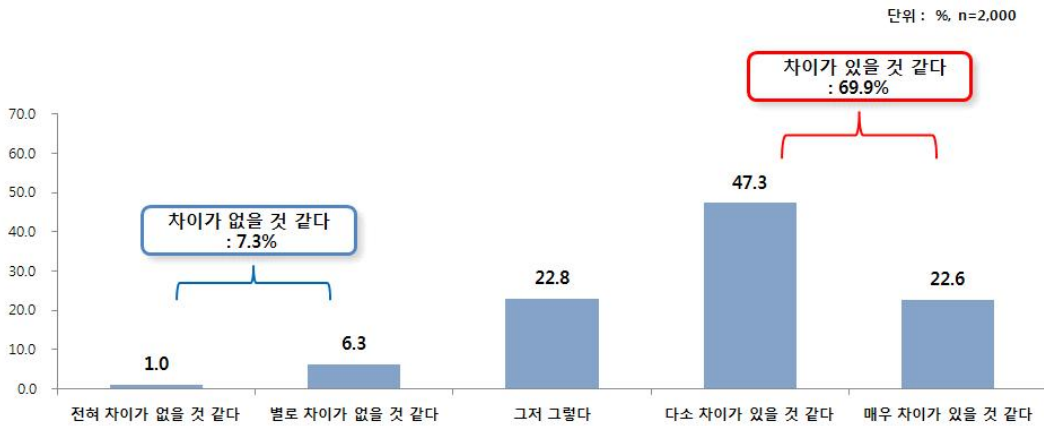
표 Ⅲ-80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직업(진로)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8.558 (.314)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28.245***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521 (.823)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0.388 (.824)
	없다	1,897	

*p<.05, **p<.01, ***p<.001

⑤ 가정환경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가정환경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9.9%



【그림 III-39】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가정환경

표 III-81 남북한 청소년들의 차이_가정환경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0	6.3	22.8	47.3	22.6	7.3	22.8	69.9
성별	남성	926	0.3	6.3	21.9	47.3	24.2	6.6	21.9	71.5
	여성	1,074	1.6	6.2	23.7	47.3	21.2	7.8	23.7	68.5
학교급	초등학교	564	0.5	5.7	19.9	48.2	25.7	6.2	19.9	73.9
	중학교	705	1.4	6.1	22.8	46.2	23.5	7.5	22.8	69.7
	고등학교	731	1.0	6.8	25.3	47.6	19.3	7.8	25.3	66.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0	4.4	21.8	45.3	28.5	4.4	21.8	73.8
	중	1,709	0.9	6.7	22.9	47.7	21.8	7.6	22.9	69.5
	하	154	2.6	2.6	24.6	44.2	26.0	5.2	24.6	70.2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	5.8	22.4	45.6	25.2	6.8	22.4	70.8
	없다	1,897	1.0	6.3	22.8	47.4	22.5	7.3	22.8	69.9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가정환경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9.9%(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22.6%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47.3%)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2.8%, ‘차이가 없을 것 같다’ 7.3%(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0%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6.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71.5%)이 여성(68.5%)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73.9%)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보통(70.5%) 혹은 만족(70.3%)인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72.2%),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73.8%)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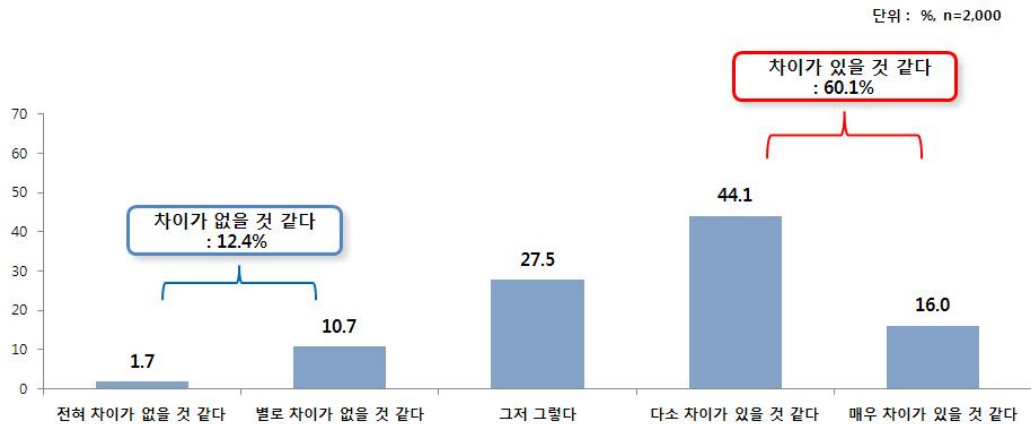
표 III-82 남북한 청소년들의 차이_가정환경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2.317 (.314)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7.630 (.106)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459 (.484)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0.058 (.971)
	없다	1,897	

*p<.05, **p<.01, ***p<.001

⑥ 학교생활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학교생활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0.1%



【그림 III-40】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학교생활

표 III-83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학교생활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7	10.7	27.5	44.1	16.0	12.4	27.5	60.1
성별	남성	926	0.9	9.9	26.7	45.7	16.8	10.8	26.7	62.5
	여성	1,074	2.4	11.3	28.5	42.6	15.2	13.7	28.5	57.8
학교급	초등학교	564	0.4	7.3	26.0	48.2	18.1	7.7	26.0	66.3
	중학교	705	2.3	10.5	27.7	42.6	16.9	12.8	27.7	59.5
	고등학교	731	2.2	13.4	28.7	42.3	13.4	15.6	28.7	55.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0	5.8	28.5	38.7	27.0	5.8	28.5	65.7
	중	1,709	1.8	11.5	27.6	45.0	14.1	13.3	27.6	59.1
	하	154	2.6	5.2	27.3	38.3	26.6	7.8	27.3	64.9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	17.5	23.2	34.0	24.3	18.5	23.2	58.3
	없다	1,897	1.7	10.3	27.9	44.6	15.5	12.0	27.9	60.1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학교생활의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0.1%(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16.0%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44.1%)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7.5%,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2.4%(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7%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0.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2.5%)이 여성(57.8%)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66.3%)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종교는 불교(62.0%)일 경우,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61.3%),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69.1%, 71.4%),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 때(65.7%)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5% 수준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99%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Ⅲ-84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차이_학교생활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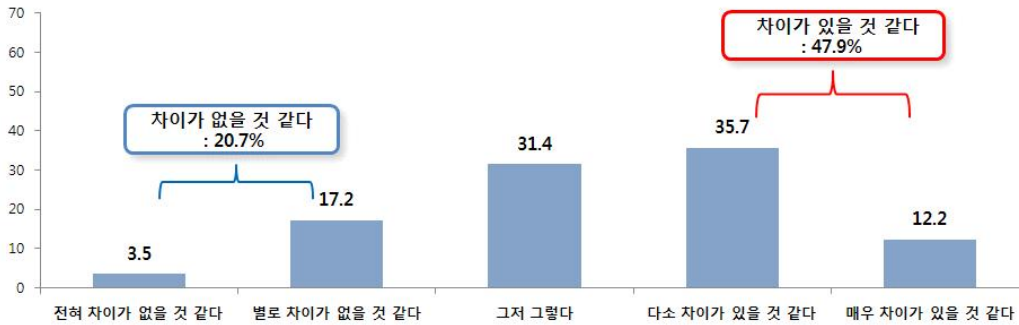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5.788 (.155)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23.417***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0.134* (.038)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066 (.131)
	없다	1,897	

*p<.05, **p<.01, ***p<.001

⑦ 친구관계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친구관계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47.9%

단위 : %, n=2,000



【그림 III-41】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친구관계

표 III-85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친구관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3.5	17.2	31.4	35.7	12.2	20.7	31.4	47.9
성별	남성	926	1.7	15.6	31.4	37.9	13.4	17.3	31.4	51.3
	여성	1,074	4.9	18.6	31.5	33.8	11.2	23.5	31.5	45.0
학교급	초등학교	564	1.4	12.2	32.3	41.0	13.1	13.6	32.3	54.1
	중학교	705	4.3	17.0	28.2	36.7	13.8	21.3	28.2	50.5
	고등학교	731	4.2	21.2	34.0	30.6	10.0	25.4	34.0	40.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0	19.7	30.7	31.4	18.2	19.7	30.7	49.6
	중	1,709	3.5	17.2	31.9	36.3	11.1	20.7	31.9	47.4
	하	154	6.5	14.9	27.3	32.5	18.8	21.4	27.3	51.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22.3	26.3	30.1	18.4	25.2	26.3	48.5
	없다	1,897	3.5	16.9	31.7	36.0	11.9	20.4	31.7	47.9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친구관계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47.9%(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12.2%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35.7%)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1.4%, ‘차이가 없을 것 같다’ 20.7%(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3.5%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7.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51.3%)이 여성(45.0%)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54.1%)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종교는 가톨릭(54.9%)일 경우,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49.8%),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51.9%),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51.3%)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8%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99%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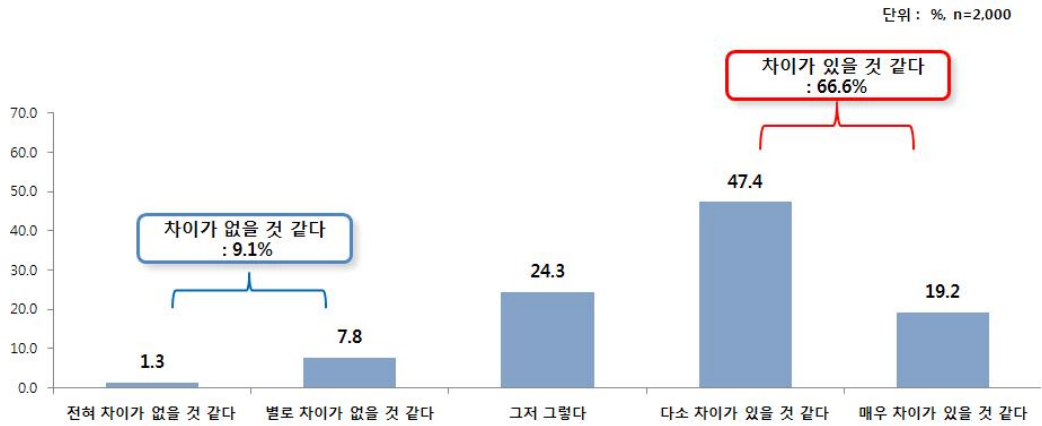
표 Ⅲ-86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친구관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13.643** (.001)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39.073***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619 (.805)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065 (.356)
	없다	1,897	

*p<.05, **p<.01, ***p<.001

⑧ 문화생활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문화생활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6.6%



【그림 III-42】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문화생활

표 III-87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문화생활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3	7.8	24.3	47.4	19.2	9.1	24.3	66.6
성별	남성	926	0.4	8.1	23.0	50.0	18.5	8.5	23.0	68.5
	여성	1,074	2.0	7.4	25.8	45.1	19.7	9.4	25.8	64.8
학교급	초등학교	564	0.5	6.2	21.1	47.2	25.0	6.7	21.1	72.2
	중학교	705	1.6	8.5	23.5	47.4	19.0	10.1	23.5	66.4
	고등학교	731	1.6	8.2	27.9	47.5	14.8	9.8	27.9	62.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5	2.9	30.0	47.4	18.2	4.4	30.0	65.6
	중	1,709	1.2	8.2	24.9	46.8	18.9	9.4	24.9	65.7
	하	154	2.6	7.1	14.4	53.2	22.7	9.7	14.4	75.9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7.8	28.2	33.0	29.1	9.7	28.2	62.1
	없다	1,897	1.3	7.7	24.3	48.1	18.6	9.0	24.3	66.7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문화생활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6.6%(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19.2%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47.4%)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4.3%, ‘차이가 없을 것 같다’ 9.1%(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3%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7.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8.5%)이 여성(64.8%)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72.2%)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67.5%),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72.2%),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75.9%), 이산가족이 없을 때(66.7%)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8% 수준에서 학교급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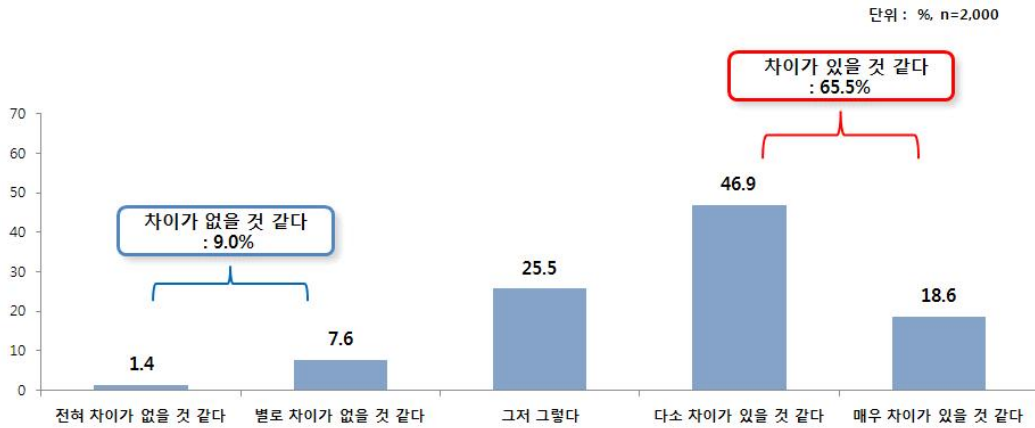
표 III-88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문화생활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2.994 (.224)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5.772** (.003)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4.166 (.107)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0.973 (.615)
	없다	1,897	

*p<.05, **p<.01, ***p<.001

⑨ 교육 수준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교육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5.5%



【그림 III-43】 남북 청소년들 간의 차이_교육 수준

표 III-89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교육 수준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4	7.6	25.5	46.9	18.6	9.0	25.5	65.5
성별	남성	926	1.1	7.6	25.2	47.5	18.6	8.7	25.2	66.1
	여성	1,074	1.6	7.5	26.1	46.3	18.5	9.1	26.1	64.8
학교급	초등학교	564	0.9	6.0	25.6	48.9	18.6	6.9	25.6	67.5
	중학교	705	2.0	8.5	25.4	45.4	18.7	10.5	25.4	64.1
	고등학교	731	1.1	7.8	26.2	46.6	18.3	8.9	26.2	64.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7	5.1	25.5	45.3	23.4	5.8	25.5	68.7
	중	1,709	1.3	8.1	26.3	46.5	17.8	9.4	26.3	64.3
	하	154	2.6	3.9	18.8	52.6	22.1	6.5	18.8	74.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9.7	29.2	38.8	19.4	12.6	29.2	58.2
	없다	1,897	1.3	7.4	25.5	47.3	18.5	8.7	25.5	65.8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교육수준의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5.5%(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18.6%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46.9%)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5.5%, ‘차이가 없을 것 같다’ 9.0%(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4%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7.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6.1%)이 여성(64.8%)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67.5%)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종교는 불교(66.5%)일 경우,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66.3%),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66.1%),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74.7%), 이산가족이 없을 때(65.8%)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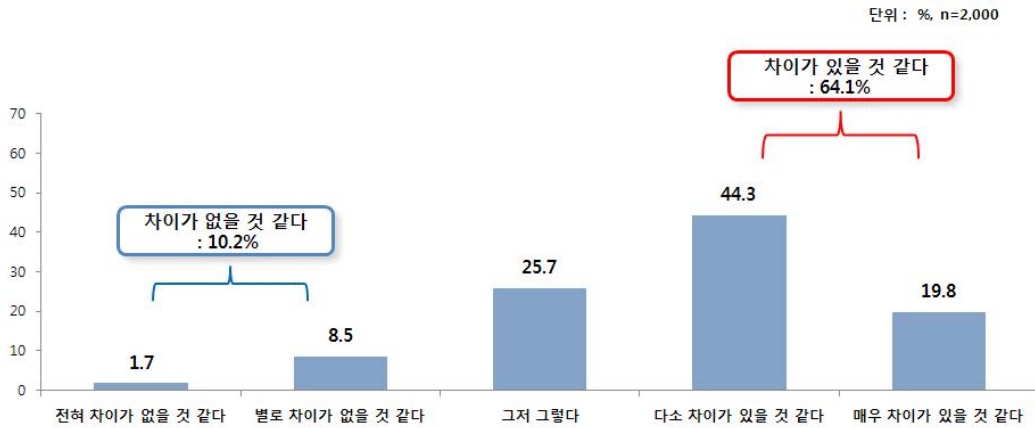
표 III-90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교육 수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0.382 (.826)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5.199 (.267)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8.502 (.075)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3.034 (.219)
	없다	1,897	

*p<.05, **p<.01, ***p<.001

⑩ 여가생활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여가생활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4.1%



【그림 III-44】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여가생활

표 III-91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여가생활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7	8.5	25.7	44.3	19.8	10.2	25.7	64.1
성별	남성	926	1.2	7.3	25.9	45.8	19.8	8.5	25.9	65.6
	여성	1,074	2.0	9.4	25.9	43.0	19.7	11.4	25.9	62.7
학교급	초등학교	564	0.5	7.4	22.2	48.6	21.3	7.9	22.2	69.9
	중학교	705	2.0	7.7	24.2	44.8	21.3	9.7	24.2	66.1
	고등학교	731	2.2	10.0	30.2	40.5	17.1	12.2	30.2	57.6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0.0	7.3	24.1	43.1	25.5	7.3	24.1	68.6
	중	1,709	1.6	8.8	26.7	43.9	19.0	10.4	26.7	62.9
	하	154	3.9	5.2	17.5	50.0	23.4	9.1	17.5	73.4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1.0	7.8	34.9	36.9	19.4	8.8	34.9	56.3
	없다	1,897	1.7	8.5	25.3	44.7	19.8	10.2	25.3	64.5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청소년 간의 여가생활의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4.1%(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19.8%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44.3%)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5.7%,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0.2%(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7%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8.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5.6%)이 여성(62.7%)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69.9%)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종교는 불교(70.0%)일 경우,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65.8%),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71.0%),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73.4%), 이산가족이 없는 경우(64.5%)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9% 수준에서 학교급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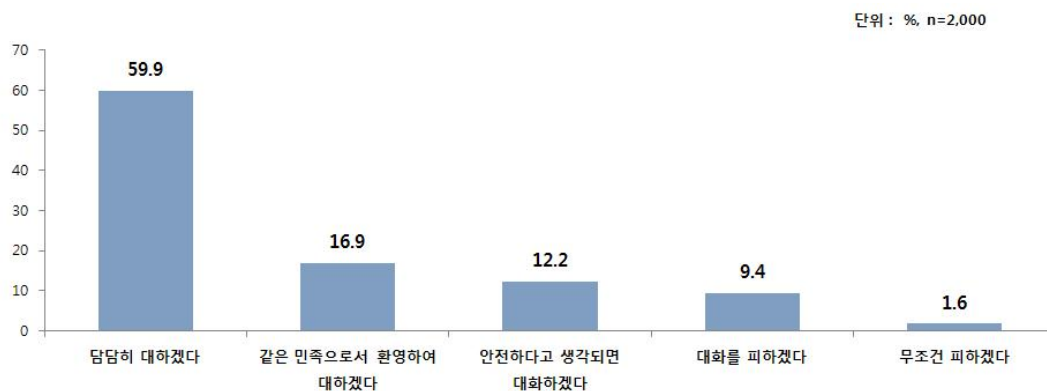
표 III-92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여가생활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4.811 (.090)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23.056***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9.123 (.158)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695 (.096)
	없다	1,897	

*p<.05, **p<.01, ***p<.001

(5)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으로
'담담히 대하겠다'라는 의견이 59.9%



【그림 III-45】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

표 III-93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

단위[%]		사례수 (명)	담담히 대하겠다	같은 민족으로서 환영하여 대하겠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대화 하겠다	대화를 피하겠다	무조건 피하겠다
전체		2,000	59.9	16.9	12.2	9.4	1.6
성별	남성	926	59.8	15.6	12.0	10.2	2.4
	여성	1,074	59.9	18.0	12.3	8.8	1.0
학교급	초등학교	564	59.2	15.1	13.3	11.2	1.2
	중학교	705	58.7	18.0	12.3	8.2	2.8
	고등학교	731	61.4	17.1	11.1	9.2	1.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52.6	15.3	14.6	16.8	0.7
	중	1,709	61.1	16.8	11.4	9.1	1.6
	하	154	51.9	18.8	18.8	5.8	4.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56.3	18.4	9.7	12.6	3.0
	없다	1,897	60.0	16.8	12.3	9.2	1.7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으로는, ‘담담히 대화하겠다’가 59.9%로 가장 높고, ‘같은 민족으로서 환영하여 대화하겠다’ 16.9%,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대화하겠다’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61.4%) ‘담담히 대화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보통(63.0%)인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61.1%)인 경우, 이산가족이 없을 때(60.0%)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9% 수준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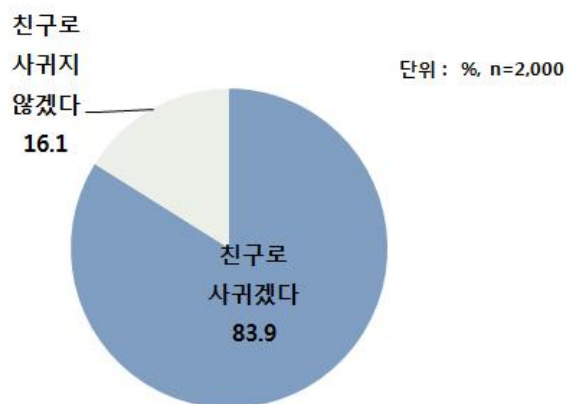
표 Ⅲ-94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8.106 (.088)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975 (.152)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9.221*** (.000)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62 (.564)
	없다	1,897	

*p<.05, **p<.01, ***p<.001

(6)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귀어 의향

친구로 사귀겠다 83.9% > 친구로 사귀지 않겠다 16.1%



【그림 III-46】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귀어 의향

표 III-95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귀어 의향

단위[%]		사례수(명)	친구로 사귀겠다	친구로 사귀지 않겠다
전체		2,000	83.9	16.1
성별	남성	926	83.8	16.2
	여성	1,074	84.0	16.0
학교급	초등학교	564	82.8	17.2
	중학교	705	83.7	16.3
	고등학교	731	85.0	15.0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78.1	21.9
	중	1,709	84.2	15.8
	하	154	85.7	14.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82.5	17.5
	없다	1,897	84.0	16.0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의향으로는, ‘친구로 사귀겠다’는 응답이 83.9%로 ‘친구로 사귀지 않겠다’ 1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85.0%) ‘친구로 사귀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84.9%),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85.9%),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85.7%), 이산가족이 없을 때(84.0%)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6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의향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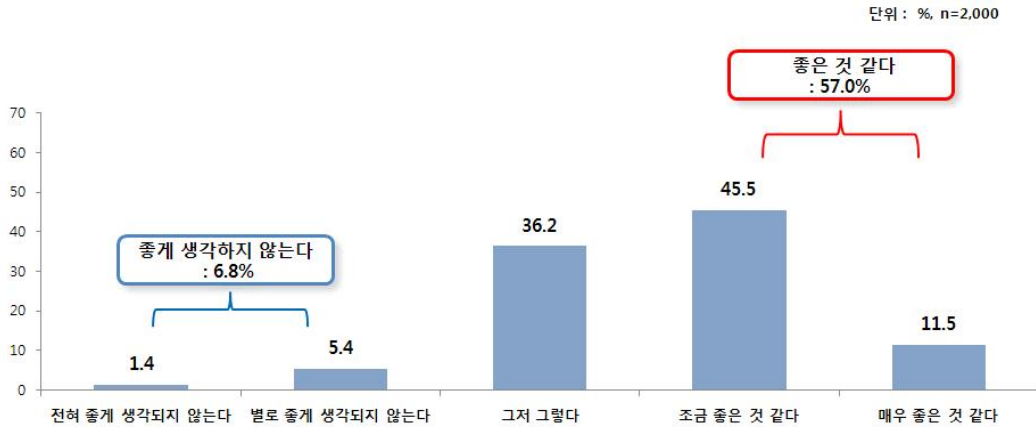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0.012 (.911)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26 (.569)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899 (.142)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0.152 (.696)
	없다	1,897	

*p<.05, **p<.01, ***p<.001

(7) 다른 국가 청소년들에게 갖고 있는 호감도 및 친밀도

① 미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좋은 것 같다 57.0 >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6.8%



【그림 III-47】 미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표 III-97 미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좋게 생각 되지 않는다	별로 좋게 생각 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좋은 것 같다	매우 좋은 것 같다	*좋게 생각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좋은 것 같다*
전체		2,000	1.4	5.4	36.2	45.5	11.5	6.8	36.2	57.0
성별	남성	926	1.9	6.3	33.0	48.1	10.7	8.2	33.0	58.8
	여성	1,074	0.8	4.7	39.2	43.2	12.1	5.5	39.2	55.3
학교급	초등학교	564	0.7	2.8	36.7	50.0	9.8	3.5	36.7	59.8
	중학교	705	1.8	5.1	32.7	48.5	11.9	6.9	32.7	60.4
	고등학교	731	1.4	7.7	39.6	39.0	12.3	9.1	39.6	51.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5	4.4	26.2	51.8	16.1	5.9	26.2	67.9
	중	1,709	1.4	5.4	37.4	45.4	10.4	6.8	37.4	55.8
	하	154	0.6	6.5	33.8	40.3	18.8	7.1	33.8	59.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3.9	4.9	44.6	30.1	16.5	8.8	44.6	46.6
	없다	1,897	1.2	5.4	35.9	46.3	11.2	6.6	35.9	57.5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미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로는, '좋은 것 같다'는 응답이 56.9%(매우 좋은 것 같다: 11.5% + 조금 좋은 것 같다: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36.2%,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6.8%(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1.4% +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58.7%)이 여성(55.3%)보다 '좋은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60.4%)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68.5%),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67.9%), 이산가족이 없는 경우(57.5%)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및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8% 수준에서는 성별과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99%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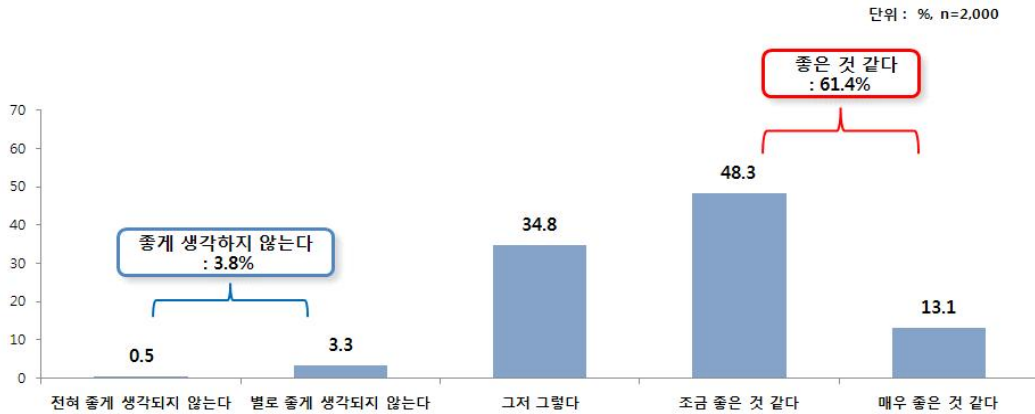
표 Ⅲ-98 미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11.641** (.003)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25.548***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8.206** (.004)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723 (.094)
	없다	1,897	

*p<.05, **p<.01, ***p<.001

② 유럽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좋은 것 같다 61.4% >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3.8%



【그림 III-48】 유럽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표 III-99 유럽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좋게 생각 되지 않는다	별로 좋게 생각 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좋은 것 같다	매우 좋은 것 같다	*좋게 생각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좋은 것 같다*
전체		2,000	0.5	3.3	34.8	48.3	13.1	3.8	34.8	61.4
성별	남성	926	0.6	3.8	33.4	50.8	11.4	4.4	33.4	62.2
	여성	1,074	0.4	2.9	36.0	46.2	14.5	3.3	36.0	60.7
학교급	초등학교	564	0.2	2.1	34.6	53.2	9.9	2.3	34.6	63.1
	중학교	705	1.0	2.8	32.8	49.9	13.5	3.8	32.8	63.4
	고등학교	731	0.3	4.7	36.8	43.0	15.2	5.0	36.8	58.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7	2.9	27.1	49.6	19.7	3.6	27.1	69.3
	중	1,709	0.5	3.2	35.9	48.5	11.9	3.7	35.9	60.4
	하	154	0.0	4.5	29.9	44.8	20.8	4.5	29.9	65.6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	4.9	34.9	43.7	15.5	5.9	34.9	59.2
	없다	1,897	0.5	3.2	34.7	48.6	13.0	3.7	34.7	61.6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유럽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로는, '좋은 것 같다'는 응답이 61.4%(매우 좋은 것 같다: 13.1% + 조금 좋은 것 같다: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34.8%,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 3.8%(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0.5% +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2.2%)이 여성(60.7%)보다 '좋은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63.4%)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64.9%) 가장 높았고,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66.0%),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71.0%),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69.3%)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0 유럽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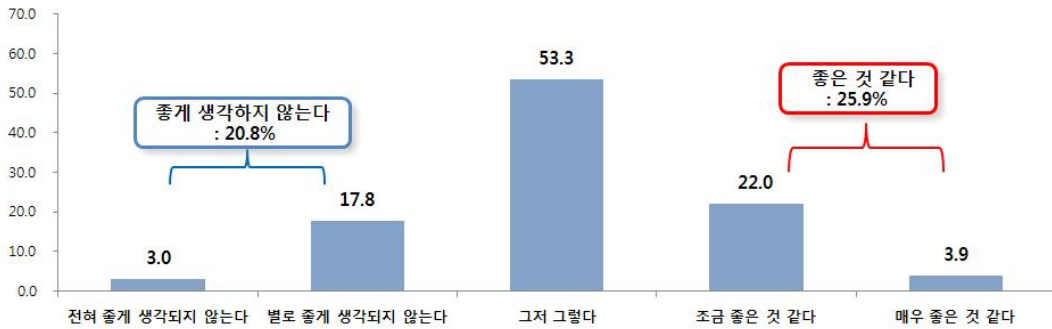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2.983 (.225)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9.556 (.049)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6.407 (.171)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257 (.533)
	없다	1,897	

*p<.05, **p<.01, ***p<.001

③ 중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좋은 것 같다 25.9% >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20.8%

단위 : %, n=2,000



【그림 III-49】 중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표 III-101 중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좋게 생각 되지 않는다	별로 좋게 생각 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좋은 것 같다	매우 좋은 것 같다	*좋게 생각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좋은 것 같다*
전체		2,000	3.0	17.8	53.3	22.0	3.9	20.8	53.3	25.9
성별	남성	926	2.8	19.9	52.1	22.6	2.6	22.7	52.1	25.2
	여성	1,074	3.1	16.0	54.6	21.4	4.9	19.1	54.6	26.3
학교급	초등학교	564	1.4	17.0	55.8	23.0	2.8	18.4	55.8	25.8
	중학교	705	3.3	16.7	52.2	23.8	4.0	20.0	52.2	27.8
	고등학교	731	3.8	19.4	53.0	19.3	4.5	23.2	53.0	23.8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2	14.6	55.4	23.4	4.4	16.8	55.4	27.8
	중	1,709	2.8	18.2	53.4	22.3	3.3	21.0	53.4	25.6
	하	154	5.2	16.2	52.6	16.9	9.1	21.4	52.6	26.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14.6	56.3	16.5	9.7	17.5	56.3	26.2
	없다	1,897	3.0	18.0	53.3	22.2	3.5	21.0	53.3	25.7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중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좋은 것 같다’ 25.9%(매우 좋은 것 같다: 3.9% + 조금 좋은 것 같다: 22.0%),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20.8%(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3.0% +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25.2%)이 여성(26.3%)보다 ‘좋은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27.8%)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27.6%),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26.6%),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27.8%)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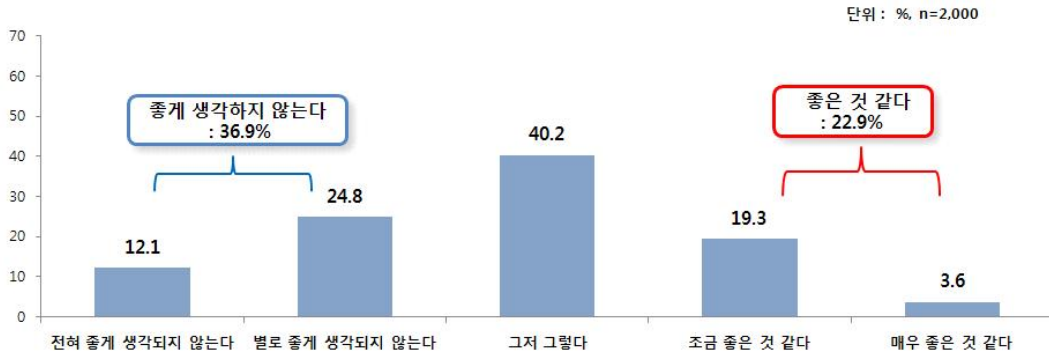
표 Ⅲ-102 중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3.899 (.142)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6.844 (.144)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473 (.831)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0.735 (.693)
	없다	1,897	

*p<.05, **p<.01, ***p<.001

④ 일본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좋은 것 같다 22.9% <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36.9%



【그림 III-50】 일본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표 III-103 일본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좋게 생각 되지 않는다	별로 좋게 생각 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좋은 것 같다	매우 좋은 것 같다	*좋게 생각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좋은 것 같다*
전체		2,000	12.1	24.8	40.2	19.3	3.6	36.9	40.2	22.9
성별	남성	926	12.9	25.8	37.2	20.8	3.3	38.7	37.2	24.1
	여성	1,074	11.5	23.9	42.9	18.0	3.7	35.4	42.9	21.7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9	28.4	40.9	17.0	1.8	40.3	40.9	18.8
	중학교	705	12.8	25.7	36.1	21.0	4.4	38.5	36.1	25.4
	고등학교	731	11.6	21.2	43.7	19.4	4.1	32.8	43.7	23.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3.1	25.5	32.9	21.9	6.6	38.6	32.9	28.5
	중	1,709	12.1	25.3	40.8	18.9	2.9	37.4	40.8	21.8
	하	154	11.7	18.8	40.3	21.4	7.8	30.5	40.3	29.2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6.5	30.1	32.0	17.5	3.9	46.6	32.0	21.4
	없다	1,897	11.9	24.5	40.7	19.4	3.5	36.4	40.7	22.9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일본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좋은 것 같다’ 22.9%(매우 좋은 것 같다: 3.6% + 조금 좋은 것 같다: 19.3%),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36.9%(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12.1% +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2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24.1%)이 여성(21.7%)보다 ‘좋은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25.4%)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불만족할 때(26.6%),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25.2%),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29.2%)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8% 수준에서 학교급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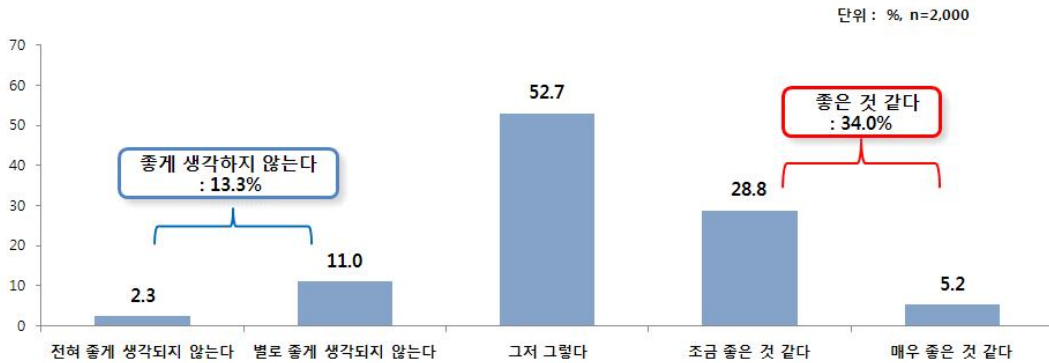
표 Ⅲ-104 일본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6.924 (.231)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6.715** (.002)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9.330 (.153)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695 (.096)
	없다	1,897	

*p<.05, **p<.01, ***p<.001

⑤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좋은 것 같다 34.0% >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13.3%



【그림 III-51】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표 III-105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좋은 것 같다	매우 좋은 것 같다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좋은 것 같다*
전체		2,000	2.3	11.0	52.7	28.8	5.2	13.3	52.7	34.0
성별	남성	926	2.2	12.6	49.7	31.5	4.0	14.8	49.7	35.5
	여성	1,074	2.3	9.5	55.6	26.4	6.2	11.8	55.6	32.6
학교급	초등학교	564	2.1	12.9	54.2	27.8	3.0	15.0	54.2	30.8
	중학교	705	3.0	11.3	49.6	29.1	7.0	14.3	49.6	36.1
	고등학교	731	1.6	9.0	55.1	29.1	5.2	10.6	55.1	34.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37	3.6	19.7	40.2	30.7	5.8	23.3	40.2	36.5
	없다	1,709	2.1	10.1	54.5	28.7	4.6	12.2	54.5	33.3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좋은 것 같다’ 34.0%(매우 좋은 것 같다: 5.2% + 조금 좋은 것 같다: 28.8%),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13.3%(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2.3% +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5.5%)이 여성(32.6%)보다 ‘좋은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36.1%)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36.0%),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37.4%),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38.9%)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9% 수준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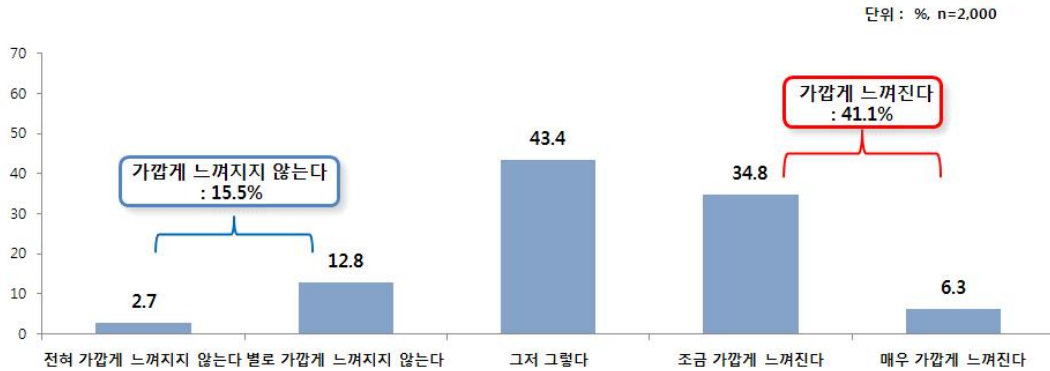
표 Ⅲ-106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7.876 (.319)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0.408 (.334)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1.056*** (.000)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3.040 (.219)
	없다	1,897	

*p<.05, **p<.01, ***p<.001

⑥ 미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미국 청소년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진다' 41.1%



【그림 III-52】 미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표 III-107 미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깝게 느껴 진다*
전체		2,000	2.7	12.8	43.4	34.8	6.3	15.5	43.4	41.1
성별	남성	926	2.5	11.2	40.3	38.3	7.7	13.7	40.3	46.0
	여성	1,074	2.9	14.1	46.2	31.7	5.1	17.0	46.2	36.8
학교급	초등학교	564	1.2	9.0	38.5	44.9	6.4	10.2	38.5	51.3
	중학교	705	2.7	11.6	40.6	36.9	8.2	14.3	40.6	45.1
	고등학교	731	3.8	16.7	50.2	24.9	4.4	20.5	50.2	29.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2	7.3	36.5	46.0	8.0	9.5	36.5	54.0
	중	1,709	2.6	13.3	44.4	34.1	5.6	15.9	44.4	39.7
	하	154	3.9	11.0	41.0	31.8	12.3	14.9	41.0	44.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	17.5	36.9	32.0	8.7	22.4	36.9	40.7
	없다	1,897	2.6	12.5	43.8	34.9	6.2	15.1	43.8	41.1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미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깝게 느껴진다’ 41.1%(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6.3% +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34.8%),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15.5%(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2.7% +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6.0%)이 여성(36.8%)보다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51.3%)일 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45.3%),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58.0%),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54.0%)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9% 수준에서 성별과 학교급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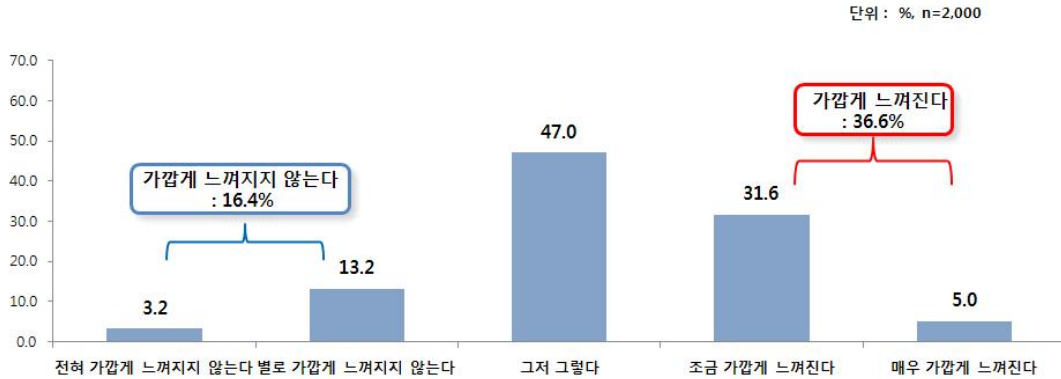
표 Ⅲ-108 미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17.779*** (.000)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76.490***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2.208 (.316)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419 (.110)
	없다	1,897	

*p<.05, **p<.01, ***p<.001

⑦ 유럽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유럽 청소년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진다' 36.6%



【그림 III-53】 유럽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표 III-109 유럽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깝게 느껴 진다*
전체		2,000	3.2	13.2	47.0	31.6	5.0	16.4	47.0	36.6
성별	남성	926	2.9	10.5	45.0	35.3	6.3	13.4	45.0	41.6
	여성	1,074	3.4	15.5	48.6	28.3	4.2	18.9	48.6	32.5
학교급	초등학교	564	1.6	10.1	43.8	39.4	5.1	11.7	43.8	44.5
	중학교	705	3.3	12.6	43.7	33.9	6.5	15.9	43.7	40.4
	고등학교	731	4.4	16.0	52.5	23.3	3.8	20.4	52.5	27.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9	10.2	40.2	38.7	8.0	13.1	40.2	46.7
	중	1,709	3.1	13.8	47.7	30.9	4.5	16.9	47.7	35.4
	하	154	4.5	8.4	44.9	32.5	9.7	12.9	44.9	42.2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17.5	35.9	35.0	8.7	20.4	35.9	43.7
	없다	1,897	3.2	12.9	47.5	31.4	5.0	16.1	47.5	36.4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유럽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깝게 느껴진다’ 36.6%(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5.0% +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31.6%),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16.4%(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3.2% +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1.6%)이 여성(32.5%)보다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44.5%)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40.7%),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50.0%),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46.7%)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및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5% 수준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99% 수준에서는 성별과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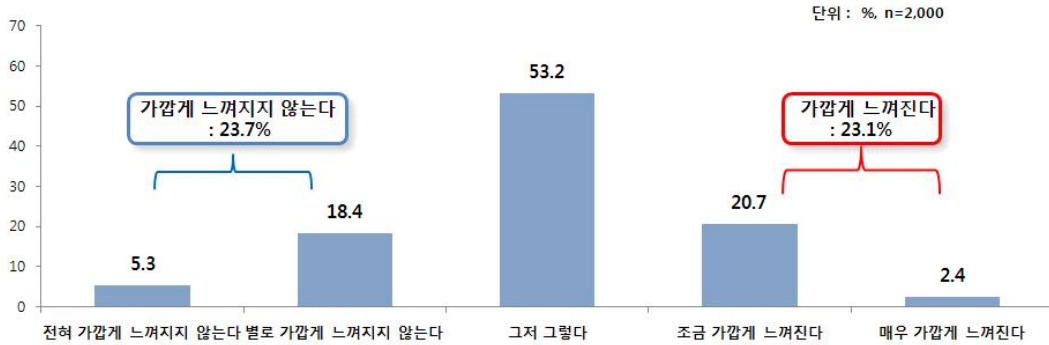
표 Ⅲ-110 유럽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21.760*** (.000)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52.894*** (.000)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9.761* (.045)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5.341 (.069)
	없다	1,897	

*p<.05, **p<.01, ***p<.001

⑧ 중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중국 청소년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진다' 23.1%



【그림 III-54】 중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표 III-III 중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깝게 느껴 진다*
전체	2,000	5.3	18.4	53.2	20.7	2.4	23.7	53.2	23.1
성별	남성	926	5.4	16.8	53.7	22.0	2.1	22.2	24.1
	여성	1,074	5.2	19.7	52.8	19.6	2.7	24.9	22.3
학교급	초등학교	564	2.7	18.1	56.5	21.1	1.6	20.8	22.7
	중학교	705	6.7	16.9	51.4	21.6	3.4	23.6	25.0
	고등학교	731	6.0	20.1	52.2	19.6	2.1	26.1	21.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5.1	14.6	51.1	26.3	2.9	19.7	29.2
	중	1,709	4.8	19.1	53.7	20.4	2.0	23.9	22.4
	하	154	11.0	14.3	50.1	18.8	5.8	25.3	24.6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6.8	14.6	49.4	24.3	4.9	21.4	29.2
	없다	1,897	5.2	18.6	53.4	20.5	2.3	23.8	22.8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중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깝게 느껴진다’ 23.1%(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2.4% +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20.7%),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23.7%(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5.3% +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24.1%)이 여성(22.3%)보다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25.0%)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25.8%),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30.8%),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29.2%)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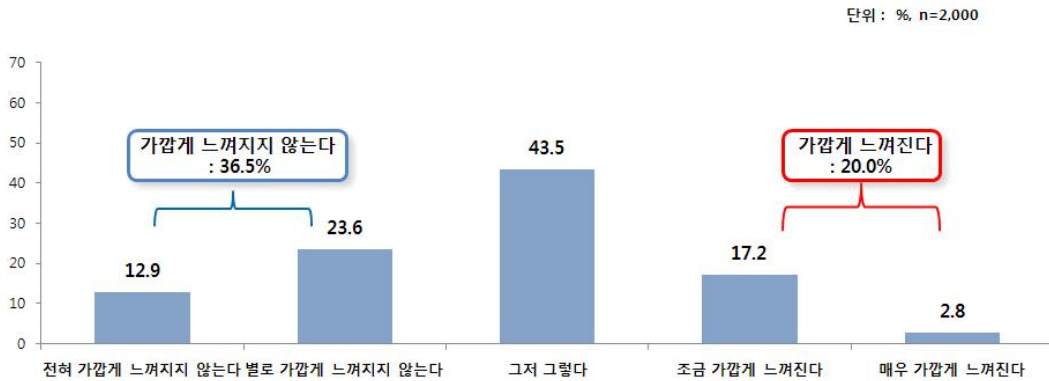
표 III-112 중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2.330 (.312)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7.411 (.116)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4.257 (.372)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235 (.327)
	없다	1,897	

*p<.05, **p<.01, ***p<.001

⑨ 일본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일본 청소년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진다' 20.0%



【그림 III-55】 일본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표 III-113 일본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깝게 느껴진다 *
전체		2,000	12.9	23.6	43.5	17.2	2.8	36.5	43.5	20.0
성별	남성	926	12.2	24.6	42.9	17.6	2.7	36.8	42.9	20.3
	여성	1,074	13.5	22.7	44.1	16.9	2.8	36.2	44.1	19.7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7	28.9	42.1	16.1	1.2	40.6	42.1	17.3
	중학교	705	13.5	23.8	41.7	17.7	3.3	37.3	41.7	21.0
	고등학교	731	13.3	19.3	46.5	17.5	3.4	32.6	46.5	20.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6.1	23.4	33.5	21.9	5.1	39.5	33.5	27.0
	중	1,709	12.8	23.7	44.5	17.0	2.0	36.5	44.5	19.0
	하	154	11.0	22.7	42.3	15.6	8.4	33.7	42.3	24.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0.4	28.2	27.1	24.3	0.0	48.6	27.1	24.3
	없다	1,897	12.5	23.4	44.4	16.8	2.9	35.9	44.4	19.7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일본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깝게 느껴진다’ 20.0%(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2.8% +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17.2%),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36.5%(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12.9% +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2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20.3%)이 여성(19.7%)보다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21.0%)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불만족할 때(24.1%),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22.9%),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27.0%)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및 이산가족 유무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5% 수준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98% 수준에서는 학교급, 이산가족 유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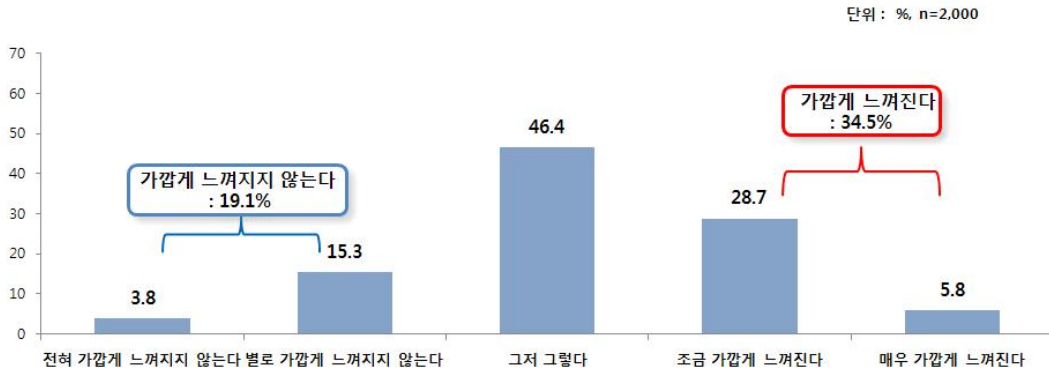
표 Ⅲ-114 일본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0.339 (.844)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0.776** (.009)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9.608* (.048)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2.011** (.002)
	없다	1,897	

*p<.05, **p<.01, ***p<.001

⑩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북한 청소년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진다' 34.5%



【그림 III-56】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표 III-115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깝게 느껴 진다*
전체		2,000	3.8	15.3	46.4	28.7	5.8	19.1	46.4	34.5
성별	남성	926	3.1	16.1	44.9	30.8	5.1	19.2	44.9	35.9
	여성	1,074	4.4	14.6	47.9	26.8	6.3	19.0	47.9	33.1
학교급	초등학교	564	3.0	16.3	48.6	29.4	2.7	19.3	48.6	32.1
	중학교	705	4.5	16.0	42.7	28.9	7.9	20.5	42.7	36.8
	고등학교	731	3.7	13.8	48.7	27.8	6.0	17.5	48.7	33.8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5.8	19.0	40.2	29.2	5.8	24.8	40.2	35.0
	중	1,709	3.6	14.9	47.5	28.6	5.4	18.5	47.5	34.0
	하	154	3.9	16.9	40.9	28.6	9.7	20.8	40.9	38.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6.8	15.5	40.8	28.2	8.7	22.3	40.8	36.9
	없다	1,897	3.6	15.3	46.8	28.7	5.6	18.9	46.8	34.3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깝게 느껴진다’ 34.4%(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5.8% +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28.7%),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19.1%(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3.8% +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5.9%)이 여성(33.1%)보다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36.8%)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37.6%),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35.2%),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38.3%)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6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1.993 (.369)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7.638 (.106)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6.289 (.179)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554 (.460)
	없다	1,897	

*p<.05, **p<.01, ***p<.001

4)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

응답자의 87.8%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에 대한 태도로는 ‘정부 및 정부기관, 민간차원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한다’ 59.6%,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한다’ 25.7%, 북한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청할 때 추진해야한다’ 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북한에 신뢰가 낮아서’ 33.2%, ‘생각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29.9%, ‘안전문제 때문에’ 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9.9%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관광 및 견학여행’ 35.4%, ‘음악 미술 등 예술 활동’ 21.2%, ‘스포츠’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남북한 청소년 교류 횟수로는 ‘연 2회’가 31.2%로 가장 높고, ‘수시로’ 19.9%, ‘연 4회’ 14.4%, ‘연 5회 이상’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만나는 장소로는 ‘남한과 북한 번갈아’ 80.1%로 가장 높고,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에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는 ‘전통문화’ 28.3%, ‘연극, 음악 등 예술’ 20.0%, ‘체육’ 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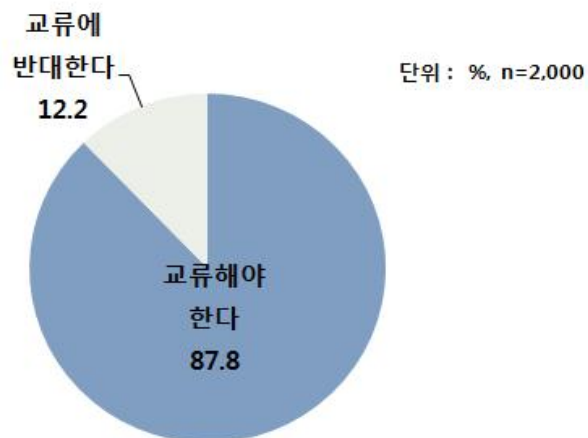
표 Ⅲ-117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

구분	내용[단위 : %]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	교류해야한다	87.8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에 대한 태도	정부 및 정부기관, 민간차원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한다	59.6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한다	25.7
	북한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청할 때 추진해야한다	8.6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추진해야한다	6.1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에 반대하는 이유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33.2
	생각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29.9
	안전문제 때문에	27.5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9.4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참여할 의사	있다	69.9

구분	내용[단위 : %]	
참여하고 싶은 활동	관광 및 견학여행	35.4
	음악 미술 등 예술 활동	21.2
	스포츠	11.6
	상호 방문	9.2
	유적지 답사	5.9
	교육	4.7
	대중매체	3.7
	역사	3.5
	문학	3.4
	종교	0.9
	신문교환	0.4
	초청 강연	0.3
연간 남북한 청소년 교류 횟수	연 2회	31.2
	수시로	19.9
	연 4회	14.4
	연 5회 이상	12.5
	연 3회	11.8
	연 1회	10.2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만나는 장소	남한과 북한 번갈아	80.1
	남한	10.2
	판문점	6.3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에서 동질감을 느낄수 있는 분야	전통문화	28.3
	연극, 음악 등 예술	20.0
	체육	18.9
	역사	17.6
	유적지 답사	7.0
	교육	5.1
	문학	2.4
	종교	0.6

(1)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생각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 '교류해야 한다' 87.8%



【그림 III-57】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생각

표 III-118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명)	교류해야한다	교류에 반대한다
전체		2,000	87.8	12.2
성별	남성	926	87.3	12.7
	여성	1,074	88.3	11.7
학교급	초등학교	564	90.8	9.2
	중학교	705	88.7	11.3
	고등학교	731	84.7	15.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86.1	13.9
	중	1,709	87.9	12.1
	하	154	87.7	12.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91.3	8.7
	없다	1,897	87.6	12.4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생각으로는, ‘교류해야한다’는 응답은 87.8%로 ‘교류에 반대 한다’는 응답 12.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교류해야한다’는 응답은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90.8%), 종교별로는 기독교(89.2%)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별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91.4%),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일 때(87.9%), 이산가족이 있을 때(91.3%)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8% 수준에서 학교급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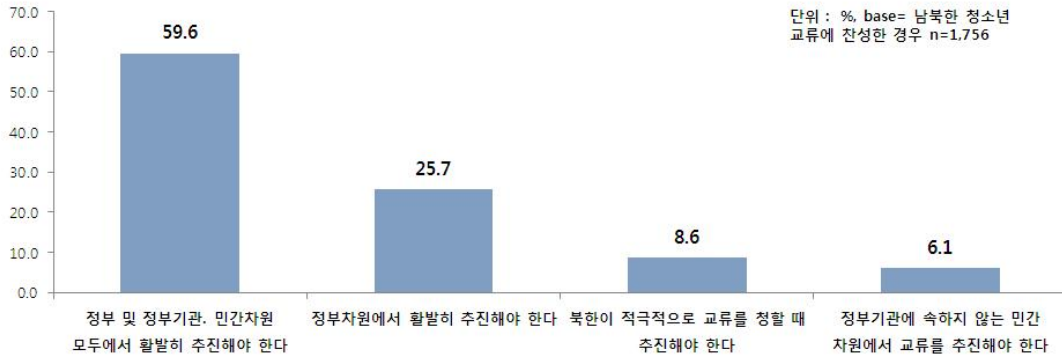
표 III-119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생각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0.475 (.491)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804** (.003)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393 (.822)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215 (.270)
	없다	1,897	

*p<.05, **p<.01, ***p<.001

(2)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 바람직한 태도로는
 '정부 및 정부기관, 민간차원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59.6%



【그림 III-58】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

표 III-120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

단위[%]		사례수(명)	정부 및 정부기관, 민간차원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청할 때 추진해야 한다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전체		1,756	59.6	25.7	8.6	6.1
성별	남성	808	58.3	27.7	7.3	6.7
	여성	948	60.8	23.9	9.7	5.6
학교급	초등학교	512	61.3	26.4	6.3	6.0
	중학교	625	61.6	22.7	8.8	6.9
	고등학교	619	56.2	28.1	10.3	5.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18	52.5	32.2	4.2	11.1
	중	1,503	59.9	25.5	8.4	6.2
	하	135	63.0	22.2	14.1	0.7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59.6	18.1	9.6	12.7
	없다	1,662	59.6	26.1	8.5	5.8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로는, '정부 및 정부기관, 민간차원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한다'가 가장 높고(59.6%)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한다'(25.7%), '북한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청할 때'(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58.3%)이 여성(60.8%)보다 '정부 및 정부기관, 민간차원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61.6%)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별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61.5%) '정부 및 정부기관, 민간차원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63.0%)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수준 및 이산가족 유무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8% 수준에서는 이산가족 유무에서, 99% 수준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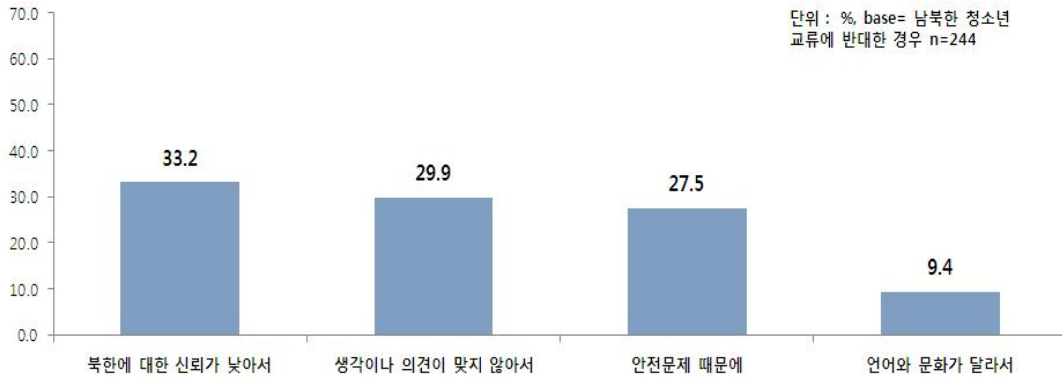
표 Ⅲ-121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56	
성별	남성	808	6.652 (.084)
	여성	948	
학교급	초등학교	512	12.232 (.057)
	중학교	625	
	고등학교	61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18	22.288*** (.001)
	중	1,503	
	하	135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9.599** (.002)
	없다	1,662	

*p<.05, **p<.01, ***p<.001

(3)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33.2% > 생각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29.9%



【그림 III-59】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

표 III-122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

단위[%]		사례수(명)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생각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안전문제 때문에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전체		244	33.2	29.9	27.5	9.4
성별	남성	118	30.5	35.6	28.0	5.9
	여성	126	35.7	24.6	27.0	12.7
학교급	초등학교	52	28.8	25.0	36.5	9.7
	중학교	80	41.3	30.0	25.0	3.7
	고등학교	112	29.5	32.1	25.0	13.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9	15.8	57.9	26.3	0.0
	중	206	34.0	27.2	28.2	10.6
	하	19	42.1	31.6	21.1	5.2
이산가족 유무	있다	9	44.4	44.4	0.0	11.2
	없다	235	32.8	29.4	28.5	9.3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가 가장 높고(33.2%) ‘생각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29.9%), ‘안전문제 때문에’(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0.5%)보다 여성(35.7%)이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41.3%)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중간일 때(36.5%)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42.1%)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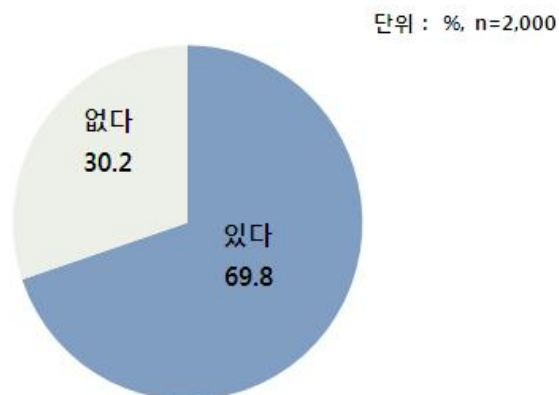
표 Ⅲ-123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44	
성별	남성	118	5.938 (.115)
	여성	126	
학교급	초등학교	52	9.525 (.146)
	중학교	80	
	고등학교	11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9	10.542 (.104)
	중	206	
	하	19	
이산가족 유무	있다	9	3.609 (.307)
	없다	235	

*p<.05, **p<.01, ***p<.001

(4)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참여할 의사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참여할 의사 69.8%



【그림 III-60】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참여할 의사

표 III-124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참여할 의사

단위[%]		사례수(명)	있다	없다
전체		2,000	69.8	30.2
성별	남성	926	70.1	29.9
	여성	1,074	69.6	30.4
학교급	초등학교	564	72.3	27.7
	중학교	705	70.5	29.5
	고등학교	731	67.3	32.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70.8	29.2
	중	1,709	69.7	30.3
	하	154	70.8	29.2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79.6	20.4
	없다	1,897	69.3	30.7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참여할 의사로는, ‘있다’는 응답은 69.8%로 ‘없다’는 응답 3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은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72.3%), 종교별로는 기독교(73.1%)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별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간일 때(71.1%),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75.3%), 이산가족이 있을 때(79.6%)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5% 수준에서 이산가족 유무가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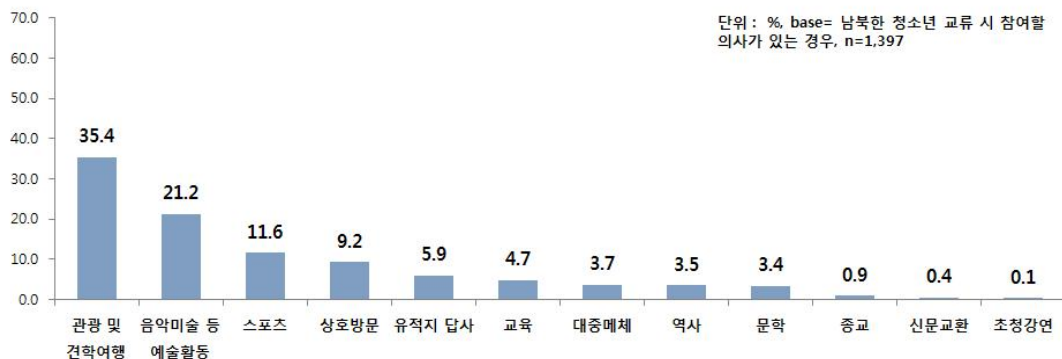
표 Ⅲ-125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참여할 의사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2,000	
성별	남성	926	0.046 (.831)
	여성	1,0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4.049 (.132)
	중학교	705	
	고등학교	73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143 (.931)
	중	1,709	
	하	15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14* (.027)
	없다	1,897	

*p<.05, **p<.01, ***p<.001

(5)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

관광 및 견학여행 35.4% > 음악미술 등 예술활동 21.2%



【그림 III-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

표 III-126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

단위[%]		사례수 (명)	관광 및 견학 여행	음악 미술 등 예술 활동	스포 츠	상호 방문	유적 지 답사	교육	대중 매체	역사	문학	종교	신문 교환	초청 강연
전체		1,397	35.4	21.2	11.6	9.2	5.9	4.7	3.7	3.5	3.4	0.9	0.4	0.1
성별	남성	649	34.2	15.3	19.1	7.7	6.6	4.8	4.0	3.4	3.5	1.1	0.0	0.3
	여성	748	36.4	26.3	5.1	10.6	5.2	4.5	3.5	3.6	3.2	0.7	0.7	0.2
학교급	초등학교	408	36.0	18.1	15.0	7.8	8.1	4.7	1.5	3.4	4.2	0.7	0.2	0.3
	중학교	497	35.2	19.9	13.5	7.8	5.6	4.8	5.2	3.0	3.2	1.2	0.4	0.2
	고등학교	492	35.0	25.0	6.9	11.8	4.3	4.5	4.1	4.1	2.8	0.6	0.4	0.5
가정의 경제수준	상	97	30.9	20.6	9.3	8.2	8.2	4.1	4.1	6.2	4.1	4.1	0.0	0.2
	중	1,191	35.3	20.8	12.2	9.0	6.0	4.9	3.8	3.4	3.4	0.7	0.4	0.1
	하	109	39.4	25.7	7.3	12.8	2.8	2.8	2.8	2.8	2.8	0.0	0.0	0.8
이산가족 유무	있다	82	36.6	19.5	8.5	4.9	3.7	11.0	7.3	4.9	3.6	0.0	0.0	0.0
	없다	1,315	35.3	21.3	11.8	9.5	6.0	4.3	3.5	3.4	3.3	0.9	0.4	0.3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관광 및 견학여행’이 가장 높고(35.4%) ‘음악미술 등 예술활동’(21.2%), ‘스포츠’(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4.2%)이 여성(36.4%)보다 ‘관광 및 견학여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36.0%)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 때(36.5%) ‘관광 및 견학여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39.4%)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학교급에서 유의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8%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99%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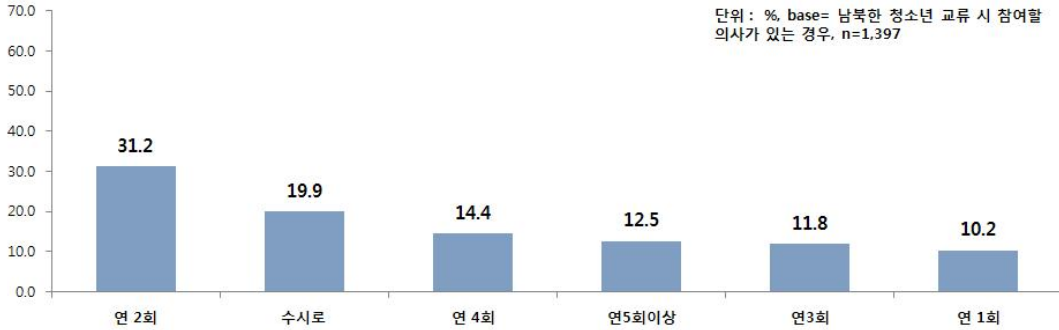
표 Ⅲ-127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397	
성별	남성	649	89.312*** (.000)
	여성	748	
학교급	초등학교	408	46.792** (.002)
	중학교	497	
	고등학교	492	
가정의 경제수준	상	97	29.203 (.139)
	중	1,191	
	하	109	
이산가족 유무	있다	82	15.679 (.153)
	없다	1,315	

*p<.05, **p<.01, ***p<.001

(6)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횟수(1년 기준)

연 2회 31.2% > 수시로 19.9%



【그림 III-62】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횟수(1년 기준)

표 III-128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횟수(1년 기준)

단위[%]		사례수(명)	연 2회	수시로	연 4회	연 5회 이상	연 3회	연 1회
전체		1,397	31.2	19.9	14.4	12.5	11.8	10.2
성별	남성	649	33.6	18.3	15.4	9.6	11.9	11.2
	여성	748	29.1	21.3	13.5	15.0	11.8	9.3
학교급	초등학교	408	40.7	17.6	12.7	5.9	9.1	14.0
	중학교	497	28.0	18.1	14.9	13.9	14.3	10.8
	고등학교	492	26.6	23.6	15.2	16.5	11.6	6.5
가정의 경제수준	상	97	43.3	13.4	10.3	8.2	12.4	12.4
	중	1,191	30.7	19.7	14.4	13.0	11.7	10.5
	하	109	25.7	27.5	17.4	10.1	12.8	6.5
이산가족 유무	있다	82	31.7	15.9	13.4	9.8	18.3	10.9
	없다	1,315	31.2	20.2	14.4	12.6	11.4	10.2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1년 기준 적당한 횟수로는, ‘연 2회’가 가장 높고(31.2%) ‘수시로’(19.9%), ‘연 4회’(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3.6%)이 여성(29.1%)보다 ‘연 2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40.7%)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 수준이 중간일 때(35.5%) ‘연 2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43.3%)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학교급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98%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99%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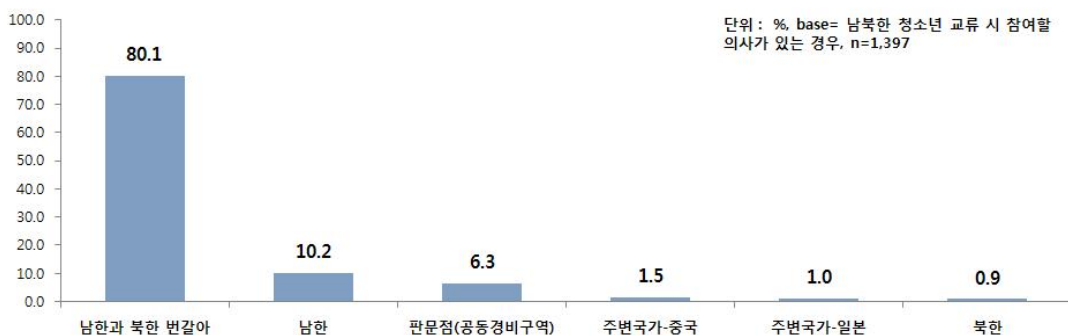
표 Ⅲ-129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횟수(1년 기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397	
성별	남성	649	13.979** (.006)
	여성	748	
학교급	초등학교	408	61.967*** (.000)
	중학교	497	
	고등학교	492	
가정의 경제수준	상	97	17.106 (.072)
	중	1,191	
	하	109	
이산가족 유무	있다	82	4.436 (.489)
	없다	1,315	

*p<.05, **p<.01, ***p<.001

(7)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만남의 장소

남한과 북한 번갈아 80.1% > 남한 10.2%



【그림 III-63】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만남의 장소

표 III-130 남북한 교류시 적당한 만남의 장소

단위[%]		사례수(명)	남한과 북한 번갈아	남한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	주변 국가 - 중국	주변 국가 - 일본	북한
전체		1,397	80.1	10.2	6.3	1.5	1.0	0.9
성별	남성	649	80.4	10.3	6.3	0.9	0.9	1.2
	여성	748	79.8	10.2	6.3	2.0	1.1	0.6
학교급	초등학교	408	82.8	10.3	3.7	0.7	1.0	1.5
	중학교	497	80.3	10.3	6.6	1.6	0.6	0.6
	고등학교	492	77.6	10.2	8.1	2.0	1.4	0.7
가정의 경제수준	상	97	75.3	10.3	5.2	4.1	3.1	2.0
	중	1,191	80.2	10.6	6.3	1.3	0.8	0.8
	하	109	83.5	6.4	7.3	0.9	1.8	0.1
이산가족 유무	있다	82	82.9	9.8	2.4	1.2	0.0	3.7
	없다	1,315	79.9	10.3	6.5	1.5	1.1	0.7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적당한 만남의 장소로는, '남한과 북한 번갈아'가 가장 높고(80.1%) '남한'(10.2%), '판문점(공동경비구역)'(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80.4%)이 여성(79.8%)보다 '남한과 북한 번갈아'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82.8%)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중간일 때(82.4%) '남한과 북한 번갈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83.5%)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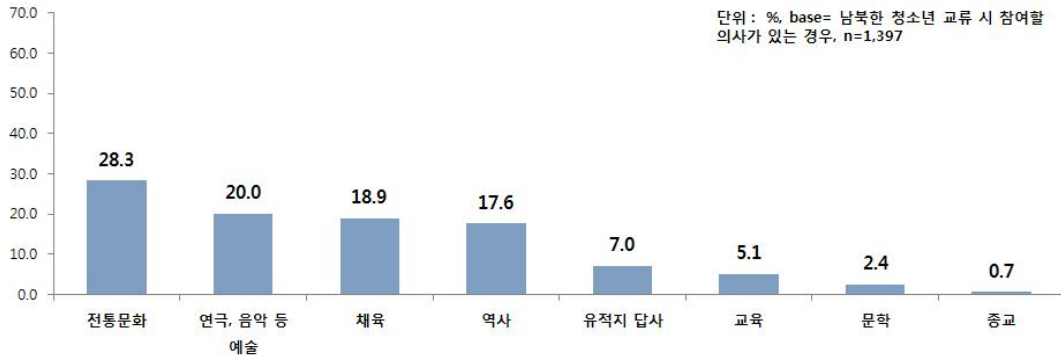
표 Ⅲ-131 남북한 교류시 적당한 만남의 장소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397	
성별	남성	649	3.480 (.626)
	여성	748	
학교급	초등학교	408	14.649 (.145)
	중학교	497	
	고등학교	492	
가정의 경제수준	상	97	15.681 (.109)
	중	1,191	
	하	109	
이산가족 유무	있다	82	11.035 (.051)
	없다	1,315	

*p<.05, **p<.01, ***p<.001

(8)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

전통문화 28.3% > 연극, 음악 등 예술 20.0%



【그림 III-64】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

표 III-132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

단위[%]		사례수 (명)	전통문화	연극, 음악 등 예술	체육	역사	유적지 답사	교육	문학	종교
전체		1,397	28.3	20.0	18.9	17.6	7.0	5.1	2.4	0.7
성별	남성	649	28.7	13.7	24.3	19.4	4.9	4.8	3.1	1.1
	여성	748	28.1	25.4	14.2	16.0	8.8	5.3	1.9	0.3
학교급	초등학교	408	30.9	17.6	21.6	13.7	6.4	7.1	2.2	0.5
	중학교	497	26.2	17.5	19.3	19.3	8.5	5.2	3.0	1.0
	고등학교	492	28.5	24.4	16.3	19.1	6.1	3.3	2.0	0.3
가정의 경제수준	상	97	21.6	19.6	19.6	25.8	1.0	8.2	3.1	1.1
	중	1,191	29.1	19.8	18.4	16.8	7.5	5.1	2.6	0.7
	하	109	25.7	22.0	23.9	19.3	7.3	1.8	0.0	0.0
이산가족 유무	있다	82	25.6	20.7	14.6	23.2	4.9	3.7	7.3	0.0
	없다	1,315	28.5	19.9	19.2	17.3	7.1	5.2	2.1	0.7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는, '전통문화'가 가장 높고(28.3%) '연극, 음악 등 예술'(20.0%), '체육'(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28.7%)이 여성(28.1%)보다 '전통문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30.9%)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중간일 때(30.7%) '전통문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일 때(29.1%)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해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8%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99%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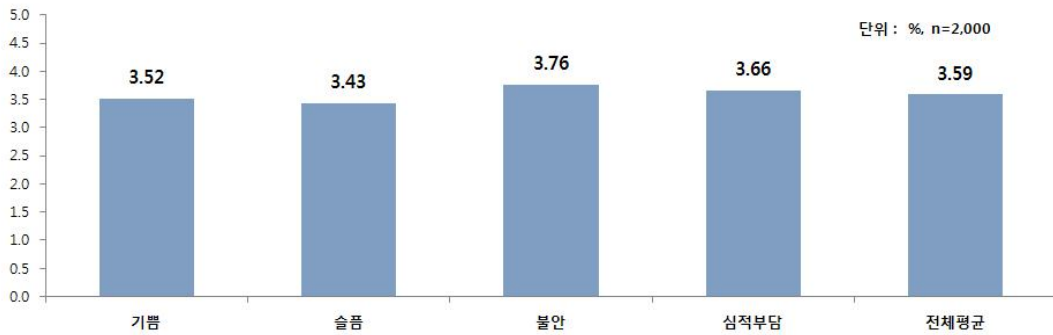
표 Ⅲ-133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397	
성별	남성	649	58.457*** (.000)
	여성	748	
학교급	초등학교	408	29.086** (.010)
	중학교	497	
	고등학교	492	
가정의 경제수준	상	97	21.623 (.087)
	중	1,191	
	하	109	
이산가족 유무	있다	82	12.635 (.082)
	없다	1,315	

*p<.05, **p<.01, ***p<.001

5) 정서적 공감

불안 3.76점 > 심적부담 3.66점 > 기쁨 3.52점



【그림 III-65】 정서적 공감

표 III-134 정서적 공감

단위[%]		사례수(명)	기쁨	슬픔	불안	심적부담	전체평균
전체		2,000	3.52	3.43	3.76	3.66	3.59
성별	남성	926	3.45	3.28	3.64	3.56	3.48
	여성	1,074	3.58	3.55	3.85	3.75	3.69
학교급	초등학교	564	3.49	3.32	3.66	3.52	3.50
	중학교	705	3.53	3.42	3.78	3.64	3.59
	고등학교	731	3.53	3.51	3.81	3.80	3.6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55	3.38	3.66	3.68	3.57
	중	1,709	3.51	3.43	3.75	3.66	3.59
	하	154	3.55	3.46	3.86	3.72	3.65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3.43	3.32	3.65	3.63	3.51
	없다	1,897	3.52	3.43	3.76	3.66	3.59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4개 하위요인(5점)을 살펴보면, ‘불안’이(3.76점)로 가장 높고, ‘심적부담’(3.66점), ‘기쁨’(3.5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64점)이 여성(3.85점)보다 ‘불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3.81점)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불안’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및 학교급은 변인의 각 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세부적인 요소에서 높았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135 정서적 공감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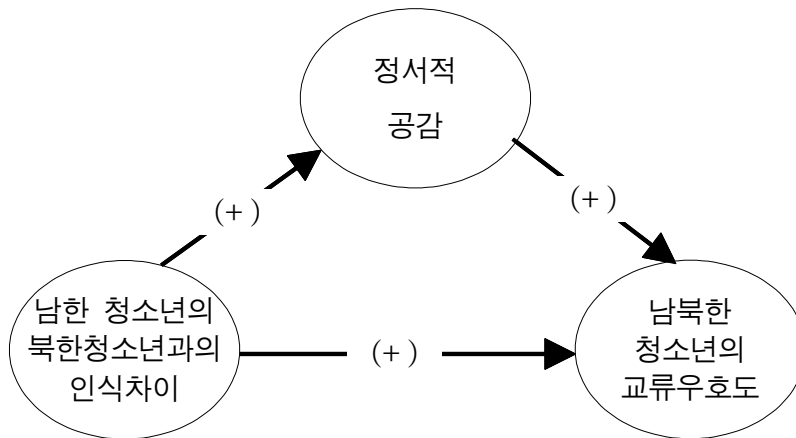
단위[%]		사 례 수 (명)	기쁨		슬픔		불안		심적부담		전체평균	
			Mean	F(유의도)	Mean	F(유의도)	Mean	F(유의도)	Mean	F(유의도)	Mean	F(유의도)
전체		2,000	3.52		3.43		3.76		3.66		3.59	
성별	남성	926	3.45	23.843***	3.28	86.629***	3.64	64.711***	3.56	39.379***	3.48	89.819***
	여성	1,074	3.58	(0.000)	3.55	(0.000)	3.85	(0.000)	3.75	(0.000)	3.69	(0.000)
학교급	초등학교	564	3.49	0.650	3.32	13.346	3.66	10.898	3.52	26.157	3.50	17.923
	중학교	705	3.53	***	3.42	***	3.78	***	3.64	***	3.59	***
	고등학교	731	3.53	(0.000)	3.51	(0.000)	3.81	(0.000)	3.80	(0.000)	3.66	(0.000)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3.55		3.38		3.66		3.68		3.57	
	중	1,709	3.51	0.566 (0.566)	3.43	0.628 (0.534)	3.75	4.238* (0.015)	3.66	0.759 (0.468)	3.59	1.401 (0.247)
	하	154	3.55		3.46		3.86		3.72		3.65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3.43	2.127 (0.145)	3.32	2.768 (0.096)	3.65	3.194 (0.074)	3.63	0.192 (0.661)	3.51	2.985 (0.084)
	없다	1,897	3.52		3.43		3.76		3.66		3.59	

*p<.05, **p<.01, ***p<.001

3. 남북한 청소년에 대한 차이인식과 교류우호도 관계에서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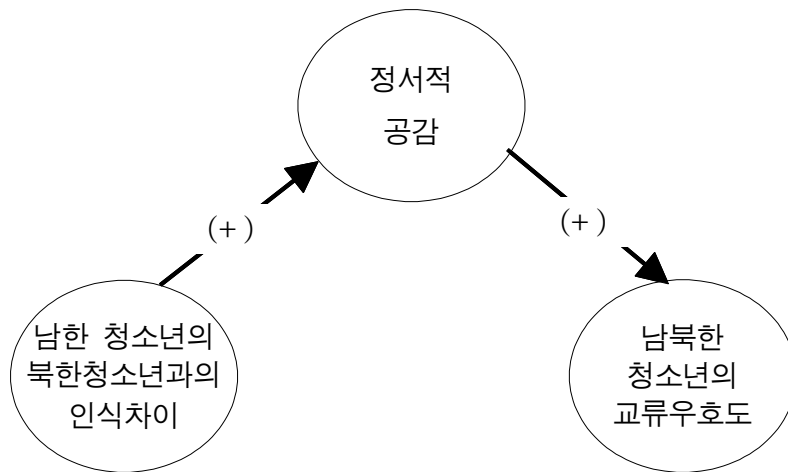
본 실태분석에서 공감척도를 활용하여 남북한 청소년에 대한 차이인식과 교류우호도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남한 청소년의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정서적 공감을 매개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우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을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남한 청소년의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우호도와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남한 청소년의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는 정서적 공감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정서적 공감과 남북한 청소년 교류우호도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넷째, 남한 청소년의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는 공감을 매개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우호도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한 매개효과 모형은 다음 [그림 III-66]의 부분매개효과모형과 [그림 III-67]의 완전매개효과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III-66】 부분매개모형

5) 이 부분은 권재기(중앙대학교)와 함께 집필한 원고임



【그림 III-67】 완전매개모형

1) 분석 방법

남한 청소년의 북한 청소년과의 차이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지에서 ‘북한 청소년에 대한 생각’ 중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에 대한 응답을 참고하였다. 남한 청소년이 생각하는 북한 청소년과의 차이로서 10가지 인식차이를 사용하였다. 10가지 인식차이는 사용하는 말(언어), 생각하는 방법이나 태도(사고방식), 바라보는 미래, 앞으로의 직업(진로), 가정환경/ 가정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 문화(풍습, 종교, 학문, 예술)생활, 교육을 받는(학력) 수준, 여가(쉬는 시간을 보내는)생활이 있다. 응답방식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1)부터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5)로 점수가 높을수록 차이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우호도는 설문지에서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 중에서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서로 왕래하고 방문하는 것)에 대한 생각, 남북한 청소년이 교류할 경우 참여의사, 희망하는 교류 횟수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 정서적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Bryant(1981)의 정서공감 척도(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ECA)를 송기종(1998)이 수정·보완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공감척도는 네 가지 하위변인(기쁨, 슬픔, 불안, 심적부담)으로 구분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5점 Likert척도(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81로 나타났다.

표 Ⅲ-136 정서적 공감척도의 하위변인과 척도의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기쁨	1, 5, 9, 13, 17	5	.74
슬픔	2, 6, 10, 14, 18	5	.78
불안	3, 7, 11, 15, 19	5	.76
심적부담	4, 8, 12, 16, 20	5	.70
전체		20	.81

* 역채점 문항 : 1, 2, 3, 5, 6, 7, 9, 10, 11, 13, 14, 17, 18

남한 청소년의 북한 청소년과의 차이인식이 정서적 공감을 매개로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우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ng model)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경로 분석, 회귀 분석, 그리고 요인 분석이 합성되어 발전된 통계 방법으로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2개 이상의 변인들과의 인과관계를 밝혀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는 통계방법이다. 구조 방정식 모형은 경로 분석과는 달리 보다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변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더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인과관계 모형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측정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사례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변인 간 상관을 분석하였고, 모형의 구조를 검증한 후 연구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간의 회귀계수를 산출하고, 매개효과검정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은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벗어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집의 크기가 클 경우 안정된 모수치와 표준오차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참고한 적합도 지수는 χ^2 ,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을 이용하였다. CFI는 .90이상이면 양호한 모형이고, RMSEA와 SRMR은 값이 .05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이면 보통 수준을 의미한다. 분석에 활용된 프로그램은 AMOS 21.0이다.

2) 분석 결과

(1) 변인의 기초통계치와 상관관계

남한 청소년의 북한 청소년과의 차이인식이 정서적 공감을 매개로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우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먼저 변인의 기초통계치와 종속변인인 교류 우호도와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137>과 같다. 참고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차와 VIF 값을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다중공선성은 설명변수가 여러 개인 다중회귀 분석에서 다중적인 상관관계를 의미하는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137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																
2	.668**	1															
3	.553**	.680**	1														
4	.443**	.548**	.693**	1													
5	.555**	.602**	.577**	.580**	1												
6	.444**	.498**	.515**	.531**	.644**	1											
7	.385**	.460**	.509**	.469**	.531**	.695**	1										
8	.538**	.574**	.536**	.503**	.586**	.539**	.551**	1									
9	.522**	.544**	.525**	.497**	.570**	.529**	.506**	.646**	1								
10	.497**	.515**	.539**	.505**	.584**	.555**	.488**	.589**	.701**	1							
11	-.091**	-.096**	-.123**	-.126**	-.056*	-.078**	-.136**	-.117**	-.074**	-.058**	1						
12	-.136**	-.148**	-.159**	-.169**	-.165**	-.148**	-.161**	-.165**	-.144**	-.129**	.531**	1					
13	-.117**	-.161**	-.198**	-.207**	-.221**	-.185**	-.189**	-.208**	-.161**	-.144**	.395**	.744**	1				
14	-.116**	-.131**	-.161**	-.135**	-.200**	-.120**	-.193**	-.192**	-.185**	-.196**	.231**	.249**	.316**	1			
15	-.132**	-.156**	-.166**	-.169**	-.208**	-.134**	-.191**	-.220**	-.186**	-.197**	.211**	.258**	.355**	.688**	1		
16	-.001**	-.014**	-.064**	-.075**	-.087**	-.053**	-.169**	-.126**	-.127**	-.126**	.249**	.223**	.294**	.699**	.661**	1	
17	.047*	-.002	-.045*	-.052*	-.067**	-.050*	-.142**	-.106**	-.077**	-.104**	.217**	.205**	.281**	.482**	.461**	.732**	1
M	3.84	3.86	3.66	3.62	3.75	3.59	3.32	3.68	3.66	3.64	0.89	0.70	2.43	3.60	3.55	3.82	3.75
Sd	0.89	0.93	0.99	0.98	0.99	0.96	1.06	1.00	1.01	1.05	0.31	0.46	2.14	0.73	0.82	0.71	0.78

* 1=언어, 2=사고방식, 3=미래, 4=진로, 5=가정환경, 6=학교생활, 7=친구관계, 8=문화생활, 9=교육수준, 10=여가생활, 11=교류생각, 12=교류시참여의사, 13=교류횟수, 14=기쁨, 15=슬픔, 16=불안, 17=심적부담

* $p < .05$, ** $p < .01$, *** $p < .001$

(2) 모형평가

본 연구에서는 남한 청소년의 북한 청소년과의 차이인식과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우호도의 관계에서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을 비교하여 해석이 용이하고 적합도가 좋은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경쟁모형 평가방법을 통해 연구모형 1과 2를 비교

분석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통한 모형평가 결과는 <표 III-138>과 같다. 부분매개모형이 CFI와 TLI가 .90이상이며, RMSEA는 .08 미만으로 나타났으므로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이고 있다. 완전매개모형은 CFI는 .90이하이고, RMSEA는 .08 이상, SRMR은 .075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좋지 못한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비교하였을 때, 부분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좋았고, 모형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χ^2 차이검증(χ^2 difference test)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서도 유의도 $\alpha=.05$ 수준에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자유도 차이가 1일 때, χ^2 값이 63.619로 자유도 1일 때의 임계값이 3.84보다 커서 유의하였다. 즉 완전매개모형보다는 부분매개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부분매개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연구모형은 부분매개모형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표 III-138 **모형평가**

모형	χ^2	df	CFI	RMSEA	SRMR
부분매개모형	2407.158 ***	116	.904	.079	.057
완전매개모형	2407.158 ***	116	.904	.079	.057

(3)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분석 및 가설검증

모형평가결과를 토대로 부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의 경로계수에 대한 분석 결과 <표 III-139>, [그림 III-68]과 같이 최종모형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분석에는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이 사용되었으며, 최대우도 추정법(the method of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사용되었다.

<표 III-139>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토대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첫 번째 가설, 두 번째 가설, 세 번째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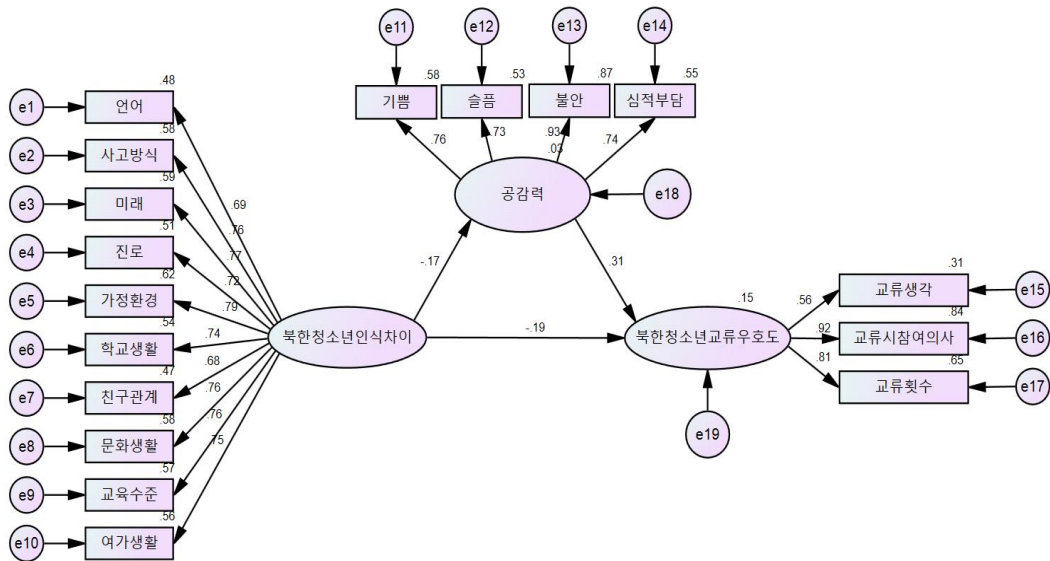
표 Ⅲ-139 주요변인의 경로계수 추정치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 오차	t	P
공감력 ← 북한청소년인식차이	-.122	-.165	.018	-6.746	***
북한청소년교류 우호도 ← 공감력	.096	.309	.008	11.494	***
북한청소년교류 우호도 ← 북한청소년인식차이	-.043	-.191	.006	-7.694	***
교육수준 ← 북한청소년인식차이	1.000	.757			
문화생활 ← 북한청소년인식차이	.995	.760	.028	35.075	***
친구관계 ← 북한청소년인식차이	.954	.685	.031	31.158	***
학교생활 ← 북한청소년인식차이	.931	.737	.028	33.834	***
가정환경 ← 북한청소년인식차이	1.022	.788	.028	36.523	***
진로 ← 북한청소년인식차이	.923	.717	.028	32.821	***
미래 ← 북한청소년인식차이	.993	.768	.028	35.500	***
사고방식 ← 북한청소년인식차이	.934	.764	.026	35.265	***
언어 ← 북한청소년인식차이	.808	.691	.026	31.489	***
기쁨 ← 공감력	1.000	.764			
슬픔 ← 공감력	1.069	.731	.032	33.462	***
불안 ← 공감력	1.175	.931	.028	41.401	***
심적부담 ← 공감력	1.036	.743	.030	34.070	***
교류생각 ← 북한청소년교류우호도	1.000	.559			
교류시참여의사 ← 북한청소년교류우호도	2.426	.919	.100	24.307	***
교류횟수 ← 북한청소년교류우호도	9.965	.808	.399	24.961	***
여가생활 ← 북한청소년인식차이	1.027	.748	.030	34.412	***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청소년의 인식차이와 북한 청소년 교류 우호도의 경로계수는 $-.19(p < .001)$, $t=-7.69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의 인식차이가 높을수록 북한 청소년 교류우호도는 낮아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감력과 북한청소년 교류우호도는 $.31(p < .001)$, $t=11.49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한 청소년의 정서적 공감력이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에 우호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8]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계수(표준화계수)

(4) 정서적 공감력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최종모형의 각 변인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립변인인 남한 청소년의 북한 청소년과의 차이인식이 종속변인인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적 공감력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은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벗어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집의 크기가 클 경우 안정된 모수치와 표준오차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Bootstrapping 표집을 1,000번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하여 간접효과 크기가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표 III-140>과 같다. 간접적 매개효과 유의성에 대한 최종 검증 결과 그 효과가 95% CI(-.173, -.130)가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도 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결과 네 번째 가설은 지지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서적 공감은 북한청소년의 인식차이와 북한 청소년 교류우호도의 관계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북한청소년의 인식차이는 북한 청소년 교류우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공감이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북한청소년의 인식차이는 북한 청소년 교류우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서적 공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북한 청소년 교류우호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청소년의 인식차이가 높을수록 북한 청소년 교류우호도가 감소되는 관계에서 정서적 공감이 차이 인식을 감소시키고 북한 청소년 교류우호도를 긍정적으로 높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한 청소년들의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정서적 공감력을 높인다면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Ⅲ-140 전체 연구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의도 검증		<i>p</i>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북한청소년의 인식차이 → 정서적 공감 → 북한 청소년 교류우호도	-.242	-.191	-.051	-.173	-.130	.002

제 4 장

정책제언 및 결론

1. 주요결과 요약
2. 정책제언
3. 결론

제 4 장 정책제언 및 결론

1. 주요결과 요약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실태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주요 실태들을 살펴보면,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에 대해서 ‘있다’는 응답은 81.7%로 ‘없다’는 응답 18.3%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매체 경로로는 ‘TV 뉴스’가 57.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수업’(21.8%), ‘인터넷’(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로는 부모(36.9%), 학교선생님(29.6%), 친구(28.8%),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15.7%)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에 대해서 ‘힘을 합쳐 도와야 할 대상’ 응답이 40.1%로 가장 높고,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위협대상’(21.9%), ‘조심해야하는 대상’(1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의 이미지로 ‘가난하다’(69.0%), ‘허약하다’(54.1%)는 이미지가 가장 높고, ‘믿을 수 없다’, ‘조용하다’는 이미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는 ‘없는 편이다’라는 의견이 35.3%로 ‘있는 편이다’라는 의견의 27.8%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북한의 생활수준’이 48.4%로 가장 높고, ‘정치’(38.7%), ‘경제수준’(36.5%), ‘북한사회 특성’(33.9%), ‘언어’(26.5%), ‘교육 수준’(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일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73.7%로 ‘필요 없다’는 응답 26.3%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같은 민족이니깐’이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기 위해’(29.3%),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북한 간의 정치 체제와 생각이 달라 사회 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고,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사람들을 도와줘야하기 때문에’(15.6%), ‘현재 상태가 좋아서’(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이익정도로는 ‘북한 이익’이라는 의견이 86.6%로 ‘남한 이익’이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일 이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로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52.0%로 높게 나타났다.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경제적으로 차이나는 문제’가 30.1%로 가장 높고, ‘이념, 사상이 차이나는 문제’(25.6%),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로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응답이 26.3%로 가장 높고, ‘전쟁도발이 없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21.0%),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이 이루어져야한다’(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사이의 전쟁 위험정도에 대해 ‘전쟁 위험이 있다’는 응답이 77.2%로 ‘전쟁 위험이 없다’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북한청소년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라는 응답이 72.7%로 ‘들어본 적 없다’(27.3%)보다 높게 나타났다. 탈북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측은하고 안타깝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고, ‘가난하고 굶주린 모습이다’(25.0%),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지녀 우리와 별 차이 없을 것이다’(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에 대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33.5%로 ‘친근하게 느껴진다’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로는 ‘언어’ 차이가 7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사고방식’이 75.9%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으로는 ‘담담히 대하겠다’가 59.9%로 가장 높고, ‘같은 민족으로서 환영하여 대하겠다’(16.9%),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대화하겠다’(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의향으로는 ‘친구로 사귀겠다’는 응답이 83.9%로 ‘친구로 사귀지 않겠다’(16.1%)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갖고 있는 호감도 및 친밀도에 대해서는 유럽 청소년이 61.4%로 호감도가 가장 높고, 친밀도는 미국청소년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본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및 친밀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생각으로는 ‘교류해야한다’는 응답은 87.8%로 ‘교류에 반대 한다’는 응답 12.2%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로는 ‘정부 및 정부기관, 민간차원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한다’가 59.6%로 가장 높고,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한다’가 25.7%로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가 33.2%로 가장 높고, ‘생각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29.9%), ‘안전문제 때문에’(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참여할 의사로는 ‘있다’는 응답은 69.8%로 ‘없다’는 응답 30.2%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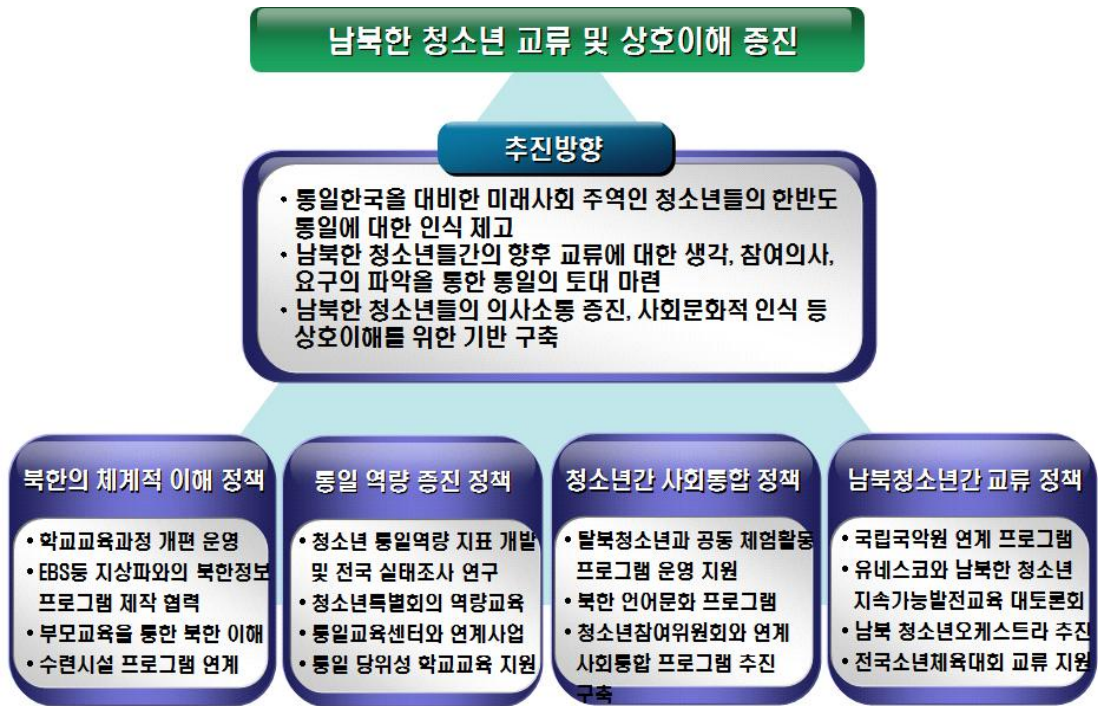
높게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관광 및 견학여행’이 3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음악미술 등 예술활동’(21.2%), ‘스포츠’(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적당한 횟수로는(1년 기준) ‘연 2회’가 3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수시로’(19.9%), ‘연 4회’(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적당한 만남의 장소로는 ‘남한과 북한 번갈아’ 해야 한다는 의견이 80.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남한’(10.2%), ‘판문점(공동경비구역)’(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는 ‘전통문화’가 28.3%로 가장 높고, ‘연극, 음악 등 예술’(20.0%), ‘체육’(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서적 공감 부분에 대한 분석에서 4개 하위요인(5점 평균)을 살펴보면 ‘불안’이 3.76점으로 가장 높고, ‘심적부담’(3.66점), ‘기쁨’(3.52점), ‘슬픔’(3.4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쁨」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3.58점)이 ‘남성’(3.45점)보다 높고,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각각 3.5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불교’ 및 ‘가톨릭’이 3.59점으로 높고, 학교생활 만족도 및 부모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슬픔」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3.55점)이 ‘남성’(3.28점)보다 높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3.5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 교육수준 및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불안」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3.85점)이 ‘남성’(3.64점)보다 높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3.8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가톨릭’이 3.82점으로 높고, 부모님 교육수준 및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심적부담」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3.75점)이 ‘남성’(3.56점)보다 높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3.8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무교’가 3.71점으로 높고, 부모님 교육수준 및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2. 정책제언

본 과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들에 대해 4개의 대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북한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한 정책, 통일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남북한 청소년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위한 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정책영역별

추진목표, 추진과제, 추진체계, 소요예산,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다음 [그림 IV-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전체 정책방향에 대해 추진방향과 정책영역별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IV-1】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방향

1) 북한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한 정책 추진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든지 들어본 청소년들은 다수이나 그 경로가 방송매체나 부모 등 비형식적이고 간헐적 경로를 통해 접한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이해 증진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북한에 대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화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의 수립과 실천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추진목표

-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습득을 통한 인식 함양
- 북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전달 및 교육경로 구축

(2) 추진과제

- 학교교육과정에 북한 관련 정보 및 소식 전달수업 편성·운영
 - 창의적체험활동이나 자율·재량활동시간을 통한 북한 실상 및 관련 정보에 대한 특강 등 편성·운영
- EBS 등 방송매체와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북한에 대한 정보 및 인식 함양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청소년 관련기관 협조 하에 지상파 방송에서 청소년 대상의 북한 정보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지원
- 북한 관련 정보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 가정 내 정확한 북한 정보교류를 위한 초·중등학교와 지역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청소년단체·수련시설을 통한 북한정보에 대한 청소년 체험활동프로그램 운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 주제 중 하나로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운영 지원

(3) 추진체계

-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협력기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EBS 등 방송사,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4) 소요예산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예산(단위 : 백만 원)		
	2015	2016	2017
○ 학교교육과정에 북한 관련 정보 전달수업 편성·운영	50	50	50
○ 방송매체와의 전략적 협력 및 프로그램 제작·반영	150	150	150
○ 북한 관련 인식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및 지원	30	50	80
○ 청소년단체·시설의 북한정보에 대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	50	100	150

(5) 기대효과

-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습득의 체계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이해 증진
- 청소년들의 북한 정보 습득 경로의 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정보 전달체계 구축

2) 통일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지만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청소년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남북 간에 사회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고, 통일이 남한보다 북한에 이익일 것이라는 의견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공동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이며 이에 대한 정책과제의 추진을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고자 한다.

(1) 추진목표

-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공감 증진
- 미래 통일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청소년 통일역량 고양

(2) 추진과제

- 청소년 통일역량 지표 및 전국 실태조사 연구 추진
 - 미래 통일한국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역량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전국 청소년들의 역량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추진

- 청소년특별회의의 통일 역량교육 및 리더십캠프 지원
 - 중앙단위의 청소년협의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청소년 통일 역량교육 및 리더십캠프 추진
-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지역 통일교육센터와 연계한 통일교육 연계 추진
 - 전국에 지역별로 운영 중인 통일교육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대상의 미래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 및 전망에 대한 교육과 활동프로그램 추진
- 사회, 역사 등 교과교육에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교육 협력 지원
 - 전문강사 파견 등 학교 교과수업의 일부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용한 청소년 통일 교육에 대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 및 지원

(3) 추진체계

-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협력기관 : 통일부(통일교육원, 지역 통일교육센터), 교육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4) 소요예산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예산(단위 : 백만 원)		
	2015	2016	2017
○ 청소년 통일역량 지표 및 실태조사 연구 추진	100	150	150
○ 청소년특별회의 통일 역량교육 및 리더십캠프 지원	50	80	80
○ 통일교육센터와 연계한 청소년 통일교육 추진	30	50	50
○ 교과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강조 협력 및 지원	30	30	30

(5) 기대효과

-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극대화
- 청소년들의 통일역량 강화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사전준비 체계화

3) 남북한 청소년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북한 청소년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의 인식은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고, 호감도나 친밀감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가장 큰 격차는 언어와 사고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신 북한 청소년을 만날 때 담담히 대화하겠다거나 친구로 사귀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당장 친밀함의 느낌과 향후 대면이 일어났을 때의 예상행동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추진목표

-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
- 탈북 청소년들과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통합 증진

(2) 추진과제

- 탈북 청소년과 국내 청소년과의 함께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탈북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북한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특별 강좌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의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전문강사를 통한 북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실태와 전망에 대한 특강 운영 지원
-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하나원 탈북청소년간의 사회통합 캠프 추진
 - 전국 시도별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하나원 탈북청소년 간 지역에 따른 특색 있는 테마를 주제로 사회통합 청소년캠프 지원 및 추진

(3) 추진체계

-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협력기관 : 하나원,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4) 소요예산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예산(단위 : 백만 원)		
	2015	2016	2017
○ 탈북 청소년과 국내 청소년과의 함께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60	80	100
○ 북한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특별 강좌프로그램 운영 지원	50	50	50
○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하나원 탈북청소년간의 사회통합 캠프 추진	80	100	100

(5) 기대효과

-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의 확대를 통한 한민족 청소년 간 공감 극대화
- 탈북 청소년들과의 관계 증진을 시작으로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 강화

4)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위한 정책 추진

남북한 청소년들 간에 교류의 필요성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공감하고 있었고, 교류의 당사자는 정부 및 민간차원이 모두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또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의사를 갖고 있었으며, 교류 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는 전통문화, 예술분야, 체육분야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필요한 정책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추진목표

-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및 인식 제고
-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실질적인 교류 추진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

(2) 추진과제

- 국립국악원 및 지역 국악원과 연계한 탈북 청소년들과 공동 국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국립국악원과 지역 국악원이 연계하여 탈북 청소년들과 국내 청소년들 공동의 국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유네스코와 연계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한반도 지속가능발전교육 대토론회 개최
 - 유네스코의 교육문화지원 기능을 기반으로 남북한 청소년들 간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대토론회 추진
- 남북한 합동 청소년오케스트라 구성 및 공연 추진
 - 통일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중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 동아리와 북한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합동 구성 및 남북한 공연 추진
-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추진
 - 매년 봄에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에 북한 청소년 스포츠팀의 초청과 국내 청소년 스포츠팀과의 합동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및 상호교류 추진

(3) 추진체계

-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협력기관 :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지역 국악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4) 소요예산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예산(단위 : 백만 원)		
	2015	2016	2017
○ 국립국악원·지역 국악원과 연계한 탈북 청소년들과 공동 국악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60	120	170
○ 유네스코와 연계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한반도 지속가능발전교육 대토론회 개최	150	150	150
○ 남북한 합동 청소년오케스트라 구성 및 공연 추진	100	120	120
○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추진	50	120	150

(5) 기대효과

-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 제고를 통한 통일의식 강화
- 남북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이해 및 민족적 협력 증진

3. 결론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통일에 대한 준비를 주요 정책으로 구상하고 통일준비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여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는데 이렇게 제시한 정책들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국민적 담론의 확대를 통한 공감의 확산인데, 통일에 대한 당위성, 미래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 통일을 통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통일은 지정학적 특성과 동북아 국가의 외교적 이해관계라는 복잡한 국제 문제 등 지난한 길을 거쳐 해결될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내부의 국민적 합의와 당위성에 대한 결집된 의견이 부재하다면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어느 나라나 그리고 남북한 모두 교육과 사회화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독일 통일과정에서처럼 통일의 준비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교류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점도 현 시점에서 남북한 청소년간의 실질적인 교류의 출발을 어렵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다. 다만 우리나라가 거시적 안목에서 통일의 비전을 갖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이 되는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또 통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확대와 역량의 함양은 차후 남북한의 원만한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비록 느리고 점진적이라 할지라도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 준비과정은 미래 통일한국을 위해 인내를 갖고 꾸준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상당기간 교착상태 혹은 경색국면에 있는 남북한 관계에서 남북한 청소년들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당장 실현가능성이 적어보이는 정책과제로 여겨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지라도 미래 남북한 교류의 문이 열리는 시점에 대한 준비는 중단없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결국 당장 통일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경제 분야든 교육 분야든 어떤 분야라도 가시적인 정책의 추진양상을 보이기 어렵지만 한반도 미래를 위한 준비는 상시화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통일을 준비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이기도 하지만, 남북한 청소년들의 상호이해와 교류는 결국 미래의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문제이자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이 되는 청소년들이 향후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 그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남북한에 대한 청소년들의 상호이해와 인식의 확대를 위해 우리 사회의 많은 공동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3). **탈북학생 주요통계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 길은배, 이종원, 최원기 (2001).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길은배, 이종원, 최원기 (2002).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김정원 (2014).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통일교육의 방향. **KEDI 교육정책포럼**. 제251호.
- 김정원, 김지수, 안경식, 강구섭, 이은구, 김성식, 노유경, 박주영 (2014). **유형별 탈북학생 교육실태 및 교육지원 요구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2012 탈북 청소년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송기종(1998). 아동의 공감수준과 친사회적 도덕추론능력의 관련성. **우석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신진아, 김경희, 박상욱, 김영란, 이정우, 서민철, 조운동, 김현경, 이영주, 최숙기 (20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의 교과별 성취 특성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향규, 이강주, 김윤영, 한만길, 김성식 (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중단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14). **뉴스레터 17호. 2014년 봄·여름호**. p. 11.
- 통일부 (1990-2008). **남북 교류협력 동향**. 서울: 통일부.
- 통일부 (2013:1990-2008).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통일부 홈페이지 (2014). http://www.unikorea.go.kr/index.do?menuCd=DOM_000000105006000.

- 한만길, 윤종혁, 이향규, 김일혁 (2009).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함병수, 길은배, 이종원, 최원기 (2000). **NGO를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Bryant, T. J. (1981). Effects of friendship on prosocial intention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52, 636-643.

.....

부록

부 록

1. 배경변인별 설문 응답비율

1)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

단위[%]		사례수[명]	있다	없다
전체		2,000	81.7	18.3
성별	남성	926	81.3	18.7
	여성	1,074	82.0	18.0
학교급	초등학교	564	83.3	16.7
	중학교	705	81.8	18.2
	고등학교	731	80.3	19.7
종교	기독교	535	84.9	15.1
	불교	200	85.5	14.5
	가톨릭	153	77.8	22.2
	무교	1,098	79.8	20.2
	기타	14	100.0	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82.6	17.4
	보통	552	80.1	19.9
	불만	162	80.2	19.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8.3	11.7
	중	1,177	79.9	20.1
	하	661	83.2	16.8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80.5	19.5
	중	1,053	82.1	17.9
	하	870	81.4	18.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90.5	9.5
	중	1,709	81.0	19.0
	하	154	81.8	18.2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91.3	8.7
	없다	1,897	81.2	18.8

2) 북한에 대해 이야기 매체 경로

단위[%]		사례수 (명)	TV 뉴스	학교수업 에서	인터넷	부모님 에게서	신문	북한 방송이나 라디오	북한 영화나 소설	친구들 에게서
전체		1,634	57.6	21.8	9.2	4.2	3.3	2.2	0.9	0.8
성별	남성	753	61.6	18.6	7.6	5.3	3.2	2.1	1.1	0.5
	여성	881	54.1	24.5	10.6	3.3	3.4	2.3	0.8	1.0
학교급	초등학교	470	61.1	24.0	4.0	6.6	1.9	1.5	0.6	0.3
	중학교	577	56.3	25.0	5.9	5.5	2.8	3.3	0.3	0.9
	고등학교	587	56.0	16.9	16.5	1.0	4.9	1.7	1.7	1.3
종교	기독교	454	56.2	20.9	8.8	4.4	4.0	2.9	1.5	1.3
	불교	171	61.4	21.6	7.6	4.1	2.3	1.2	1.2	0.6
	가톨릭	119	52.1	28.6	3.4	7.6	4.2	2.5	0.8	0.8
	무교	876	58.3	21.6	10.6	3.7	3.1	1.7	0.6	0.4
	기타	14	57.1	7.1	0.0	7.1	0.0	21.4	0.0	7.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062	60.0	20.5	7.6	4.8	3.5	2.2	0.8	0.6
	보통	442	55.7	23.3	11.3	3.2	2.7	2.5	0.7	0.6
	불만	130	44.6	26.9	14.6	3.1	3.8	1.5	3.1	2.4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43	46.9	28.7	4.9	7.0	7.7	2.8	1.4	0.6
	중	941	60.8	20.4	7.3	4.8	3.3	1.7	0.9	0.8
	하	550	54.9	22.4	13.5	2.5	2.2	2.9	0.9	0.7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62	53.2	27.4	0.0	9.7	3.2	6.5	0.0	0.0
	중	864	59.7	21.5	7.1	4.9	3.7	1.6	0.7	0.8
	하	708	55.4	21.6	12.6	3.0	2.8	2.5	1.3	0.8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50.8	23.4	11.3	4.8	6.5	3.2	0.0	0.0
	중	1,384	58.1	22.0	8.5	4.3	3.3	2.1	0.9	0.8
	하	126	58.7	17.5	14.3	3.2	0.8	2.4	1.6	1.5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47.9	18.1	8.5	10.6	3.2	8.5	2.1	1.1
	없다	1,540	58.2	22.0	9.2	3.8	3.3	1.8	0.8	0.9

3)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보_부모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다	별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이야기 하는 편이다	많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하는 편이다*
전체		1,634	17.3	24.4	21.4	32.7	4.2	41.7	21.4	36.9
성별	남성	753	15.1	24.3	19.5	36.1	5.0	39.4	19.5	41.1
	여성	881	19.2	24.5	23.1	29.7	3.5	43.7	23.1	33.2
학교급	초등학교	470	6.2	17.7	22.3	48.3	5.5	23.9	22.3	53.8
	중학교	577	16.8	26.2	19.4	33.3	4.3	43	19.4	37.6
	고등학교	587	26.7	28.1	22.5	19.6	3.1	54.8	22.5	22.7
종교	기독교	454	16.3	22.9	21.4	33.9	5.5	39.2	21.4	39.4
	불교	171	21.1	20.5	24.5	29.8	4.1	41.6	24.5	33.9
	가톨릭	119	14.3	23.5	17.7	39.5	5.0	37.8	17.7	44.5
	무교	876	17.5	26.3	21.1	31.7	3.4	43.8	21.1	35.1
	기타	14	21.4	14.3	28.6	28.6	7.1	35.7	28.6	3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062	13.9	21.1	20.5	39.9	4.6	35	20.5	44.5
	보통	442	21.0	31.9	22.9	20.6	3.6	52.9	22.9	24.2
	불만	130	32.3	26.2	23.8	14.6	3.1	58.5	23.8	17.7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43	9.1	23.8	16.7	44.8	5.6	32.9	16.7	50.4
	중	941	12.8	23.4	22.2	37.8	3.8	36.2	22.2	41.6
	하	550	27.3	26.4	21.1	20.7	4.5	53.7	21.1	25.2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62	6.5	16.1	22.6	43.5	11.3	22.6	22.6	54.8
	중	864	13.0	21.5	22.2	39.7	3.6	34.5	22.2	43.3
	하	708	23.6	28.7	20.1	23.2	4.4	52.3	20.1	27.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12.1	19.4	20.1	46.8	1.6	31.5	20.1	48.4
	중	1,384	15.6	25.1	22.5	32.5	4.3	40.7	22.5	36.8
	하	126	41.3	22.2	10.3	20.6	5.6	63.5	10.3	26.2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11.7	14.9	21.2	42.6	9.6	26.6	21.2	52.2
	없다	1,540	17.7	25.0	21.3	32.1	3.9	42.7	21.3	36.0

4)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보_학교선생님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이야기하 지 않는다	별로 이야기하 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이야기 하는 편이다	많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하는 편이다*
전체		1,634	18.4	21.1	30.9	27.2	2.4	39.5	30.9	29.6
성별	남성	753	15.8	20.1	32.6	29.1	2.4	35.9	32.6	31.5
	여성	881	20.5	21.9	29.5	25.7	2.4	42.4	29.5	28.1
학교급	초등학교	470	6.2	12.1	36.6	41.5	3.6	18.3	36.6	45.1
	중학교	577	18.4	21.1	30.7	27.2	2.6	39.5	30.7	29.8
	고등학교	587	28.1	28.1	26.8	15.8	1.2	56.2	26.8	17.0
종교	기독교	454	15.6	18.3	33.3	30.2	2.6	33.9	33.3	32.8
	불교	171	18.7	18.1	29.8	32.2	1.2	36.8	29.8	33.4
	가톨릭	119	15.1	17.6	34.5	30.3	2.5	32.7	34.5	32.8
	무교	876	20.1	23.5	30.0	23.9	2.5	43.6	30.0	26.4
	기타	14	21.4	21.4	0.1	57.1	0.0	42.8	0.1	5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062	15.4	19.0	31.7	30.8	3.1	34.4	31.7	33.9
	보통	442	21.3	26.5	29.1	22.4	0.7	47.8	29.1	23.1
	불만	130	32.3	19.2	31.6	14.6	2.3	51.5	31.6	16.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43	11.2	16.1	34.2	32.2	6.3	27.3	34.2	38.5
	중	941	13.4	21.6	31.7	31.2	2.1	35.0	31.7	33.3
	하	550	28.7	21.5	28.9	19.1	1.8	50.2	28.9	20.9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62	8.1	11.3	33.8	46.8	0.0	19.4	33.8	46.8
	중	864	13.2	19.2	32.9	31.5	3.2	32.4	32.9	34.7
	하	708	25.6	24.2	28.3	20.3	1.6	49.8	28.3	21.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12.1	16.1	37.1	32.3	2.4	28.2	37.1	34.7
	중	1,384	17.8	21.5	30.1	28.1	2.5	39.3	30.1	30.6
	하	126	30.2	21.4	34.1	12.7	1.6	51.6	34.1	14.3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13.8	25.5	31.9	25.6	3.2	39.3	31.9	28.8
	없다	1,540	18.6	20.8	30.9	27.4	2.3	39.4	30.9	29.7

5)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보_친구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다	별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이야기 하는 편이다	많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하는 편이다*
전체		1,634	16.4	24.4	30.3	24.7	4.2	40.8	30.3	28.9
성별	남성	753	16.3	24.2	31.3	23.4	4.8	40.5	31.3	28.2
	여성	881	16.5	24.6	29.5	25.8	3.6	41.1	29.5	29.4
학교급	초등학교	470	14.5	26.4	35.9	20.6	2.6	40.9	35.9	23.2
	중학교	577	19.4	22.4	27.0	26.7	4.5	41.8	27.0	31.2
	고등학교	587	15.0	24.9	29.1	25.9	5.1	39.9	29.1	31.0
종교	기독교	454	16.3	25.1	31.3	23.1	4.2	41.4	31.3	27.3
	불교	171	18.1	26.9	26.9	24.0	4.1	45.0	26.9	28.1
	가톨릭	119	12.6	20.2	40.3	26.1	0.8	32.8	40.3	26.9
	무교	876	16.7	24.4	29.3	25.1	4.5	41.1	29.3	29.6
	기타	14	14.3	7.1	21.4	42.9	14.3	21.4	21.4	57.2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062	15.4	24.1	30.9	25.3	4.3	39.5	30.9	29.6
	보통	442	17.2	25.3	32.2	22.4	2.9	42.5	32.2	25.3
	불만	130	21.5	23.8	20.9	26.9	6.9	45.3	20.9	33.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43	17.5	28.7	24.4	25.2	4.2	46.2	24.4	29.4
	중	941	14.3	26.4	32.8	23.6	2.9	40.7	32.8	26.5
	하	550	19.6	20.0	27.6	26.4	6.4	39.6	27.6	32.8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62	16.1	30.6	17.8	25.8	9.7	46.7	17.8	35.5
	중	864	14.5	25.9	32.9	24.2	2.5	40.4	32.9	26.7
	하	708	18.8	22.0	28.5	25.1	5.6	40.8	28.5	30.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12.9	29.0	27.5	28.2	2.4	41.9	27.5	30.6
	중	1,384	16.3	24.1	30.8	24.5	4.3	40.4	30.8	28.8
	하	126	20.6	23.8	28.6	23.0	4.0	44.4	28.6	27.0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21.3	29.8	24.4	21.3	3.2	51.1	24.4	24.5
	없다	1,540	16.1	24.1	30.7	24.9	4.2	40.2	30.7	29.1

6)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보_할아버지/할머니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다	별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이야기 하는 편이다	많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하는 편이다*
전체		1,634	40.1	23.8	20.4	13.2	2.5	63.9	20.4	15.7
성별	남성	753	34.8	23.9	23.7	14.7	2.9	58.7	23.7	17.6
	여성	881	44.6	23.7	17.7	11.8	2.2	68.3	17.7	14.0
학교급	초등학교	470	23.0	25.5	28.1	21.1	2.3	48.5	28.1	23.4
	중학교	577	38.8	23.6	20.4	13.7	3.5	62.4	20.4	17.2
	고등학교	587	55.0	22.7	14.3	6.3	1.7	77.7	14.3	8.0
종교	기독교	454	32.4	26.2	21.4	17.6	2.4	58.6	21.4	20.0
	불교	171	42.1	16.4	19.8	16.4	5.3	58.5	19.8	21.7
	가톨릭	119	31.1	20.2	24.4	21.8	2.5	51.3	24.4	24.3
	무교	876	45.1	24.3	19.4	9.1	2.1	69.4	19.4	11.2
	기타	14	28.6	35.7	28.6	7.1	0.0	64.3	28.6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062	34.6	23.4	23.0	16.4	2.6	58.0	23.0	19.0
	보통	442	48.6	26.2	15.9	7.0	2.3	74.8	15.9	9.3
	불만	130	56.2	18.5	15.3	7.7	2.3	74.7	15.3	10.0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43	30.1	25.9	23.0	16.1	4.9	56.0	23.0	21.0
	중	941	32.8	24.5	23.2	17.1	2.4	57.3	23.2	19.5
	하	550	55.1	22.0	15.3	5.6	2.0	77.1	15.3	7.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62	21.0	19.4	27.3	24.2	8.1	40.4	27.3	32.3
	중	864	31.9	24.3	23.4	17.4	3.0	56.2	23.4	20.4
	하	708	51.7	23.6	16.2	7.1	1.4	75.3	16.2	8.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26.6	20.2	31.4	19.4	2.4	46.8	31.4	21.8
	중	1,384	40.2	24.3	20.2	13.1	2.2	64.5	20.2	15.3
	하	126	52.4	21.4	12.7	7.9	5.6	73.8	12.7	13.5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7.4	16.0	22.3	44.7	9.6	23.4	22.3	54.3
	없다	1,540	42.1	24.3	20.3	11.2	2.1	66.4	20.3	13.3

7)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

단위[%]		사례수 (명)	우리(남한)와 힘을 합쳐 서로서로 도와야 할 대상이다	우리 (남한)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위험대상 이다	우리 (남한)가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다	우리 (남한)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 (남한)가 굳이 신경쓸 필요 없는 대상이다	우리 (남한)와 좋은 마음으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전체		2,000	40.1	21.9	16.6	12.6	4.9	3.9
성별	남성	926	39.8	21.7	15.2	13.4	4.4	5.5
	여성	1,074	40.3	22.0	17.8	11.8	5.3	2.8
학교급	초등학교	564	37.6	20.6	16.3	17.6	2.0	5.9
	중학교	705	42.8	22.6	14.9	12.3	4.1	3.3
	고등학교	731	39.4	22.2	18.5	8.9	7.9	3.1
종교	기독교	535	41.1	18.7	16.1	16.4	2.1	5.6
	불교	200	34.0	22.5	17.0	12.5	9.0	5.0
	가톨릭	153	39.9	23.5	11.1	13.7	7.8	4.0
	무교	1,098	40.6	23.2	17.5	10.6	5.0	3.1
	기타	14	50.0	7.1	21.4	7.1	14.3	0.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40.9	21.9	14.2	14.7	3.3	5.0
	보통	552	37.9	22.3	20.7	10.0	6.9	2.2
	불만	162	41.4	20.4	21.6	4.3	10.5	1.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34.6	19.1	22.2	13.0	6.2	4.9
	중	1,177	40.9	22.3	14.6	13.3	4.5	4.4
	하	661	40.1	21.8	18.8	11.0	5.3	3.0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42.9	20.8	9.1	22.1	2.6	2.5
	중	1,053	39.5	22.0	16.2	12.6	4.6	5.1
	하	870	40.6	21.7	17.7	11.6	5.5	2.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1.4	17.5	19.0	19.7	5.1	7.3
	중	1,709	40.2	22.1	16.1	12.8	4.9	3.9
	하	154	46.8	22.7	19.5	3.9	5.2	1.9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0.8	21.4	15.5	12.6	1.0	8.7
	없다	1,897	40.1	21.9	16.7	12.5	5.1	3.7

8)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조용/시끄럽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조용하다	조용하다	그저 그렇다	시끄럽다	매우 시끄럽다	*조용 하다*	*그저 그렇다*	*시끄 럽다*
전체		2,000	3.6	22.1	66.7	6.3	1.3	25.7	66.7	7.6
성별	남성	926	3.5	23.5	64.4	7.2	1.4	27.0	64.4	8.6
	여성	1,074	3.6	20.8	68.9	5.5	1.2	24.4	68.9	6.7
학교급	초등학교	564	3.9	22.3	63.5	8.9	1.4	26.2	63.5	10.3
	중학교	705	4.0	22.6	66.2	5.8	1.4	26.6	66.2	7.2
	고등학교	731	2.9	21.3	69.9	4.8	1.1	24.2	69.9	5.9
종교	기독교	535	3.2	25.2	64.0	6.7	0.9	28.4	64.0	7.6
	불교	200	4.5	22.5	62.5	8.5	2.0	27.0	62.5	10.5
	가톨릭	153	5.2	20.9	60.2	11.1	2.6	26.1	60.2	13.7
	무교	1,098	3.2	20.7	69.9	5.1	1.1	23.9	69.9	6.2
	기타	14	14.3	14.3	64.3	0.0	7.1	28.6	64.3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3.8	24.2	64.8	6.3	0.9	28.0	64.8	7.2
	보통	552	3.3	18.5	69.3	6.9	2.0	21.8	69.3	8.9
	불만	162	2.5	17.3	73.4	4.3	2.5	19.8	73.4	6.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0	21.0	62.4	8.0	0.6	29.0	62.4	8.6
	중	1,177	2.9	23.7	65.5	6.5	1.4	26.6	65.5	7.9
	하	661	3.6	19.4	70.4	5.4	1.2	23.0	70.4	6.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1.7	27.3	54.5	5.2	1.3	39.0	54.5	6.5
	중	1,053	2.8	22.7	66.7	6.8	1.0	25.5	66.7	7.8
	하	870	3.8	20.8	68.1	5.7	1.6	24.6	68.1	7.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8.0	32.1	55.6	3.6	0.7	40.1	55.6	4.3
	중	1,709	3.2	21.4	67.4	6.8	1.2	24.6	67.4	8.0
	하	154	3.9	20.8	68.9	3.2	3.2	24.7	68.9	6.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6.8	31.1	59.2	2.9	0.0	37.9	59.2	2.9
	없다	1,897	3.4	21.6	67.1	6.5	1.4	25.0	67.1	7.9

9)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명량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명량하다	명량하다	그저 그렇다	우울하다	매우 우울하다	*명량 하다*	*그저 그렇다*	*우울 하다*
전체		2,000	0.8	8.7	51.2	35.2	4.1	9.5	51.2	39.3
성별	남성	926	0.8	8.3	51.3	35.6	4.0	9.1	51.3	39.6
	여성	1,074	0.7	9.0	51.3	34.8	4.2	9.7	51.3	39.0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	5.7	45.7	42.4	5.1	6.8	45.7	47.5
	중학교	705	1.1	10.9	50.3	34.6	3.1	12.0	50.3	37.7
	고등학교	731	0.1	8.9	56.6	30.2	4.2	9.0	56.6	34.4
종교	기독교	535	1.3	11.4	47.7	36.8	2.8	12.7	47.7	39.6
	불교	200	0.0	6.5	47.0	38.0	8.5	6.5	47.0	46.5
	가톨릭	153	1.3	6.5	49.0	38.6	4.6	7.8	49.0	43.2
	무교	1,098	0.5	8.1	54.0	33.7	3.7	8.6	54.0	37.4
	기타	14	0.0	7.1	64.3	14.3	14.3	7.1	64.3	28.6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9	9.6	47.5	38.2	3.8	10.5	47.5	42.0
	보통	552	0.5	6.7	57.6	31.2	4.0	7.2	57.6	35.2
	불만	162	0.0	8.6	59.3	25.3	6.8	8.6	59.3	32.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2	8.6	48.2	39.5	2.5	9.8	48.2	42.0
	중	1,177	0.7	6.6	50.5	38.1	4.1	7.3	50.5	42.2
	하	661	0.8	12.4	53.3	29.0	4.5	13.2	53.3	33.5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2.6	6.5	40.2	41.6	9.1	9.1	40.2	50.7
	중	1,053	0.8	7.5	49.2	38.7	3.8	8.3	49.2	42.5
	하	870	0.6	10.3	54.8	30.3	4.0	10.9	54.8	34.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7	14.6	43.1	33.6	8.0	15.3	43.1	41.6
	중	1,709	0.8	8.2	51.3	35.8	3.9	9.0	51.3	39.7
	하	154	0.6	9.1	57.8	29.9	2.6	9.7	57.8	32.5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13.6	44.7	35.9	2.9	16.5	44.7	38.8
	없다	1,897	0.6	8.4	51.6	35.2	4.2	9.0	51.6	39.4

10)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부유/가난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부유하다	부유하다	그저 그렇다	가난하다	매우 가난하다	*부유 하다*	*그저 그렇다*	*가난 하다*
전체		2,000	0.3	1.3	29.4	48.8	20.2	1.6	29.4	69.0
성별	남성	926	0.4	2.3	31.1	47.3	18.9	2.7	31.1	66.2
	여성	1,074	0.1	0.5	28.1	50.1	21.2	0.6	28.1	71.3
학교급	초등학교	564	0.2	1.4	24.7	48.0	25.7	1.6	24.7	73.7
	중학교	705	0.3	1.4	29.7	49.9	18.7	1.7	29.7	68.6
	고등학교	731	0.3	1.1	33.1	48.3	17.2	1.4	33.1	65.5
종교	기독교	535	0.7	2.4	27.5	49.2	20.2	3.1	27.5	69.4
	불교	200	0.0	1.0	28.0	45.0	26.0	1.0	28.0	71.0
	가톨릭	153	0.0	2.0	24.8	51.0	22.2	2.0	24.8	73.2
	무교	1,098	0.1	0.7	31.5	49.1	18.6	0.8	31.5	67.7
	기타	14	0.0	0.0	21.4	42.9	35.7	0.0	21.4	78.6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4	1.6	26.3	49.8	21.9	2.0	26.3	71.7
	보통	552	0.0	1.1	36.2	45.7	17.0	1.1	36.2	62.7
	불만	162	0.0	0.0	32.1	51.2	16.7	0.0	32.1	67.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0.0	1.2	23.4	51.9	23.5	1.2	23.4	75.4
	중	1,177	0.3	1.4	28.3	49.8	20.2	1.7	28.3	70.0
	하	661	0.3	1.2	33.0	46.3	19.2	1.5	33.0	65.5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0.0	2.6	15.6	54.5	27.3	2.6	15.6	81.8
	중	1,053	0.3	1.5	28.1	49.9	20.2	1.8	28.1	70.1
	하	870	0.2	0.9	32.5	47.0	19.4	1.1	32.5	66.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5	1.5	24.7	43.1	29.2	3.0	24.7	72.3
	중	1,709	0.2	1.3	29.7	49.3	19.5	1.5	29.7	68.8
	하	154	0.0	1.3	31.1	48.1	19.5	1.3	31.1	67.6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	9.7	21.3	46.6	21.4	10.7	21.3	68.0
	없다	1,897	0.2	0.8	30.0	48.9	20.1	1.0	30.0	69.0

11)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건강/허약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건강하다	건강하다	그저 그렇다	허약하다	매우 허약하다	*건강 하다*	*그저 그렇다*	*허약 하다*
전체		2,000	0.5	4.9	40.5	45.2	8.9	5.4	40.5	54.1
성별	남성	926	0.8	5.6	43.8	41.4	8.4	6.4	43.8	49.8
	여성	1,074	0.2	4.3	37.8	48.4	9.3	4.5	37.8	57.7
학교급	초등학교	564	0.7	3.7	37.1	48.0	10.5	4.4	37.1	58.5
	중학교	705	0.3	6.5	41.0	43.4	8.8	6.8	41.0	52.2
	고등학교	731	0.4	4.2	43.0	44.6	7.8	4.6	43.0	52.4
종교	기독교	535	0.9	6.0	36.5	47.1	9.5	6.9	36.5	56.6
	불교	200	0.5	4.5	31.5	53.5	10.0	5.0	31.5	63.5
	가톨릭	153	0.7	9.2	41.7	37.9	10.5	9.9	41.7	48.4
	무교	1,098	0.2	3.8	44.3	43.6	8.1	4.0	44.3	51.7
	기타	14	0.0	7.1	28.6	50.0	14.3	7.1	28.6	64.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6	4.8	38.0	47.4	9.2	5.4	38.0	56.6
	보통	552	0.2	4.7	46.0	41.1	8.0	4.9	46.0	49.1
	불만	162	0.0	6.2	42.5	41.4	9.9	6.2	42.5	51.3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0.6	3.7	34.0	50.6	11.1	4.3	34.0	61.7
	중	1,177	0.3	4.2	40.6	46.6	8.3	4.5	40.6	54.9
	하	661	0.8	6.4	42.3	41.1	9.4	7.2	42.3	50.5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2.6	0.0	37.6	45.5	14.3	2.6	37.6	59.8
	중	1,053	0.2	4.5	39.5	47.6	8.2	4.7	39.5	55.8
	하	870	0.6	5.9	42.0	42.2	9.3	6.5	42.0	51.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0	5.1	37.2	41.6	16.1	5.1	37.2	57.7
	중	1,709	0.5	5.2	41.1	44.9	8.3	5.7	41.1	53.2
	하	154	0.6	1.3	37.7	51.3	9.1	1.9	37.7	60.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8.7	31.1	46.6	10.7	11.6	31.1	57.3
	없다	1,897	0.3	4.7	41.1	45.1	8.8	5.0	41.1	53.9

12)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평화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평화적 이다	평화적 이다	그저 그렇다	공격적 이다	매우 공격적 이다	*평화적 이다*	*그저 그렇다*	*공격적 이다*
전체		2,000	0.4	4.9	57.0	32.7	5.0	5.3	57.0	37.7
성별	남성	926	0.5	4.8	54.7	35.0	5.0	5.3	54.7	40.0
	여성	1,074	0.3	5.0	59.0	30.7	5.0	5.3	59.0	35.7
학교급	초등학교	564	0.4	2.3	45.6	45.7	6.0	2.7	45.6	51.7
	중학교	705	0.4	4.5	57.2	32.5	5.4	4.9	57.2	37.9
	고등학교	731	0.4	7.3	65.7	22.8	3.8	7.7	65.7	26.6
종교	기독교	535	0.4	6.2	54.9	33.5	5.0	6.6	54.9	38.5
	불교	200	0.5	5.5	55.0	34.0	5.0	6.0	55.0	39.0
	가톨릭	153	1.3	1.3	49.7	39.9	7.8	2.6	49.7	47.7
	무교	1,098	0.3	4.6	59.4	31.1	4.6	4.9	59.4	35.7
	기타	14	0.0	7.1	57.2	28.6	7.1	7.1	57.2	3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4	5.5	54.1	35.1	4.9	5.9	54.1	40.0
	보통	552	0.5	3.4	62.4	28.6	5.1	3.9	62.4	33.7
	불만	162	0.0	4.9	62.3	27.2	5.6	4.9	62.3	32.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2	3.1	49.4	37.7	8.6	4.3	49.4	46.3
	중	1,177	0.3	3.4	56.5	34.6	5.2	3.7	56.5	39.8
	하	661	0.3	8.0	59.8	28.1	3.8	8.3	59.8	31.9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2.6	45.4	40.3	10.4	3.9	45.4	50.7
	중	1,053	0.4	3.7	53.2	37.8	4.9	4.1	53.2	42.7
	하	870	0.3	6.6	62.6	25.9	4.6	6.9	62.6	30.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7	1.5	52.5	38.7	6.6	2.2	52.5	45.3
	중	1,709	0.4	4.9	57.5	32.5	4.7	5.3	57.5	37.2
	하	154	0.0	7.8	56.5	29.2	6.5	7.8	56.5	35.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6.8	50.5	34.0	6.8	8.7	50.5	40.8
	없다	1,897	0.3	4.8	57.4	32.6	4.9	5.1	57.4	37.5

13)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믿음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저 그렇다	믿을 수 없다	매우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	*그저 그렇다*	*매우 믿을 수 없다*
전체		2,000	0.5	8.9	60.2	26.1	4.3	9.4	60.2	30.4
성별	남성	926	0.8	8.9	60.3	25.8	4.2	9.7	60.3	30.0
	여성	1,074	0.3	8.9	60.1	26.4	4.3	9.2	60.1	30.7
학교급	초등학교	564	0.2	5.9	55.4	33.7	4.8	6.1	55.4	38.5
	중학교	705	0.7	10.2	61.2	24.5	3.4	10.9	61.2	27.9
	고등학교	731	0.5	10.0	63.0	21.8	4.7	10.5	63.0	26.5
종교	기독교	535	0.7	12.0	54.3	29.3	3.7	12.7	54.3	33.0
	불교	200	0.5	10.5	54.5	30.0	4.5	11.0	54.5	34.5
	가톨릭	153	0.7	2.0	65.9	28.8	2.6	2.7	65.9	31.4
	무교	1,098	0.4	8.1	63.4	23.5	4.6	8.5	63.4	28.1
	기타	14	0.0	7.1	57.2	21.4	14.3	7.1	57.2	3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5	9.4	58.6	27.4	4.1	9.9	58.6	31.5
	보통	552	0.2	8.0	64.3	23.7	3.8	8.2	64.3	27.5
	불만	162	1.9	8.0	59.2	24.1	6.8	9.9	59.2	30.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2	9.3	59.2	24.1	6.2	10.5	59.2	30.3
	중	1,177	0.3	7.1	60.6	28.3	3.7	7.4	60.6	32.0
	하	661	0.8	12.0	59.8	22.7	4.7	12.8	59.8	27.4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0.0	13.0	53.2	27.3	6.5	13.0	53.2	33.8
	중	1,053	0.4	6.6	59.5	29.2	4.3	7.0	59.5	33.5
	하	870	0.7	11.3	61.8	22.2	4.0	12.0	61.8	26.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0	10.9	58.5	27.0	3.6	10.9	58.5	30.6
	중	1,709	0.5	8.8	60.6	26.1	4.0	9.3	60.6	30.1
	하	154	0.6	7.8	59.2	25.3	7.1	8.4	59.2	32.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	12.6	47.5	35.0	3.9	13.6	47.5	38.9
	없다	1,897	0.5	8.7	60.9	25.6	4.3	9.2	60.9	29.9

14)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

단위[%]		사례수 (명)	관심이 전혀 없는 편이다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관심이 있는 편이다	관심이 매우 많은 편이다	*없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있는 편이다*
전체		2,000	2.9	32.4	36.9	25.8	2.0	35.3	36.9	27.8
성별	남성	926	2.9	32.7	37.6	24.1	2.7	35.6	37.6	26.8
	여성	1,074	2.9	32.1	36.3	27.3	1.4	35.0	36.3	28.7
학교급	초등학교	564	2.1	37.1	39.3	19.9	1.6	39.2	39.3	21.5
	중학교	705	3.3	31.2	36.8	27.0	1.7	34.5	36.8	28.7
	고등학교	731	3.1	30.0	35.0	29.3	2.6	33.1	35.0	31.9
종교	기독교	535	2.8	29.3	35.6	29.3	3.0	32.1	35.6	32.3
	불교	200	2.5	33.0	38.5	24.5	1.5	35.5	38.5	26.0
	가톨릭	153	3.9	36.6	38.5	20.3	0.7	40.5	38.5	21.0
	무교	1,098	2.8	33.3	37.6	24.5	1.8	36.1	37.6	26.3
	기타	14	7.1	21.4	0.1	71.4	0.0	28.5	0.1	7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1	32.3	36.3	27.4	1.9	34.4	36.3	29.3
	보통	552	3.4	33.7	38.5	22.6	1.8	37.1	38.5	24.4
	불만	162	7.4	28.4	37.0	23.5	3.7	35.8	37.0	27.2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3.1	37.0	33.4	21.6	4.9	40.1	33.4	26.5
	중	1,177	3.1	32.9	38.3	24.7	1.0	36.0	38.3	25.7
	하	661	2.4	30.4	35.5	28.7	3.0	32.8	35.5	31.7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9	45.5	19.4	27.3	3.9	49.4	19.4	31.2
	중	1,053	2.6	33.6	39.3	22.8	1.7	36.2	39.3	24.5
	하	870	3.2	29.8	35.5	29.3	2.2	33.0	35.5	31.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5	26.3	40.8	26.3	5.1	27.8	40.8	31.4
	중	1,709	2.9	32.4	36.8	26.3	1.6	35.3	36.8	27.9
	하	154	3.9	38.3	33.8	20.1	3.9	42.2	33.8	24.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37.9	29.1	28.2	2.9	39.8	29.1	31.1
	없다	1,897	3.0	32.1	37.2	25.7	2.0	35.1	37.2	27.7

15)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언어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7.5	35.6	30.4	26.0	0.5	43.1	30.4	26.5
성별	남성	926	7.6	40.6	31.2	20.1	0.5	48.2	31.2	20.6
	여성	1,074	7.4	31.3	29.8	31.0	0.5	38.7	29.8	31.5
학교급	초등학교	564	9.8	45.9	31.0	12.8	0.5	55.7	31.0	13.3
	중학교	705	6.7	34.9	30.7	27.4	0.3	41.6	30.7	27.7
	고등학교	731	6.4	28.3	29.9	34.7	0.7	34.7	29.9	35.4
종교	기독교	535	6.4	35.9	32.5	24.5	0.7	42.3	32.5	25.2
	불교	200	9.5	29.5	33.5	27.0	0.5	39.0	33.5	27.5
	가톨릭	153	11.1	41.2	22.9	24.8	0.0	52.3	22.9	24.8
	무교	1,098	7.1	35.8	30.3	26.3	0.5	42.9	30.3	26.8
	기타	14	7.1	35.7	7.2	50.0	0.0	42.8	7.2	5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7.2	36.8	29.2	26.4	0.4	44.0	29.2	26.8
	보통	552	7.8	35.7	32.0	23.6	0.9	43.5	32.0	24.5
	불만	162	8.0	25.9	35.9	30.2	0.0	33.9	35.9	30.2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0	34.6	34.6	22.2	0.6	42.6	34.6	22.8
	중	1,177	8.3	38.9	28.9	23.4	0.5	47.2	28.9	23.9
	하	661	5.7	30.0	32.5	31.3	0.5	35.7	32.5	31.8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9.1	37.7	32.4	20.8	0.0	46.8	32.4	20.8
	중	1,053	7.8	40.5	28.2	23.1	0.4	48.3	28.2	23.5
	하	870	6.9	29.5	33.0	29.9	0.7	36.4	33.0	30.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6.6	30.7	32.8	29.9	0.0	37.3	32.8	29.9
	중	1,709	6.9	36.6	30.7	25.3	0.5	43.5	30.7	25.8
	하	154	14.3	29.2	26.0	29.2	1.3	43.5	26.0	30.5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	40.8	31.9	21.4	1.0	45.7	31.9	22.4
	없다	1,897	7.6	35.3	30.4	26.2	0.5	42.9	30.4	26.7

16)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정치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8.2	23.7	29.4	34.3	4.4	31.9	29.4	38.7
성별	남성	926	8.6	25.1	28.4	33.6	4.3	33.7	28.4	37.9
	여성	1,074	7.7	22.4	30.7	34.8	4.4	30.1	30.7	39.2
학교급	초등학교	564	9.4	33.2	30.8	25.4	1.2	42.6	30.8	26.6
	중학교	705	9.2	22.6	26.7	36.5	5.0	31.8	26.7	41.5
	고등학교	731	6.2	17.4	31.2	39.0	6.2	23.6	31.2	45.2
종교	기독교	535	7.3	22.2	31.7	33.6	5.2	29.5	31.7	38.8
	불교	200	9.5	26.5	28.5	32.0	3.5	36.0	28.5	35.5
	가톨릭	153	5.2	32.0	26.8	35.3	0.7	37.2	26.8	36.0
	무교	1,098	8.6	23.0	28.9	34.9	4.6	31.6	28.9	39.5
	기타	14	21.4	0.0	42.9	28.6	7.1	21.4	42.9	3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8.0	24.9	26.8	35.8	4.5	32.9	26.8	40.3
	보통	552	7.6	23.2	34.4	31.7	3.1	30.8	34.4	34.8
	불만	162	11.1	15.4	35.2	30.9	7.4	26.5	35.2	38.3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5.6	29.0	27.1	34.6	3.7	34.6	27.1	38.3
	중	1,177	8.3	25.7	30.1	31.8	4.1	34.0	30.1	35.9
	하	661	8.5	18.8	29.1	38.6	5.0	27.3	29.1	43.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9	27.3	27.2	31.2	10.4	31.2	27.2	41.6
	중	1,053	8.7	27.4	29.5	30.6	3.8	36.1	29.5	34.4
	하	870	7.8	18.9	29.8	39.0	4.5	26.7	29.8	43.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7.3	20.4	30.0	34.3	8.0	27.7	30.0	42.3
	중	1,709	7.5	24.5	30.7	33.6	3.7	32.0	30.7	37.3
	하	154	15.6	16.9	18.1	41.6	7.8	32.5	18.1	49.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	20.4	26.2	45.6	2.9	25.3	26.2	48.5
	없다	1,897	8.3	23.8	29.9	33.6	4.4	32.1	29.9	38.0

17)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사회 특성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8.4	24.2	33.5	31.3	2.6	32.6	33.5	33.9
성별	남성	926	9.0	24.5	32.0	31.2	3.3	33.5	32.0	34.5
	여성	1,074	7.8	23.8	35.2	31.3	1.9	31.6	35.2	33.2
학교급	초등학교	564	9.8	32.8	31.2	25.0	1.2	42.6	31.2	26.2
	중학교	705	8.2	23.5	32.8	32.5	3.0	31.7	32.8	35.5
	고등학교	731	7.4	18.1	36.5	34.9	3.1	25.5	36.5	38.0
종교	기독교	535	6.5	23.7	32.1	34.0	3.7	30.2	32.1	37.7
	불교	200	12.5	21.0	34.0	31.0	1.5	33.5	34.0	32.5
	가톨릭	153	5.2	34.0	31.3	28.8	0.7	39.2	31.3	29.5
	무교	1,098	8.9	23.8	34.7	30.1	2.5	32.7	34.7	32.6
	기타	14	7.1	7.1	42.9	42.9	0.0	14.2	42.9	42.9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8.2	25.0	31.9	32.0	2.9	33.2	31.9	34.9
	보통	552	7.4	23.0	37.9	30.6	1.1	30.4	37.9	31.7
	불만	162	12.3	21.0	34.6	27.2	4.9	33.3	34.6	32.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6.8	31.5	30.2	27.8	3.7	38.3	30.2	31.5
	중	1,177	8.2	25.0	34.3	30.2	2.3	33.2	34.3	32.5
	하	661	9.1	20.9	33.3	34.0	2.7	30.0	33.3	36.7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5.2	35.1	24.6	29.9	5.2	40.3	24.6	35.1
	중	1,053	8.8	24.7	33.9	30.2	2.4	33.5	33.9	32.6
	하	870	8.0	22.5	34.4	32.6	2.5	30.5	34.4	35.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8.8	24.8	34.3	28.5	3.6	33.6	34.3	32.1
	중	1,709	7.5	24.7	34.1	31.5	2.2	32.2	34.1	33.7
	하	154	17.5	17.5	28.0	31.2	5.8	35.0	28.0	37.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	23.3	30.0	34.0	7.8	28.2	30.0	41.8
	없다	1,897	8.5	24.2	33.9	31.1	2.3	32.7	33.9	33.4

18)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주민들의 생각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11.3	33.6	36.1	17.5	1.5	44.9	36.1	19.0
성별	남성	926	10.2	36.4	36.7	15.1	1.6	46.6	36.7	16.7
	여성	1,074	12.2	31.2	35.8	19.5	1.3	43.4	35.8	20.8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3	41.3	34.8	11.7	0.9	52.6	34.8	12.6
	중학교	705	11.6	31.9	37.2	18.3	1.0	43.5	37.2	19.3
	고등학교	731	10.8	29.3	36.5	21.1	2.3	40.1	36.5	23.4
종교	기독교	535	9.9	30.5	37.2	20.9	1.5	40.4	37.2	22.4
	불교	200	13.5	34.5	34.5	16.5	1.0	48.0	34.5	17.5
	가톨릭	153	7.2	42.5	32.0	17.6	0.7	49.7	32.0	18.3
	무교	1,098	11.8	34.0	36.8	15.8	1.6	45.8	36.8	17.4
	기타	14	28.6	14.3	35.7	21.4	0.0	42.9	35.7	2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1.4	34.8	34.3	17.8	1.7	46.2	34.3	19.5
	보통	552	10.1	32.8	39.7	16.5	0.9	42.9	39.7	17.4
	불만	162	14.2	27.2	39.5	17.9	1.2	41.4	39.5	19.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6	40.7	35.9	12.3	2.5	49.3	35.9	14.8
	중	1,177	11.6	33.7	36.4	17.0	1.3	45.3	36.4	18.3
	하	661	11.2	31.6	36.2	19.5	1.5	42.8	36.2	21.0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6.5	50.6	26.0	11.7	5.2	57.1	26.0	16.9
	중	1,053	11.5	34.4	36.6	16.3	1.2	45.9	36.6	17.5
	하	870	11.4	31.1	36.8	19.3	1.4	42.5	36.8	20.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8.8	32.8	39.5	15.3	3.6	41.6	39.5	18.9
	중	1,709	10.2	34.4	36.7	17.5	1.2	44.6	36.7	18.7
	하	154	24.7	25.3	28.6	18.8	2.6	50.0	28.6	21.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6.8	26.2	41.7	20.4	4.9	33.0	41.7	25.3
	없다	1,897	11.5	34.0	35.9	17.3	1.3	45.5	35.9	18.6

19)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생활 수준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4.2	14.2	33.2	43.1	5.3	18.4	33.2	48.4
성별	남성	926	3.2	14.4	36.3	39.8	6.3	17.6	36.3	46.1
	여성	1,074	4.9	14.0	30.8	45.8	4.5	18.9	30.8	50.3
학교급	초등학교	564	3.5	17.2	39.1	37.4	2.8	20.7	39.1	40.2
	중학교	705	4.4	15.0	31.5	42.6	6.5	19.4	31.5	49.1
	고등학교	731	4.4	10.9	30.8	47.9	6.0	15.3	30.8	53.9
종교	기독교	535	3.6	15.5	30.6	43.9	6.4	19.1	30.6	50.3
	불교	200	3.5	13.0	34.0	44.0	5.5	16.5	34.0	49.5
	가톨릭	153	2.6	20.3	32.6	41.2	3.3	22.9	32.6	44.5
	무교	1,098	4.6	12.9	35.1	42.3	5.1	17.5	35.1	47.4
	기타	14	14.3	7.1	7.2	71.4	0.0	21.4	7.2	7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3.5	15.2	32.4	43.1	5.8	18.7	32.4	48.9
	보통	552	4.5	13.4	33.9	44.0	4.2	17.9	33.9	48.2
	불만	162	8.0	8.0	38.9	39.5	5.6	16.0	38.9	45.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2.5	23.5	32.0	35.8	6.2	26.0	32.0	42.0
	중	1,177	4.2	14.6	34.9	41.7	4.6	18.8	34.9	46.3
	하	661	4.4	11.0	31.0	47.2	6.4	15.4	31.0	53.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9	15.6	25.9	45.5	9.1	19.5	25.9	54.6
	중	1,053	4.2	15.4	35.8	39.6	5.0	19.6	35.8	44.6
	하	870	4.1	12.5	31.1	47.0	5.3	16.6	31.1	52.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4.4	15.3	29.2	43.1	8.0	19.7	29.2	51.1
	중	1,709	3.6	14.2	34.5	42.8	4.9	17.8	34.5	47.7
	하	154	10.4	13.0	23.3	45.5	7.8	23.4	23.3	53.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7.8	36.9	48.5	4.9	9.7	36.9	53.4
	없다	1,897	4.3	14.5	33.1	42.8	5.3	18.8	33.1	48.1

20)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문화 수준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12.1	33.4	37.8	15.6	1.1	45.5	37.8	16.7
성별	남성	926	11.0	35.5	37.5	14.8	1.2	46.5	37.5	16.0
	여성	1,074	13.0	31.5	38.3	16.3	0.9	44.5	38.3	17.2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0	41.3	35.9	11.3	0.5	52.3	35.9	11.8
	중학교	705	13.5	28.7	39.2	17.2	1.4	42.2	39.2	18.6
	고등학교	731	11.6	31.7	38.2	17.4	1.1	43.3	38.2	18.5
종교	기독교	535	11.8	30.8	36.6	18.9	1.9	42.6	36.6	20.8
	불교	200	11.5	28.5	41.5	17.5	1.0	40.0	41.5	18.5
	가톨릭	153	7.2	45.8	27.4	19.6	0.0	53.0	27.4	19.6
	무교	1,098	13.0	34.1	39.1	13.0	0.8	47.1	39.1	13.8
	기타	14	14.3	7.1	57.2	21.4	0.0	21.4	57.2	2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1.1	35.0	37.4	15.3	1.2	46.1	37.4	16.5
	보통	552	12.7	32.2	39.4	15.2	0.5	44.9	39.4	15.7
	불만	162	17.9	24.1	37.0	19.1	1.9	42.0	37.0	21.0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9.3	38.3	34.5	16.0	1.9	47.6	34.5	17.9
	중	1,177	11.0	35.9	36.7	15.6	0.8	46.9	36.7	16.4
	하	661	14.8	27.5	41.1	15.4	1.2	42.3	41.1	16.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6.5	37.7	36.3	15.6	3.9	44.2	36.3	19.5
	중	1,053	11.1	35.2	38.2	14.4	1.1	46.3	38.2	15.5
	하	870	13.8	30.7	37.8	17.0	0.7	44.5	37.8	17.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0.9	40.1	33.6	13.9	1.5	51.0	33.6	15.4
	중	1,709	11.3	33.6	38.4	15.7	1.0	44.9	38.4	16.7
	하	154	22.1	24.7	35.7	16.2	1.3	46.8	35.7	17.5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7	31.1	31.9	21.4	4.9	41.8	31.9	26.3
	없다	1,897	12.2	33.5	38.2	15.3	0.8	45.7	38.2	16.1

21)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경제 수준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7.0	21.9	34.7	33.1	3.4	28.9	34.7	36.5
성별	남성	926	5.3	24.2	35.2	31.3	4.0	29.5	35.2	35.3
	여성	1,074	8.5	19.8	34.3	34.5	2.9	28.3	34.3	3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7.3	25.5	36.6	28.5	2.1	32.8	36.6	30.6
	중학교	705	7.5	20.1	34.2	33.8	4.4	27.6	34.2	38.2
	고등학교	731	6.3	20.7	33.8	35.8	3.4	27.0	33.8	39.2
종교	기독교	535	7.7	22.6	31.4	34.0	4.3	30.3	31.4	38.3
	불교	200	7.0	19.0	33.0	35.5	5.5	26.0	33.0	41.0
	가톨릭	153	4.6	22.9	35.9	35.3	1.3	27.5	35.9	36.6
	무교	1,098	7.0	22.0	36.3	31.8	2.9	29.0	36.3	34.7
	기타	14	7.1	7.1	50.1	35.7	0.0	14.2	50.1	3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6.2	22.0	34.0	33.9	3.9	28.2	34.0	37.8
	보통	552	7.2	21.6	37.9	31.5	1.8	28.8	37.9	33.3
	불만	162	12.3	21.6	29.7	31.5	4.9	33.9	29.7	36.4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2.5	30.9	30.2	31.5	4.9	33.4	30.2	36.4
	중	1,177	6.9	22.3	35.5	32.5	2.8	29.2	35.5	35.3
	하	661	8.3	18.8	34.5	34.3	4.1	27.1	34.5	38.4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2.6	24.7	33.7	32.5	6.5	27.3	33.7	39.0
	중	1,053	6.5	23.3	33.7	33.3	3.2	29.8	33.7	36.5
	하	870	8.0	19.9	36.0	32.8	3.3	27.9	36.0	36.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5.1	21.9	36.5	31.4	5.1	27.0	36.5	36.5
	중	1,709	6.6	22.2	35.4	32.8	3.0	28.8	35.4	35.8
	하	154	13.0	17.5	26.7	37.0	5.8	30.5	26.7	42.8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8.7	12.6	33.1	41.7	3.9	21.3	33.1	45.6
	없다	1,897	6.9	22.4	34.7	32.6	3.4	29.3	34.7	36.0

22)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교육 수준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9.2	32.1	38.4	18.4	1.9	41.3	38.4	20.3
성별	남성	926	9.5	32.3	38.3	17.3	2.6	41.8	38.3	19.9
	여성	1,074	8.8	31.8	38.8	19.4	1.2	40.6	38.8	20.6
학교급	초등학교	564	9.2	40.1	37.8	12.4	0.5	49.3	37.8	12.9
	중학교	705	10.2	28.1	39.9	19.0	2.8	38.3	39.9	21.8
	고등학교	731	8.1	29.7	37.9	22.4	1.9	37.8	37.9	24.3
종교	기독교	535	8.6	31.2	36.8	22.1	1.3	39.8	36.8	23.4
	불교	200	10.0	32.0	36.5	16.5	5.0	42.0	36.5	21.5
	가톨릭	153	3.9	37.9	41.9	15.0	1.3	41.8	41.9	16.3
	무교	1,098	9.9	31.9	39.3	17.3	1.6	41.8	39.3	18.9
	기타	14	14.3	14.3	42.8	28.6	0.0	28.6	42.8	28.6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8.1	33.3	38.7	17.7	2.2	41.4	38.7	19.9
	보통	552	9.2	32.1	40.0	17.6	1.1	41.3	40.0	18.7
	불만	162	17.3	22.2	31.4	27.2	1.9	39.5	31.4	29.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6.8	37.7	35.2	15.4	4.9	44.5	35.2	20.3
	중	1,177	8.3	32.5	40.1	17.8	1.3	40.8	40.1	19.1
	하	661	11.2	29.8	36.6	20.3	2.1	41.0	36.6	22.4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9	39.0	37.6	16.9	2.6	42.9	37.6	19.5
	중	1,053	8.7	33.8	38.4	17.1	2.0	42.5	38.4	19.1
	하	870	10.1	29.3	38.9	20.1	1.6	39.4	38.9	21.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6.6	33.6	34.2	21.2	4.4	40.2	34.2	25.6
	중	1,709	8.4	32.1	40.0	18.0	1.5	40.5	40.0	19.5
	하	154	19.5	30.5	26.7	20.1	3.2	50.0	26.7	23.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5.8	28.2	39.8	23.3	2.9	34.0	39.8	26.2
	없다	1,897	9.3	32.3	38.5	18.1	1.8	41.6	38.5	19.9

23)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명]	있다	없다
전체		2,000	73.7	26.3
성별	남성	926	76.8	23.2
	여성	1,074	70.9	29.1
학교급	초등학교	564	79.8	20.2
	중학교	705	75.0	25.0
	고등학교	731	67.6	32.4
종교	기독교	535	79.6	20.4
	불교	200	65.5	34.5
	가톨릭	153	73.9	26.1
	무교	1,098	71.9	28.1
	기타	14	92.9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76.0	24.0
	보통	552	71.4	28.6
	불만	162	63.0	37.0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2.7	17.3
	중	1,177	74.6	25.4
	하	661	69.7	30.3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84.4	15.6
	중	1,053	75.7	24.3
	하	870	70.2	29.8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78.1	21.9
	중	1,709	73.1	26.9
	하	154	76.0	24.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77.7	22.3
	없다	1,897	73.4	26.6

24) 통일이 필요한 이유

단위[%]		사례수(명)	같은 민족이니까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기 위해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사람들의 인권보호와 발전을 위해
전체		1,473	40.9	29.3	13.2	10.1	6.5
성별	남성	711	41.6	27.3	15.0	10.1	6.0
	여성	762	40.2	31.2	11.4	10.1	7.1
학교급	초등학교	450	51.1	25.3	10.2	8.7	4.7
	중학교	529	39.3	30.4	14.0	10.4	5.9
	고등학교	494	33.2	31.8	15.0	11.1	8.9
종교	기독교	426	41.3	26.3	11.7	11.0	9.7
	불교	131	37.4	27.5	11.5	14.5	9.1
	가톨릭	113	43.4	33.6	8.8	10.6	3.6
	무교	790	40.9	30.6	14.9	8.7	4.9
	기타	13	38.5	30.8	7.7	15.4	7.6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977	43.5	28.0	12.6	9.4	6.5
	보통	394	34.8	34.3	14.0	9.4	7.5
	불만	102	39.2	22.5	15.7	19.6	3.0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34	41.8	27.6	13.4	10.4	6.8
	중	878	43.4	28.2	13.1	9.2	6.1
	하	461	35.8	31.9	13.2	11.7	7.4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65	40.0	30.8	12.3	12.3	4.6
	중	797	43.9	25.7	12.7	11.2	6.5
	하	611	37.0	33.9	13.9	8.5	6.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07	43.0	18.7	12.1	15.0	11.2
	중	1,249	41.6	29.7	12.6	10.0	6.1
	하	117	31.6	35.0	20.5	6.8	6.1
이산가족 유무	있다	80	36.3	22.5	10.0	16.3	14.9
	없다	1,393	41.1	29.7	13.4	9.8	6.0

25)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사례수 (명)	남북한 간의 정치 체제와 생각이 달라 사회 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좋아서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은 민족이라는 느낌이 없어서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전체		527	44.4	15.6	15.4	13.1	5.9	5.6
성별	남성	215	43.3	12.6	13.5	15.3	9.8	5.5
	여성	312	45.2	17.6	16.7	11.5	3.2	5.8
학교급	초등학교	114	26.3	20.2	21.1	14.9	4.4	13.1
	중학교	176	48.3	14.2	8.5	13.1	9.7	6.2
	고등학교	237	50.2	14.3	17.7	12.2	3.8	1.8
종교	기독교	109	37.6	13.8	23.9	8.3	11.0	5.4
	불교	69	52.2	11.6	13.0	20.3	1.4	1.5
	가톨릭	40	45.0	17.5	15.0	15.0	0.0	7.5
	무교	308	44.8	16.9	13.0	13.0	5.8	6.5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309	44.0	12.3	16.8	14.6	5.8	6.5
	보통	158	45.6	16.5	14.6	12.0	5.7	5.6
	불만	60	43.3	30.0	10.0	8.3	6.7	1.7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28	35.7	17.9	28.6	14.3	3.5	0.0
	중	299	44.1	14.0	14.7	12.4	6.7	8.1
	하	200	46.0	17.5	14.5	14.0	5.0	3.0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12	16.7	41.7	0.0	33.3	0.0	8.3
	중	256	44.5	14.1	13.3	14.1	6.3	7.7
	하	259	45.6	15.8	18.1	11.2	5.8	3.5
가정의 경제수준	상	30	66.7	13.3	16.7	0.0	0.0	3.3
	중	460	43.3	15.9	15.7	12.6	6.5	6.0
	하	37	40.5	13.5	10.8	29.7	2.7	2.8
이산가족 유무	있다	23	21.7	21.7	4.3	21.7	17.4	13.2
	없다	504	45.4	15.3	15.9	12.7	5.4	5.3

26) 통일이 된다면, 남한에 이익정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릴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릴 것이다*	*이익이 될 것이다*
전체		2,000	6.8	27.7	23.6	33.1	8.8	34.5	23.6	41.9
성별	남성	926	5.6	27.8	23.6	33.7	9.3	33.4	23.6	43.0
	여성	1,074	7.7	27.7	23.7	32.5	8.4	35.4	23.7	40.9
학교급	초등 학교	564	4.6	22.5	25.6	39.7	7.6	27.1	25.6	47.3
	중학교	705	5.8	28.5	23.3	31.5	10.9	34.3	23.3	42.4
	고등 학교	731	9.3	30.9	22.7	29.4	7.7	40.2	22.7	37.1
종교	기독교	535	6.7	23.7	22.3	38.7	8.6	30.4	22.3	47.3
	불교	200	11.0	36.5	21.5	25.0	6.0	47.5	21.5	31.0
	가톨릭	153	9.8	28.8	21.5	30.1	9.8	38.6	21.5	39.9
	무교	1,098	5.6	27.8	25.3	31.9	9.4	33.4	25.3	41.3
	기타	14	0.0	35.7	7.2	57.1	0.0	35.7	7.2	57.1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6.8	27.1	22.0	34.8	9.3	33.9	22.0	44.1
	보통	552	6.0	28.4	27.0	31.7	6.9	34.4	27.0	38.6
	불만	162	8.6	30.2	26.0	23.5	11.7	38.8	26.0	35.2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6.2	22.8	23.5	36.4	11.1	29.0	23.5	47.5
	중	1,177	5.7	26.9	23.5	34.8	9.1	32.6	23.5	43.9
	하	661	8.8	30.3	24.2	29.0	7.7	39.1	24.2	36.7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7.8	14.3	36.3	32.5	9.1	22.1	36.3	41.6
	중	1,053	6.8	27.0	22.5	35.6	8.1	33.8	22.5	43.7
	하	870	6.6	29.8	23.9	30.0	9.7	36.4	23.9	39.7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3.6	26.3	27.0	34.3	8.8	29.9	27.0	43.1
	중	1,709	6.9	28.0	23.6	33.3	8.2	34.9	23.6	41.5
	하	154	7.8	25.3	22.1	29.2	15.6	33.1	22.1	44.8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5.8	23.3	32.1	29.1	9.7	29.1	32.1	38.8
	없다	1,897	6.8	27.9	23.2	33.3	8.8	34.7	23.2	42.1

27)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이익정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이익이 될 것이다*
전체		2,000	0.6	2.6	10.1	46.8	39.9	3.2	10.1	86.7
성별	남성	926	0.9	3.3	10.6	44.7	40.5	4.2	10.6	85.2
	여성	1,074	0.4	1.9	9.9	48.5	39.3	2.3	9.9	87.8
학교급	초등 학교	564	0.2	1.6	10.4	46.5	41.3	1.8	10.4	87.8
	중학교	705	0.3	3.0	7.7	46.4	42.6	3.3	7.7	89.0
	고등 학교	731	1.2	2.9	12.5	47.3	36.1	4.1	12.5	83.4
종교	기독교	535	0.6	3.0	9.9	45.0	41.5	3.6	9.9	86.5
	불교	200	0.5	3.0	16.5	47.0	33.0	3.5	16.5	80.0
	가톨릭	153	1.3	5.9	9.2	39.2	44.4	7.2	9.2	83.6
	무교	1,098	0.5	1.8	9.6	48.5	39.6	2.3	9.6	88.1
	기타	14	0.0	0.0	0.0	57.1	42.9	0.0	0.0	100.0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2	2.3	8.9	46.8	41.8	2.5	8.9	88.6
	보통	552	1.1	3.1	11.5	48.6	35.7	4.2	11.5	84.3
	불만	162	1.9	3.1	16.6	40.1	38.3	5.0	16.6	78.4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1.2	1.2	4.4	43.8	49.4	2.4	4.4	93.2
	중	1,177	0.3	2.5	10.4	47.5	39.3	2.8	10.4	86.8
	하	661	0.9	2.9	11.7	46.1	38.4	3.8	11.7	84.5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3.9	2.6	2.5	45.5	45.5	6.5	2.5	91.0
	중	1,053	0.5	2.8	10.1	46.4	40.2	3.3	10.1	86.6
	하	870	0.5	2.3	11.0	47.2	39.0	2.8	11.0	86.2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0.7	2.2	7.4	49.6	40.1	2.9	7.4	89.7
	중	1,709	0.6	2.6	10.7	46.7	39.4	3.2	10.7	86.1
	하	154	0.0	1.9	9.1	44.8	44.2	1.9	9.1	89.0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0.0	7.8	3.9	46.6	41.7	7.8	3.9	88.3
	없다	1,897	0.6	2.3	10.6	46.8	39.7	2.9	10.6	86.5

28) 통일 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어려 워질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전체		2,000	5.0	47.1	15.9	29.3	2.7	52.1	15.9	32.0
성별	남성	926	4.5	44.0	16.7	32.2	2.6	48.5	16.7	34.8
	여성	1,074	5.3	49.7	15.5	26.8	2.7	55.0	15.5	29.5
학교급	초등학교	564	3.5	42.9	16.4	35.6	1.6	46.4	16.4	37.2
	중학교	705	4.7	44.5	15.6	31.8	3.4	49.2	15.6	35.2
	고등학교	731	6.3	52.7	16.3	22.0	2.7	59.0	16.3	24.7
종교	기독교	535	4.9	43.0	15.3	34.2	2.6	47.9	15.3	36.8
	불교	200	7.0	53.0	11.0	27.0	2.0	60.0	11.0	29.0
	가톨릭	153	7.8	43.8	18.9	27.5	2.0	51.6	18.9	29.5
	무교	1,098	4.1	48.5	17.1	27.4	2.9	52.6	17.1	30.3
	기타	14	14.3	35.7	7.1	42.9	0.0	50.0	7.1	42.9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4.4	44.2	16.1	32.5	2.8	48.6	16.1	35.3
	보통	552	6.5	51.8	15.5	24.6	1.6	58.3	15.5	26.2
	불만	162	3.7	53.1	20.4	17.9	4.9	56.8	20.4	22.8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6.2	37.7	18.5	33.3	4.3	43.9	18.5	37.6
	중	1,177	4.8	45.5	15.5	31.7	2.5	50.3	15.5	34.2
	하	661	4.8	52.2	16.5	24.1	2.4	57.0	16.5	26.5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3.9	44.2	9.0	37.7	5.2	48.1	9.0	42.9
	중	1,053	4.5	45.2	16.7	31.9	1.7	49.7	16.7	33.6
	하	870	5.6	49.5	15.9	25.4	3.6	55.1	15.9	29.0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2.9	45.3	18.2	28.5	5.1	48.2	18.2	33.6
	중	1,709	4.9	46.8	15.8	30.4	2.1	51.7	15.8	32.5
	하	154	7.1	51.9	17.0	17.5	6.5	59.0	17.0	24.0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4.9	41.7	23.3	24.3	5.8	46.6	23.3	30.1
	없다	1,897	5.0	47.3	15.6	29.6	2.5	52.3	15.6	32.1

29)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

단위[%]		사례수 (명)	경제적 으로 차이나는 문제	이념, 사상이 차이나는 문제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 전반적인 혼란	지역간 갈등 문제	교육 문제	거주할 집의 부족 문제
전체		2,000	30.1	25.6	20.4	14.2	5.0	2.9	1.8
성별	남성	926	30.8	26.5	20.8	9.9	5.7	3.8	2.5
	여성	1,074	29.4	24.8	19.9	17.8	4.3	2.1	1.7
학교급	초등학교	564	32.4	26.4	18.1	8.9	8.0	3.5	2.7
	중학교	705	30.9	27.1	19.3	13.3	4.7	3.0	1.7
	고등학교	731	27.4	23.4	23.1	19.0	2.9	2.3	1.9
종교	기독교	535	29.5	25.0	18.5	14.4	6.5	3.7	2.4
	불교	200	34.0	20.0	22.0	14.5	4.0	2.5	3.0
	가톨릭	153	26.1	28.8	21.6	11.8	6.5	4.6	0.6
	무교	1,098	30.0	26.3	21.0	14.4	4.1	2.4	1.8
	기타	14	42.9	28.6	0.0	7.1	7.1	0.0	14.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9.5	28.0	19.4	12.1	5.8	2.7	2.5
	보통	552	30.4	22.1	23.4	16.7	3.4	2.4	1.6
	불만	162	32.7	17.9	17.3	21.6	3.1	6.2	1.2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32.1	25.9	13.6	15.4	6.8	3.7	2.5
	중	1,177	30.8	25.9	21.3	11.9	5.4	2.8	1.9
	하	661	28.1	24.8	20.3	17.9	3.8	2.9	2.2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3.8	19.5	16.9	19.5	6.5	3.8	0.0
	중	1,053	31.7	25.7	20.9	10.4	6.2	2.9	2.2
	하	870	27.7	25.9	20.0	18.2	3.3	2.8	2.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5.0	20.4	19.7	11.7	5.8	3.6	3.8
	중	1,709	30.8	26.0	19.7	13.7	5.0	2.9	1.9
	하	154	17.5	25.3	27.9	21.4	3.2	2.6	2.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2.3	24.3	19.4	16.5	7.8	6.8	2.9
	없다	1,897	30.5	25.6	20.4	14.0	4.8	2.7	2.0

30)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

단위[%]		사례수 (명)	남북한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야 한다	전쟁 도발이 없는 평화 협정을 체결 해야 한다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이 이루어져 야 한다	남북한 상호 간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북한을 경제적 으로 도와주어 야 한다	남한이 경제적 으로 더욱 발전 해야 한다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주변 강대국 의 협조가 필요 하다
전체		2,000	26.3	21.0	20.7	20.4	4.0	3.3	2.5	1.8
성별	남성	926	26.8	20.3	22.6	17.3	5.3	4.0	1.6	2.1
	여성	1,074	25.9	21.5	19.0	23.0	2.9	2.7	3.2	1.8
학교급	초등 학교	564	28.5	17.9	25.0	16.8	5.3	4.1	1.6	0.8
	중학교	705	26.8	20.3	16.9	22.8	4.8	4.0	2.3	2.1
	고등 학교	731	24.1	23.9	20.9	20.7	2.2	2.1	3.3	2.8
종교	기독교	535	24.7	20.2	22.1	20.4	4.7	3.7	2.2	2.0
	불교	200	21.5	25.5	25.5	14.5	4.0	4.5	4.0	0.5
	가톨릭	153	22.9	19.0	23.5	20.9	5.9	3.9	2.0	1.9
	무교	1,098	28.3	20.9	18.9	21.1	3.5	2.8	2.3	2.2
	기타	14	35.7	14.3	7.1	35.7	0.0	0.0	7.2	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7.5	20.9	20.9	19.6	3.9	4.0	1.2	2.0
	보통	552	23.9	21.9	20.8	22.1	3.8	2.4	3.6	1.5
	불만	162	24.7	17.9	17.9	20.4	5.6	0.6	8.0	4.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30.2	19.1	19.8	18.5	4.9	0.6	5.6	1.3
	중	1,177	26.9	19.0	21.0	20.7	4.3	4.2	1.9	2.0
	하	661	24.2	24.8	20.3	20.1	3.2	2.4	2.7	2.3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2.5	13.0	18.2	20.8	7.8	1.3	3.9	2.5
	중	1,053	25.7	20.1	21.7	19.9	4.7	4.4	1.5	2.0
	하	870	26.4	22.6	19.7	20.8	2.8	2.2	3.4	2.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9.2	16.1	21.2	19.7	4.4	4.4	2.2	2.8
	중	1,709	26.5	20.8	20.9	20.4	4.1	3.1	2.3	1.9
	하	154	21.4	27.3	17.5	20.1	2.6	4.5	3.9	2.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6.2	19.4	22.3	19.4	6.8	1.0	0.0	4.9
	없다	1,897	26.3	21.0	20.6	20.4	3.8	3.4	2.6	1.9

31)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 정도

단위[%]		사례수 (명)	전쟁 위험이 매우 크다	전쟁 위험이 일부 있다	그저 그렇다	전쟁 위험이 거의 없다	전쟁 위험이 전혀 없다	*있다*	*그저 그렇다*	*없다*
전체		2,000	12.2	65.0	14.1	7.4	1.3	77.2	14.1	8.7
성별	남성	926	10.3	62.1	16.8	8.6	2.2	72.4	16.8	10.8
	여성	1,074	13.9	67.5	11.9	6.2	0.5	81.4	11.9	6.7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0	61.9	18.1	8.3	0.7	72.9	18.1	9.0
	중학교	705	10.9	64.4	15.7	7.9	1.1	75.3	15.7	9.0
	고등학교	731	14.4	68.0	9.8	6.0	1.8	82.4	9.8	7.8
종교	기독교	535	12.1	66.0	12.7	7.5	1.7	78.1	12.7	9.2
	불교	200	13.5	61.5	13.0	10.5	1.5	75.0	13.0	12.0
	가톨릭	153	16.3	60.1	13.8	7.8	2.0	76.4	13.8	9.8
	무교	1,098	11.5	65.6	15.4	6.6	0.9	77.1	15.4	7.5
	기타	14	7.1	85.7	0.1	7.1	0.0	92.8	0.1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1.4	65.3	14.1	8.0	1.2	76.7	14.1	9.2
	보통	552	11.6	65.0	15.1	6.5	1.8	76.6	15.1	8.3
	불만	162	21.0	62.3	11.8	4.9	0.0	83.3	11.8	4.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1.7	67.9	9.3	10.5	0.6	79.6	9.3	11.1
	중	1,177	10.5	62.4	16.8	9.0	1.3	72.9	16.8	10.3
	하	661	15.3	69.0	10.7	3.6	1.4	84.3	10.7	5.0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0	53.2	18.2	15.6	0.0	66.2	18.2	15.6
	중	1,053	10.6	62.3	16.9	8.8	1.4	72.9	16.9	10.2
	하	870	14.0	69.3	10.8	4.8	1.1	83.3	10.8	5.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3.1	61.3	12.5	10.9	2.2	74.4	12.5	13.1
	중	1,709	10.8	65.9	15.1	7.1	1.1	76.7	15.1	8.2
	하	154	26.6	58.4	6.6	6.5	1.9	85.0	6.6	8.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3.6	58.3	17.4	6.8	3.9	71.9	17.4	10.7
	없다	1,897	12.1	65.4	14.0	7.4	1.1	77.5	14.0	8.5

32)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

단위[%]		사례수[명]	있다	들어본 적 없다
전체		2,000	72.7	27.3
성별	남성	926	72.7	27.3
	여성	1,074	72.8	27.2
학교급	초등학교	564	72.0	28.0
	중학교	705	72.9	27.1
	고등학교	731	73.2	26.8
종교	기독교	535	74.0	26.0
	불교	200	80.0	20.0
	가톨릭	153	72.5	27.5
	무교	1,098	70.8	29.2
	기타	14	78.6	2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75.1	24.9
	보통	552	70.1	29.9
	불만	162	63.0	37.0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79.6	20.4
	중	1,177	72.1	27.9
	하	661	72.2	27.8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77.9	22.1
	중	1,053	72.9	27.1
	하	870	72.1	27.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77.4	22.6
	중	1,709	72.7	27.3
	하	154	69.5	30.5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85.4	14.6
	없다	1,897	72.1	27.9

33) 탈북 청소년하면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

단위[%]		사례수 (명)	촉은 하고 안타 깝다	가난 하고 굶주린 모습 이다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지녀 우리 와 별 차이 없을 것이다	나이에 비해 조숙 하다	신체적 으로 남한의 청소년 들보다 상대적 으로 작다	순수 하다	존스 럽다	전투적 이다	폐쇄적 이다	시키는 대로 행동 하는 로봇 같다
전체		1,455	35.9	25.0	12.5	7.1	4.7	4.5	4.5	3.0	2.3	0.5
성별	남성	673	33.0	28.1	10.4	6.5	4.6	5.9	4.3	4.2	2.4	0.6
	여성	782	38.4	22.4	14.3	7.5	4.7	3.3	4.6	2.0	2.2	0.6
학교급	초등 학교	406	32.8	33.7	7.1	5.9	7.1	2.7	5.9	2.7	2.0	0.1
	중학교	514	34.0	25.9	13.4	7.4	4.5	5.4	3.5	2.9	2.3	0.7
	고등 학교	535	40.0	17.6	15.7	7.7	3.0	5.0	4.3	3.4	2.4	0.9
종교	기독교	396	37.6	24.5	9.8	9.3	5.3	5.6	4.3	2.0	1.3	0.3
	불교	160	35.0	31.3	11.9	7.5	6.3	3.8	1.9	0.6	1.7	0.0
	가톨릭	111	32.4	20.7	11.7	5.4	5.4	4.5	10.8	5.4	2.7	1.0
	무교	777	35.8	25.0	14.3	5.9	3.6	4.1	4.1	3.6	2.8	0.8
	기타	11	27.3	0.0	0.0	18.2	27.3	9.1	9.1	9.0	0.0	0.0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966	36.5	26.4	11.2	7.2	4.9	3.6	4.6	3.1	2.2	0.3
	보통	387	34.4	23.0	15.0	7.2	4.7	5.4	4.7	2.6	2.3	0.7
	불만	102	35.3	19.6	15.7	4.9	2.9	9.8	2.9	3.9	2.9	2.1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29	34.9	24.0	10.1	3.1	7.0	9.3	7.8	1.6	2.2	0.0
	중	849	35.1	27.7	12.0	6.6	5.2	3.3	4.5	3.1	2.1	0.4
	하	477	37.5	20.5	14.0	9.0	3.1	5.5	3.6	3.4	2.5	0.9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60	35.0	21.7	15.0	3.3	6.7	5.0	10.0	0.0	1.7	1.6
	중	768	33.7	28.6	10.3	7.4	4.9	3.6	4.7	3.8	2.5	0.5
	하	627	38.6	20.9	15.0	7.0	4.1	5.6	3.7	2.4	2.1	0.6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06	36.8	23.6	7.5	13.2	2.8	6.6	2.8	3.8	2.8	0.1
	중	1,242	36.1	25.6	12.6	6.3	5.0	4.3	4.8	2.7	2.1	0.5
	하	107	32.7	19.6	15.9	10.3	2.8	5.6	1.9	6.5	3.7	1.0
이산 가족 유무	있다	88	25.0	23.9	12.5	14.8	6.8	2.3	3.4	5.7	5.6	0.0
	없다	1,367	36.6	25.1	12.5	6.6	4.5	4.7	4.5	2.9	2.0	0.6

34) 북한 청소년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 정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친근 하게 느껴진다	친근 하게 느껴진다	그저 그렇다	친근 하지 않게 느껴진다	전혀 친근 하지 않게 느껴진다	*친근 하게 느껴진다 *	*그저 그렇다*	*친근 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체		2,000	0.4	9.5	56.6	27.6	5.9	9.9	56.6	33.5
성별	남성	926	0.3	9.0	59.0	26.1	5.6	9.3	59.0	31.7
	여성	1,074	0.5	10.0	54.5	28.9	6.1	10.5	54.5	35.0
학교급	초등학교	564	0.5	6.9	60.3	28.4	3.9	7.4	60.3	32.3
	중학교	705	0.4	10.2	56.1	27.5	5.8	10.6	56.1	33.3
	고등학교	731	0.3	10.8	54.4	27.1	7.4	11.1	54.4	34.5
종교	기독교	535	0.6	12.0	53.8	29.5	4.1	12.6	53.8	33.6
	불교	200	0.0	4.5	60.5	21.5	13.5	4.5	60.5	35.0
	가톨릭	153	1.3	4.6	52.9	26.8	14.4	5.9	52.9	41.2
	무교	1,098	0.3	9.8	57.9	27.9	4.1	10.1	57.9	32.0
	기타	14	0.0	14.3	50.0	28.6	7.1	14.3	50.0	3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5	10.3	57.4	26.8	5.0	10.8	57.4	31.8
	보통	552	0.2	7.4	56.7	29.0	6.7	7.6	56.7	35.7
	불만	162	0.0	10.5	50.6	29.0	9.9	10.5	50.6	38.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0.6	5.6	58.0	32.1	3.7	6.2	58.0	35.8
	중	1,177	0.4	8.8	57.8	27.5	5.5	9.2	57.8	33.0
	하	661	0.3	11.8	54.3	26.6	7.0	12.1	54.3	33.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5.2	54.5	36.4	2.6	6.5	54.5	39.0
	중	1,053	0.6	8.2	57.1	28.4	5.7	8.8	57.1	34.1
	하	870	0.1	11.5	56.2	25.9	6.3	11.6	56.2	32.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7	7.3	54.0	33.6	4.4	8.0	54.0	38.0
	중	1,709	0.3	9.7	57.1	27.5	5.4	10.0	57.1	32.9
	하	154	1.3	9.1	53.9	23.4	12.3	10.4	53.9	35.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7.8	58.3	25.2	6.8	9.7	58.3	32.0
	없다	1,897	0.3	9.6	56.6	27.7	5.8	9.9	56.6	33.5

35)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언어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6	6.3	14.0	60.0	18.1	7.9	14.0	78.1
성별	남성	926	1.4	7.0	15.5	58.4	17.7	8.4	15.5	76.1
	여성	1,074	1.8	5.6	12.9	61.4	18.3	7.4	12.9	79.7
학교급	초등 학교	564	0.9	7.3	15.2	55.5	21.1	8.2	15.2	76.6
	중학교	705	2.4	5.2	13.5	60.9	18.0	7.6	13.5	78.9
	고등 학교	731	1.4	6.4	13.8	62.7	15.7	7.8	13.8	78.4
종교	기독교	535	1.9	6.5	16.4	55.0	20.2	8.4	16.4	75.2
	불교	200	2.5	6.5	19.0	58.0	14.0	9.0	19.0	72.0
	가톨릭	153	2.0	7.2	15.6	55.6	19.6	9.2	15.6	75.2
	무교	1,098	1.3	6.0	11.9	63.1	17.7	7.3	11.9	80.8
	기타	14	0.0	0.0	7.2	85.7	7.1	0.0	7.2	92.8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2	6.8	13.4	60.0	18.6	8.0	13.4	78.6
	보통	552	1.6	5.1	15.6	61.2	16.5	6.7	15.6	77.7
	불만	162	4.3	6.2	14.2	56.2	19.1	10.5	14.2	75.3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1.9	5.6	15.3	59.9	17.3	7.5	15.3	77.2
	중	1,177	1.4	7.0	14.3	58.4	18.9	8.4	14.3	77.3
	하	661	1.8	5.1	13.4	62.9	16.8	6.9	13.4	79.7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1.3	10.4	15.6	51.9	20.8	11.7	15.6	72.7
	중	1,053	1.3	6.9	14.3	57.8	19.7	8.2	14.3	77.5
	하	870	2.0	5.1	13.7	63.3	15.9	7.1	13.7	79.2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2.2	4.4	19.7	54.0	19.7	6.6	19.7	73.7
	중	1,709	1.5	6.4	14.4	60.0	17.7	7.9	14.4	77.7
	하	154	2.6	5.8	5.9	65.6	20.1	8.4	5.9	85.7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2.9	10.7	14.5	57.3	14.6	13.6	14.5	71.9
	없다	1,897	1.5	6.0	14.2	60.1	18.2	7.5	14.2	78.3

36)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사고방식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5	5.1	17.5	51.2	24.7	6.6	17.5	75.9
성별	남성	926	0.8	5.2	17.4	51.5	25.1	6.0	17.4	76.6
	여성	1,074	2.0	5.0	17.7	50.9	24.4	7.0	17.7	75.3
학교급	초등 학교	564	0.7	5.0	14.9	49.8	29.6	5.7	14.9	79.4
	중학교	705	2.3	4.5	17.3	50.5	25.4	6.8	17.3	75.9
	고등 학교	731	1.2	5.7	20.0	52.9	20.2	6.9	20.0	73.1
종교	기독교	535	1.1	4.9	18.5	50.3	25.2	6.0	18.5	75.5
	불교	200	1.5	5.0	18.0	51.5	24.0	6.5	18.0	75.5
	가톨릭	153	1.3	7.8	17.0	45.1	28.8	9.1	17.0	73.9
	무교	1,098	1.6	4.9	17.3	52.0	24.2	6.5	17.3	76.2
	기타	14	0.0	0.0	7.2	85.7	7.1	0.0	7.2	92.8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9	5.4	16.4	51.9	25.4	6.3	16.4	77.3
	보통	552	1.6	4.2	19.2	51.8	23.2	5.8	19.2	75.0
	불만	162	4.9	6.2	21.0	43.8	24.1	11.1	21.0	67.9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1.9	3.7	14.8	53.1	26.5	5.6	14.8	79.6
	중	1,177	1.4	4.8	17.6	50.1	26.1	6.2	17.6	76.2
	하	661	1.5	5.9	18.2	52.6	21.8	7.4	18.2	74.4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1.3	1.3	22.0	44.2	31.2	2.6	22.0	75.4
	중	1,053	1.0	5.0	16.8	50.4	26.8	6.0	16.8	77.2
	하	870	2.0	5.5	18.1	52.8	21.6	7.5	18.1	74.4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1.5	2.9	21.9	47.4	26.3	4.4	21.9	73.7
	중	1,709	1.3	5.3	17.7	51.5	24.2	6.6	17.7	75.7
	하	154	3.2	4.5	12.4	51.3	28.6	7.7	12.4	79.9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1.9	6.8	14.6	46.6	30.1	8.7	14.6	76.7
	없다	1,897	1.4	5.0	17.8	51.4	24.4	6.4	17.8	75.8

37)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미래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7	10.0	22.5	46.6	19.2	11.7	22.5	65.8
성별	남성	926	1.2	9.4	21.5	48.2	19.7	10.6	21.5	67.9
	여성	1,074	2.1	10.5	23.4	45.2	18.8	12.6	23.4	64.0
학교급	초등 학교	564	0.9	7.3	19.1	50.2	22.5	8.2	19.1	72.7
	중학교	705	2.6	8.8	21.7	48.5	18.4	11.4	21.7	66.9
	고등 학교	731	1.5	13.3	25.9	41.9	17.4	14.8	25.9	59.3
종교	기독교	535	1.5	7.5	22.1	48.2	20.7	9.0	22.1	68.9
	불교	200	2.0	8.5	27.5	41.5	20.5	10.5	27.5	62.0
	가톨릭	153	0.7	16.3	17.7	47.7	17.6	17.0	17.7	65.3
	무교	1,098	1.9	10.7	22.6	46.6	18.2	12.6	22.6	64.8
	기타	14	0.0	7.1	21.5	35.7	35.7	7.1	21.5	71.4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3	10.0	22.2	46.6	19.9	11.3	22.2	66.5
	보통	552	1.6	10.1	23.8	46.9	17.6	11.7	23.8	64.5
	불만	162	4.9	9.3	21.6	45.1	19.1	14.2	21.6	64.2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1.9	12.3	17.9	48.8	19.1	14.2	17.9	67.9
	중	1,177	1.3	9.3	21.4	47.7	20.3	10.6	21.4	68.0
	하	661	2.4	10.6	25.8	44.0	17.2	13.0	25.8	61.2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1.3	10.4	24.6	46.8	16.9	11.7	24.6	63.7
	중	1,053	0.9	9.9	20.0	49.5	19.7	10.8	20.0	69.2
	하	870	2.8	10.1	25.2	43.0	18.9	12.9	25.2	61.9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1.5	6.6	25.4	45.3	21.2	8.1	25.4	66.5
	중	1,709	1.3	10.4	22.7	46.9	18.7	11.7	22.7	65.6
	하	154	5.8	9.1	17.5	44.2	23.4	14.9	17.5	67.6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1.0	10.7	20.4	42.7	25.2	11.7	20.4	67.9
	없다	1,897	1.7	10.0	22.6	46.8	18.9	11.7	22.6	65.7

38)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진로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2.1	10.9	25.3	44.7	17.0	13.0	25.3	61.7
성별	남성	926	1.4	9.6	24.3	47.1	17.6	11.0	24.3	64.7
	여성	1,074	2.7	12.0	26.2	42.6	16.5	14.7	26.2	59.1
학교급	초등학교	564	0.9	8.7	21.8	50.2	18.4	9.6	21.8	68.6
	중학교	705	3.3	10.6	23.2	46.2	16.7	13.9	23.2	62.9
	고등학교	731	1.9	12.9	30.2	38.9	16.1	14.8	30.2	55.0
종교	기독교	535	1.9	9.5	24.3	46.7	17.6	11.4	24.3	64.3
	불교	200	2.0	12.0	25.5	40.0	20.5	14.0	25.5	60.5
	가톨릭	153	0.0	15.0	22.2	43.8	19.0	15.0	22.2	62.8
	무교	1,098	2.6	10.7	26.3	44.6	15.8	13.3	26.3	60.4
	기타	14	0.0	14.3	28.5	42.9	14.3	14.3	28.5	57.2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6	11.4	24.3	45.4	17.3	13.0	24.3	62.7
	보통	552	2.5	10.1	27.1	44.4	15.9	12.6	27.1	60.3
	불만	162	4.9	9.9	27.8	39.5	17.9	14.8	27.8	57.4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3.1	8.0	21.0	52.5	15.4	11.1	21.0	67.9
	중	1,177	1.4	10.4	25.4	45.4	17.4	11.8	25.4	62.8
	하	661	3.2	12.6	26.1	41.5	16.6	15.8	26.1	58.1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2.6	9.1	14.3	58.4	15.6	11.7	14.3	74.0
	중	1,053	1.1	10.3	25.2	45.1	18.3	11.4	25.2	63.4
	하	870	3.2	11.8	26.6	42.9	15.5	15.0	26.6	58.4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3.6	8.0	22.0	41.6	24.8	11.6	22.0	66.4
	중	1,709	1.6	11.5	25.7	45.4	15.8	13.1	25.7	61.2
	하	154	5.8	7.1	24.7	39.0	23.4	12.9	24.7	62.4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1.9	12.6	23.3	40.8	21.4	14.5	23.3	62.2
	없다	1,897	2.1	10.8	25.4	44.9	16.8	12.9	25.4	61.7

39)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가정환경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0	6.3	22.8	47.3	22.6	7.3	22.8	69.9
성별	남성	926	0.3	6.3	21.9	47.3	24.2	6.6	21.9	71.5
	여성	1,074	1.6	6.2	23.7	47.3	21.2	7.8	23.7	68.5
학교급	초등학교	564	0.5	5.7	19.9	48.2	25.7	6.2	19.9	73.9
	중학교	705	1.4	6.1	22.8	46.2	23.5	7.5	22.8	69.7
	고등학교	731	1.0	6.8	25.3	47.6	19.3	7.8	25.3	66.9
종교	기독교	535	0.6	5.0	23.9	46.2	24.3	5.6	23.9	70.5
	불교	200	1.0	8.5	20.5	49.0	21.0	9.5	20.5	70.0
	가톨릭	153	0.0	9.2	20.8	41.2	28.8	9.2	20.8	70.0
	무교	1,098	1.4	6.0	22.9	48.3	21.4	7.4	22.9	69.7
	기타	14	0.0	7.1	28.7	57.1	7.1	7.1	28.7	64.2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7	6.8	22.2	46.7	23.6	7.5	22.2	70.3
	보통	552	0.9	4.7	23.9	51.8	18.7	5.6	23.9	70.5
	불만	162	3.7	7.4	24.1	37.0	27.8	11.1	24.1	64.8
아버지의 교육 수준	상	162	1.9	8.0	17.9	44.4	27.8	9.9	17.9	72.2
	중	1,177	0.8	6.2	22.6	48.6	21.8	7.0	22.6	70.4
	하	661	1.2	5.9	24.5	45.7	22.7	7.1	24.5	68.4
어머니의 교육 수준	상	77	0.0	11.7	12.9	45.5	29.9	11.7	12.9	75.4
	중	1,053	0.7	6.5	22.0	47.6	23.2	7.2	22.0	70.8
	하	870	1.5	5.5	24.6	47.1	21.3	7.0	24.6	68.4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0.0	4.4	21.8	45.3	28.5	4.4	21.8	73.8
	중	1,709	0.9	6.7	22.9	47.7	21.8	7.6	22.9	69.5
	하	154	2.6	2.6	24.6	44.2	26.0	5.2	24.6	70.2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1.0	5.8	22.4	45.6	25.2	6.8	22.4	70.8
	없다	1,897	1.0	6.3	22.8	47.4	22.5	7.3	22.8	69.9

40)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학교생활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7	10.7	27.5	44.1	16.0	12.4	27.7	60.1
성별	남성	926	0.9	9.9	26.7	45.7	16.8	10.8	26.7	62.5
	여성	1,074	2.4	11.3	28.5	42.6	15.2	13.7	28.5	57.8
학교급	초등학교	564	0.4	7.3	26.0	48.2	18.1	7.6	26.1	66.3
	중학교	705	2.3	10.5	27.7	42.6	16.9	12.8	27.8	59.4
	고등학교	731	2.2	13.4	28.7	42.3	13.4	15.6	28.7	55.7
종교	기독교	535	1.9	10.7	25.9	44.1	17.4	12.5	26.0	61.5
	불교	200	1.5	9.5	27.0	43.0	19.0	11.0	27.0	62.0
	가톨릭	153	0.7	11.1	28.1	43.1	17.0	11.8	28.1	60.1
	무교	1,098	1.8	10.8	28.4	44.5	14.5	12.7	28.3	59.0
	기타	14	0.0	7.1	42.9	28.6	21.4	7.1	42.9	5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2	11.1	26.4	44.9	16.4	12.4	26.4	61.3
	보통	552	2.2	10.3	30.1	42.9	14.5	12.5	30.1	57.4
	불만	162	3.7	8.0	29.6	41.4	17.3	11.7	29.6	58.6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0.0	11.7	19.2	51.2	17.9	11.7	19.1	69.1
	중	1,177	1.5	9.5	29.2	44.0	15.8	11.0	29.1	59.8
	하	661	2.4	12.4	27.1	42.4	15.7	14.8	27.1	58.1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9.1	18.1	49.4	22.1	10.4	18.2	71.4
	중	1,053	0.8	9.8	29.0	43.7	16.7	10.5	29.1	60.4
	하	870	2.9	11.8	26.8	44.0	14.5	14.7	26.8	58.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0	5.8	28.5	38.7	27.0	5.8	28.5	65.7
	중	1,709	1.8	11.5	27.6	45.0	14.1	13.3	27.6	59.1
	하	154	2.6	5.2	27.3	38.3	26.6	7.8	27.3	64.9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	17.5	23.2	34.0	24.3	18.4	23.3	58.3
	없다	1,897	1.7	10.3	27.9	44.6	15.5	12.0	27.9	60.1

41)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친구관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3.5	17.2	31.4	35.7	12.2	20.7	31.4	47.9
성별	남성	926	1.7	15.6	31.4	37.9	13.4	17.3	31.4	51.3
	여성	1,074	4.9	18.6	31.5	33.8	11.2	23.5	31.5	45.0
학교급	초등학교	564	1.4	12.2	32.3	41.0	13.1	13.6	32.3	54.1
	중학교	705	4.3	17.0	28.2	36.7	13.8	21.3	28.2	50.5
	고등학교	731	4.2	21.2	34.0	30.6	10.0	25.4	34.0	40.6
종교	기독교	535	2.8	19.6	30.2	33.6	13.8	22.4	30.2	47.4
	불교	200	4.5	16.0	30.5	33.5	15.5	20.5	30.5	49.0
	가톨릭	153	0.7	11.8	32.6	41.2	13.7	12.5	32.6	54.9
	무교	1,098	4.0	17.1	32.0	36.2	10.7	21.1	32.0	46.9
	기타	14	0.0	7.1	35.8	50.0	7.1	7.1	35.8	5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3.1	17.0	30.1	37.4	12.4	20.1	30.1	49.8
	보통	552	3.6	17.2	34.3	33.5	11.4	20.8	34.3	44.9
	불만	162	5.6	18.5	33.3	29.6	13.0	24.1	33.3	42.6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5.6	14.2	28.3	37.7	14.2	19.8	28.3	51.9
	중	1,177	2.5	16.6	31.8	37.2	11.9	19.1	31.8	49.1
	하	661	4.5	19.1	31.6	32.5	12.3	23.6	31.6	44.8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9.1	29.8	44.2	15.6	10.4	29.8	59.8
	중	1,053	2.4	16.8	31.8	35.7	13.3	19.2	31.8	49.0
	하	870	4.9	18.4	31.2	34.9	10.6	23.3	31.2	45.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0	19.7	30.7	31.4	18.2	19.7	30.7	49.6
	중	1,709	3.5	17.2	31.9	36.3	11.1	20.7	31.9	47.4
	하	154	6.5	14.9	27.3	32.5	18.8	21.4	27.3	51.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22.3	26.3	30.1	18.4	25.2	26.3	48.5
	없다	1,897	3.5	16.9	31.7	36.0	11.9	20.4	31.7	47.9

42)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문화생활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3	7.8	24.3	47.4	19.2	9.1	24.3	66.6
성별	남성	926	0.4	8.1	23.0	50.0	18.5	8.5	23.0	68.5
	여성	1,074	2.0	7.4	25.8	45.1	19.7	9.4	25.8	64.8
학교급	초등학교	564	0.5	6.2	21.1	47.2	25.0	6.7	21.1	72.2
	중학교	705	1.6	8.5	23.5	47.4	19.0	10.1	23.5	66.4
	고등학교	731	1.6	8.2	27.9	47.5	14.8	9.8	27.9	62.3
종교	기독교	535	1.1	6.9	24.3	47.3	20.4	8.0	24.3	67.7
	불교	200	1.5	8.0	22.5	47.0	21.0	9.5	22.5	68.0
	가톨릭	153	0.0	5.2	29.4	47.1	18.3	5.2	29.4	65.4
	무교	1,098	1.5	8.6	24.1	47.4	18.4	10.1	24.1	65.8
	기타	14	0.0	0.0	28.6	57.1	14.3	0.0	28.6	7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0	7.7	23.8	47.4	20.1	8.7	23.8	67.5
	보통	552	0.9	7.1	25.1	49.5	17.4	8.0	25.1	66.9
	불만	162	4.9	10.5	27.2	39.5	17.9	15.4	27.2	57.4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2	3.1	23.5	50.0	22.2	4.3	23.5	72.2
	중	1,177	0.8	7.7	24.5	47.5	19.5	8.5	24.5	67.0
	하	661	2.1	8.9	24.7	46.4	17.9	11.0	24.7	64.3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3.9	16.8	49.4	28.6	5.2	16.8	78.0
	중	1,053	0.5	7.8	23.0	48.1	20.6	8.3	23.0	68.7
	하	870	2.3	8.0	26.9	46.2	16.6	10.3	26.9	62.8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5	2.9	30.0	47.4	18.2	4.4	30.0	65.6
	중	1,709	1.2	8.2	24.9	46.8	18.9	9.4	24.9	65.7
	하	154	2.6	7.1	14.4	53.2	22.7	9.7	14.4	75.9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7.8	28.2	33.0	29.1	9.7	28.2	62.1
	없다	1,897	1.3	7.7	24.3	48.1	18.6	9.0	24.3	66.7

43)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교육 수준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4	7.6	25.5	46.9	18.6	9.0	25.5	65.5
성별	남성	926	1.1	7.6	25.2	47.5	18.6	8.7	25.2	66.1
	여성	1,074	1.6	7.5	26.1	46.3	18.5	9.1	26.1	64.8
학교급	초등학교	564	0.9	6.0	25.6	48.9	18.6	6.9	25.6	67.5
	중학교	705	2.0	8.5	25.4	45.4	18.7	10.5	25.4	64.1
	고등학교	731	1.1	7.8	26.2	46.6	18.3	8.9	26.2	64.9
종교	기독교	535	1.1	7.5	25.7	46.4	19.3	8.6	25.7	65.7
	불교	200	1.5	6.5	25.5	45.5	21.0	8.0	25.5	66.5
	가톨릭	153	1.3	7.8	32.1	39.2	19.6	9.1	32.1	58.8
	무교	1,098	1.5	7.8	24.9	48.0	17.8	9.3	24.9	65.8
	기타	14	0.0	0.0	14.3	78.6	7.1	0.0	14.3	8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8	8.0	24.9	46.7	19.6	8.8	24.9	66.3
	보통	552	1.6	7.1	26.2	49.5	15.6	8.7	26.2	65.1
	불만	162	4.9	5.6	29.6	39.5	20.4	10.5	29.6	59.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0.6	8.6	24.7	42.6	23.5	9.2	24.7	66.1
	중	1,177	1.1	7.2	26.7	47.6	17.4	8.3	26.7	65.0
	하	661	2.0	7.9	24.1	46.6	19.4	9.9	24.1	66.0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0.0	9.1	22.0	45.5	23.4	9.1	22.0	68.9
	중	1,053	0.9	6.9	26.2	46.3	19.7	7.8	26.2	66.0
	하	870	2.0	8.2	25.4	47.6	16.8	10.2	25.4	64.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7	5.1	25.5	45.3	23.4	5.8	25.5	68.7
	중	1,709	1.3	8.1	26.3	46.5	17.8	9.4	26.3	64.3
	하	154	2.6	3.9	18.8	52.6	22.1	6.5	18.8	74.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9.7	29.2	38.8	19.4	12.6	29.2	58.2
	없다	1,897	1.3	7.4	25.5	47.3	18.5	8.7	25.5	65.8

44)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여가생활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7	8.5	25.7	44.3	19.8	10.2	25.7	64.1
성별	남성	926	1.2	7.3	25.9	45.8	19.8	8.5	25.9	65.6
	여성	1,074	2.0	9.4	25.9	43.0	19.7	11.4	25.9	62.7
학교급	초등학교	564	0.5	7.4	22.2	48.6	21.3	7.9	22.2	69.9
	중학교	705	2.0	7.7	24.2	44.8	21.3	9.7	24.2	66.1
	고등학교	731	2.2	10.0	30.2	40.5	17.1	12.2	30.2	57.6
종교	기독교	535	1.7	7.7	25.8	42.2	22.6	9.4	25.8	64.8
	불교	200	1.0	7.0	22.0	48.5	21.5	8.0	22.0	70.0
	가톨릭	153	0.0	7.2	32.7	44.4	15.7	7.2	32.7	60.1
	무교	1,098	2.0	9.3	25.7	44.3	18.7	11.3	25.7	63.0
	기타	14	0.0	7.1	14.3	64.3	14.3	7.1	14.3	78.6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1	8.6	24.5	45.3	20.5	9.7	24.5	65.8
	보통	552	2.2	8.9	27.0	44.0	17.9	11.1	27.0	61.9
	불만	162	4.3	6.2	32.0	37.7	19.8	10.5	32.0	57.5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0.6	8.0	20.4	46.9	24.1	8.6	20.4	71.0
	중	1,177	1.2	8.1	26.5	44.7	19.5	9.3	26.5	64.2
	하	661	2.7	9.2	26.0	43.0	19.1	11.9	26.0	62.1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0.0	10.4	22.0	42.9	24.7	10.4	22.0	67.6
	중	1,053	0.9	8.7	24.2	44.7	21.5	9.6	24.2	66.2
	하	870	2.6	7.9	28.4	43.9	17.2	10.5	28.4	61.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0	7.3	24.1	43.1	25.5	7.3	24.1	68.6
	중	1,709	1.6	8.8	26.7	43.9	19.0	10.4	26.7	62.9
	하	154	3.9	5.2	17.5	50.0	23.4	9.1	17.5	73.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	7.8	34.9	36.9	19.4	8.8	34.9	56.3
	없다	1,897	1.7	8.5	25.3	44.7	19.8	10.2	25.3	64.5

45)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

단위[%]		사례수(명)	담담히 대하겠다	같은 민족으로서 환영하여 대하겠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대화 하겠다	대화를 피하겠다	무조건 피하겠다
전체		2,000	59.9	16.9	12.2	9.4	1.6
성별	남성	926	59.8	15.6	12.0	10.2	2.4
	여성	1,074	59.9	18.0	12.3	8.8	1.0
학교급	초등학교	564	59.2	15.1	13.3	11.2	1.2
	중학교	705	58.7	18.0	12.3	8.2	2.8
	고등학교	731	61.4	17.1	11.1	9.2	1.2
종교	기독교	535	57.6	17.9	12.3	11.0	1.2
	불교	200	61.5	13.5	10.5	11.0	3.5
	가톨릭	153	52.9	16.3	17.6	9.8	3.4
	무교	1,098	61.5	16.8	11.7	8.4	1.6
	기타	14	71.4	28.6	0.0	0.0	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60.3	17.4	12.0	8.7	1.6
	보통	552	63.0	14.9	11.2	9.1	1.8
	불만	162	45.7	19.1	16.7	16.0	2.5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60.5	16.0	11.7	11.7	0.1
	중	1,177	60.7	15.6	11.7	10.0	2.0
	하	661	58.1	19.2	13.0	7.7	2.0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50.6	22.1	13.0	13.0	1.3
	중	1,053	60.5	14.6	11.4	11.3	2.2
	하	870	59.9	19.1	13.0	6.8	1.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52.6	15.3	14.6	16.8	0.7
	중	1,709	61.1	16.8	11.4	9.1	1.6
	하	154	51.9	18.8	18.8	5.8	4.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56.3	18.4	9.7	12.6	3.0
	없다	1,897	60.0	16.8	12.3	9.2	1.7

46)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귀길 의향

단위[%]		사례수(명)	친구로 사귀겠다	친구로 사귀지 않겠다
전체		2,000	83.9	16.1
성별	남성	926	83.8	16.2
	여성	1,074	84.0	16.0
학교급	초등학교	564	82.8	17.2
	중학교	705	83.7	16.3
	고등학교	731	85.0	15.0
종교	기독교	535	84.9	15.1
	불교	200	78.5	21.5
	가톨릭	153	77.1	22.9
	무교	1,098	85.2	14.8
	기타	14	92.9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84.9	15.1
	보통	552	83.5	16.5
	불만	162	77.2	22.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2.1	17.9
	중	1,177	83.0	17.0
	하	661	85.9	14.1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79.2	20.8
	중	1,053	81.4	18.6
	하	870	87.4	12.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78.1	21.9
	중	1,709	84.2	15.8
	하	154	85.7	14.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82.5	17.5
	없다	1,897	84.0	16.0

47) 미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좋은 것 같다	매우 좋은 것 같다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좋은 것 같다*
전체		2,000	1.4	5.4	36.2	45.5	11.5	6.8	36.2	57.0
성별	남성	926	1.9	6.3	33.0	48.1	10.7	8.2	33.0	58.8
	여성	1,074	0.8	4.7	39.2	43.2	12.1	5.5	39.2	55.3
학교급	초등학교	564	0.7	2.8	36.7	50.0	9.8	3.5	36.7	59.8
	중학교	705	1.8	5.1	32.7	48.5	11.9	6.9	32.7	60.4
	고등학교	731	1.4	7.7	39.6	39.0	12.3	9.1	39.6	51.3
종교	기독교	535	1.9	4.9	31.9	50.1	11.2	6.8	31.9	61.3
	불교	200	2.0	6.5	40.5	42.5	8.5	8.5	40.5	51.0
	가톨릭	153	3.3	5.9	41.1	41.2	8.5	9.2	41.1	49.7
	무교	1,098	0.7	5.5	36.9	44.3	12.6	6.2	36.9	56.9
	기타	14	0.0	0.0	42.9	50.0	7.1	0.0	42.9	5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2	5.0	32.3	50.1	11.4	6.2	32.3	61.5
	보통	552	1.8	6.5	41.4	40.0	10.3	8.3	41.4	50.3
	불만	162	0.6	4.9	51.3	27.2	16.0	5.5	51.3	43.2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0.6	2.5	28.3	55.6	13.0	3.1	28.3	68.6
	중	1,177	1.2	5.8	36.6	45.5	10.9	7.0	36.6	56.4
	하	661	1.8	5.4	37.9	42.8	12.1	7.2	37.9	54.9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2.6	24.7	55.8	15.6	3.9	24.7	71.4
	중	1,053	1.5	4.9	36.1	46.6	10.9	6.4	36.1	57.5
	하	870	1.1	6.2	37.9	43.1	11.7	7.3	37.9	54.8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5	4.4	26.2	51.8	16.1	5.9	26.2	67.9
	중	1,709	1.4	5.4	37.4	45.4	10.4	6.8	37.4	55.8
	하	154	0.6	6.5	33.8	40.3	18.8	7.1	33.8	59.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3.9	4.9	44.6	30.1	16.5	8.8	44.6	46.6
	없다	1,897	1.2	5.4	35.9	46.3	11.2	6.6	35.9	57.5

48) 유럽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좋은 것 같다	매우 좋은 것 같다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좋은 것 같다*
전체		2,000	0.5	3.3	34.8	48.3	13.1	3.8	34.8	61.4
성별	남성	926	0.6	3.8	33.4	50.8	11.4	4.4	33.4	62.2
	여성	1,074	0.4	2.9	36.0	46.2	14.5	3.3	36.0	60.7
학교급	초등학교	564	0.2	2.1	34.6	53.2	9.9	2.3	34.6	63.1
	중학교	705	1.0	2.8	32.8	49.9	13.5	3.8	32.8	63.4
	고등학교	731	0.3	4.7	36.8	43.0	15.2	5.0	36.8	58.2
종교	기독교	535	0.4	3.7	31.0	54.4	10.5	4.1	31.0	64.9
	불교	200	1.0	3.5	36.0	49.5	10.0	4.5	36.0	59.5
	가톨릭	153	1.3	4.6	39.2	42.5	12.4	5.9	39.2	54.9
	무교	1,098	0.4	2.9	35.8	45.9	15.0	3.3	35.8	60.9
	기타	14	0.0	0.0	35.7	50.0	14.3	0.0	35.7	64.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5	2.9	30.6	52.9	13.1	3.4	30.6	66.0
	보통	552	0.7	4.7	41.4	42.0	11.2	5.4	41.4	53.2
	불만	162	0.0	1.9	45.7	33.3	19.1	1.9	45.7	52.4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0.6	0.0	28.4	56.8	14.2	0.6	28.4	71.0
	중	1,177	0.3	3.7	34.4	49.4	12.2	4.0	34.4	61.6
	하	661	0.9	3.5	36.9	44.3	14.4	4.4	36.9	58.7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0.0	28.6	57.1	13.0	1.3	28.6	70.1
	중	1,053	0.4	3.2	33.4	50.5	12.5	3.6	33.4	63.0
	하	870	0.6	3.7	37.1	44.8	13.8	4.3	37.1	58.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7	2.9	27.1	49.6	19.7	3.6	27.1	69.3
	중	1,709	0.5	3.2	35.9	48.5	11.9	3.7	35.9	60.4
	하	154	0.0	4.5	29.9	44.8	20.8	4.5	29.9	65.6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	4.9	34.9	43.7	15.5	5.9	34.9	59.2
	없다	1,897	0.5	3.2	34.7	48.6	13.0	3.7	34.7	61.6

49) 중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좋은 것 같다	매우 좋은 것 같다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좋은 것 같다*
전체		2,000	3.0	17.8	53.3	22.0	3.9	20.8	53.3	25.9
성별	남성	926	2.8	19.9	52.1	22.6	2.6	22.7	52.1	25.2
	여성	1,074	3.1	16.0	54.6	21.4	4.9	19.1	54.6	26.3
학교급	초등학교	564	1.4	17.0	55.8	23.0	2.8	18.4	55.8	25.8
	중학교	705	3.3	16.7	52.2	23.8	4.0	20.0	52.2	27.8
	고등학교	731	3.8	19.4	53.0	19.3	4.5	23.2	53.0	23.8
종교	기독교	535	3.2	17.8	49.4	24.7	4.9	21.0	49.4	29.6
	불교	200	5.0	14.0	65.0	14.0	2.0	19.0	65.0	16.0
	가톨릭	153	3.3	15.0	58.8	22.2	0.7	18.3	58.8	22.9
	무교	1,098	2.5	18.9	52.5	21.9	4.2	21.4	52.5	26.1
	기타	14	0.0	14.3	50.0	35.7	0.0	14.3	50.0	3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3.0	17.0	52.4	24.1	3.5	20.0	52.4	27.6
	보통	552	2.5	20.5	54.6	18.8	3.6	23.0	54.6	22.4
	불만	162	4.3	15.4	57.5	15.4	7.4	19.7	57.5	22.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3.1	18.5	51.8	23.5	3.1	21.6	51.8	26.6
	중	1,177	1.9	17.8	54.0	22.7	3.6	19.7	54.0	26.3
	하	661	4.8	17.5	52.9	20.3	4.5	22.3	52.9	24.8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2.6	19.5	48.0	28.6	1.3	22.1	48.0	29.9
	중	1,053	2.1	16.6	56.1	21.9	3.3	18.7	56.1	25.2
	하	870	4.0	19.1	50.8	21.4	4.7	23.1	50.8	26.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2	14.6	55.4	23.4	4.4	16.8	55.4	27.8
	중	1,709	2.8	18.2	53.4	22.3	3.3	21.0	53.4	25.6
	하	154	5.2	16.2	52.6	16.9	9.1	21.4	52.6	26.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14.6	56.3	16.5	9.7	17.5	56.3	26.2
	없다	1,897	3.0	18.0	53.3	22.2	3.5	21.0	53.3	25.7

50) 일본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좋게 생각 되지 않는다	별로 좋게 생각 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좋은 것 같다	매우 좋은 것 같다	*좋게 생각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좋은 것 같다*
전체		2,000	12.1	24.8	40.2	19.3	3.6	36.9	40.2	22.9
성별	남성	926	12.9	25.8	37.2	20.8	3.3	38.7	37.2	24.1
	여성	1,074	11.5	23.9	42.9	18.0	3.7	35.4	42.9	21.7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9	28.4	40.9	17.0	1.8	40.3	40.9	18.8
	중학교	705	12.8	25.7	36.1	21.0	4.4	38.5	36.1	25.4
	고등학교	731	11.6	21.2	43.7	19.4	4.1	32.8	43.7	23.5
종교	기독교	535	12.9	24.3	37.2	22.2	3.4	37.2	37.2	25.6
	불교	200	15.5	28.0	40.0	13.5	3.0	43.5	40.0	16.5
	가톨릭	153	15.0	22.9	46.4	15.0	0.7	37.9	46.4	15.7
	무교	1,098	10.8	24.9	40.7	19.4	4.2	35.7	40.7	23.6
	기타	14	0.0	14.3	57.1	28.6	0.0	14.3	57.1	28.6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2.5	25.7	39.7	18.9	3.2	38.2	39.7	22.1
	보통	552	10.7	23.7	41.9	20.1	3.6	34.4	41.9	23.7
	불만	162	13.6	21.0	39.4	19.8	6.2	34.6	39.4	26.0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8.5	24.1	35.8	18.5	3.1	42.6	35.8	21.6
	중	1,177	11.5	25.7	41.2	18.4	3.2	37.2	41.2	21.6
	하	661	11.6	23.4	39.8	21.0	4.2	35.0	39.8	25.2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4.3	19.5	41.5	22.1	2.6	33.8	41.5	24.7
	중	1,053	12.2	26.2	40.5	18.3	2.8	38.4	40.5	21.1
	하	870	11.8	23.6	39.9	20.2	4.5	35.4	39.9	24.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3.1	25.5	32.9	21.9	6.6	38.6	32.9	28.5
	중	1,709	12.1	25.3	40.8	18.9	2.9	37.4	40.8	21.8
	하	154	11.7	18.8	40.3	21.4	7.8	30.5	40.3	29.2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6.5	30.1	32.0	17.5	3.9	46.6	32.0	21.4
	없다	1,897	11.9	24.5	40.7	19.4	3.5	36.4	40.7	22.9

51)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좋은 것 같다	매우 좋은 것 같다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좋은 것 같다*
전체		2,000	2.3	11.0	52.7	28.8	5.2	13.3	52.7	34.0
성별	남성	926	2.2	12.6	49.7	31.5	4.0	14.8	49.7	35.5
	여성	1,074	2.3	9.5	55.6	26.4	6.2	11.8	55.6	32.6
학교급	초등학교	564	2.1	12.9	54.2	27.8	3.0	15.0	54.2	30.8
	중학교	705	3.0	11.3	49.6	29.1	7.0	14.3	49.6	36.1
	고등학교	731	1.6	9.0	55.1	29.1	5.2	10.6	55.1	34.3
종교	기독교	535	2.6	9.2	47.4	35.9	4.9	11.8	47.4	40.8
	불교	200	4.0	17.0	54.5	22.5	2.0	21.0	54.5	24.5
	가톨릭	153	3.9	11.8	54.2	24.2	5.9	15.7	54.2	30.1
	무교	1,098	1.5	10.7	54.8	27.1	5.9	12.2	54.8	33.0
	기타	14	0.0	0.0	78.6	21.4	0.0	0.0	78.6	2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6	10.5	50.9	31.3	4.7	13.1	50.9	36.0
	보통	552	1.3	12.1	57.3	24.6	4.7	13.4	57.3	29.3
	불만	162	3.1	10.5	53.1	22.2	11.1	13.6	53.1	33.3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9	16.0	50.0	28.4	3.7	17.9	50.0	32.1
	중	1,177	2.0	10.7	55.0	27.7	4.6	12.7	55.0	32.3
	하	661	2.7	10.1	49.8	30.7	6.7	12.8	49.8	37.4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9	11.7	53.2	27.3	3.9	15.6	53.2	31.2
	중	1,053	2.1	13.1	53.3	27.2	4.3	15.2	53.3	31.5
	하	870	2.3	8.3	52.2	30.8	6.4	10.6	52.2	37.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6	19.7	40.2	30.7	5.8	23.3	40.2	36.5
	중	1,709	2.1	10.1	54.5	28.7	4.6	12.2	54.5	33.3
	하	154	2.6	13.0	45.5	27.9	11.0	15.6	45.5	38.9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	11.7	44.6	32.0	6.8	16.6	44.6	38.8
	없다	1,897	2.1	10.9	53.3	28.6	5.1	13.0	53.3	33.7

52) 미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깝게 느껴진다 *
전체		2,000	2.7	12.8	43.4	34.8	6.3	15.5	43.4	41.1
성별	남성	926	2.5	11.2	40.3	38.3	7.7	13.7	40.3	46.0
	여성	1,074	2.9	14.1	46.2	31.7	5.1	17.0	46.2	36.8
학교급	초등학교	564	1.2	9.0	38.5	44.9	6.4	10.2	38.5	51.3
	중학교	705	2.7	11.6	40.6	36.9	8.2	14.3	40.6	45.1
	고등학교	731	3.8	16.7	50.2	24.9	4.4	20.5	50.2	29.3
종교	기독교	535	2.1	11.8	39.6	39.4	7.1	13.9	39.6	46.5
	불교	200	1.5	15.0	42.0	35.0	6.5	16.5	42.0	41.5
	가톨릭	153	3.3	10.5	44.3	37.3	4.6	13.8	44.3	41.9
	무교	1,098	3.2	13.1	45.4	32.1	6.2	16.3	45.4	38.3
	기타	14	0.0	14.3	50.0	35.7	0.0	14.3	50.0	3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3	12.3	40.1	39.0	6.3	14.6	40.1	45.3
	보통	552	3.4	14.5	47.1	29.0	6.0	17.9	47.1	35.0
	불만	162	3.1	10.5	58.6	20.4	7.4	13.6	58.6	27.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2	6.8	34.0	50.0	8.0	8.0	34.0	58.0
	중	1,177	2.4	11.8	42.2	37.7	5.9	14.2	42.2	43.6
	하	661	3.6	15.9	48.1	25.7	6.7	19.5	48.1	32.4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5.2	16.9	25.9	42.9	9.1	22.1	25.9	52.0
	중	1,053	2.0	10.5	42.4	38.8	6.3	12.5	42.4	45.1
	하	870	3.3	15.1	46.4	29.1	6.1	18.4	46.4	35.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2	7.3	36.5	46.0	8.0	9.5	36.5	54.0
	중	1,709	2.6	13.3	44.4	34.1	5.6	15.9	44.4	39.7
	하	154	3.9	11.0	41.0	31.8	12.3	14.9	41.0	44.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	17.5	36.9	32.0	8.7	22.4	36.9	40.7
	없다	1,897	2.6	12.5	43.8	34.9	6.2	15.1	43.8	41.1

53) 유럽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깝게 느껴진다 *
전체		2,000	3.2	13.2	47.0	31.6	5.0	16.4	47.0	36.6
성별	남성	926	2.9	10.5	45.0	35.3	6.3	13.4	45.0	41.6
	여성	1,074	3.4	15.5	48.6	28.3	4.2	18.9	48.6	32.5
학교급	초등학교	564	1.6	10.1	43.8	39.4	5.1	11.7	43.8	44.5
	중학교	705	3.3	12.6	43.7	33.9	6.5	15.9	43.7	40.4
	고등학교	731	4.4	16.0	52.5	23.3	3.8	20.4	52.5	27.1
종교	기독교	535	2.8	12.1	44.4	35.7	5.0	14.9	44.4	40.7
	불교	200	2.5	13.0	46.5	32.0	6.0	15.5	46.5	38.0
	가톨릭	153	2.0	11.8	47.6	32.7	5.9	13.8	47.6	38.6
	무교	1,098	3.7	13.8	48.2	29.3	5.0	17.5	48.2	34.3
	기타	14	0.0	14.3	57.1	28.6	0.0	14.3	57.1	28.6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8	12.3	44.2	35.3	5.4	15.1	44.2	40.7
	보통	552	3.8	15.8	51.4	24.8	4.2	19.6	51.4	29.0
	불만	162	4.3	11.1	53.7	24.7	6.2	15.4	53.7	30.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9	9.9	38.2	43.2	6.8	11.8	38.2	50.0
	중	1,177	2.5	12.4	46.2	34.1	4.8	14.9	46.2	38.9
	하	661	4.7	15.3	50.4	24.2	5.4	20.0	50.4	29.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5.2	14.3	35.0	39.0	6.5	19.5	35.0	45.5
	중	1,053	2.2	11.2	45.8	35.8	5.0	13.4	45.8	40.8
	하	870	4.3	15.4	49.4	25.7	5.2	19.7	49.4	30.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9	10.2	40.2	38.7	8.0	13.1	40.2	46.7
	중	1,709	3.1	13.8	47.7	30.9	4.5	16.9	47.7	35.4
	하	154	4.5	8.4	44.9	32.5	9.7	12.9	44.9	42.2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17.5	35.9	35.0	8.7	20.4	35.9	43.7
	없다	1,897	3.2	12.9	47.5	31.4	5.0	16.1	47.5	36.4

54) 중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가깝게 느껴 지지 않는다	별로 가깝게 느껴 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가깝게 느껴 진다	매우 가깝게 느껴 진다	*가깝게 느껴 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깝게 느껴 진다*
전체		2,000	5.3	18.4	53.2	20.7	2.4	23.7	53.2	23.1
성별	남성	926	5.4	16.8	53.7	22.0	2.1	22.2	53.7	24.1
	여성	1,074	5.2	19.7	52.8	19.6	2.7	24.9	52.8	22.3
학교급	초등학교	564	2.7	18.1	56.5	21.1	1.6	20.8	56.5	22.7
	중학교	705	6.7	16.9	51.4	21.6	3.4	23.6	51.4	25.0
	고등학교	731	6.0	20.1	52.2	19.6	2.1	26.1	52.2	21.7
종교	기독교	535	5.4	19.6	49.2	23.2	2.6	25.0	49.2	25.8
	불교	200	3.0	12.5	65.0	19.0	0.5	15.5	65.0	19.5
	가톨릭	153	7.8	15.7	55.6	20.9	0.0	23.5	55.6	20.9
	무교	1,098	5.4	19.3	52.7	19.6	3.0	24.7	52.7	22.6
	기타	14	0.0	14.3	50.0	35.7	0.0	14.3	50.0	3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4.2	18.0	52.0	23.6	2.2	22.2	52.0	25.8
	보통	552	7.8	20.3	55.6	13.6	2.7	28.1	55.6	16.3
	불만	162	5.6	14.8	54.3	22.2	3.1	20.4	54.3	25.3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5.6	14.8	48.8	26.5	4.3	20.4	48.8	30.8
	중	1,177	4.1	18.4	53.9	21.2	2.4	22.5	53.9	23.6
	하	661	7.4	19.4	52.7	18.5	2.0	26.8	52.7	20.5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9	18.2	49.3	26.0	2.6	22.1	49.3	28.6
	중	1,053	3.7	16.9	55.8	21.7	1.9	20.6	55.8	23.6
	하	870	7.4	20.2	50.3	19.1	3.0	27.6	50.3	22.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5.1	14.6	51.1	26.3	2.9	19.7	51.1	29.2
	중	1,709	4.8	19.1	53.7	20.4	2.0	23.9	53.7	22.4
	하	154	11.0	14.3	50.1	18.8	5.8	25.3	50.1	24.6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6.8	14.6	49.4	24.3	4.9	21.4	49.4	29.2
	없다	1,897	5.2	18.6	53.4	20.5	2.3	23.8	53.4	22.8

55) 일본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가깝게 느껴 지지 않는다	별로 가깝게 느껴 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가깝게 느껴 진다	매우 가깝게 느껴 진다	*가깝게 느껴 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깝게 느껴 진다*
전체		2,000	12.9	23.6	43.5	17.2	2.8	36.5	43.5	20.0
성별	남성	926	12.2	24.6	42.9	17.6	2.7	36.8	42.9	20.3
	여성	1,074	13.5	22.7	44.1	16.9	2.8	36.2	44.1	19.7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7	28.9	42.1	16.1	1.2	40.6	42.1	17.3
	중학교	705	13.5	23.8	41.7	17.7	3.3	37.3	41.7	21.0
	고등학교	731	13.3	19.3	46.5	17.5	3.4	32.6	46.5	20.9
종교	기독교	535	14.8	25.4	39.7	17.9	2.2	40.2	39.7	20.1
	불교	200	13.5	22.0	45.0	17.5	2.0	35.5	45.0	19.5
	가톨릭	153	12.4	26.8	41.8	18.3	0.7	39.2	41.8	19.0
	무교	1,098	12.1	22.7	45.4	16.4	3.4	34.8	45.4	19.8
	기타	14	0.0	14.3	42.9	35.7	7.1	14.3	42.9	42.8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2.4	24.8	42.3	18.0	2.5	37.2	42.3	20.5
	보통	552	14.5	21.9	46.2	15.0	2.4	36.4	46.2	17.4
	불만	162	11.1	19.8	45.0	17.9	6.2	30.9	45.0	24.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6.7	22.2	38.2	19.8	3.1	38.9	38.2	22.9
	중	1,177	12.7	24.8	43.4	16.6	2.5	37.5	43.4	19.1
	하	661	12.4	21.8	44.9	17.7	3.2	34.2	44.9	20.9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6.9	18.2	44.1	16.9	3.9	35.1	44.1	20.8
	중	1,053	12.3	24.9	43.6	17.2	2.0	37.2	43.6	19.2
	하	870	13.2	22.5	43.5	17.2	3.6	35.7	43.5	20.8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6.1	23.4	33.5	21.9	5.1	39.5	33.5	27.0
	중	1,709	12.8	23.7	44.5	17.0	2.0	36.5	44.5	19.0
	하	154	11.0	22.7	42.3	15.6	8.4	33.7	42.3	24.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0.4	28.2	27.1	24.3	0.0	48.6	27.1	24.3
	없다	1,897	12.5	23.4	44.4	16.8	2.9	35.9	44.4	19.7

56)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깝게 느껴진다 *
전체		2,000	3.8	15.3	46.4	28.7	5.8	19.1	46.4	34.5
성별	남성	926	3.1	16.1	44.9	30.8	5.1	19.2	44.9	35.9
	여성	1,074	4.4	14.6	47.9	26.8	6.3	19.0	47.9	33.1
학교급	초등학교	564	3.0	16.3	48.6	29.4	2.7	19.3	48.6	32.1
	중학교	705	4.5	16.0	42.7	28.9	7.9	20.5	42.7	36.8
	고등학교	731	3.7	13.8	48.7	27.8	6.0	17.5	48.7	33.8
종교	기독교	535	3.9	14.2	43.0	33.1	5.8	18.1	43.0	38.9
	불교	200	6.5	20.0	48.0	23.0	2.5	26.5	48.0	25.5
	가톨릭	153	3.3	20.3	45.7	26.8	3.9	23.6	45.7	30.7
	무교	1,098	3.4	14.3	48.1	27.6	6.6	17.7	48.1	34.2
	기타	14	0.0	14.3	35.7	42.9	7.1	14.3	35.7	5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3.7	14.9	43.8	32.0	5.6	18.6	43.8	37.6
	보통	552	3.8	17.2	52.5	21.6	4.9	21.0	52.5	26.5
	불만	162	4.9	12.3	47.0	25.9	9.9	17.2	47.0	35.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2.5	16.7	46.9	25.9	8.0	19.2	46.9	33.9
	중	1,177	4.2	14.5	46.5	29.7	5.1	18.7	46.5	34.8
	하	661	3.5	16.3	46.3	27.5	6.4	19.8	46.3	33.9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2.6	10.4	53.2	24.7	9.1	13.0	53.2	33.8
	중	1,053	3.9	15.3	47.0	29.8	4.0	19.2	47.0	33.8
	하	870	3.8	15.7	45.3	27.6	7.6	19.5	45.3	35.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5.8	19.0	40.2	29.2	5.8	24.8	40.2	35.0
	중	1,709	3.6	14.9	47.5	28.6	5.4	18.5	47.5	34.0
	하	154	3.9	16.9	40.9	28.6	9.7	20.8	40.9	38.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6.8	15.5	40.8	28.2	8.7	22.3	40.8	36.9
	없다	1,897	3.6	15.3	46.8	28.7	5.6	18.9	46.8	34.3

57)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명)	교류해야한다	교류에 반대 한다
전체		2,000	87.8	12.2
성별	남성	926	87.3	12.7
	여성	1,074	88.3	11.7
학교급	초등학교	564	90.8	9.2
	중학교	705	88.7	11.3
	고등학교	731	84.7	15.3
종교	기독교	535	89.2	10.8
	불교	200	82.0	18.0
	가톨릭	153	82.4	17.6
	무교	1,098	88.9	11.1
	기타	14	92.9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89.7	10.3
	보통	552	84.8	15.2
	불만	162	82.7	17.3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91.4	8.6
	중	1,177	88.4	11.6
	하	661	85.9	14.1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92.2	7.8
	중	1,053	88.0	12.0
	하	870	87.1	12.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86.1	13.9
	중	1,709	87.9	12.1
	하	154	87.7	12.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91.3	8.7
	없다	1,897	87.6	12.4

58)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

단위[%]		사례수(명)	정부 및 정부기관, 민간차원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청할 때 추진해야 한다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전체		1,756	59.6	25.7	8.6	6.1
성별	남성	808	58.3	27.7	7.3	6.7
	여성	948	60.8	23.9	9.7	5.6
학교급	초등학교	512	61.3	26.4	6.3	6.0
	중학교	625	61.6	22.7	8.8	6.9
	고등학교	619	56.2	28.1	10.3	5.4
종교	기독교	477	58.7	27.3	6.9	7.1
	불교	164	55.5	31.7	5.5	7.3
	기독교	126	60.3	20.6	10.3	8.8
	무교	976	60.7	24.6	9.6	5.1
	기타	13	61.5	23.1	15.4	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154	61.1	24.8	7.5	6.6
	보통	468	58.3	27.4	9.0	5.3
	불만	134	51.5	27.6	16.4	4.5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48	61.5	19.6	9.5	9.4
	중	1,040	60.1	26.0	7.4	6.5
	하	568	58.3	26.8	10.6	4.3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1	70.4	16.9	2.8	9.9
	중	927	58.9	25.5	8.0	7.6
	하	758	59.5	26.8	9.9	3.8
가정의 경제수준	상	118	52.5	32.2	4.2	11.1
	중	1,503	59.9	25.5	8.4	6.2
	하	135	63.0	22.2	14.1	0.7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59.6	18.1	9.6	12.7
	없다	1,662	59.6	26.1	8.5	5.8

59)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

단위[%]		사례수(명)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생각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안전문제 때문에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전체		244	33.2	29.9	27.5	9.4
성별	남성	118	30.5	35.6	28.0	5.9
	여성	126	35.7	24.6	27.0	12.7
학교급	초등학교	52	28.8	25.0	36.5	9.7
	중학교	80	41.3	30.0	25.0	3.7
	고등학교	112	29.5	32.1	25.0	13.4
종교	기독교	58	32.8	25.9	32.8	8.5
	불교	36	58.3	25.0	11.1	5.6
	가톨릭	27	33.3	25.9	33.3	7.5
	무교	122	26.2	33.6	28.7	11.5
	기타	1	0.0	100.0	0.0	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32	37.1	24.2	29.5	9.2
	보통	84	28.6	36.9	22.6	11.9
	불만	28	28.6	35.7	32.1	3.6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4	28.6	50.0	14.3	7.1
	중	137	36.5	30.7	24.1	8.7
	하	93	29.0	25.8	34.4	10.8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6	16.7	33.3	50.0	0.0
	중	126	35.7	32.5	23.0	8.8
	하	112	31.3	26.8	31.3	10.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9	15.8	57.9	26.3	0.0
	중	206	34.0	27.2	28.2	10.6
	하	19	42.1	31.6	21.1	5.2
이산가족 유무	있다	9	44.4	44.4	0.0	11.2
	없다	235	32.8	29.4	28.5	9.3

60)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참여할 의사

단위[%]		사례수(명)	있다	없다
전체		2,000	69.8	30.2
성별	남성	926	70.1	29.9
	여성	1,074	69.6	30.4
학교급	초등학교	564	72.3	27.7
	중학교	705	70.5	29.5
	고등학교	731	67.3	32.7
종교	기독교	535	73.1	26.9
	불교	200	67.5	32.5
	가톨릭	153	66.0	34.0
	무교	1,098	69.1	30.9
	기타	14	78.6	2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72.1	27.9
	보통	552	66.8	33.2
	불만	162	62.3	37.7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64.8	35.2
	중	1,177	71.1	28.9
	하	661	68.8	31.2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75.3	24.7
	중	1,053	69.6	30.4
	하	870	69.7	30.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70.8	29.2
	중	1,709	69.7	30.3
	하	154	70.8	29.2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79.6	20.4
	없다	1,897	69.3	30.7

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

단위[%]		사 례 수 (명)	관광 및 견학 여행	음악 미술 등 예술 활동	스 포 츠	상호 방문	유 적 지 답사	교육	대중 매체	역사	문학	종교	신문 교환	초청 강연
전체		1,397	35.4	21.2	11.6	9.2	5.9	4.7	3.7	3.5	3.4	0.9	0.4	0.1
성별	남성	649	34.2	15.3	19.1	7.7	6.6	4.8	4.0	3.4	3.5	1.1	0.0	0.3
	여성	748	36.4	26.3	5.1	10.6	5.2	4.5	3.5	3.6	3.2	0.7	0.7	0.2
학교급	초등학교	408	36.0	18.1	15.0	7.8	8.1	4.7	1.5	3.4	4.2	0.7	0.2	0.3
	중학교	497	35.2	19.9	13.5	7.8	5.6	4.8	5.2	3.0	3.2	1.2	0.4	0.2
	고등학교	492	35.0	25.0	6.9	11.8	4.3	4.5	4.1	4.1	2.8	0.6	0.4	0.5
종교	기독교	391	33.2	23.3	11.3	8.7	4.1	4.9	4.9	3.6	3.3	2.6	0.1	0.0
	불교	135	35.6	25.2	8.1	8.9	6.7	5.2	1.5	4.4	3.7	0.0	0.0	0.7
	가톨릭	101	36.6	21.8	11.9	5.9	5.9	3.0	2.0	5.9	6.9	0.0	0.0	0.1
	무교	759	36.4	19.2	12.4	10.0	6.6	4.7	3.8	2.8	2.9	0.3	0.5	0.4
	기타	11	27.3	27.3	9.1	9.1	9.1	0.0	0.0	18.1	0.0	0.0	0.0	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927	33.8	20.1	12.5	9.2	7.4	4.5	3.5	4.2	3.8	0.8	0.1	0.1
	보통	369	39.3	22.2	10.0	9.2	3.3	5.4	4.3	1.6	2.4	0.8	1.1	0.4
	불만	101	35.6	27.7	8.9	9.9	1.0	3.0	4.0	4.0	3.0	2.0	0.0	0.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05	26.7	21.0	13.3	11.4	5.7	3.8	3.8	7.6	3.8	2.9	0.0	0.0
	중	837	35.8	21.4	11.8	9.0	7.6	3.9	3.1	2.6	3.8	0.7	0.0	0.3
	하	455	36.5	20.9	10.8	9.2	2.6	6.2	4.8	4.2	2.4	0.7	1.1	0.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58	34.5	20.7	8.6	10.3	8.6	1.7	0.0	10.3	5.2	0.0	0.0	0.1
	중	733	34.8	19.9	13.0	8.2	8.5	4.8	2.9	2.6	4.2	1.1	0.0	0.0
	하	606	36.1	22.8	10.2	10.4	2.5	4.8	5.1	4.0	2.1	0.7	0.8	0.5
가정의 경제수준	상	97	30.9	20.6	9.3	8.2	8.2	4.1	4.1	6.2	4.1	4.1	0.0	0.2
	중	1,191	35.3	20.8	12.2	9.0	6.0	4.9	3.8	3.4	3.4	0.7	0.4	0.1
	하	109	39.4	25.7	7.3	12.8	2.8	2.8	2.8	2.8	2.8	0.0	0.0	0.8
이산가족 유무	있다	82	36.6	19.5	8.5	4.9	3.7	11.0	7.3	4.9	3.6	0.0	0.0	0.0
	없다	1,315	35.3	21.3	11.8	9.5	6.0	4.3	3.5	3.4	3.3	0.9	0.4	0.3

62)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적당한 횟수(1년 기준)

단위[%]		사례수 (명)	연 2회	수시로	연 4회	연 5회 이상	연 3회	연 1회
전체		1,397	31.2	19.9	14.4	12.5	11.8	10.2
성별	남성	649	33.6	18.3	15.4	9.6	11.9	11.2
	여성	748	29.1	21.3	13.5	15.0	11.8	9.3
학교급	초등학교	408	40.7	17.6	12.7	5.9	9.1	14.0
	중학교	497	28.0	18.1	14.9	13.9	14.3	10.8
	고등학교	492	26.6	23.6	15.2	16.5	11.6	6.5
종교	기독교	391	34.0	16.9	17.9	11.0	11.3	8.9
	불교	135	28.1	18.5	20.7	15.6	11.1	6.0
	가톨릭	101	38.6	15.8	8.9	10.9	14.9	10.9
	무교	759	29.8	22.0	12.0	12.9	11.9	11.4
	기타	11	0.0	36.4	27.3	9.1	9.1	18.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927	32.0	17.6	16.1	11.1	11.9	11.3
	보통	369	33.3	23.3	8.9	13.3	12.5	8.7
	불만	101	15.8	28.7	18.8	21.8	8.9	6.0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05	29.5	20.0	15.2	7.6	13.3	14.4
	중	837	35.5	18.2	14.6	11.5	10.8	9.4
	하	455	23.7	23.1	13.8	15.4	13.4	10.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58	41.4	10.3	8.6	8.6	19.0	12.1
	중	733	34.0	19.1	14.9	9.5	10.6	11.9
	하	606	26.9	21.8	14.4	16.3	12.5	8.1
가정의 경제수준	상	97	43.3	13.4	10.3	8.2	12.4	12.4
	중	1,191	30.7	19.7	14.4	13.0	11.7	10.5
	하	109	25.7	27.5	17.4	10.1	12.8	6.5
이산가족 유무	있다	82	31.7	15.9	13.4	9.8	18.3	10.9
	없다	1,315	31.2	20.2	14.4	12.6	11.4	10.2

63)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적당한 만남의 장소

단위[%]		사례수 (명)	남한과 북한 번갈아	남한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	주변 국가 - 중국	주변 국가 - 일본	북한
전체		1,397	80.1	10.2	6.3	1.5	1.0	0.9
성별	남성	649	80.4	10.3	6.3	0.9	0.9	1.2
	여성	748	79.8	10.2	6.3	2.0	1.1	0.6
학교급	초등학교	408	82.8	10.3	3.7	0.7	1.0	1.5
	중학교	497	80.3	10.3	6.6	1.6	0.6	0.6
	고등학교	492	77.6	10.2	8.1	2.0	1.4	0.7
종교	기독교	391	78.0	10.5	7.4	1.3	1.0	1.8
	불교	135	80.7	10.4	5.9	0.7	2.2	0.1
	가톨릭	101	81.2	7.9	8.9	0.0	0.0	2.0
	무교	759	81.2	10.5	5.3	1.8	0.8	0.4
	기타	11	63.6	0.0	18.2	9.1	9.1	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927	79.1	10.5	6.7	1.6	1.1	1.0
	보통	369	83.2	10.3	4.9	0.5	0.5	0.6
	불만	101	78.2	7.9	7.9	4.0	2.0	0.0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05	79.0	9.5	8.6	1.0	0.0	1.9
	중	837	82.4	9.6	4.8	1.3	1.2	0.7
	하	455	76.0	11.6	8.6	2.0	0.9	0.9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58	82.8	8.6	3.4	1.7	0.0	3.5
	중	733	81.4	9.8	5.5	1.4	1.1	0.8
	하	606	78.2	10.9	7.6	1.7	1.0	0.6
가정의 경제수준	상	97	75.3	10.3	5.2	4.1	3.1	2.0
	중	1,191	80.2	10.6	6.3	1.3	0.8	0.8
	하	109	83.5	6.4	7.3	0.9	1.8	0.1
이산가족 유무	있다	82	82.9	9.8	2.4	1.2	0.0	3.7
	없다	1,315	79.9	10.3	6.5	1.5	1.1	0.7

64)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

단위[%]		사례수 (명)	전통 문화	연극, 음악 등 예술	체육	역사	유적지 답사	교육	문학	종교
전체		1,397	28.3	20.0	18.9	17.6	7.0	5.1	2.4	0.7
성별	남성	649	28.7	13.7	24.3	19.4	4.9	4.8	3.1	1.1
	여성	748	28.1	25.4	14.2	16.0	8.8	5.3	1.9	0.3
학교급	초등학교	408	30.9	17.6	21.6	13.7	6.4	7.1	2.2	0.5
	중학교	497	26.2	17.5	19.3	19.3	8.5	5.2	3.0	1.0
	고등학교	492	28.5	24.4	16.3	19.1	6.1	3.3	2.0	0.3
종교	기독교	391	31.7	19.9	16.4	14.6	5.4	6.6	4.6	0.8
	불교	135	27.4	20.0	14.8	16.3	11.9	5.9	2.2	1.5
	가톨릭	101	25.7	13.9	19.8	22.8	6.9	7.9	1.0	2.0
	무교	759	27.3	20.9	20.6	18.7	6.9	3.8	1.6	0.2
	기타	11	18.2	9.1	36.4	18.2	18.1	0.0	0.0	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927	29.3	17.8	20.5	16.8	6.8	5.6	2.4	0.8
	보통	369	26.6	24.9	14.9	19.0	8.1	4.3	1.9	0.3
	불만	101	25.7	21.8	18.8	19.8	5.0	3.0	5.0	0.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05	25.7	20.0	24.8	15.2	4.8	5.7	3.8	0.0
	중	837	30.7	16.7	18.8	17.0	7.8	6.2	2.0	0.8
	하	455	24.6	25.9	17.8	19.3	6.2	2.9	2.9	0.4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58	22.4	20.7	24.1	10.3	10.3	6.9	5.1	0.2
	중	733	30.6	18.0	19.1	16.8	6.4	6.0	2.5	0.6
	하	606	26.2	22.3	18.2	19.3	7.4	3.8	2.1	0.7
가정의 경제수준	상	97	21.6	19.6	19.6	25.8	1.0	8.2	3.1	1.1
	중	1,191	29.1	19.8	18.4	16.8	7.5	5.1	2.6	0.7
	하	109	25.7	22.0	23.9	19.3	7.3	1.8	0.0	0.0
이산가족 유무	있다	82	25.6	20.7	14.6	23.2	4.9	3.7	7.3	0.0
	없다	1,315	28.5	19.9	19.2	17.3	7.1	5.2	2.1	0.7

65) 선물을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이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3.1	44.4	32.0	9.3	1.2	57.5	32.0	10.5
성별	남성	926	10.9	44.4	34.9	8.4	1.4	55.3	34.9	9.8
	여성	1,074	15.0	44.3	29.8	10.0	0.9	59.3	29.8	10.9
학교급	초등학교	564	7.4	51.8	30.7	9.6	0.5	59.2	30.7	10.1
	중학교	705	15.6	41.3	33.2	8.9	1.0	56.9	33.2	9.9
	고등학교	731	15.0	41.6	32.3	9.3	1.8	56.6	32.3	11.1
종교	기독교	535	11.6	46.4	29.3	12.1	0.6	58.0	29.3	12.7
	불교	200	16.0	48.5	28.5	5.5	1.5	64.5	28.5	7.0
	가톨릭	153	20.3	42.5	30.0	5.9	1.3	62.8	30.0	7.2
	무교	1,098	12.3	42.8	34.6	8.9	1.4	55.1	34.6	10.3
	기타	14	14.3	50.0	21.4	14.3	0.0	64.3	21.4	14.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3.8	48.3	28.9	8.2	0.8	62.1	28.9	9.0
	보통	552	10.7	38.6	38.8	10.3	1.6	49.3	38.8	11.9
	불만	162	15.4	32.7	35.8	13.6	2.5	48.1	35.8	16.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6.7	48.8	25.3	8.6	0.6	65.5	25.3	9.2
	중	1,177	11.9	45.1	33.8	8.4	0.8	57.0	33.8	9.2
	하	661	14.4	41.9	31.0	10.9	1.8	56.3	31.0	12.7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6.9	48.1	23.3	11.7	0.0	65.0	23.3	11.7
	중	1,053	11.1	46.8	32.3	9.2	0.6	57.9	32.3	9.8
	하	870	15.2	41.0	32.7	9.1	2.0	56.2	32.7	11.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6.1	46.0	29.1	8.8	0.0	62.1	29.1	8.8
	중	1,709	12.8	44.6	32.2	9.3	1.1	57.4	32.2	10.4
	하	154	14.3	40.3	33.7	9.1	2.6	54.6	33.7	11.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7	43.7	37.8	6.8	1.0	54.4	37.8	7.8
	없다	1,897	13.2	44.4	31.8	9.4	1.2	57.6	31.8	10.6

66) 나는 가끔 TV에서 슬픈 장면을 보면서 운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7.6	41.9	26.2	11.4	2.9	59.5	26.2	14.3
성별	남성	926	9.5	40.4	31.3	14.9	3.9	49.9	31.3	18.8
	여성	1,074	24.5	43.2	21.9	8.4	2.0	67.7	21.9	10.4
학교급	초등학교	564	9.9	43.6	28.9	15.1	2.5	53.5	28.9	17.6
	중학교	705	17.4	41.8	27.2	10.5	3.1	59.2	27.2	13.6
	고등학교	731	23.5	40.6	23.6	9.4	2.9	64.1	23.6	12.3
종교	기독교	535	16.6	39.8	27.9	13.1	2.6	56.4	27.9	15.7
	불교	200	19.5	38.5	29.5	7.5	5.0	58.0	29.5	12.5
	가톨릭	153	22.2	45.1	22.2	8.5	2.0	67.3	22.2	10.5
	무교	1,098	16.8	42.9	25.9	11.7	2.7	59.7	25.9	14.4
	기타	14	28.6	57.1	7.2	7.1	0.0	85.7	7.2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7.5	41.8	25.9	12.2	2.6	59.3	25.9	14.8
	보통	552	16.3	43.1	28.3	9.2	3.1	59.4	28.3	12.3
	불만	162	22.2	38.3	22.9	12.3	4.3	60.5	22.9	16.6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6.0	34.6	34.0	11.7	3.7	50.6	34.0	15.4
	중	1,177	14.8	41.7	27.5	13.5	2.5	56.5	27.5	16.0
	하	661	22.8	44.0	22.3	7.6	3.3	66.8	22.3	10.9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8.2	29.9	37.6	11.7	2.6	48.1	37.6	14.3
	중	1,053	13.7	42.1	28.4	13.3	2.5	55.8	28.4	15.8
	하	870	22.2	42.8	22.6	9.1	3.3	65.0	22.6	12.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8.2	35.8	30.0	12.4	3.6	54.0	30.0	16.0
	중	1,709	16.9	43.4	26.2	10.9	2.6	60.3	26.2	13.5
	하	154	24.7	30.5	24.7	15.6	4.5	55.2	24.7	20.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1.7	42.7	22.3	17.5	5.8	54.4	22.3	23.3
	없다	1,897	17.9	41.9	26.4	11.1	2.7	59.8	26.4	13.8

67) 나는 동물들이 다친 것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25.2	43.1	23.9	6.6	1.2	68.3	23.9	7.8
성별	남성	926	19.3	43.7	28.8	6.6	1.6	63.0	28.8	8.2
	여성	1,074	30.3	42.5	19.8	6.6	0.8	72.8	19.8	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9.1	49.5	21.3	8.9	1.2	68.6	21.3	10.1
	중학교	705	27.9	40.4	24.4	6.0	1.3	68.3	24.4	7.3
	고등학교	731	27.2	40.6	25.6	5.5	1.1	67.8	25.6	6.6
종교	기독교	535	22.8	42.1	23.3	10.7	1.1	64.9	23.3	11.8
	불교	200	29.5	33.5	25.5	8.0	3.5	63.0	25.5	11.5
	가톨릭	153	30.1	43.8	19.6	5.2	1.3	73.9	19.6	6.5
	무교	1,098	24.8	45.1	24.7	4.6	0.8	69.9	24.7	5.4
	기타	14	35.7	50.0	7.2	7.1	0.0	85.7	7.2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6.5	43.2	21.3	7.8	1.2	69.7	21.3	9.0
	보통	552	21.4	45.7	27.9	4.5	0.5	67.1	27.9	5.0
	불만	162	27.8	32.7	31.5	4.3	3.7	60.5	31.5	8.0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32.1	34.0	24.6	9.3	0.0	66.1	24.6	9.3
	중	1,177	22.5	44.0	24.6	7.5	1.4	66.5	24.6	8.9
	하	661	28.3	43.6	22.5	4.4	1.2	71.9	22.5	5.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26.0	45.5	20.7	7.8	0.0	71.5	20.7	7.8
	중	1,053	22.9	44.2	24.2	7.8	0.9	67.1	24.2	8.7
	하	870	27.9	41.5	23.9	5.1	1.6	69.4	23.9	6.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2.6	41.6	21.2	13.9	0.7	64.2	21.2	14.6
	중	1,709	24.5	43.6	24.9	6.0	1.0	68.1	24.9	7.0
	하	154	35.7	38.3	15.6	6.5	3.9	74.0	15.6	10.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3.6	50.5	20.3	11.7	3.9	64.1	20.3	15.6
	없다	1,897	25.8	42.6	24.2	6.3	1.1	68.4	24.2	7.4

68) 친구가 울면 위로해주고 싶기 보다는 짜증이 난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5	8.5	27.7	44.8	17.5	10.0	27.7	62.3
성별	남성	926	1.4	10.3	27.6	46.8	13.9	11.7	27.6	60.7
	여성	1,074	1.6	6.9	27.9	43.0	20.6	8.5	27.9	63.6
학교급	초등학교	564	0.5	7.8	27.5	50.5	13.7	8.3	27.5	64.2
	중학교	705	2.1	10.4	28.2	42.4	16.9	12.5	28.2	59.3
	고등학교	731	1.6	7.1	27.7	42.5	21.1	8.7	27.7	63.6
종교	기독교	535	0.6	9.7	29.0	44.3	16.4	10.3	29.0	60.7
	불교	200	3.5	5.0	28.5	45.0	18.0	8.5	28.5	63.0
	가톨릭	153	2.0	8.5	28.7	47.1	13.7	10.5	28.7	60.8
	무교	1,098	1.5	8.3	27.1	44.7	18.4	9.8	27.1	63.1
	기타	14	7.1	21.4	14.4	35.7	21.4	28.5	14.4	5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7	7.2	26.5	47.7	16.9	8.9	26.5	64.6
	보통	552	0.5	9.4	30.5	40.8	18.8	9.9	30.5	59.6
	불만	162	3.1	14.8	29.0	35.2	17.9	17.9	29.0	53.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4.9	6.2	25.3	45.1	18.5	11.1	25.3	63.6
	중	1,177	1.0	8.4	28.6	47.1	14.9	9.4	28.6	62.0
	하	661	1.5	9.1	27.0	40.5	21.9	10.6	27.0	62.4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2.6	9.1	29.8	48.1	10.4	11.7	29.8	58.5
	중	1,053	1.1	8.3	29.8	46.1	14.7	9.4	29.8	60.8
	하	870	1.8	8.6	25.2	42.9	21.5	10.4	25.2	64.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5	8.8	22.6	51.8	15.3	10.3	22.6	67.1
	중	1,709	1.3	8.6	28.0	44.8	17.3	9.9	28.0	62.1
	하	154	3.2	6.5	30.5	37.7	22.1	9.7	30.5	59.8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8.7	20.5	49.5	19.4	10.6	20.5	68.9
	없다	1,897	1.5	8.4	28.2	44.5	17.4	9.9	28.2	61.9

69) 생일날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친구를 보면 나도 기뻐진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22.7	43.8	28.3	4.3	0.9	66.5	28.3	5.2
성별	남성	926	16.2	43.7	33.8	5.1	1.2	59.9	33.8	6.3
	여성	1,074	28.3	43.9	23.6	3.6	0.6	72.2	23.6	4.2
학교급	초등학교	564	16.3	48.6	29.1	5.1	0.9	64.9	29.1	6.0
	중학교	705	23.3	42.6	28.9	4.3	0.9	65.9	28.9	5.2
	고등학교	731	27.1	41.3	27.1	3.7	0.8	68.4	27.1	4.5
종교	기독교	535	22.2	42.8	27.7	6.4	0.9	65.0	27.7	7.3
	불교	200	20.0	47.0	26.5	5.0	1.5	67.0	26.5	6.5
	가톨릭	153	25.5	42.5	24.8	5.2	2.0	68.0	24.8	7.2
	무교	1,098	23.0	43.9	29.6	3.0	0.5	66.9	29.6	3.5
	기타	14	28.6	42.9	21.4	7.1	0.0	71.5	21.4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3.6	45.8	25.4	4.6	0.6	69.4	25.4	5.2
	보통	552	20.5	43.7	31.2	3.3	1.3	64.2	31.2	4.6
	불만	162	22.8	28.4	42.0	5.6	1.2	51.2	42.0	6.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22.8	46.3	26.0	4.9	0.0	69.1	26.0	4.9
	중	1,177	20.7	45.9	27.6	5.0	0.8	66.6	27.6	5.8
	하	661	26.2	39.5	30.3	2.9	1.1	65.7	30.3	4.0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1.2	35.1	31.1	2.6	0.0	66.3	31.1	2.6
	중	1,053	19.0	47.6	27.6	5.0	0.8	66.6	27.6	5.8
	하	870	26.4	40.0	29.0	3.6	1.0	66.4	29.0	4.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6.1	50.4	26.9	6.6	0.0	66.5	26.9	6.6
	중	1,709	22.6	43.5	28.7	4.3	0.9	66.1	28.7	5.2
	하	154	29.9	41.6	25.3	1.9	1.3	71.5	25.3	3.2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6.2	35.0	29.1	6.8	2.9	61.2	29.1	9.7
	없다	1,897	22.5	44.3	28.3	4.2	0.7	66.8	28.3	4.9

70) 어떤 노래를 들으면 너무 슬퍼서 울고 싶을 때가 있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5.4	41.8	26.8	13.5	2.5	57.2	26.8	16.0
성별	남성	926	9.3	38.4	32.8	16.2	3.3	47.7	32.8	19.5
	여성	1,074	20.6	44.7	21.7	11.2	1.8	65.3	21.7	13.0
학교급	초등학교	564	5.1	39.0	35.1	18.1	2.7	44.1	35.1	20.8
	중학교	705	16.7	42.3	25.9	12.8	2.3	59.0	25.9	15.1
	고등학교	731	21.9	43.5	21.3	10.7	2.6	65.4	21.3	13.3
종교	기독교	535	15.7	38.7	30.1	14.0	1.5	54.4	30.1	15.5
	불교	200	16.0	38.0	24.0	17.0	5.0	54.0	24.0	22.0
	가톨릭	153	16.3	36.6	34.0	10.5	2.6	52.9	34.0	13.1
	무교	1,098	14.7	44.9	24.9	12.9	2.6	59.6	24.9	15.5
	기타	14	35.7	28.6	14.3	21.4	0.0	64.3	14.3	2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3.9	41.2	27.6	14.9	2.4	55.1	27.6	17.3
	보통	552	15.9	45.3	25.4	11.2	2.2	61.2	25.4	13.4
	불만	162	24.7	34.6	26.5	9.9	4.3	59.3	26.5	14.2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5.4	35.8	35.2	11.7	1.9	51.2	35.2	13.6
	중	1,177	11.4	42.0	29.2	14.9	2.5	53.4	29.2	17.4
	하	661	22.4	43.0	20.5	11.5	2.6	65.4	20.5	14.1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6.9	26.0	36.3	20.8	0.0	42.9	36.3	20.8
	중	1,053	10.5	42.5	30.7	14.0	2.3	53.0	30.7	16.3
	하	870	21.0	42.3	21.4	12.3	3.0	63.3	21.4	15.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3.9	39.4	29.2	15.3	2.2	53.3	29.2	17.5
	중	1,709	14.7	41.7	27.3	13.8	2.5	56.4	27.3	16.3
	하	154	23.4	45.5	18.8	9.1	3.2	68.9	18.8	12.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5.5	37.9	32.0	13.6	1.0	53.4	32.0	14.6
	없다	1,897	15.3	42.0	26.6	13.5	2.6	57.3	26.6	16.1

71) 친구가 어떤 일로 마음에 상처받는 것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5.3	50.3	27.4	6.3	0.7	65.6	27.4	7.0
성별	남성	926	10.6	49.5	31.5	7.2	1.2	60.1	31.5	8.4
	여성	1,074	19.3	50.9	24.1	5.5	0.2	70.2	24.1	5.7
학교급	초등학교	564	7.3	55.7	29.9	6.4	0.7	63.0	29.9	7.1
	중학교	705	18.4	47.5	27.3	6.5	0.3	65.9	27.3	6.8
	고등학교	731	18.3	48.7	26.0	6.0	1.0	67.0	26.0	7.0
종교	기독교	535	12.3	50.1	27.7	9.2	0.7	62.4	27.7	9.9
	불교	200	16.0	45.5	31.5	6.0	1.0	61.5	31.5	7.0
	가톨릭	153	17.0	55.6	22.2	3.9	1.3	72.6	22.2	5.2
	무교	1,098	16.3	50.5	27.4	5.4	0.4	66.8	27.4	5.8
	기타	14	14.3	50.0	28.6	0.0	7.1	64.3	28.6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5.6	51.0	26.1	6.8	0.5	66.6	26.1	7.3
	보통	552	13.8	50.9	29.7	5.1	0.5	64.7	29.7	5.6
	불만	162	17.3	42.0	32.6	6.2	1.9	59.3	32.6	8.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22.2	46.9	26.0	4.3	0.6	69.1	26.0	4.9
	중	1,177	12.1	51.2	28.5	7.4	0.8	63.3	28.5	8.2
	하	661	19.1	49.3	26.3	4.8	0.5	68.4	26.3	5.3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5.6	46.8	32.4	5.2	0.0	62.4	32.4	5.2
	중	1,053	12.5	52.4	27.3	7.3	0.5	64.9	27.3	7.8
	하	870	18.5	47.9	27.5	5.2	0.9	66.4	27.5	6.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2.4	46.7	33.6	7.3	0.0	59.1	33.6	7.3
	중	1,709	14.6	50.6	27.9	6.3	0.6	65.2	27.9	6.9
	하	154	24.7	49.4	18.8	5.2	1.9	74.1	18.8	7.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4.6	50.5	29.0	4.9	1.0	65.1	29.0	5.9
	없다	1,897	15.3	50.2	27.5	6.4	0.6	65.5	27.5	7.0

72) 개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감정을 가진 듯이 다루는 것은 바보 같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2.0	8.6	27.0	32.7	29.7	10.6	27.0	62.4
성별	남성	926	2.4	8.1	32.2	33.3	24.0	10.5	32.2	57.3
	여성	1,074	1.6	9.0	22.6	32.2	34.6	10.6	22.6	66.8
학교급	초등학교	564	1.2	11.5	32.9	38.8	15.6	12.7	32.9	54.4
	중학교	705	3.1	8.7	26.3	31.5	30.4	11.8	26.3	61.9
	고등학교	731	1.4	6.3	23.3	29.1	39.9	7.7	23.3	69.0
종교	기독교	535	3.0	10.8	27.7	34.4	24.1	13.8	27.7	58.5
	불교	200	3.5	8.0	24.0	37.5	27.0	11.5	24.0	64.5
	가톨릭	153	2.6	9.2	24.8	32.7	30.7	11.8	24.8	63.4
	무교	1,098	1.0	7.5	27.8	31.1	32.6	8.5	27.8	63.7
	기타	14	7.1	14.3	14.3	21.4	42.9	21.4	14.3	64.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7	9.4	27.2	34.1	27.6	11.1	27.2	61.7
	보통	552	2.2	8.0	27.0	31.5	31.3	10.2	27.0	62.8
	불만	162	3.1	4.3	26.0	25.9	40.7	7.4	26.0	66.6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3.1	8.6	25.9	34.0	28.4	11.7	25.9	62.4
	중	1,177	1.6	10.5	28.6	33.6	25.7	12.1	28.6	59.3
	하	661	2.3	5.3	24.5	30.7	37.2	7.6	24.5	67.9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11.7	28.5	35.1	23.4	13.0	28.5	58.5
	중	1,053	1.4	10.7	29.2	35.9	22.8	12.1	29.2	58.7
	하	870	2.6	5.7	24.5	28.6	38.6	8.3	24.5	67.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2	8.0	27.8	36.5	25.5	10.2	27.8	62.0
	중	1,709	1.9	8.8	27.1	32.2	30.0	10.7	27.1	62.2
	하	154	1.9	7.1	26.1	34.4	30.5	9.0	26.1	64.9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12.6	23.3	34.0	27.2	15.5	23.3	61.2
	없다	1,897	1.9	8.4	27.3	32.6	29.8	10.3	27.3	62.4

73) 이사 간 친구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친구를 보면 흐뭇하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8.1	48.5	27.3	5.0	1.1	66.6	27.3	6.1
성별	남성	926	14.0	48.8	30.5	5.4	1.3	62.8	30.5	6.7
	여성	1,074	21.5	48.1	25.0	4.6	0.8	69.6	25.0	5.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2.8	53.7	26.9	5.5	1.1	66.5	26.9	6.6
	중학교	705	20.1	47.0	26.1	5.7	1.1	67.1	26.1	6.8
	고등학교	731	20.1	45.8	29.3	3.8	1.0	65.9	29.3	4.8
종교	기독교	535	17.9	48.6	27.0	5.4	1.1	66.5	27.0	6.5
	불교	200	19.5	47.5	26.5	6.0	0.5	67.0	26.5	6.5
	가톨릭	153	23.5	46.4	23.6	5.2	1.3	69.9	23.6	6.5
	무교	1,098	17.0	48.7	28.7	4.5	1.1	65.7	28.7	5.6
	기타	14	21.4	57.1	14.4	7.1	0.0	78.5	14.4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8.6	49.5	25.9	5.1	0.9	68.1	25.9	6.0
	보통	552	16.3	50.0	29.2	3.8	0.7	66.3	29.2	4.5
	불만	162	19.8	35.2	34.5	7.4	3.1	55.0	34.5	10.5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22.2	50.6	21.0	6.2	0.0	72.8	21.0	6.2
	중	1,177	16.6	48.9	29.0	4.8	0.7	65.5	29.0	5.5
	하	661	19.7	47.2	26.3	4.8	2.0	66.9	26.3	6.8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26.0	41.6	25.9	6.5	0.0	67.6	25.9	6.5
	중	1,053	16.3	48.6	28.5	5.7	0.9	64.9	28.5	6.6
	하	870	19.4	48.9	26.5	3.9	1.3	68.3	26.5	5.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6.8	47.4	26.3	9.5	0.0	64.2	26.3	9.5
	중	1,709	17.6	49.0	27.6	4.7	1.1	66.6	27.6	5.8
	하	154	24.7	43.5	26.6	3.9	1.3	68.2	26.6	5.2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3.6	52.4	21.4	9.7	2.9	66.0	21.4	12.6
	없다	1,897	18.3	48.2	27.9	4.7	0.9	66.5	27.9	5.6

74) 친구가 울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울고 싶다

단위[%]		사례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8.9	37.0	38.5	11.9	3.7	45.9	38.5	15.6
성별	남성	926	6.3	34.1	43.4	11.8	4.4	40.4	43.4	16.2
	여성	1,074	11.1	39.4	34.6	11.9	3.0	50.5	34.6	14.9
학교급	초등학교	564	6.6	44.3	38.0	10.6	0.5	50.9	38.0	11.1
	중학교	705	9.1	35.2	39.1	11.6	5.0	44.3	39.1	16.6
	고등학교	731	10.4	33.0	38.8	13.0	4.8	43.4	38.8	17.8
종교	기독교	535	10.1	38.5	38.3	11.2	1.9	48.6	38.3	13.1
	불교	200	12.5	31.0	39.5	13.5	3.5	43.5	39.5	17.0
	가톨릭	153	11.1	38.6	36.6	7.8	5.9	49.7	36.6	13.7
	무교	1,098	7.3	36.8	39.2	12.4	4.3	44.1	39.2	16.7
	기타	14	7.1	57.1	21.5	14.3	0.0	64.2	21.5	14.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9.1	39.7	36.7	11.9	2.6	48.8	36.7	14.5
	보통	552	7.1	34.2	41.9	12.1	4.7	41.3	41.9	16.8
	불만	162	13.0	24.1	43.8	10.5	8.6	37.1	43.8	19.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5.4	36.4	37.0	9.3	1.9	51.8	37.0	11.2
	중	1,177	6.1	39.6	39.4	11.8	3.1	45.7	39.4	14.9
	하	661	12.1	32.4	37.9	12.6	5.0	44.5	37.9	17.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5.6	40.3	35.0	9.1	0.0	55.9	35.0	9.1
	중	1,053	6.9	39.4	39.8	11.1	2.8	46.3	39.8	13.9
	하	870	10.6	33.7	37.8	13.0	4.9	44.3	37.8	17.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0.9	30.7	40.2	15.3	2.9	41.6	40.2	18.2
	중	1,709	8.4	38.0	38.5	11.5	3.6	46.4	38.5	15.1
	하	154	11.7	31.2	40.3	12.3	4.5	42.9	40.3	16.8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9.7	34.0	35.0	18.4	2.9	43.7	35.0	21.3
	없다	1,897	8.8	37.1	38.9	11.5	3.7	45.9	38.9	15.2

75) 좋아하는 친구가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것을 보면 나도 불안하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3.0	53.0	25.6	7.7	0.7	66.0	25.6	8.4
성별	남성	926	11.3	53.2	27.8	6.7	1.0	64.5	27.8	7.7
	여성	1,074	14.3	52.7	24.1	8.5	0.4	67.0	24.1	8.9
학교급	초등학교	564	8.3	59.9	25.1	6.2	0.5	68.2	25.1	6.7
	중학교	705	15.9	52.1	25.4	6.0	0.6	68.0	25.4	6.6
	고등학교	731	13.7	48.4	26.7	10.4	0.8	62.1	26.7	11.2
종교	기독교	535	13.8	50.5	25.0	10.5	0.2	64.3	25.0	10.7
	불교	200	12.0	51.5	32.0	4.0	0.5	63.5	32.0	4.5
	가톨릭	153	15.7	56.9	23.4	3.3	0.7	72.6	23.4	4.0
	무교	1,098	12.3	53.9	25.4	7.6	0.8	66.2	25.4	8.4
	기타	14	14.3	50.0	21.5	7.1	7.1	64.3	21.5	14.2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3.1	54.5	24.4	7.2	0.8	67.6	24.4	8.0
	보통	552	10.9	52.0	28.5	8.2	0.4	62.9	28.5	8.6
	불만	162	19.1	43.8	27.2	9.3	0.6	62.9	27.2	9.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4.2	53.7	24.1	6.8	1.2	67.9	24.1	8.0
	중	1,177	10.3	56.4	25.9	6.9	0.5	66.7	25.9	7.4
	하	661	17.4	46.6	26.0	9.2	0.8	64.0	26.0	10.0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0.4	59.7	28.6	1.3	0.0	70.1	28.6	1.3
	중	1,053	11.0	54.9	26.2	7.3	0.6	65.9	26.2	7.9
	하	870	15.5	50.0	25.1	8.6	0.8	65.5	25.1	9.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2.4	45.3	31.4	10.9	0.0	57.7	31.4	10.9
	중	1,709	12.1	54.3	25.6	7.3	0.7	66.4	25.6	8.0
	하	154	22.7	44.8	23.5	8.4	0.6	67.5	23.5	9.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7	59.2	19.4	10.7	0.0	69.9	19.4	10.7
	없다	1,897	13.1	52.6	26.1	7.5	0.7	65.7	26.1	8.2

76) 사람들이 슬픈 영화나 책을 보고 우는 건 우스운 일이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5	7.7	24.3	36.6	29.9	9.2	24.3	66.5
성별	남성	926	1.6	8.6	30.2	35.6	24.0	10.2	30.2	59.6
	여성	1,074	1.4	6.8	19.6	37.3	34.9	8.2	19.6	72.2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	9.8	32.9	42.7	13.5	10.9	32.9	56.2
	중학교	705	2.3	7.9	22.3	36.0	31.5	10.2	22.3	67.5
	고등학교	731	1.1	5.7	20.0	32.3	40.9	6.8	20.0	73.2
종교	기독교	535	0.9	8.6	26.0	38.3	26.2	9.5	26.0	64.5
	불교	200	4.0	8.0	26.0	35.0	27.0	12.0	26.0	62.0
	가톨릭	153	1.3	10.5	24.8	37.9	25.5	11.8	24.8	63.4
	무교	1,098	1.3	6.6	23.5	36.1	32.5	7.9	23.5	68.6
	기타	14	7.1	14.3	14.3	14.3	50.0	21.4	14.3	64.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5	8.2	24.7	37.1	28.5	9.7	24.7	65.6
	보통	552	0.7	6.9	23.9	37.5	31.0	7.6	23.9	68.5
	불만	162	4.3	6.2	24.1	29.0	36.4	10.5	24.1	65.4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4.3	4.3	29.7	35.2	26.5	8.6	29.7	61.7
	중	1,177	1.2	8.8	26.2	39.8	24.0	10.0	26.2	63.8
	하	661	1.4	6.5	20.0	31.0	41.1	7.9	20.0	72.1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5.2	31.1	40.3	22.1	6.5	31.1	62.4
	중	1,053	1.3	9.1	27.8	40.4	21.4	10.4	27.8	61.8
	하	870	1.7	6.1	19.8	31.6	40.8	7.8	19.8	72.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7	9.5	24.8	38.0	27.0	10.2	24.8	65.0
	중	1,709	1.6	7.7	24.5	36.6	29.6	9.3	24.5	66.2
	하	154	1.3	5.2	24.0	34.4	35.1	6.5	24.0	69.5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13.6	22.3	34.0	28.2	15.5	22.3	62.2
	없다	1,897	1.5	7.3	24.6	36.7	29.9	8.8	24.6	66.6

77) 휴일에 가족과 함께 놀러 가는 친구를 보면 내 마음도 즐겁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8.5	30.8	43.0	15.0	2.7	39.3	43.0	17.7
성별	남성	926	7.1	29.6	45.0	15.2	3.1	36.7	45.0	18.3
	여성	1,074	9.7	31.8	41.6	14.7	2.2	41.5	41.6	16.9
학교급	초등학교	564	6.7	36.7	40.6	14.0	2.0	43.4	40.6	16.0
	중학교	705	9.9	29.5	41.8	15.7	3.1	39.4	41.8	18.8
	고등학교	731	8.5	27.4	46.5	14.9	2.7	35.9	46.5	17.6
종교	기독교	535	8.2	33.8	40.4	14.6	3.0	42.0	40.4	17.6
	불교	200	11.0	35.5	36.0	16.0	1.5	46.5	36.0	17.5
	가톨릭	153	9.8	34.6	39.9	9.2	6.5	44.4	39.9	15.7
	무교	1,098	8.0	27.9	46.2	15.7	2.2	35.9	46.2	17.9
	기타	14	7.1	28.6	42.9	21.4	0.0	35.7	42.9	2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9.9	35.0	38.9	14.1	2.1	44.9	38.9	16.2
	보통	552	5.1	25.9	51.1	15.0	2.9	31.0	51.1	17.9
	불만	162	9.3	13.6	49.3	21.6	6.2	22.9	49.3	27.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6	36.4	42.1	12.3	0.6	45.0	42.1	12.9
	중	1,177	7.9	31.9	44.4	13.7	2.1	39.8	44.4	15.8
	하	661	9.5	27.4	41.1	17.9	4.1	36.9	41.1	22.0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1.7	23.4	50.6	14.3	0.0	35.1	50.6	14.3
	중	1,053	6.9	34.8	42.3	13.7	2.3	41.7	42.3	16.0
	하	870	10.1	26.6	43.4	16.6	3.3	36.7	43.4	19.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8.0	37.2	35.8	16.8	2.2	45.2	35.8	19.0
	중	1,709	8.7	30.1	43.9	14.7	2.6	38.8	43.9	17.3
	하	154	6.5	32.5	40.9	16.2	3.9	39.0	40.9	20.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6.8	23.3	52.4	10.7	6.8	30.1	52.4	17.5
	없다	1,897	8.6	31.2	42.6	15.2	2.4	39.8	42.6	17.6

78) 나는 가끔 슬픈 영화나 책을 보고서 울 때가 있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7.5	41.7	27.1	11.5	2.2	59.2	27.1	13.7
성별	남성	926	10.0	38.6	33.3	15.3	2.8	48.6	33.3	18.1
	여성	1,074	23.9	44.4	22.0	8.1	1.6	68.3	22.0	9.7
학교급	초등학교	564	6.6	42.9	32.3	16.1	2.1	49.5	32.3	18.2
	중학교	705	19.4	39.9	27.0	12.1	1.6	59.3	27.0	13.7
	고등학교	731	24.1	42.5	23.4	7.3	2.7	66.6	23.4	10.0
종교	기독교	535	17.8	40.4	25.7	15.0	1.1	58.2	25.7	16.1
	불교	200	17.5	42.5	23.0	12.0	5.0	60.0	23.0	17.0
	가톨릭	153	15.7	47.1	22.1	11.8	3.3	62.8	22.1	15.1
	무교	1,098	17.6	41.2	29.6	9.7	1.9	58.8	29.6	11.6
	기타	14	21.4	64.3	7.2	0.0	7.1	85.7	7.2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7.0	41.7	27.1	12.4	1.8	58.7	27.1	14.2
	보통	552	15.9	43.5	28.7	9.2	2.7	59.4	28.7	11.9
	불만	162	26.5	35.8	22.9	11.7	3.1	62.3	22.9	14.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7.3	37.0	29.0	13.0	3.7	54.3	29.0	16.7
	중	1,177	13.6	41.3	29.5	13.6	2.0	54.9	29.5	15.6
	하	661	24.5	43.6	22.6	7.3	2.0	68.1	22.6	9.3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1.7	28.6	33.7	26.0	0.0	40.3	33.7	26.0
	중	1,053	13.1	41.9	30.2	12.7	2.1	55.0	30.2	14.8
	하	870	23.3	42.6	23.1	8.6	2.4	65.9	23.1	11.0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9.7	36.5	28.4	13.9	1.5	56.2	28.4	15.4
	중	1,709	16.4	43.2	27.0	11.4	2.0	59.6	27.0	13.4
	하	154	27.9	29.9	27.9	10.4	3.9	57.8	27.9	14.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7	45.6	21.4	20.4	1.9	56.3	21.4	22.3
	없다	1,897	17.9	41.5	27.4	11.0	2.2	59.4	27.4	13.2

79) 길에서 큰 개를 만났을 때 무서워하는 친구를 보면 바보 같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2.3	11.4	29.4	33.9	23.0	13.7	29.4	56.9
성별	남성	926	2.2	13.6	33.1	34.3	16.8	15.8	33.1	51.1
	여성	1,074	2.4	9.5	26.4	33.4	28.3	11.9	26.4	61.7
학교급	초등학교	564	1.2	11.0	32.0	39.7	16.1	12.2	32.0	55.8
	중학교	705	2.8	12.5	28.4	33.2	23.1	15.3	28.4	56.3
	고등학교	731	2.6	10.7	28.5	30.0	28.2	13.3	28.5	58.2
종교	기독교	535	1.7	12.1	29.6	37.2	19.4	13.8	29.6	56.6
	불교	200	5.5	15.5	28.5	22.5	28.0	21.0	28.5	50.5
	가톨릭	153	0.7	11.1	32.0	34.6	21.6	11.8	32.0	56.2
	무교	1,098	2.3	10.2	29.2	34.4	23.9	12.5	29.2	58.3
	기타	14	0.0	21.4	28.6	14.3	35.7	21.4	28.6	5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3	10.8	29.4	34.4	23.1	13.1	29.4	57.5
	보통	552	1.3	12.7	31.4	33.9	20.7	14.0	31.4	54.6
	불만	162	5.6	11.7	23.5	29.0	30.2	17.3	23.5	59.2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4.3	4.3	31.5	37.7	22.2	8.6	31.5	59.9
	중	1,177	2.1	12.3	31.4	34.9	19.3	14.4	31.4	54.2
	하	661	2.1	11.5	25.6	31.0	29.8	13.6	25.6	60.8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2.6	33.7	39.0	23.4	3.9	33.7	62.4
	중	1,053	2.6	12.3	30.2	36.0	18.9	14.9	30.2	54.9
	하	870	2.1	11.0	28.2	30.8	27.9	13.1	28.2	58.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6	9.5	38.0	32.1	16.8	13.1	38.0	48.9
	중	1,709	2.2	11.2	29.4	33.9	23.3	13.4	29.4	57.2
	하	154	2.6	14.9	23.4	34.4	24.7	17.5	23.4	59.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16.5	22.4	42.7	15.5	19.4	22.4	58.2
	없다	1,897	2.3	11.1	29.8	33.4	23.4	13.4	29.8	56.8

80)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2.1	13.3	29.6	36.4	18.6	15.4	29.6	55.0
성별	남성	926	2.5	15.7	33.0	33.6	15.2	18.2	33.0	48.8
	여성	1,074	1.7	11.3	26.9	38.7	21.4	13.0	26.9	60.1
학교급	초등학교	564	1.6	16.0	35.6	35.6	11.2	17.6	35.6	46.8
	중학교	705	2.6	14.2	29.4	36.5	17.3	16.8	29.4	53.8
	고등학교	731	1.9	10.4	25.5	36.8	25.4	12.3	25.5	62.2
종교	기독교	535	2.1	15.0	28.9	35.1	18.9	17.1	28.9	54.0
	불교	200	4.5	13.0	29.0	35.5	18.0	17.5	29.0	53.5
	가톨릭	153	4.6	17.6	31.4	29.4	17.0	22.2	31.4	46.4
	무교	1,098	1.2	12.0	30.0	37.9	18.9	13.2	30.0	56.8
	기타	14	7.1	7.1	35.8	50.0	0.0	14.2	35.8	5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1	14.2	28.3	37.7	17.7	16.3	28.3	55.4
	보통	552	1.3	13.2	32.6	34.8	18.1	14.5	32.6	52.9
	불만	162	4.3	6.8	30.8	30.9	27.2	11.1	30.8	58.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4.3	13.6	35.2	29.0	17.9	17.9	35.2	46.9
	중	1,177	2.0	14.4	29.5	39.1	15.0	16.4	29.5	54.1
	하	661	1.5	11.2	28.9	33.3	25.1	12.7	28.9	58.4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14.3	32.4	32.5	19.5	15.6	32.4	52.0
	중	1,053	2.0	15.2	32.1	36.5	14.2	17.2	32.1	50.7
	하	870	2.2	10.9	26.5	36.6	23.8	13.1	26.5	60.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6	10.2	29.2	35.8	21.2	13.8	29.2	57.0
	중	1,709	1.9	13.5	30.4	36.8	17.4	15.4	30.4	54.2
	하	154	1.9	14.3	22.8	31.8	29.2	16.2	22.8	61.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	18.4	25.2	35.0	16.5	23.3	25.2	51.5
	없다	1,897	1.9	13.0	30.0	36.4	18.7	14.9	30.0	55.1

81) 내가 상을 못 받았을 때에도 친구가 상을 받는 것을 보면 기쁘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4.6	25.9	48.8	17.5	3.2	30.5	48.8	20.7
성별	남성	926	4.2	24.5	49.4	18.6	3.3	28.7	49.4	21.9
	여성	1,074	4.9	27.0	48.4	16.6	3.1	31.9	48.4	19.7
학교급	초등학교	564	2.1	27.8	51.1	17.6	1.4	29.9	51.1	19.0
	중학교	705	6.5	25.7	45.3	17.7	4.8	32.2	45.3	22.5
	고등학교	731	4.7	24.5	50.6	17.2	3.0	29.2	50.6	20.2
종교	기독교	535	4.9	26.4	47.4	19.1	2.2	31.3	47.4	21.3
	불교	200	8.0	28.0	48.5	12.0	3.5	36.0	48.5	15.5
	가톨릭	153	9.2	25.5	44.3	19.0	2.0	34.7	44.3	21.0
	무교	1,098	3.3	25.1	50.3	17.6	3.7	28.4	50.3	21.3
	기타	14	0.0	35.7	42.9	14.3	7.1	35.7	42.9	2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4.9	27.8	47.6	16.4	3.3	32.7	47.6	19.7
	보통	552	4.0	23.0	51.3	18.8	2.9	27.0	51.3	21.7
	불만	162	4.3	19.8	50.6	21.6	3.7	24.1	50.6	25.3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0	21.6	52.5	16.7	1.2	29.6	52.5	17.9
	중	1,177	3.3	27.8	48.3	17.6	3.0	31.1	48.3	20.6
	하	661	6.1	23.4	48.9	17.5	4.1	29.5	48.9	21.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7.8	20.8	46.7	23.4	1.3	28.6	46.7	24.7
	중	1,053	3.4	26.8	49.6	17.5	2.7	30.2	49.6	20.2
	하	870	5.7	25.2	48.1	17.0	4.0	30.9	48.1	21.0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8.0	28.5	45.3	17.5	0.7	36.5	45.3	18.2
	중	1,709	4.2	25.2	49.7	17.7	3.2	29.4	49.7	20.9
	하	154	6.5	30.5	42.9	14.9	5.2	37.0	42.9	20.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3.9	27.2	46.5	17.5	4.9	31.1	46.5	22.4
	없다	1,897	4.6	25.8	49.0	17.5	3.1	30.4	49.0	20.6

82) 어른들은 가끔씩 슬픈 일이 없어도 운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4.8	25.4	42.6	22.1	5.1	30.2	42.6	27.2
성별	남성	926	3.6	26.7	45.0	20.1	4.6	30.3	45.0	24.7
	여성	1,074	5.9	24.3	40.6	23.8	5.4	30.2	40.6	29.2
학교급	초등학교	564	2.5	31.0	42.3	20.7	3.5	33.5	42.3	24.2
	중학교	705	5.4	22.6	42.6	23.7	5.7	28.0	42.6	29.4
	고등학교	731	6.0	23.8	43.0	21.6	5.6	29.8	43.0	27.2
종교	기독교	535	5.4	25.0	39.9	24.3	5.4	30.4	39.9	29.7
	불교	200	7.5	21.5	45.0	22.0	4.0	29.0	45.0	26.0
	가톨릭	153	2.6	23.5	41.8	27.5	4.6	26.1	41.8	32.1
	무교	1,098	4.1	26.3	43.9	20.5	5.2	30.4	43.9	25.7
	기타	14	21.4	42.9	28.6	7.1	0.0	64.3	28.6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4.5	26.0	43.1	22.0	4.4	30.5	43.1	26.4
	보통	552	4.2	25.4	42.1	22.5	5.8	29.6	42.1	28.3
	불만	162	9.3	21.0	40.1	21.6	8.0	30.3	40.1	29.6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4.9	23.5	45.1	19.1	7.4	28.4	45.1	26.5
	중	1,177	3.8	26.1	42.6	22.8	4.7	29.9	42.6	27.5
	하	661	6.5	24.7	42.1	21.6	5.1	31.2	42.1	26.7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6.5	23.4	40.2	22.1	7.8	29.9	40.2	29.9
	중	1,053	3.2	25.7	43.5	21.9	5.7	28.9	43.5	27.6
	하	870	6.6	25.2	41.9	22.3	4.0	31.8	41.9	26.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4.4	26.3	37.2	26.3	5.8	30.7	37.2	32.1
	중	1,709	4.7	25.5	43.3	21.8	4.7	30.2	43.3	26.5
	하	154	6.5	24.0	39.6	22.1	7.8	30.5	39.6	29.9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	22.3	42.7	25.2	4.9	27.2	42.7	30.1
	없다	1,897	4.8	25.6	42.6	21.9	5.1	30.4	42.6	27.0

83) 귀신/괴물이 나오는 영화를 무서워하는 친구를 보면 바보 같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1	8.4	24.7	34.6	31.2	9.5	24.7	65.8
성별	남성	926	1.0	9.9	30.6	35.7	22.8	10.9	30.6	58.5
	여성	1,074	1.1	7.0	19.9	33.6	38.4	8.1	19.9	72.0
학교급	초등학교	564	0.9	9.8	31.5	42.2	15.6	10.7	31.5	57.8
	중학교	705	1.6	8.1	23.5	34.3	32.5	9.7	23.5	66.8
	고등학교	731	0.7	7.5	20.9	29.0	41.9	8.2	20.9	70.9
종교	기독교	535	1.5	9.9	25.4	34.0	29.2	11.4	25.4	63.2
	불교	200	3.0	11.5	25.5	28.5	31.5	14.5	25.5	60.0
	가톨릭	153	0.7	9.8	22.8	41.2	25.5	10.5	22.8	66.7
	무교	1,098	0.5	6.7	24.9	35.3	32.6	7.2	24.9	67.9
	기타	14	0.0	14.3	21.4	14.3	50.0	14.3	21.4	64.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1	8.3	24.5	35.3	30.8	9.4	24.5	66.1
	보통	552	0.5	8.3	26.9	35.5	28.8	8.8	26.9	64.3
	불만	162	2.5	8.6	21.0	25.9	42.0	11.1	21.0	67.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3.1	5.6	24.7	40.1	26.5	8.7	24.7	66.6
	중	1,177	0.8	9.5	27.0	36.4	26.3	10.3	27.0	62.7
	하	661	0.9	7.0	21.0	30.1	41.0	7.9	21.0	71.1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9	11.7	24.6	32.5	27.3	15.6	24.6	59.8
	중	1,053	0.9	8.9	27.4	39.0	23.8	9.8	27.4	62.8
	하	870	1.0	7.4	21.9	29.4	40.3	8.4	21.9	69.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9	7.3	21.9	36.5	31.4	10.2	21.9	67.9
	중	1,709	0.8	8.8	25.4	34.6	30.4	9.6	25.4	65.0
	하	154	2.6	3.9	21.4	32.5	39.6	6.5	21.4	72.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	11.7	24.2	38.8	24.3	12.7	24.2	63.1
	없다	1,897	1.1	8.2	24.8	34.4	31.5	9.3	24.8	65.9

84) 과자를 먹을 때, 먹고 싶어 보는 사람이 있어도 혼자 먹을 수 있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3.4	14.0	34.2	34.3	14.1	17.4	34.2	48.4
성별	남성	926	3.0	15.0	38.9	31.3	11.8	18.0	38.9	43.1
	여성	1,074	3.6	13.0	30.6	36.8	16.0	16.6	30.6	52.8
학교급	초등학교	564	1.8	14.0	36.9	38.1	9.2	15.8	36.9	47.3
	중학교	705	4.1	15.0	32.1	33.6	15.2	19.1	32.1	48.8
	고등학교	731	3.8	12.9	34.7	31.9	16.7	16.7	34.7	48.6
종교	기독교	535	2.8	13.5	35.3	33.3	15.1	16.3	35.3	48.4
	불교	200	7.5	14.5	33.0	33.5	11.5	22.0	33.0	45.0
	가톨릭	153	2.0	7.8	39.8	39.9	10.5	9.8	39.8	50.4
	무교	1,098	3.1	14.6	33.6	34.1	14.6	17.7	33.6	48.7
	기타	14	0.0	42.9	14.3	35.7	7.1	42.9	14.3	42.8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3.3	13.4	33.1	36.4	13.8	16.7	33.1	50.2
	보통	552	3.3	15.4	37.4	31.0	12.9	18.7	37.4	43.9
	불만	162	4.3	13.6	33.3	28.4	20.4	17.9	33.3	48.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6.8	10.5	29.0	38.3	15.4	17.3	29.0	53.7
	중	1,177	2.7	13.8	36.7	34.2	12.6	16.5	36.7	46.8
	하	661	3.6	15.0	31.7	33.4	16.3	18.6	31.7	49.7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13.0	35.0	36.4	14.3	14.3	35.0	50.7
	중	1,053	3.5	14.1	35.5	35.2	11.7	17.6	35.5	46.9
	하	870	3.3	13.9	33.0	32.9	16.9	17.2	33.0	49.8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6	8.8	34.3	36.5	16.8	12.4	34.3	53.3
	중	1,709	3.2	14.3	34.7	34.1	13.7	17.5	34.7	47.8
	하	154	5.2	14.3	31.1	33.8	15.6	19.5	31.1	49.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3.9	8.7	28.2	43.7	15.5	12.6	28.2	59.2
	없다	1,897	3.3	14.2	34.8	33.7	14.0	17.5	34.8	47.7

2. 설문지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가 아동·청소년 전반에 대한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본 설문은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니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생이 응답한 정보는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 6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D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height: 30px;"></td> <td style="width: 15%; height: 30px;"></td> <td style="width: 15%; height: 30px;"></td> <td style="width: 15%; height: 30px;"></td> <td style="width: 15%; height: 30px;"></td> <td style="width: 15%; height: 30px;"></td> </tr> </table>						

A. 기본 사항

A1. 현재 살고 있는 지역?

-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 ⑦ 울산 | ⑧ 세종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⑰ 제주 | |

A2. 성별?

- | | |
|-----|-----|
| ① 남 | ② 여 |
|-----|-----|

A3. 재학 중인 학교급?

- | | | |
|-----------|-----------|-----------|
| ① 초등학교 재학 | ② 중학교 재학 | ③ 고등학교 재학 |
| ④ 중학교 중퇴 | ⑤ 고등학교 중퇴 | |

A3_1.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 | | |
|--------------------|----------------------|
| ① 일반고(특목고, 자사고 포함) | ② 비일반고(실업고, 마이스터고 등) |
|--------------------|----------------------|

A4. 현재 학년?

- | | | |
|-------|-------|-------|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 ④ 4학년 | ⑤ 5학년 | ⑥ 6학년 |

A5. 종교?

- ① 기독교(개신교) ② 불교 ③ 가톨릭(천주교)
④ 무교 ⑤ 기타

A6. 최근 1년 동안 성취한 학업성적?

-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A7. 학교생활 만족도?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 ⑤ 매우 불만

A8. 학급 내 학업 성적(2013학년 2학기)?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A9. 부모님의 교육수준?

아버지			어머니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석사, 박사)		④ 대졸	⑤ 대학원졸(석사, 박사)	

A10. 가정 경제 수준?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11. 가정의 분위기?

- ① 전혀 화목하지 않다 ② 화목하지 못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화목한 편이다 ⑤ 매우 화목하다

A12. 친척 중 남북 이산가족 유무?

- ① 있다 ② 없다

B. 북한에 관한 질문

B1. 북한에 대해 들어본 적?

- ① 있다 (☞ B1_1과 B1_2로 가시오) ② 없다 (☞ B2로 가시오)

B1_1. 주로 듣는 통로?

- ① 신문 ② TV 뉴스
③ 북한 방송이나 라디오 ④ 북한 영화나 소설
⑤ 학교수업에서 ⑥ 부모님에게서
⑦ 친구들에게서 ⑧ 인터넷

B1_2. 북한 이야기 상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이야기 하는 편이다	많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1) 부모	①	②	③	④	⑤
(2) 교사	①	②	③	④	⑤
(3) 친구	①	②	③	④	⑤
(4) 조부모	①	②	③	④	⑤

B2. 북한은 우리(남한)에게 어떤 대상?

- ① 우리(남한)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 ② 우리(남한)와 힘을 합쳐 서로서로 도와야 할 대상이다
- ③ 우리(남한)와 좋은 마음으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 ④ 우리(남한)가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다
- ⑤ 우리(남한)의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위험대상이다
- ⑥ 우리(남한)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는 대상이다

B3. 북한에 대한 관심 정도?

- ① 관심이 전혀 없는 편이다 ②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⑤ 관심이 매우 많은 편이다

B4. 북한에 대한 지식?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1) 북한 말(언어)	①	②	③	④	⑤
(2) 정치	①	②	③	④	⑤
(3) 사회 특성	①	②	③	④	⑤
(4) 주민들의 생각	①	②	③	④	⑤
(5) 생활 수준	①	②	③	④	⑤
(6) 문화 수준	①	②	③	④	⑤
(7) 경제 수준	①	②	③	④	⑤
(8) 교육 수준	①	②	③	④	⑤

C. 통일에 대한 생각

C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 ① 필요하다 (☞ C1_1로 가시오) ② 필요하지 않다 (☞ C1_2로 가시오)

C1_1. 통일이 필요한 이유?

- ① 세계 강대국 되기 위해
- ② 같은 민족
- ③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
- ④ 북한 사람들의 인권보호
- ⑤ 평화롭게 살기 위해

C1_2.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① 관심이 없어서
- ② 현재가 좋아서
- ③ 같은 민족이 아닌 것 같아서
- ④ 사회 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
- ⑤ 북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 ⑥ 안전에 위험

C2. 통일이 남한과 북한에 줄 이익?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남한	①	②	③	④	⑤
북한	①	②	③	④	⑤

C3. 통일 후 예상되는 삶의 변화?

- ①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② 어려워질 것이다 ③ 변화가 없을 것이다
- ④ 좋아질 것이다 ⑤ 매우 좋아질 것이다

C4.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

- ① 국가 경제 어려움
- ② 집의 부족
- ③ 교육 문제
- ④ 경제적 격차
- ⑤ 지역 간 갈등
- ⑥ 이념 차이
- ⑦ 사회 혼란

C5. 통일을 위해 중요한 과제?

- ① 남북 상호간의 신뢰
- ② 남북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 ③ 평화협정 체결
- ④ 북한의 자유화와 개방
- 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 ⑥ 남한의 경제 발전
- ⑦ 주변국의 협조
- ⑧ 준비 필요 없음

C6. 남북한 간 전쟁 위험?

- ① 매우 크다
- ② 일부 있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거의 없다
- ⑤ 전혀 없다

D. 북한 청소년에 대한 생각

D1. 탈북 청소년에 대한 들어본 적?

- ① 있다 (☞ D1_1로 가시오)
- ② 들어본 적 없다 (☞ D2로 가시오)

D1_1. 탈북 청소년에 대한 느낌?

- ① 신체적으로 작다
- ② 촌스럽다
- ③ 측은하다
- ④ 조숙하다
- ⑤ 가난하다
- ⑥ 순수하다
- ⑦ 전투적이다
- ⑧ 우리와 별 차이 없을 것이다
- ⑨ 폐쇄적이다
- ⑩ 로봇 같다

D2.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 ①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② 친근하게 느껴진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⑤ 전혀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D3. 남북한 청소년 간에 차이?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1) 언어	①	②	③	④	⑤
(2) 사고방식	①	②	③	④	⑤
(3) 미래 전망	①	②	③	④	⑤
(4) 진로	①	②	③	④	⑤
(5) 가정환경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⑤
(7) 친구관계	①	②	③	④	⑤
(8) 문화생활	①	②	③	④	⑤
(9) 학력수준	①	②	③	④	⑤
(10) 여가생활	①	②	③	④	⑤

D4. 북한 청소년 응대?

- ① 환영하여 대하겠다 ② 담담히 대하겠다
③ 대화를 피하겠다 ④ 무조건 피하겠다 ⑤ 안전하다면 대화 하겠다

D5. 북한 청소년 친구 가능성?

① 친구로 사귀겠다

② 친구로 사귀지 않겠다

D6. 각국 청소년 호감도와 친밀도?

	호감도					친밀도				
	전혀 좋게 생각 되지 않는다	별로 좋게 생각 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좋은 것 같다	매우 좋은 것 같다	전혀 가깝게 느껴 지지 않는다	별로 가깝게 느껴 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가깝게 느껴 진다	매우 가깝게 느껴 진다
미국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유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중국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일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북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

E1. 남북한 청소년 교류?

① 교류해야 한다(☞ E1_1로 가시오)

② 교류에 반대한다(☞ E1_2로 가시오)

E1_1.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태도?

- ① 모든 차원에서 추진해야한다
- ②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한다
- ③ 민간차원 추진해야한다
- ④ 북한이 청할 때 추진해야한다

E1_2.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반대 이유?

- | | |
|--------------|-----------|
| ① 안전문제 | ② 언어가 달라서 |
| ③ 생각이 맞지 않아서 | ④ 신뢰가 낮아서 |

E2.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

- ① 있다 (☞ E2_1로 가시오) ② 없다 (☞ F로 가시오)

E2_1. 참여 활동?

- | | | |
|-----------------|----------|--------|
| ① 음악 미술 등 예술 활동 | ② 문학 | ③ 교육 |
| ④ 관광 및 견학여행 | ⑤ 스포츠 | ⑥ 역사 |
| ⑦ 대중매체 | ⑧ 유적지 답사 | ⑨ 종교 |
| ⑩ 초청 강연 | ⑪ 상호 방문 | ⑫ 신문교환 |

E2_2. 교류 빈도?

- | | | |
|--------|-----------|--------|
| ① 연 1회 | ② 연 2회 | ③ 연 3회 |
| ④ 연 4회 | ⑤ 연 5회 이상 | ⑥ 수시로 |

E2_3. 교류 장소?

- | | | |
|---------------|--------------|--------------|
| ① 남한 | ② 북한 | ③ 남한과 북한 번갈아 |
| ④ 판문점(공동경비구역) | ⑤ 주변 국가 - 중국 | ⑥ 주변 국가 - 일본 |

E3.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서 동질감 분야?

- | | | |
|---------------|----------|------|
| ① 연극, 음악 등 예술 | ② 문학 | ③ 교육 |
| ④ 전통문화 | ⑤ 체육 | ⑥ 역사 |
| ⑦ 종교 | ⑧ 유적지 답사 | |

F. 평소시의 생각

번호	문 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비록 내가 선물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끔 TV에서 슬픈 장면을 보면서 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동물들이 다친 것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가 울면 위로해주고 싶기 보다는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5	생일날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친구를 보면 나도 기뻐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떤 노래를 들으면 너무 슬퍼서 울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친구가 어떤 일로 마음에 상처받는 것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8	개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감정을 가진 듯이 다루는 것은 바보 같다.	①	②	③	④	⑤
9	이사를 간 친구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흐뭇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친구가 울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울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것을 보면 나도 괜히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사람들이 슬픈 영화나 책을 보고 우는 건 우스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휴일에 가족과 함께 놀러 가는 친구를 보면 내 마음도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가끔 슬픈 영화나 책을 보고서 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길에서 큰 개를 만났을 때 무서워하는 친구를 보면 바보 같다.	①	②	③	④	⑤
16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상을 못 받았을 때에도 친구가 상을 받는 것을 보면 기쁘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 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8	어른들은 가끔씩 슬픈 일이 없어도 운다.	①	②	③	④	⑤
19	귀신이나 괴물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무서워하는 친구를 보면 바보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과자를 먹을 때, 그 과자를 먹고 싶어서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그 과자를 혼자 다 먹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Abstract

Research on Youth Exchanges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is study has its purpose to enable the exchange of youth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the future leaders of our society is to contribute to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future and provide a unified Korea policy, future-oriented and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For this study, literature, expert advisory council, expert workshops, survey on youth of South and North Korea exchange, mutual understanding, awareness of the unification-related, policy council, etc. were carried out. In particular survey was carried out by a 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a total of 2000 people targeting high school students from 3rd grade 4th grade elementary schools across the country.

The main findings are presented largely divided into five areas. First, access path and think about North Korea. Second, the need for unity and understanding relationship, think about unification, third, think about the future such as youth fellowship, the fifth, was proposed by analyzing the emotional empathy with youth of North Korea.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y alternatives in four areas, that is policy purpose, policy issues, propulsion system, budget, expected effects. And it present conclusions about the overall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Key words: youth of South and North Korea,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utual understanding of South and North Korea, unity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 임희진·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Ⅱ / 이경상·박선영·조남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정주·김정숙
- 14-R0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조흥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이창호·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조혜영·이태주·이덕난
-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윤나
- 14-R14-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이호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분석 / 김지경·하현주·김옥태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임영식·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신현옥·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오해섭·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맹영임·문호영
- 14-R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황진구·모상현·정은주·강현철·한영근·허효주·문은옥·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자원방안 연구Ⅱ / 윤철경·서장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장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자원방안 연구Ⅱ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자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중상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김지연·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김혁진·김범구·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하지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이종원·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강태훈·류성창·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오해섭·백혜정·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김동일·김태완·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윤철경·최금해·김옥태
- 14-R49 2014년 도래조정사업 / 서정아·김영한·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조혜영·김용훈
- 14-R52 신고·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I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자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길 은 배 (한국체육대학교·교수)

김 정 원 (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 자문·협력진 ◆

한 만 길 (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위원)

신 두 철 (한양대학교·연구교수)

연구보고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I) : 총괄보고서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쇄처 범신사 전화 02) 503-87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415-2124(정보자료·전산보안팀)

ISBN 979-11-5654-013-7 94330

979-11-5654-012-0 (세트)